

# 신앙과 학문

제22권 제4호 (통권 73호)

기독교학문연구회

## 신앙과 학문

제22권 제4호 (통권 73호), 2017년 12월호.

이 학술지는 2016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This journal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OE)

발행일/2017년 12월 31일

발행처/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유재봉(성균관대학교)

편집인/손병덕(충신대학교)

편집, 제작/오혜정

인쇄/진흥인쇄랜드

등록/문화 바02789

ISSN 1226-9425

주소/08807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939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02-3272-4967

팩스/0303-0272-4967

전자우편/gihakyun@daum.net

홈페이지/<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 ■ 일반 논문

기독교 대학생의 영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고기숙 · 5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Spirituality of Students in Christian College | Ki-Sook Ko

교회 내 장애인 부서의 운영 실태와 통합교육에 대한  
담당 교사들의 인식 | 김기흥 · 35

The Actual Operating Situation of the Disability Department and  
the Perception of the Homeroom Teachers on  
Inclusive Education in the Church | Ki-Heung Kim

이슬람권과의 문화 산업 교류 방안 연구

-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을 중심으로 - | 김성규 / 김형길 · 69

A Study on Cultural Exchange between Muslim Countries and  
Cultural Industries

- Focusing on Aceh region in Indonesia -  
| Sung-Kyu Kim / Hyung-Gil Kim

윤동주 십자가에 나타난 실존적 자기실현 | 배지연 · 105

An Existential Self-Actualization from  
Yoon Dong-Ju's "The Cross" | Jiyeon Bae

기독교 교육적 인재 덕목과 성령의 사역 | 이 란 · 129

Christian Educational Virtues of Competent Persons and the  
Works of the Holy Spirit | Ran Lee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본 <서서평>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 이 란 / 지상선 · 161

A Semiotic Analysis on <Shepping> From the Perspective of  
Neighborly Love and Self Love | Ran Lee / Sang Sun Ji

엠덴(Emden)의 종교개혁과 변혁에 관한 역사적 고찰 | 최용준 · 197

A Historical Research on the Reformation in  
Emden and its Transformation | Yong Joon (John) Choi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기독교 유아양성 교회교육 실천방안 연구 | 허계형 · 227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Church Education to  
Teach Young Christians Leading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Kay-Heoung Heo

## 기독교 대학생의 영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Spirituality of Students in Christian College

고기숙 (Ki-Sook Ko)\*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to improve the spiritual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by analyzing the effect of volunteer activities, smartphone addiction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ristian college students on spiritual develop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tudents attending Christian University. The survey period was from September 2012 to December 31, 2013. Data analysis was done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rough SPSS.

The results are as follows.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family economic level, church attendance, church attendance period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piritual development.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volunteer activities, duration of volunteering activ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piritual develop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spiritual development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at various efforts should be made to promote church attendance and encourage volunteer activities for promoting the spiritual development of students in Christian college. In addition, it suggested the further research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spiritual development.

**Key Words :** Christian college, university students, spiritual development, volunteer activities, smartphone addiction, church attendance

이 논문은 2017학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Baekseok University),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암로 76, ksko@bu.ac.kr  
2017년 08월 05일 접수, 12월 05일 최종수정, 12월 20일 게재확정

## I. 서론

대학생들은 최근 우리 사회의 무한경쟁 체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미래에 대해 극심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불안감은 최근 악화된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고용불안, 취업난으로 인한 진로 스트레스 등의 문제들과 무관하지 않겠으나, 과거에도 일부학자들 사이에서 대학생들의 심리적 공허와 불안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과는 달리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막상 그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심리적 불안과 방황, 공허를 느끼며, 삶의 의미와 목적도 불분명하다(박선실·이준석, 2002)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과반수 이상이 실존적 공허 상태에 있고(김유진, 1996),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자살을 시도하려고 할 정도로 정서적으로 취약하다(최순옥·김숙남, 2011; 강은정·이재희, 2013)는 주장도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학생들은 학업 등 여러 삶의 문제에 대한 낮은 대처능력으로 인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rry & Adams-Thompson, 2008)<sup>1)</sup>. 이런 주장들을 볼 때, 우리 사회의 대학생들 중에서 삶의 의미와 꿈을 찾기 보다 점점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감과 좌절감, 우울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게 된다.

대학생들은 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이니 만큼,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모두는 대학생들이 현실의 장벽과 정서적 취약함을 딛고, 무난하게 성인의 단계로 진입하여 개인의 독립성, 자주성을 확보하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여 무기력과 실존적 공허감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조삼복·김성희, 2012), 대학생의 영성 발달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왜 영성발달을 돕고자 하는가? 그동안 많은 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영적 성장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활발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다(Krause et al., 2013; Mollitor et al., 2015). 영성은 인간에 대한 통합적,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

---

1) 미국에서도 17-27세 대학생들의 우울증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ACHA)에 의하면, 설문조사에 응한 16,000명 이상의 학생들 중 10%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여성과 남성의 각각 3.3%와 1.7%가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38 %가 우울증을 앓았다고 답했다(Berry & Adams-Thompson, 2008).

도록 돕고, 자기 이해와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내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오윤수 · 정현태, 2013)이다. 양은미(2012)에 의하면, 영성이 발달한 학생일수록 대학에서 일반적인 교양 및 보편 지식을 추구하고, 새롭고 흥미로운 것에 몰두하며, 삶의 목표를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휴먼서비스 분야에서도 영성은 안녕감, 정신적 건강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조삼복 · 김성희, 2012). 몇몇 연구에 의하면, 종교성은 우울증 가진 개인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McCullough & Larson, 1999), 영성은 우울증에 대한 스트레스의 효과를 완충시킨다(Berry & Adams-Thompson, 2008)고 보고되고 있다.

영성발달의 중요성은 그동안 주로 중 ·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조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 대학생들의 영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양은미(2012)에 의하면, 최근 대학의 상황이 취업 위주의 직업 교육으로 변화해 가는 상황에서도, 대학생들은 영성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삶의 의미와 목표를 탐색하며 영적 성장을 위한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기독교적 가르침은 빈곤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성숙한 종교인으로서 사회의 책임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김유경 · 김미경, 2013), 대학생의 영성 발달이 성적, 심리적 안녕, 리더십, 대학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Austin et al., 2011, 양은미, 2012, 재인용).

영성발달을 돕기 위한 노력에서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영성발달과 관련된 주요 요인을 밝히는 일이다. 사회기관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할 경우, 개인의 안녕은 물론, 종교적 신념과 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 Meier and Stutzer(2008)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타인을 돕는 것은 더 나은 개인적 안녕을 위한 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은 사람들 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음을 발견하였다. Kim(2006)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밝혔는데, 이는 사회적 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종교적 신념과 동기의 변화가 오고, 종교적 활동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원봉사 참여는 인적 자원, 사회적 상호작용, 종교성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한 학자들도 있다(Wilson and Musick, 1997). 우리나라 연구들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이 영성발달에 관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주장들이 있다. 박현정(2005)은 자원봉사활동의 유지기간이 길수록,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일수록 영성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영성발달과 관련한 요인으로, 최근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일상생활, 문화, 관계 등을 바꾸어 놓은 스마트폰 사용 특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스마트폰 사용과 영성발달의 관계는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승범(2015)에 의하면, 많은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등과 같은 첨단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면서 고독의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고독의 훈련을 강조하였다. 고독의 훈련이란 스마트폰이 만들어 내는 소음으로부터 떨어져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고독 능력의 회복이 청소년들의 신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고독의 훈련을 통해 자신, 타인, 하나님과의 관계 능력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Ko(2015)는 대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탐닉하면서 스마트폰이 우상이 되어감을 느끼고, 영적 죄의식의 둔감화, 영적 생활의 방해, 신앙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어떤 연구자들은 영적 안녕감 중에서 실존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낮아짐을 주장하기도 하였다(박진희·전요섭, 2013; 박명준·신성만, 2014).

이외에도 다양한 일반적 특성들이 영성발달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고학년일수록, 영적 건강이 높고(이화인, 2002), 가정의 경제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신앙성숙이 가장 높았고, 경제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성숙성숙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도 있다(정숙희, 2013). 그동안 기독교 대학생의 영성과 관련하여 그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기독교 대학생(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독교 대학생의 영적 안녕, 신앙성숙도, 자살생각, 행복감, 스마트폰 과다 사용문제, 삶의 만족도 등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다(공은숙·서혜석, 2010; 이성범, 2011; 박진희·전요섭, 2013; 강은정·이재희, 2013; 정숙희, 2013; 신승범, 2015; 백은령·손병덕, 2017). 이런 연구 경향을 볼 때, 기독교 대학생의 영성발달에 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또한 관련된 주요 요인들을 밝혀내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대학 재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스마트폰 중독, 일반적 특성들이 영성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대학생의 영성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정된 연구문제는 첫째, 자원봉사활동은 영성발달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가? 둘째, 스마트폰 중독은 영성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어떤 일반적인 특성들이 영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영성의 개념

영성은 기독교 분야 뿐 아니라, 일반적인 학문 분야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 중 사회복지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Canda(1990)는 광의 차원에서 볼 때, 영성은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면들을 포괄하는 인간 삶의 과정으로서, 인간다움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좁은 의미에서 영성은 개인 및 집단 체험의 영적인 요소와 관련된 것으로, 개인이 의미를 추구하고, 자신, 타인, 우주, 존재적 근거, 윤리적으로 성숙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여기에서 영성은 어떤 특정한 종교, 사상, 신학 등에 제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인 사회복지학자 Charlotte Towle(1945)는 인간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물질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면들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하면서, 영성은 영적 욕구들, 교회 중심적인 자원 활용, 삶의 의미, 목적의식의 개발, 사회적 책임감의 형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박승희·이혁구 외 역, 2003: 111~115, 재인용). 정숙희(2013)는 그의 연구 전반에서 영성은 인간의 전인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자신, 사회,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삶이 활기차고 목적을 가지며, 충만한 느낌을 갖는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영성은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가지며, 자아초월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믿음의 공동체와 더 넓게 이웃 및 사회와 조화로운 관계성을 추구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영성발달 관련 요인들

### (1) 자원봉사활동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과 영성발달<sup>2)</sup>의 관계는 주로 영성 발달이 잘 이루어질수록 개인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더욱 참여한다는 것이었다. 관련된 주장들을 보면, 자원봉사가 종교성과 안녕감 사이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중재하고, 신앙심을 가진 종교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안녕감도 더 높다(Mollidor et al., 2015). 종교적 가치는 자원봉사의 동기를 강화하고, 자원봉사 의욕을 높인다(Hoge et al. 1998; Johnston, 2013). Kim(2006)은 1998년 General Social Survey 자료를 사용하여, 영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영성과 자원봉사활동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영성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 높은 수준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개인 내적인 자아로 축소되기보다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종교성을 실천한다고 볼 수 있다.

예배 등의 종교 활동은 모든 인간관계, 정의, 사회에 대한 신학적, 인본주의적 시각을 갖게 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한다(Hill & Dulk, 2013)는 주장이 있다. 어떤 연구자들에 따르면, 개인이 종교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종교적 네트워크에 속해 있을 경우, 자원봉사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한다(Lima & MacGregorb, 2012). 이를 풀이하면, 종교 조직 및 기관들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사람이 그 종교 기관(종교적인 대학, 종교적 성격을 가진 모임이나 조직 등)에 속해 있을 경우, 그 기관(조직)에서 운영하는 사회봉사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자들도 청소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의 개인들이 종교 공동체에 참여할 경우, 자원봉사, 다양한 시민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고 보았다(Toppe et al., 2002, Hill & Dulk, 2013, 재인용). 미국의 경우, 많은 교회들이 자원봉사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이웃 사랑, 이타주의를 실현하는 자원봉사활동에 관여하고 있다(Lincoln & Mamiya 1990, Hill & Dulk,

---

2) 영성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종교적인 전통에서 기원을 추적할 수 있는데, 라틴어의 spiritus에서 유래하였다. 영성은 인간의 깊은 내적 의식이고, 우주가 거하는 성스러운 장소를 의미한다. 또한 영적 개인은 도덕적 질서를 추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도덕적 이상을 실천하므로, 영성은 도덕성과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다(Kim, 2006).

2013, 재인용).

지금까지는 영성이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연구들을 보았다면, 이제부터 자원봉사활동이 영성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의 연구들이 비록 관계의 방향은 다를지라도, 두 변수간의 관련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검토라고 생각한다.

Kim(2006)은 영성과 자원봉사활동 두 변수의 인과관계의 방향이 서로 바뀌는 것도 성립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사회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자원봉사의 동기와 정신을 증가시키고, 종교성에 영향을 주면서 종교기관에 더 적극적으로 출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현정(2005)은 자원봉사활동과 영성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자원봉사활동의 여러 특성들이 영성 수준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봉사활동 유지 기간이 길수록, 정기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일수록 영성의 정도가 높다. 그리고 자원봉사 업무 적절성, 자원봉사 대상자와의 관계만족, 자원봉사 동료와의 관계 만족, 자원봉사 직원과의 관계 만족이 영성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강태선(2015)은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성, 영성, 사회적 책임성의 관계를 다루면서, 자원봉사활동이 영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종교가 있는 청소년이 없는 경우보다 사회적 책임성, 영성, 자원봉사 횟수, 참여수준, 필요성, 만족도, 지속성이 높다고 하다.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자원봉사활동과 영성발달의 관계를 조사해보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 (2) 스마트폰 중독

최근 기독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교적 영역에도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은 거세게 밀려 들었다. 현재 인터넷, 스마트폰의 발달로 수많은 성경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들이 개발되어 있고, 전세계 수십억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 성경 앱에서는 강력한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말씀을 매우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공부할 때, 비디오를 클릭하면 수많은 상호작용 요소가 작용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내용이 펼쳐진다(Crosby, 2012). 즉, 기존 성경은 문자로만 되어 있는데 반해, 스마트폰 앱에서는 다양한 화면, 게임, 영상, 상호작용 요소들을

통해 입체적, 실체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스마트폰의 출현에 따라 종교, 신앙생활의 지평도 크게 달라졌고, 여기에는 긍정적이고 편리한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손 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록 더 기기에 의존, 중독되어 갈 수 있다는 맹점이 도사라고 있다. 싱가포르 대학생 551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더 심한 기기 의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모바일 인터넷 사용, 문자 메시지 활용이 스마트폰 의존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Lin et al., 2015).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이 개인의 영적 생활을 저해하고 있음을 우려하는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다. 박진희·전요섭(2013)은 신령한 예배 시간에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을 함으로써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공동체 지체들과의 교제 및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등 신앙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이 영성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면, 고도로 발달된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이 개인의 자아성장 및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주장이 있다. Keen(2012)은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이 개인의 자아성장 및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신승범, 2015, 재인용). 개인들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경우, 고독과 관계의 능력을 침범당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신, 이웃,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신승범, 2015). 기독교 대학생들이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심리·영적 갈등 경험을 연구한 Ko(2015)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은 스마트폰이 자신의 우상이 되어가는 듯하고, 과다한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죄의식의 둔감화, 영적 생활의 방해, 신앙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명준·신성만(2014)은 영적 안녕감이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중독(인터넷 게임, 사이버 섹스, 스마트폰 중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영적 안녕감 중 실존적 안녕감이 세 유형의 디지털 미디어 중독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반면, 종교적 안녕감은 디지털 미디어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종교적 안녕감은 수직적 차원으로 신과의 관계 속에서 신이 자신을 돌봐주고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고, 실존적 안녕감은 수평적 차원

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고, 삶에 대한 만족감과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의미한다(Paloutzian & Ellison, 1982, 박명준·신성만, 2014, 재인용). 박진희·전요섭(2013)의 연구에서도, 기독교 청년들의 영적 안녕감 중에서 종교적 안녕감은 스마트폰 중독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고, 실존적 안녕감과 스마트폰 중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이상 두 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종교적 안녕감은 스마트폰 중독과 어떤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고, 실존적 안녕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의식을 갖지 못하고, 삶에 대한 회의, 현실 불만족,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경우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중독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스마트폰 중독과 영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고, 아직 초기 단계라서 어떤 확실한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영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해 보는 일은 필요하다고 본다.

### (3) 일반적 특성

다양한 일반적 특성들이 영성발달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학년에 따른 영성발달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이화인(2002)은 고학년일수록, 종교가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영적 건강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김귀성(2014)의 연구에서는 학년별 차이에서 영성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기독교 청소년의 학교 성적이 삶의 만족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가 있는데(백은령·손병덕, 2017), 이 연구의 경우 비록 종속변수가 삶의 만족도이나, 영성이 삶의 만족도를 포함하며 아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참고해 볼 만하다고 판단하였다.

경제적 상황과 관련하여, 정숙희(2013)의 연구에서 신앙성숙은 경제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경제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의 성숙성숙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또, 기독교 청소년의 가정형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백은령·손병덕, 2017)를 볼 수 있다.

종교적 특성과 관련하여 노인의 영적안녕, 영적요구 및 우울 간의 관계를 연구한 송

민선·김남초(2011)에서, 영적안녕은 종교가 없는 경우에 비해 종교가 있는 경우에 점수가 높았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종교 유무에 따라 영성(평정심, 영적 자각, 보편적 세계관)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양은미, 2012). 도박을 위해 사행산업시설을 이용하거나, 단도박을 위해 병원이나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교 유무에 따라 영성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심수현, 2012). 종교가 있는 학생들과 종교가 없는 학생들을 비교한 연구에서, 영적안녕정도는 종교가 있는 학생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숙희·유장춘, 2006). 종교의식 참여 정도에 따라 영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종교 활동을 활발하게 참여할수록 영성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이명화·강희경·박진경, 200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 특성 변수들 중에서 학년, 학업 성적, 경제적 수준, 종교적 활동 수준 등이 영성발달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파악해 볼 수 있다.

### Ⅲ.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문헌 검토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 특성들(자원봉사 참여 여부,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자원봉사활동 참여 기간), 스마트폰 중독, 일반적 특성들(학년, 학교 성적, 가정경제수준, 교회출석유무, 출석기간, 스마트폰 하루사용시간 등)이 영성발달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 내었다. 이에 독립변수들은 자원봉사활동, 스마트폰 중독, 일반적 특성 변수들로 선정되었고, 종속변수는 영성발달로 선정되었다. 참고로 회귀분석에서는 경로분석과 달리 독립변수들은(자원봉사활동, 스마트폰 중독, 일반적 특성) 독립적 관계를 가지므로, 어떤 관계설정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변수들의 관계를 모형으로 도식화하면 다음 Figur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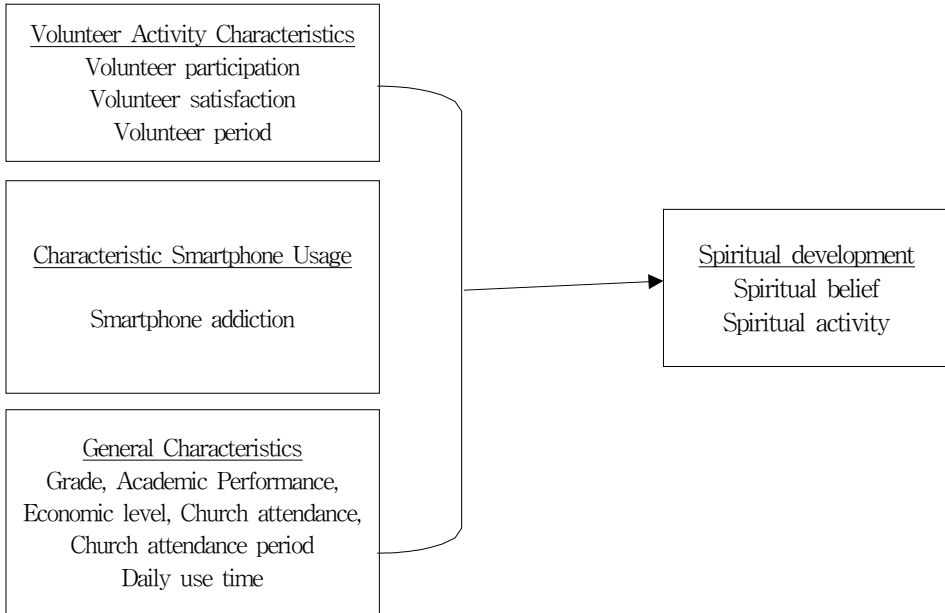


Figure 1. Study Design

## 2. 연구의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충남 지역 소재 4년제(B, H, N, S 대학교) 및 2년제(B, K 대학) 기독교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sup>3)</sup> 자료수집 방법은 비확률표집법 중 의도적 표본추출<sup>4)</sup>을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각 대학의 교수, 강사들을 섭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 자료 수집을 의뢰하였다. 또, 연구자가 직접 대학생들을 접촉하여 설문 배포 및 작성을 의뢰하였다.

3) 본 연구의 대상은 기독교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다양한 종교 혹은 무교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이 학생들은 비기독교인들이라 하더라도, 대학에서 실시하는 채플, 기독교 관련 교양, 인성 선교 및 기독교적 상담 활동을 다양하게 접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이라는 결단을 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기독교적 영성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였기에, 이들을 포함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

4) 의도적 표본추출방법은 연구자의 의도에 의해 ‘전형적이라고 판단되는’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이다(김영중, 2001: 333).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대학, 학부, 전공(학과) 등을 고려하여 표본추출을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이고 총 820부의 설문을 수집하였다. 그 중 부실 응답 설문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은 702부이다.

### 3. 측정도구

#### (1) 영성 발달

영성발달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신앙심 척도(The Shepherd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Basset, Sadler, Kobischen, Skiff, Merrill, Atwater, and Livermore(1981)이 제작하였고, 이성범(2011)이 번안한 것이다. 이 척도는 기독교인의 신념 차원(믿음의 기초적인 주제)과 행동차원의 문항들(기독교인으로서 행동, 가치, 태도 포함),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문항의 예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고 그것을 매일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평안, 확신, 소망과 같은 것들을 얻는다고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함으로써 영생을 얻는다.’ ‘나는 신앙과 가치관이 나와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한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8$ 로 높은 수준이었다.

#### (2) 스마트폰 중독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마트폰 중독 척도는 강희양과 박창호(2012)가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척도이다. 이 척도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고,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5점 척도이고, 하위 요인은 몰입(6문항), 생활문제(5문항), 일상성(4문항), 과용(6문항), 관계성(2문항) 등이다. 5점에 가까울수록 중독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를 한가지씩 들어 보면, ‘몰입’의 문항 예로는, ‘스마트폰으로 경험하는 세상 혹은 삶이 더 의미가 있다’가 있고, ‘생활문제’는 ‘스마트폰 때문에 학교생활이나 학업에 문제가 있다’가 있다. ‘일상성’은 ‘스마트폰을 하다 보면 눈이나 손목 등에 통증을 느낀다’가 있고, ‘과용’은 ‘스마트폰에 투입하는 비용이 생활에 부담을 준다’가 있다. ‘관계성’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친구와 친하다’가 있다. 참고로, 본 척도는 스마트폰 중독 연구 분야에서 초기 척도로 절단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alpha = .92$ 로 나타났고, 하위 요인



들의 경우에는 몰입은 .76, 생활문제는 .78, 일상성은 .77, 과용은 .70, 관계성은 .72였다.

### (3) 자원봉사활동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원봉사활동 특성 변수는 자원봉사 유무, 자원봉사만족도, 자원봉사활동기간이다. 자원봉사 유무는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음과 없음을 구분하여 질문한 후, 이를 더미변수 처리하였다(경험 있음 1, 경험 없음 0 처리)하였다. 자원봉사활동 만족도는 자원봉사활동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매우 만족한다(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질문하였다. 자원봉사활동기간은 지금까지 활동을 한 총 기간을 몇 년, 몇 월로 질문한 뒤, 분석 단계에서 월로 환산하여 투입하였다.

### (4) 일반적 특성들

일반적 특성들 중에서 학년은 '1~4학년' 중에서 해당하는 곳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학교성적은 응답자의 주관적인 평가로, '하, 중하, 중, 중상, 상' 중에 해당하는 곳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가정경제수준 역시 응답자의 주관적인 평가로, '하, 중하, 중, 중상, 상' 중에서 해당하는 곳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교회출석에 대하여 여부를 응답하도록 한 뒤, 더미변수(교회출석 1, 비출석 0) 처리하였다. 교회출석 기간은 년월로 질문한 뒤, 총 월수로 환산하여 처리하였다. 스마트폰 하루사용시간에 대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시간을 1, 2, 3...등 시간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를 통해 이루어졌다. 변수가 표준화된 척도로 이루어져 있는 스마트폰 중독 및 영성발달 문항들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Chronbach's  $\alpha$  값을 구하였다. 인구학적 특성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분석을 실시하였고,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자원봉사활동 특성, 스마트폰 중독이 영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enter방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분석

1. 인구학적 특성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345명(49.1%), 여자가 350명(49.9%)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나이는 만 20세 이하 327명(46.6%)로 가장 많았고, 만 21세가 77명(11.0%), 만 22세가 81명(11.5%), 만 23세가 94명(13.4%), 만 24세 이상이 117명(16.7%)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이 227명(32.3%), 2학년이 246명(35.0%), 3학년이 135명(19.2%), 4학년이 80명(11.4%)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 284명(40.5%), 천주교 49명(7.0%), 불교 28명(4.0%), 기타 3명(.4%), 없음이 333명(47.4%)으로 없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기독교였다. 교회 출석은 출석한다가 253명(36.0%), 출석하지 않는다가 411명(58.5%)이다. 교회출석기간은 평균 약 67.6개월로, 5년 조금 넘었다. 학교성적은 하가 31명(4.4%), 중하가 112명(16.0%), 중이 298명(42.5%), 중상이 182명(25.9%), 상이 67명(9.5%)로 중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중상, 중하, 상, 하 순이었다. 가정경제상태는 하가 34명(4.8%), 중하가 154명(21.9%), 중이 395명(56.3%), 중상이 101명(14.4%), 상이 9명(1.3%)로, 중이 절반 조금 넘었고, 그 다음은 중하, 중상, 하, 상의 순이었다. 스마트폰 하루 사용 평균은 7.6708시간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702		
Item	Category	Frequency(%)
Gender	Male	345(49.1)
	Female	350(49.9)
	Missing value	7(1.0)
Age	20 or less	327(46.6)
	21	77(11.0)
	22	81(11.5)
	23	94(13.4)
	24 or more	117(16.7)
	Missing value	6(.9)

<continued>

Item	Category	Frequency(%)
Grade	1	227(32.3)
	2	246(35.0)
	3	135(19.2)
	4	80(11.4)
	<u>Missing value</u>	<u>14(2.0)</u>
Religion	Protestnant	284(40.5)
	Catholic	49(7.0)
	Buddhism	28(4.0)
	Etc	3(4)
	None	333(47.4)
	<u>Missing value</u>	<u>5(7)</u>
Church attendance	Attendance	253(36.0)
	Nonattendance	411(58.5)
	<u>Missing value</u>	<u>38(5.4)</u>
Church attendance period	Mean: 67.60(month) SD: 102.41	
Academic Performance	Very low	31(4.4)
	Low	112(16.0)
	Middle	298(42.5)
	High	182(25.9)
	Very high	67(9.5)
	<u>Missing value</u>	<u>12(1.7)</u>
Economic level	Very low	34(4.8)
	Low	154(21.9)
	Middle	395(56.3)
	High	101(14.4)
	Very high	9(1.3)
	<u>Missing value</u>	<u>9(1.3)</u>
Daily use time of smartphone	Mean: 7.08(hour) SD: 5.97	

## 2. 주요 변수 분석 결과 및 상관관계표

주요 변수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자원봉사활동 특성 변수 중 자원봉사유무는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291명(46.0%), 없는 경우가 323명(41.5%)이었다. 두 응답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자원봉사 만족도는 3.69로 보통 수

준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기간은 평균 21.78개월이었다. 스마트폰중독의 하위 요인 중 몰입의 평균은 1.76, 생활문제의 평균은 2.11, 일상성의 평균은 2.38, 과용의 평균은 2.22, 관계성의 평균은 1.66으로, 일상성이 가장 높고, 과용, 생활문제, 몰입, 관계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 전체 평균은 2.06으로, 보통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성발달의 평균은 2.68로 그렇지 않다와 보통 수준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702

Variables	Mean	SD	Minimum	Maximum
<u>Volunteer Activity Characteristics</u>	291(41.5%)			
Participation	323(46.0%)			
Nonparticipation	Missing Value: 88(12.5%)			
Volunteer satisfaction				
Volunteer period <sup>5)</sup>	3.69	.92	1	5
	21.78	27.64	1	240
<u>Characteristics of smartphone usage</u>	2.06	.60	1	4
Immersion	1.76	.63	1	4
Life problem	2.11	.68	1	4.60
Routine	2.38	.92	1	5
Overuse	2.22	.65	1	4
Relationship	1.66	.78	1	5
<u>Spiritual development</u>	2.68	1.04	1	4.98

다음은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학년의 경우, 교회 출석과 부정적 관계를 보였는데, 학년이 높을수록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교회출석기간과는 정적 관계를 보였는데, 학년이 높을수록 교회출석기간은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하루사용시간이 증가하였고, 학년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도 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의 경우, 성적이 높을수록 가정경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적

5) 본 연구에서 자원봉사활동기간은 총 개월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1개월 ~ 240개월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최대치에 가까운 값들은 응답자들 중에 소수 만학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높을수록 교회출석기간이 증가하였다. 성적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의 경우, 가정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교회출석기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회출석기간이 증가할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하루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에 참여할수록 자원봉사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원봉사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of major variables<sup>6)</sup>

	1	2	3	4	5	6	7	8	9	10
1. Grade	1.000									
2. Academic Performance	.072	1.000								
3. Economic level	.043	.114**	1.000							
4. Church attendance	-.090*	-.024	.038	1.000						
5. Attendance period	.144**	.128**	-.076*	-.068	1.000					
6. Daily use time	.111**	-.062	.017	-.043	-.022	1.000				
7. Participation	.109**	.184**	-.029	.081*	.148**	.111**	1.000			
8. Satisfaction	.063	.053	-.049	.002	.061	.025	.195**	1.000		
9. Volunteer period	.015	-.019	-.005	-.056	-.107	-.028	-.014	.170*	1.000	
10. Smartphone addiction	.017	-.047	.011	.044	-.043	.060	.067	.010	-.071	1.000

\*p<.05(2-tailed), \*\*p<.01(2-tailed), \*\*\*p<.001(2-tailed)

### 3. 대학생의 영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전 사전검토를 위해 종속변수인 영성발달의 정규분포성과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다. 영성발달 변수의 정규분포성은 SPSS 통계분석에서 제공하는 Stem and Leaf 분석과 왜도 및 첨도 수치를 통해 확인하였다. 영성발달 변수의 Stem and Leaf 분석(표준화잔차들의 정규분포를 보여주는 표)결과, 0을 중심으로 대체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편이었고(Stem and Leaf 그림은 지면관계상 생략함), 좀 더 확실히

6) 본 Table 3 및 아래 Table 4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들 중에 volunteer activity participation는 실제로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값이므로, 위 Table 2에서 제시하였듯이 표본수가 291임을 밝힌다.

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왜도 = .199(표준오차 .092), 첨도 = -.978(.184)으로, -2이상 2이하의 범주에 해당하였다. 이 경우 대체로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다변량 분석인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상관관계행렬을 조사하였다. 위의 Table 3에서 분석한 독립변수들간 관계를 보면, 자원봉사활동참여와 스마트폰중독, 자원봉사활동만족과 스마트폰중독, 자원봉사활동기간과 스마트폰중독의 상관관계는 각각 .067, .010, -.071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설정되어 종속변수와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독립변수들간의 낮은 관련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특성, 스마트폰 중독이 영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enter 방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Table 4와 같다. 모형적합도  $F=21.572(p=.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  $R$  제곱 =.525(수정된  $R$  제곱 = .501)이었다. 본 연구에 투입된 여러 독립변수들이 영성발달을 52.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들 중에서 학년의 경우,  $\beta = -.046$ ,  $t = -.923$ ,  $p = .357$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년과 영성발달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적의 경우,  $\beta = .084$ ,  $t = 1.619$ ,  $p = .107$ 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의 경우,  $\beta = -.105$ ,  $t = -2.010$ ,  $p = .046$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가정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영성발달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출석여부의 경우,  $\beta = .119$ ,  $t = 2.397$ ,  $p = .017$ 로 유의미하였다. 교회에 출석할수록 영성발달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출석기간의 경우,  $\beta = .677$ ,  $t = 12.884$ ,  $p = .000$ 로 유의미하였다. 교회출석기간이 증가할수록 영성발달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하루사용시간의 경우,  $\beta = -.032$ ,  $t = -.643$ ,  $p = .52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자원봉사활동 특성 중 자원봉사여부는  $\beta = -.035$ ,  $t = -.698$ ,  $p = .48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원봉사활동 여부와 영성발달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원봉사만족도의 경우,  $\beta = .020$ ,  $t = .396$ ,  $p = .692$ 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원봉사만족과 영성발달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원봉사 활동기간의 경우,  $\beta = .126$ ,  $t = 2.473$ ,  $p = .014$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원봉사활동기간이 증가할수록

영성발달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과 영성발달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beta=.018$ ,  $t=.364$ ,  $p=.716$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중에서, 자원봉사 유무와 스마트폰 중독 변수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수를 볼 때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선행연구와 다른 방향성을 보였다. 이런 이유들을 추정해 보면,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경우, 대학생들이 어떤 동기와 신념 없이 비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를 했다면, 아니면 자원봉사에 참여하기는 했어도 그 활동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원봉사 기관이나 담당자, 동료, 대상자들과 갈등을 경험했을 경우에, 자원봉사 참여 자체가 영성발달에 어떤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혹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또, 스마트폰 중독의 경우에, 성경읽기, 교회내 모임 활동 활성화, 신앙 및 네트워크 정보 공유 등의 활동을 하느라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여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섞여서 영성발달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추정치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대학생의 영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가정 경제수준, 교회출석여부, 교회출석기간, 자원봉사활동 기간 등임을 알 수 있다.

Table 4 Regression Analysis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Spirituality in College Students

Variables		Non-standardization		Standardization	t	p
		B	SE	$\beta$		
Constant		2.489	.681		3.656***	.000
General characteristics	Grade	-5.42E-02	.059	-.046	-.923	.357
	Academic Performance	9.891E-02	.061	.084	1.619	.107
	Economic level	-.142	.071	-.105	-2.010*	.046
	Church attendance,	1.365E-02	.006	.119	2.397*	.017
	Attendance period	6.715E-03	.001	.677	12.884***	.000
	Daily use time	-1.61E-03	.003	-.032	-.643	.521
Volunteer	Participation	-.322	.462	-.035	-.698	.486
Activity	Satisfaction	2.696E-02	.068	.020	.396	.692
Characteristics	Volunteer period	5.962E-03	.002	.126	2.473*	.014
smartphone addiction	Smartphone addiction	3.612E-02	.099	.018	.364	.716

\* $p<.05$ (2-tailed), \*\*\* $p<.001$ (2-tailed)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대학생들의 영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영성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 영성발달의 평균은 2.6768로 3점을 보통 수준으로 볼 때, 보통 수준 조금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공은숙·서혜석(2010)이 기독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영적 안녕 평균 72.03(100점 만점) 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영성발달 수준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대상이 기독교 대학교 재학생들이기는 하나, 앞서 밝혔듯이 비기독교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고 본다. 기독교 대학 학생들의 영성발달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더 요구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기독교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41.5%가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0년 기준, 호주의 자원봉사 통계를 보면, 18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의 27%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이 수치는 1995년 이후 10%이상 증가한 것이다(Volunteering Australia, 2012, Mollidor et al., 2015 재인용). 호주 보다 본 연구의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경험률이 더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자원봉사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21.4%로 나타났는데(볼런티어 21, 2011: 11), 이 결과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기독교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째, 대부분의 기독교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봉사센터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독교 관련 기관(학교 포함)들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경향과도 관련되어 보인다. 셋째, 본 조사에서는 지난 1년으로 국한하지 않고, 대학생활 동안으로 질문하였기 때문에,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겠다.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만족도는 보통~만족한다의 사이였고, 자원봉사활동기간은 평균 1년 9개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마트폰 하루 사용 시간 평균은 7.67 시간으로 나타났다. 2013년 모바일인터넷 이용 조사에 의하면, 스마트폰 하루 이용시간이 12-19세는 평균 2.60, 40대는 1.87시간, 50대는 1.57시간으로 나타났다(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신승범, 2015, 재인용).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월



썬 오랜 시간 동안 하루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스마트폰 중독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일상성이 평균 2.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과용의 평균은 2.22, 생활문제의 평균은 2.11, 몰입의 평균은 1.76, 관계성의 평균은 1.66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 전체 평균은 2.06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2점대 또한 ‘조금 그렇다’ 수준 이상이므로, 그냥 간과할 수는 없다. 하위 요인들 중에서 2점대 이상 요인들의 순서는 일상성, 과용, 생활문제 등인데, 일상성은 ‘스마트폰을 찾지 못하면 공황 상태에 빠지는 느낌이 들고, 스마트폰이 고장 나면 당황스럽고 멍해진다’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과용, 생활 문제 또한 말 그대로 지나친 사용,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다양한 생활문제들이 야기됨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연구 대상자들이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고, 더 들어가서 일부는 스마트폰 중독 및 의존에도 연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해 준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영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반적 특성들 중에서 가정경제수준, 교회출석 여부, 교회출석 기간 등이 영성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영성발달의 정도가 높고,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 영성발달의 정도가 높았으며, 교회출석기간이 길수록 영성발달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학년, 성적, 스마트폰 하루 사용 시간 등은 영성발달의 정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학년의 경우, 학년과 영성 발달의 관계를 보고한 이화인(2002)과는 상반되고, 학년에 따른 영성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김귀성(2014)의 연구와 비슷하다. 본 연구에서 학년이 영성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온 이유를 추정해 보면, 대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채플 이수, 기독교 과목 수강, 기독교 관련 동아리 활동 등이 늘어나지만, 그와 함께 다른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예, 성적문제, 진로문제, 이성문제, 병역문제 등)이 다가오면서, 일부 학생들은 심리적 불안, 의심, 회의 등을 겪으며 영성발달의 정체를 초래하였을 수 있다고 본다. 가정경제수준의 경우, 신앙성숙은 경제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경제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의 성숙성숙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정숙희(2013)의 연구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교회출석 여부, 기간 등은 영성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 결과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정숙희·유장춘, 2006; 송민선·김남초, 2011; 양은미, 2012; 심수현, 2012)의 주장과 일치하였다. 즉, 교회에 출석하고, 기간이 길수록 영성발달이 증진된다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특성 중에서, 자원봉사 유무 및 자원봉사 만족도는 영성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자원봉사활동기간은 영성발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원봉사활동과 영성발달의 관련성을 주장한 몇몇 학자들의 주장과 일치하였다(박현정, 2005; 강태선, 2015). 이 결과는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더 오래 참여할수록, 이타주의, 더 나은 세계에 대한 기여와 헌신의 느낌들이 생기면서, 영성발달의 증진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과 영성발달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이 영성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과 영성발달의 부정적 관계를 언급하거나 시사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Ko, 2015; 신승범, 2015)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영적 안녕감 중에서 종교적 안녕감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실존적 안녕감은 스마트폰과 부정적 관계를 가졌다고 보고한 연구들(박진희·전요섭, 2013; 박명준·신성만, 2014)과는 일부 일치되는 측면이 있다.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이 영성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연구(Ko, 2015)가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 스마트폰 중독과 영성발달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두 변수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영성 발달을 위한 제언을 하면, 첫째, 본 연구에서 기독교 대학생의 영성발달 수준은 보통 수준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기독교 대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예견했던 것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대학교 및 교회 차원에서 대학생들의 영성발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회출석 여부, 교회출석 기간 등이 영성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최근, 기독교 및 교회의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실추되면서 많은 청년과 대학생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이 영성 발달 차원에서 중요함을 시사해 주었다. 이

에 대학생들의 교회출석을 독려하고, 출석 기간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대학생과 교회의 접촉점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은 성인 초기의 단계로 일과 사랑의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따라서, 교회에서도 대학생들의 이런 발달적 과업을 인식하고, 기독교 진리 및 세계관에 입각하여 일과 사랑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독교와 일, 기독교와 사랑에 관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원봉사활동은 단지 참석 여부가 아닌, 활동 기간이 오래 될수록 영성발달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자원봉사활동 기간 동안 다양한 경험(대상자와의 만남, 의미있는 관계형성과 교류, 자원봉사를 통한 자기성찰, 보람 느끼기 등)을 하는데, 이런 점들이 영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교회 및 기독교대학 차원에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교회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기관들과 긴밀한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동기를 갖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자원봉사센터와 긴밀한 교류 협력 관계를 맺고 대학생들을 파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또 병원, 사회복지시설, 쉼터, 지역아동센터 등과도 연계하여 대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기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교회내 자원봉사 담당자 혹은 코디네이터가 대학생들을 자원봉사활동에 연결할 때 그들의 적성, 자아실현, 전공 등을 살펴서 그와 관련된 일감을 찾아서 연결하는 것이 좋다. 이런 활동과 더불어 교회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자원봉사활동의 원리, 방법, 사례 등을 연구하여 기독교에 기반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기독교대학에서 자원봉사활동을 관장하는 사회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새롭고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고, 참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소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영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찰해 보고, 그 의미를 잘 새기도록 돕는 시간을 갖도록 할 수 있다.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활동의 기간을 늘리기 위해, 기독교대학에서도 대학생들이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때, 대학생들의 흥미, 관심사, 재능, 능력, 진로 등을 고려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기독교에 기반한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원리, 방법, 사례 등을 교육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스마트폰의 영향은 일반 사회 뿐 아니라 종교계에도 아주 강하고 광범위하게 밀려 들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 세계에 수많은 성경 앱이 개발되어 있고, 수십억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Crosby, 2012). 성경 뿐 아니라, 예배, 종교모임, 활동도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즉, 기독교계에서도 신앙, 선교, 활동 전 영역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스마트폰으로 인한 부정적 폐해도 존재하고, 스마트폰의 긍정적 활용 측면도 함께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 혹은 중독이 영성발달에 일정한 경향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술이 더 발달하고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사람들에게 더 만능적이고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와 같이 사람에 대한 스마트폰의 위력과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중독과 영성발달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추후 종단연구 차원에서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영성발달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한계점으로 본 연구는 기독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적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연구이므로, 이 결과를 모든 기독교 대학 재학생 및 일반 대학교 학생들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앞에서 밝혔다시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자원봉사 유무, 스마트폰 중독의 경우에는 영성발달과 선행연구와 다른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들에 대해 추후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강은정 · 이재희 (2013). 기독교가 대학생의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적 안녕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 충남 1개 대학교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8(2), 7-32.
- [Kang, E. J. & Lee, J. H. (2013). Mediating Effects of Spiritual Well-being and Social Support in the Effect of Christianity on Suicidal Ide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 A Study of One University in Chungnam -. *Faith and Scholarship*, 18(2), 7-32.]
- 강태선 (2015).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성이 사회적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 -영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회와 사회복지**, 29, 51-68.
- [Kang, T. S. (2015). The Effect of Adolescents Volunteer Activity on Social Responsibility: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pirituality. *Church Social Work*, 29, 51-68.]
- 강희양 · 박창호 (2012).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563~580.
- [Kang, H. Y., & Park, C. H.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martphone Addiction Inventory.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1(2), 563~580.]
- 공은숙 · 서혜석 (2010). 기독교대학생의 영적 안녕, 공격성 및 행복감과의 관계. **한국 학교보건학회지**, 23(2), 266-275.
- [Kong, E. S. and Seo, H. S.(2010).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Spiritual well-being, Aggression, and Happiness of the Students in Christian Universitie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3(2), 266-275.]
- 김귀성 (2014). 대학에서 영성교육 과제와 전망: 원광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학과 철학**, 24, 45-75.
- [Kim, K. S. (2014). Tasks and Prospect of Spiritual Education in the University : Focused on WonKwang University. *Theology and Philosophy*, 24, 45-75.]
- 김유경 · 김미경 (2013). 기독교 유아교사의 신앙성숙도와 빈곤에 대한 사고와의 관계. **사고개발**, 9(3), 23- 41.
- [Kim, Y. K. and Kim, M. K. (2013). A Study on Relations between Faith Maturity and Thinking towards Poverty among Christian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Korean journal of thinking & problem solving*, 9(3), 23- 41.]
- 김유진 (1996). **실존적 공허수준에 따른 가치관과 사회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울산대학교.

[Kim, U. J. (1996). *A Study on value orientation, sociability and existential vacuum*.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박명준 · 신성만 (2014).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이 인터넷 게임, 사이버섹스,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중독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5(2), 753-771.

[Park, M. J. and Shin, S. M. (2014) The Effects of Spiritual Well-being on Addictions to Internet Games, Cybersex, and Smartphone Use among Korean Youth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5(2), 753-771.]

박선실 · 이준석 (2002). PIL의 문화적 타당성 검토 및 대학생의 삶의 목적수준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학논총**, 22(2), 59-75.

[Park, S. S. and Lee, J. S. (2002). A research on the cultural validity of PIL and the level of the purpose in life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2(2), 59-75.]

박진희 · 전요섭 (2013). 기독교 청년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스마트폰 중독과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신앙과 학문**, 18(4), 57, 141-164.

[Park, J. H. and Jeon, Y. S. (2013). Relationship among Covert Narcissism, Smart Phone Addiction and Spiritual Wellbeing in Christian Adolescents. *Faith and Scholarship*, 18(4), 57, 141-164.]

박현정 (2005). **자원봉사활동과 영성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Park, H. J.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olunteer Activity and Spirituality*.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백은령 · 손병덕 (2017). 기독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변인 연구: 사회 · 인구학적 변인, 학교성적,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2(1), 157-176.

[Paik, E. R. & Sohn, B. D. (2017). A Study On The Variables Affecting On The Life Satisfaction Among Christian Adolescents: Focusing On Socio-Demographic Variables, School Attainments, Church Attendance. *Faith and Scholarship*, 22(1), 157-176.]

볼런티어 21 (2011). 2011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실태 조사 연구**.

[Volenteer 21 (2011). 2011 *National volunteer activity and donation survey research*.]

송민선 · 김남초 (2011). 노인의 영적안녕, 영적요구 및 우울 간의 관계. **노인간호학회지**, 13(1), 29-36.

[Song, M. S. and Kim, N. C. (2011). Spiritual Well-being, Spiritual Needs and Depression among Community-dwelling Korean Elders. *Journal of Korean*

- Gerontological Nursing*, 13(1), 29-36.]
- 신승범 (2015). 기독교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문제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대안. **기독교교육정보**, 46, 251-277.
- [Shin, S. B. (2015). Alternatives from Christian Education for Christian Adolescents' Excessive Smart Phone Use. *Korea society for christio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46, 251-277.]
- 심수현 (2012). 도박심각도, 삶의 만족도, 영성과의 관계 연구. **상담학연구**, 13(3), 1065-1081.
- [Sim, S. H. (2012). A Study on the Relation among Gambling Severity, Life Satisfaction, and Spiritualit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3(3), 1065-1081.]
- 양은미 (2012). 대학 신입생들의 영성과 대학교육의 역할에 대한 탐구. **교양교육연구**, 6(1), 289-328.
- [Yang, E. M. (2012).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ity of College Students and Roles of Higher Educatio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6(1), 289-328.]
- 이명화 · 강희경 · 박진경 (2003). 간호대학생들의 영성에 관한 연구. **전인간호과학 연구학술모음집**, 2, 7-22.
- [Lee, M H., Kang, H. K., and Park, J. K. (2003). The Spirituality of Students at Nursing School in University. *Holistic Nursing Science Research*, 2, 7-22.]
- 오윤수 · 정현태 (2013). 영성과 사회복지에 대한 소고: 개념에 대한 분석 중심. **영성과 사회복지**, 1, 107-123
- [Oh, Y. S. and Jung, H. T. (2013). Thoughts on Spirituality and Social Welfare: With focus on the analysis of the concept. *Journal of Spirituality and Social Welfare*, 1, 107-123.]
- 이성범 (2011). **기독교인의 자기분화 정도와 사회향성-자율성 수준에 따른 신앙 성숙도의 상관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 [L, S. B. (2011). *A Study of Correlation between Sociotropy-Autonomy Level and Faith Maturity According to Self-Differentiation Levels of Christians*. Doctoral thesis. Chongshin University.]
- 이화인 (2002). 일부 간호대학생의 영적안녕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구. **한국간호과학회**, 32(1), 7-15.
- [Lee, H. I. (2002). Correlation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1), 7-15.]
- 정숙희 (2013). 기독교 대학생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영적 성숙의 조절효과.

신앙과 학문, 18(2), 107-133.

Jeong, S. H. (2013). Moderating Effect of Spiritual Matur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Christian College Students. *Faith and Scholarship*, 18(2), 107-133.

정숙희 · 유장춘 (2006). 영적 안녕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그리고 교회사회사업적 적용에 관한 연구. *교회사회사업*, 4, 237-264.

[Jeong, S. H. and Yu, J. C. (2006). The Influence of spiritual Well-being on Self-esteem and its implication to Church Social Work. *Church Social Work*, 4, 237-264.]

조삼복 · 김성희 (2012). 대학생용 영성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3(2), 877-890.

[Jo, S. B. and Kim, S. H. (2012). Development of a Spirituality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3(2), 877-890.]

최순옥 · 김숙남 (2011). 대학생의 자살생각과 영성.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2), 190-199.

[Choi, S. O. and Kim, S. N. (2011). Suicidal Ideation and Spirituality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2), 190-199.]

Basset, R. L., Sadler, R. D., Kobischen, E. E., Skiff, D. M., Merrill, I. J., Atwater, B. J., & Livermore, P. W. 1981. The Sheperd Scale: Separating the Sheep from the Goat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9(4), 335-351.

Berry, D. M. & Adams-Thompson, E. 2008. Religiosity and Depression over Time in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ic Nursing Research*, 13(2), 18-26.

Cowley, A. S., & Derezotes, D. 1994. Transpersonal psychology and social work education.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30, 32-42.

Canda, E. R. (1990). An holistic approach to prayer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Thought*, 16(3), 3-13.

Canda, E. R. & Furman, L. D. (1999). 박승희 · 이혁구 외 역 (2003). 종교사회복지 실천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Crosby, R. C. (2012). The social network gospel: how interconnectivity helps us better engage the Bible. *Christianity Today*, 56(6), 36-40.

Hill, J. P. & Dulk, K. R. D. (2013). Religion, Volunteering, and Educational Setting: The Effect of Youth Schooling Type on Civic Engagement.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52(1), 179 - 197.

Newman, S., Vasudev, J. & Onawola, R. (1985). Older volunteers' perceptions of



- impacts of volunteering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4, 1234-127.
- Hoge, D. R., Zech, C., McNamara, P. & Donahue, M. J. (1998). The value of volunteers as resources for congregation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7(3), 470-80.
- Johnston, J. B. (2013). Religion and Volunteering Over the Adult Life Course. Department of Sociology Indiana University.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52(4), 733-752.
- Kim, Y. I. (2006). Religion and Volunteering: Exploring the Links between Spirituality, Moral Attitudes, and Charitable Participation. Conference Papers,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nnual Meeting, Montreal, 1-19.
- Ko, K. S. (2015). A Phenomenological Case Study on the Psychological and Spiritual Conflict Resulting from Excessive Use of Smartphones- Focused on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Indian Journal of Science & Technology*, 8(S1): 398-404.
- Krause, N., Hayward, R. D., Bruce, D., & Woolever, C. (2013). Church involvement, spiritual growth, meaning in life, and health. *Archive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35, 169 - 191.
- Lin, T. T. C., Chiang, Y. & Jiang, Q. (2015). Sociable People Beware? Investigating Smartphone Versus Nonsmartphone Dependency Symptoms Among Young Singaporean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43(7), 1209-1216.
- Lima, C. & MacGregor, C. A. (2012). Religion and Volunteering in Context: Disentangling the Contextual Effects of Religion on Voluntary Behavio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7(5), 747 - 779.
- Mollitor, C., Hancock, N. and M. Pepper (2015). Volunteering, religiosity and well-being: interrelationships among Australian churchgoers.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18(1), 20-32.
- McCullough, M. E., & Larson, D. B. (1999). Religion and depress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Twin Research*, 2(2), 126-136.
- Meier, S. & Stutzer, A. (2008). Is volunteering rewarding in itself? *Economica*, 75(297), 39 - 59.
- Wilson, J., & Musick, M. (1997). Who cares?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volunteer work.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5), 694 - 713.

## 논문초록

# 기독교 대학생의 영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고기숙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스마트폰 중독, 일반적 특성이 영성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대학생의 영성발달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기독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고, 자료수집 설문 기간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였다. 자료 분석은 SPSS를 통해 다중회귀분석 등의 방식을 활용하였다.

기독교 대학생의 영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 특성들 중에서 가정경제수준, 교회출석 여부, 교회출석 기간 등이 영성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 특성 중에서, 자원봉사활동기간이 영성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마트폰 중독과 영성발달의 관계는 유의미한 영향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회와 기독교 차원에서 기독교 대학생의 영성발달을 증진을 위해, 교회출석을 증진시키고,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에 관하여 제언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과 영성발달의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를 실시해 볼 것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기독교 대학생, 영성발달, 자원봉사활동, 스마트폰 중독, 교회출석

## 교회 내 장애인 부서의 운영 실태와 통합교육에 대한 담당 교사들의 인식

### The Actual Operating Situation of the Disability Department and the Perception of the Homeroom Teachers on Inclusive Education in the Church

김기흥 (Ki-Heung Kim)\*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situation of the department for disabled persons and the recognition on inclusive education of homeroom teachers in the church.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0 teachers in 6 churches which are located in B city and K Province and the department for disabled persons is being operated and they were interviewed personally. The contents of the study were divided into two parts: the actual situation of the department for disabled persons and the recognition of homeroom teachers in charge of inclusive education. The major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recognition of the actual situation of the department for disabled persons in the church, the teachers in charge put a core value in the faith life of the disabled people as the meaning of the department for disabled persons. Second, there were many practical difficulties due to the negative emotions of the disabled. Third, the weekly program of the department for disabled persons ha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depending on churches and homeroom teachers in charge. Fourth,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ism of the homeroom teachers in charge through systematic teacher education (training) was urgent, but it was difficult in reality due to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teacher in charge. Subsequently, in the recognition of the inclusive education among the homeroom teachers in charge, first, the level of basic understanding about inclusive education was simple or unclear. Second, concerns about the realistic side effects in education site were more emphasized than expectations for positive effects of inclusive education. Third, as the key

---

\* 부산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koelnkim@bnue.ac.kr

2017년 07월 13일 접수, 09월 30일 최종수정, 12월 11일 게재확정

priorities to successfully realize inclusive education emphasized, first of all, the change of the awareness of the disabled people of the church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the problem behavior of disabled people was emphasized.

**Key Words** : inclusive education, church school, department for disabled people, homeroom teacher

이 논문은 2017학년도 부산교육대학교 교내 연구과제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전략)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성경으로부터의 이탈’이었습니다. 성경해석의 오류, 남용, 지도자들의 부패, 물질탐욕 그리고 인간의 선행과 공로주의... (중략) ... 즉 믿음과 행함의 조화가 개혁교회의 특징입니다. 믿음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을 받는 것에만 국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정 나아가서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행함이 뒤따라야 합니다(이하 생략)(교회복음신문, 2017년 1월 21일).

장애인 교육의 역사에서 원시와 고대 시대의 장애인들은 당시 사회로부터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생존권마저 박탈당한 채 멸절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특히 고대 그리스나 로마시대에 장애아나 허약아들은 리쿠르구스(Lycurgus)법전, 솔론(Solon)법 혹은 12 동판법(Law of the Twelve Tables) 등의 사회법에 의거하여 이른바 ‘합법적’으로 유기되거나 죽임을 당하였다(Greving & Ondracek, 2005).

이 같은 장애인에 대한 무시, 학대, 유기 및 살해 등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는 기독교의 도래와 함께 시작된 중세 시대에서는 이웃사랑 등 기독교 교리와 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들이 자선과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로의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 기독교 사상의 도래는 오늘날 특수교육이나 장애인복지의 발달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념으로 작용하였으며,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위를 개선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시대에는 질병이나 장애를 하나님의 벌이나 악으로 간주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사상도 여전히 보이기도 하였다(Mosen at al., 2001).

중세 이후 15세기경 르네상스(Renaissance)를 기점으로 근대 시대에 이르러 장애인들은 주로 의사, 교육자 및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치료와 교육의 대상으로 여긴 바 사회적 인식에서 한층 더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여기에는 중세의 종교적인 편견, 미신이나 봉건제도적 질서에서 탈피하여 인간성 회복을 갈구하는 문예부흥운동을 비롯하여 종교개혁의 영향, 생리학이나 해부학의 발전 및 계몽주의 사상 등이 큰 영향을 끼쳤다. 물론 근대 시대에서도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완전히 소거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특히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의 곳곳에 장애영역별 특수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여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수법을 통하여 특수학교제도의 발전에 주요한 기초가 되었다(Moser, 1995; Hensle & Vernooij, 2000).

그러나 20세기 중반에 북유럽에서 시작된 정상화원리(Principle of Normalization)를 발단으로 하여 오랫동안 장애인 시설의 열악성과 장애인의 사회적 격리와 분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는 계속하여 학교교육에까지 확장되어 특수학교에서 전통적으로 행했던 장애학생에 대한 분리교육이 일반학교에서 비장애 또래들과 함께 교육과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으로 작용하여 오늘날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의 단초가 되었던 것이다. 특히 2006년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보장을 골자로 한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결의되어 국제적으로도 통합교육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김기홍, 2014; Speck, 2003).

최근 우리나라도 통합교육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사회적 요구나 교육 정책적인 측면에서 통합교육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6호에 의하면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2016)의 통계에 따르면 유·초·중·고에 총 87,950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분리교육 환경에 25,961명(약 29.6%), 특수학급이나 혹은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61,989명이 다니고 있어 약 70.4%의 통합교육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교육의 역사적 흐름은 멸절의 시대를 비롯하여 자선과 보호의 시대와 특수학교에서의 분리교육의 시대를 거쳐 오늘날 통합교육의 시대를 맞이하는 등 장애

인과 특수교육에 대한 패러다임(Paradigm)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거듭 보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 개선 과정에 있어서 특히 기독교 사상과 교회는 세간과는 다른 태도와 인식을 바탕으로 그들의 교육과 복지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관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보인다. 우선 오세철(1987)에 의하면 구약에서의 장애인관은 차별, 죄의 결과, 무능력자 등 부정적인 면과 동시에 평등, 영광의 증표, 소망의 대상 등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그 반면에 신약 성경의 경우에 장애(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격적 대우 및 치료의 대상, 장애발생의 인과응보적 사상의 개선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 태도가 훨씬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 관련 기사는 구약에서 89회이며(시각장애 47회, 지체장애 27회, 청각장애 15회), 신약에서는 총 71회(시각장애 33회, 지체장애 29회, 청각장애 9회)로 언급되어 구약성경에서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더 많으며, 특히 시각장애에 대해서 월등히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이계윤(2002)도 성경에서 장애(인)는 불평등의 조건, 죄에 대한 벌, 죄인이나 청결하지 못한 존재 등 부정적인 대상으로 이해하였다. 그 반면에 장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 선교의 대상,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나 천국의 동등한 구성원 등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였다. 특히 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일부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이은미(2013), 박혜전·조영길(2009), 황홍렬(2008)은 근본적으로 신학적 혹은 성경적인 올바른 접근과 해석을 통하여 근본적이고도 긍정적인 장애인관을 정립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성경에서 장애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록들이 다소 보이지만, 이는 상징적 혹은 예표적인 의미이지 결코 장애인을 연약함만으로 인격을 폄하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는 삼가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일반 사회와는 전혀 다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그들의 교육과 복지의 실천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최근 특수교육은 오랜 분리교육의 전통에서 벗어나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국내외를 막론하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함께 수업과 교육에 참여하는 통합교육이 대두되어 새로운 변화가 거듭되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통합교육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하여 오늘날 기독교회가 과거와 같

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교회교육이나 복지현장에서도 실천을 통하여 사회의 시대정신을 이끌어갈 견인차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 통계청(2016)의 종교별 현황에 따르면 개신교 인구가 9,676천명(약 20%)으로 가장 많고, 불교 7,619천명(약 15.5%), 천주교 3,890천명(약 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 언론회는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논평을 발표하였다.

... (전락)기독교는 우리 사회에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보다는 책임감이 더 늘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더욱 겸손하고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더 감당하되,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고, 약자와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하 생략)(크리스찬연합신문, 2016년 12월 25일).

이와 같이 기독교회의 믿음과 행함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여전히 크고 무겁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비롯하여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교회학교의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적 서비스는 본질적인 기독교적 교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왜곡된 시대정신(時代精神, Zeitgeist)을 올바르게 이끌만한 모범적인 영향력도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박혜전·조영길(2009)과 한남희(2001)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교회 내에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공간이나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 밖에도 이희철(2009)에 의하면 장애인교회나 또는 교회 내에 장애인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교회는 약 350여개 가량으로 이 수치는 우리나라 약 5만여 개의 교회 중에 약 0.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근본적으로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나 장애(인)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인식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김문수, 2009; 이은미, 2013). 더군다나 김종복(2005)이나 황홍렬(2008)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일선 목회자들조차 장애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은미(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회의 장애인 선교나 복지는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선교나 예배를 드리는 장애인 교회를 설립한 경우와 교회 내에 장애인 부서를 따로 두어 예배와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장애인 교회는 주로 장애인들로 구성되어 정서적 또는 영적인 측면에서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설이나 환경적으로도 매우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교회 내에 학령기나 성인 연령에 해당하는 장애인 부서를 별도로 조직하여 예배를 드리는 형태는 주로 대도시나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교회의 분리적인 장애인 선교, 교육과 복지 형태는 결국 장애인에 대한 차별, 편견 등 부정적인 인식이 오늘날도 여전히 기독교내에서도 존재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김요섭(2007)의 교회학교 장애인부서를 담당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통합교육보다는 오히려 분리교육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교회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의 절반정도(약 49%)는 예배는 통합하고 성경공부는 분리하는 것, 약 19%는 예배와 성경공부를 모두 분리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응답자의 약 17%는 예배와 성경공부 시간 등 모든 활동을 통합해야 한는데 동의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교육이나 장애인 복지의 역사에서 기독교 사상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획기적인 개선과 더불어 기독교회의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 및 복지 현장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였다. 오늘날 특수교육은 다양한 어려움이나 시행착오 가운데서도 장애학생에 대한 분리교육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교육과 수업에 참여하는 통합교육 정책의 수립과 실천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관, 태도와 삶에서 엄연히 구별되고 다름을 보여야 할 기독교나 교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왜곡되고 부정적인 성경의 해석이나 인식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오늘날까지도 장애인 교회나 혹은 교회 내에서 장애인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여 비장애인들과는 분리된 예배, 교육 및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미 국내외적으로 통합교육의 당위성이나 효과는 법적, 교육적, 경제학적 또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없음이 사실이다. 또한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모든 사람은 죄인(롬 3:10)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딤후 2:11, 딤후전 2:4)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에 대하여 차별이나 편견보다는 서로 돕고(약 2:1-9) 함께할 것(시 133:1)을 교훈하고 있다. 특히 교회 현장에서 장애인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인식 수준과 자질은 일반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교육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며, 또한 앞으로 교육의 질적인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장애인부서를 담당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회 현장에서 장애인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와



함께 장애인들의 예배, 공과공부 및 교회 행사 등 교회생활 전반에서 통합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의미를 재점검하는 작은 계기를 마련하여 기독교 사상과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시대정신을 주도하는 전인차 역할을 회복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함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현재 교회 안의 장애인 부서의 운영 실태와 통합교육에 대한 담당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영역에서 연구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교회 내 장애인 부서의 운영 실태에 대한 담당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교회 내 장애인들의 예배, 분반공부 및 교회행사 등 교회활동에서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B광역시와 K도에 소재한 6개 교회의 장애인부서 담당교사 1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또 의미 있는 연구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목적과 방법 등에 동의한 담당교사들을 중심으로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면담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은 Table 1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몇 가지 특성에서 성별 비율은 각각 50%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은 20대에서 50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40대가 50%(5명)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장애인 부서의 담당교사의 봉사경력은 평균 약 5년이며, 직업군은 특수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비롯하여 운송업, 의사 및 전업주부 등 매우 다양하였다.

아울러 연구대상자가 소속된 각 교회의 규모(총교인 수)는 약 2,000명에서 약 50,000명이며, 각 교회의 장애인 수는 전체 교인의 약 1% 내외를 차지하였다. 장애유형으로는 주로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비율이 가장 높고, 대부분 장애학생과 장애 성인이

혼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어린이날, 장애인의 날, 부활절 등 특별한 절기 외에는 대부분 비장애인 교인과는 분리된 교회 생활(예배, 공과 공부, 각종 행사)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Survey Respondents(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인적사항)

Respondents					Church of Respondents			
	Gender (M/F)	Age	Years of teaching	Vocation	Member of Church	Person with disabilities	Type of disability	Type of Inclusion
Teacher 1	F	58	2	Insurance business	ca. 5,000	30-40 (Student+ Adult)	autism, Intellectual or Physical Disability	intermittent Inclusion (Children's Day or Disability Day)
Teacher 2	F	44	8	Private school lecturer				
Teacher 3	M	41	9	Trans- portation	ca. 10,000	15(Adult)	Intellectual or Physical Disability	separation
Teacher 4	F	22	2	College student				
Teacher 5	M	44	3	Social Worker	ca. 3,000	15(Student+ Adult)	autism, Intellectual Disability	separation
Teacher 6	M	58	10	Interior	ca. 2,000	20-25 (Student+ Adult)	autism, Intellectual Disability	intermittent Inclusion (Children's Day or Disability Day)
Teacher 7	M	47	5	Doctor				
Teacher 8	F	54	6	Baby Sitter	ca. 3,000	23(Student+ Adult)	autism, Intellectual or Physical Disability	intermittent Inclusion (Children's Day or Disability Day)
Teacher 9	F	43	3	Housewife				
Teacher 10	M	53	3	Sports Management	ca. 50,000	500(Student+ Adult)	autism, Intellectual, Physical, visual or hearing Disability	intermittent Inclusion (Children's Day or Disability Day)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B광역시와 K도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부서의 운영 실태 및 통합교육과 관련된 담당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먼저 심층면담을 위한 면담 문항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권요한 외(2015), 김기홍(2014) 및 한

국통합교육학회(2009) 등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참고하였다.

아울러 김은경(2007), 김요섭(2007), 이은미(2013)와 박혜전 외(2011) 등의 선행연구에서 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통합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목적에 맞게 개별면담을 위한 질문지가 작성되었다. 또 면담형식은 연구대상의 개인적인 의견과 입장 등 정보를 보다 심층적이고 합목적으로 수집하고자 반 구조화된 면접이 실시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 알맞은 면담 문항지를 작성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에 전문성 있는 교수 2인과의 협의 및 검토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1차 질문지를 가지고 본 연구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교회의 장애인부서 담당교사 3인과의 예비면담을 거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등에 대한 최종적인 수정 및 보완작업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교회의 장애인부서를 담당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개별면담의 반 구조화된 질문은 Table 2와 같다. 개인 면담에서 질문 내용은 우선 교회의 장애인부서 운영에 대한 실태와 장애인들의 교회 내 통합교육에 대한 담당교사의 인식 등 두 영역으로 구분·설정되었다.

Table 2 Example Questions for Semi-structured Interview(표 2 반 구조화된 면담 질문 사례)

Respondents	Sub-Categories	Example Questions
Teacher Department's for the Disabled Person in Church	Attitude on the Operational Status of Department for the Disabled Pers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hat are the main functions or purposes of the disabled person department?</li> <li>•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eachers in the disabled person department?</li> <li>• How does the weekly program of the disabled person department proceed?</li> <li>• What are the difficulties faced by teachers in the disabled person department?</li> </ul>
	Attitude on the Inclusive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hat is the meaning of inclusive education?</li> <li>• What effect does inclusive education have on disabled and non-disabled person?</li> <li>• What improvements should be made to realize inclusive education in church?</li> </ul>

###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7년 5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이며, 교회 내 장애인부서의 담당교사 10명을 대상으로 개인면담이 실시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B광역시 및 K도에 소재하고 있는 교회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교회들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이은미(2013)의 연구에서와 같이 장애인부서는 현실적으로 소규모 교회보다는 대부분 교회 규모가 크거나 혹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교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부서는 기독교계 내에서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교육 및 복지에 대한 일반사회의 인식과 실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우선 눈덩이 표집 방법을 통하여 교회 장애인부서의 담당교역자를 통하여 연구목적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장애인 담당교사들의 추천을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취지,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재차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후에 면담 승낙을 받았다. 또한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가능한 한 편안하게 느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면담내용에 대한 익명성과 얻어진 자료의 합목적적인 사용에 대한 원칙을 알려 자신의 입장 및 생각을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면담의 내용에 문맥적 혹은 내용상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담당교사들과 이메일이나 전화로 수정과 보완 등이 이루어졌다.

또 본 연구에서 실시된 심층면담은 대화내용의 누락을 방지를 위하여 피담자들의 동의하에 녹음 처리하였고, 개인면담 후에 곧바로 면담내용의 전사 작업이 실시되었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실시된 10명의 피담자들과의 개별면담 소요시간은 총 493분으로 연구대상자 당 평균 약 50분이며, A4용지 50쪽 분량이었다(한글 2010, 글자크기 10, 줄 간격 160, 자간 0). 심층면담에서 얻은 자료들은 연속적 비교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e)에 의거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질적 분석의 일반적인 절차인 전사-주제별 약호화(coding)-주제 및 의미의 생성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 먼저 녹음으로 수집된 자료를 있는 그대로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전사(transcription) 작업이 이루어졌으

며, 또한 전사 후에 녹음파일과 대조하여 수정 및 보완 등 재검토 과정을 통하여 전사 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어서 전사과정을 마친 후에 연구자는 전사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텍스트의 특정부분이 어떤 특정한 주제를 언급한다고 볼 때 가장 잘 설명해주는 주제로서 이름을 부여하는 주제별 암호화 단계를 거친다. 즉 암호화는 특정 텍스트의 내용이 가지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해주는 주제적 용어를 말한다. 끝으로 연구자는 도출된 다양한 암호화의 면밀한 읽기, 분석 및 추론 작업 등을 통하여 자료 내용의 전체를 설명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개념이나 범주를 생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다(이용숙·김영천, 2005; 김윤옥 외, 2009).

본 연구의 질적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자료 분석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담자들과의 심층면담 시에 녹음 외에 현장노트를 자세히 기록하여 추후 질적 분석을 위한 보충과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이어서 연구자의 주관성의 최소화를 위하여 질적 분석 작업 후에 연구대상자들과 연구자의 직접적인 모임과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에서 오류나 혹은 누락된 사항 등에 대한 확인 과정인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특수교육 전공자 1명을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비롯하여 자료수집, 분석 및 연구결과의 해석 등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는 동료검토 과정(peer review)을 거쳤다. 그리고 연구결과에서 연구대상자와의 심층면담내용이 인용될 경우에는 일련번호와 전사본의 쪽수와 줄을 밝혔다.

### III. 연구결과

본 연구는 교회의 장애인부서 운영 실태와 통합교육에 대한 담당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질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두 가지 주제영역에서 주요개념과 단어 및 7가지 하위주제들이 각각 도출되었다.

#### 1. 장애인 부서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인식

먼저 장애인 부서의 운영 실태에 대한 담당교사들의 인식과 관련한 심층면담 결과에서 네 가지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1) 장애인 부서의 의미는 장애인들의 믿음(신앙)생활 지도가 핵심: 구원, 말씀, 예배

교회의 장애인 부서의 주된 의미 및 기능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담당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장애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이며 동시에 핵심적인 가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음전파죠. 전도... 이것이 가장 핵심이죠(교사 3, p.8; 3).

그것은 딱 한가지죠. 장소가 교회잖아요? 특수학교도 아니고 무슨 기관도 아니고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 영혼 구원... 그것 하나 목적으로 애들한테 부서가 있는 것이고 선생님들이 수고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찬양, 기도, 구원의 확신, 말씀... 이것이 목적이 하나죠. 구원이 가장 큰 교회교육의 목적이라 할 수 있죠(교사 7, p.27:31-34).

일단 우리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고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불편하고 그런 아이들을 일단 복음을 전하는데 최고의 우선이 있다고 봅니다(교사10, p.44:37-38).

Table 3 Individual in-depth interview results(표 3 개별 심층 면담 결과)

Subject Key Concepts/Words area		6 Subtopics
Attitude on the Operational Status of Department for the Disabled Person	salvation, words and worship	The disabled person department is the main purpose of helping person with disabilities live their faith.
	volunteering, advice and avoid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the teacher of the disabled person department.
	teacher-student ratio, lesson activities, internal problems	The types and effects of weekly programs of the disabled person department vary from teacher to teacher.
	problem behavior, intermittent teacher education, teacher situation	Teachers agree that professionalism is necessary through various training programs, but it is difficult in reality.
Attitude on the Inclusive Education (Worship Activities Events)	same place, ignorance	The basic understanding of teachers' inclusive education is simple or unclear.
	Imitation learning, ignoring, unexpected behavior	Teachers are more concerned about side effects than positive expectations and effects of inclusive education.
	understanding, homeroom pastor, problem behavior	In order for the integrated education to be successful in the church, the awareness of the church and the problem behavior of the disabled should be improved.

## (2) 장애인 부서의 담당교사 수급에 현실적인 어려움 존재: 자원, 권유, 기피

교회의 장애인 부서는 그 특성상 대다수의 경우에 교사와 장애인과의 비율이 일대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거의 모든 교회는 일반 주일학교 교사의 경우보다 장애인부서의 담당교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함을 볼 수 있다.

먼저 장애인부서의 담당교사는 교회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광고를 통하여 자원하거나 혹은 장애인 부서의 기존 담당교사가 지인에게 권고를 통하여 참여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주로 자원하는 사람들... 우리가 일 년에 한번 씩 사랑부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애들을 애들의 모습을 보고 '사랑부를 섬기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원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교사 1, p.2:5-7).

보통 한 해를 마쳤을 때에 광고를 낸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유를 하든지... 권면을 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죠(교사 6, p.22:26-27).

교사모집은 아름답게 봉사하는 분들이, 아 저분이 좀 적합하시겠다고 하면은 권면을 하죠. 해보시지 않겠느냐고, 인맥으로 좀 끌어오는 측면이 많죠(교사 9, p.38:16-17).

장애인부서의 담당교사로서의 봉사활동이 주로 자발적이거나 권고에 의하여 행해지기는 하지만 교회마다 교사수급이 기본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특히 장애인 부서에 대한 교인들의 부담감이나 불편함 등 부정적인 인식에 기인하여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선생님 수급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맞추어 주시고 그렇게 나갑니다(교사 6, p.22:28-29).

그런데 부서마다 교사가 다 부족합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래서 교사가 없어서 난리인데...(교사 7, p.27:36-38).

... 사실은 자발적으로 하지만, 많이 꺼리십니다. 왜냐하면 선입관 자체가 장애인에게 아직 편견이 있고, 힘들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자발적으로 오기는 좀 그렇고요. 아는 집사님들이 권유를 하셔서 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교사 10, p.44:40-42).

### (3) 장애인 부서의 주일 프로그램 운영형태나 효과는 교회별, 담당교사별로 다양함: 교사-학생 비율, 공과 활동, 내적 고민

교회의 장애인 부서에서 실시하는 주일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에서 대체적으로 각 교회별이나 담당교사별 역량이나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먼저 교사 대 장애인 비율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일대일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따라서 혹은 교사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사 일인당 복수의 장애인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우리가 애들을 일대일 양육을 하니까...(교사 1, p.2:9).

일대일로 대부분 하고 일대일로 가르치고 그런 식을 하고 있습니다(교사 6, p.24:35-36).

교사-학생이 일대일도 있고, 교사가 아까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일대일도 있고, 일대이도 있고, 일대 삼도 있고, 애들이 조금 가벼운 장애아가 있잖아요? 장애아라도 말을 다 알아듣고 조금 경한 아이들은 세 명, 너무 험한 아이들, 조금 심한 아이들은 일대일, 꼭 일대일은 아니고 다 다릅니다(교사 7, p.29:14-17).

아울러 주일 공과교재나 활동 내용에 있어서도 각 교회나 교사마다 장애인의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서 유사점이나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전략) ... 애한테 맞는 공과 책을 사용합니다. 영 글씨도 모르는 아이들한테는 그림위주로 설명해 주고, 또 글씨를 아는 아이들은 글도 읽어가면서 암송도 시키고... 그 아이의 유형에 따라서 분반공부를 하는데, 정 안되는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 있기라도 하고...(교사 1, p. 2:10-12).

읽을 수 있는 학생과 읽지 못하는 학생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중략) ... 읽을 수 없는 아이들은 거기에 맞게 만들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림을 많이 그린다든지... 지금은 동일한 교재를 하고 있죠(교사2, p.5:20-25).

지금 같은 경우는 첫째, 셋째 주 같은 경우에는 공과공부를 하고 둘째, 넷째 주는 레크레이션, 선생님이 따로 있고, 넷째 주는 신체활동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스트레칭이나 항상 활동적인 것... 신체활동을 제가 시켰죠. 분반공부를 할 때는 따로 교재가 있습니다. 유치원정도 수준의 교재를 제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애아를 위한 교재는 아니고 일반아이를 위한 것인데 수준을 좀 낮추어서 가르치죠(교사 3, p.9:1-3).



교재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 성경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는 매주 좀 다른데요... (중략) ... 첫 주 체육활동, 둘째 주 음악활동, 셋째 주는 성경암송, 넷째 주는 생일파티, 다섯째 주는 요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반공부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2부 순서는 담당 선생님이 따로 있습니다(교사 4, p.142-6).

이러한 장애인부서의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회마다 혹은 담당교사에 따라서 공통점과 다른 점들이 있음과 동시에 현실적인 교육과정이나 교육방법 등 전문성에 있어서 불확실성에 대한 내적 고민과 갈등들도 피력하고 있었다.

어려운 점은 만약에 다른 b라는 학생의 담당교사가 안 나왔을 때는 합반을 하잖아요? 그럼 장애 수준이 다를 때, 나는 A라는 아이를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그 아이는 쓰는 거죠. 그 아이들은 책들도 다르거든요. 장애에 따라서...(교사 1, p.2:15-17).

공부시키면서 어려움은... 교사교육을 확실하게 좀 해주실 분도 있어야할 것 같아요... (중략) ... 우리가 한 아이를 데리고 같이 고민하고 해서, 아, 이것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 좋은데, 정말 어쩌냐하면, 각개전투처럼 각자 맡은 아이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중략) ... 어떤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오로지 담임선생님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저는 아이들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들, 그냥 읽고 이야기하고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아이는 읽을 수는 있거든요. '잘되고 있는 건가?'하고 고민들은 좀하고 있습니다(교사 2, p.5:2-10; 16-18).

생활연령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을 교회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이 정도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중략) ... 교사가 미리 준비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아무래도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어렵지 않으니까, 와서 해도 되지 이런... 사실 즉석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지도 준비하는 것이 없이 해도 될 만한 수준이어서... (중략) ... 각자 담당 선생님이 알아서 개별적으로 개별화를 하시는 거죠. 각자 스타일대로 개별화... 이런 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든 이제 교육자를 하고 싶어서 하는 입장에서는 교육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체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보지만, 각자 선생님들이 섬기겠다는 생각자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교사 5, p.17:43-44, p.18:1, p.19:19-21, 32-36).

또한 장애인 부서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들에게 나타나는 효과나 결과에 있어서도 응답자마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알아듣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애들이 기도하자 그러면, 손 모으고 엎드립니다. 눈감고... 기도가 끝나면 아멘하고...(교사 3, p.11:19-21).

변화가 있습니다... (중략) ... 말로 하는 것이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가끔씩 이제 아멘을 따라한다든지, 예수님의 그림을 보고 예전에는 몰랐지만 예수님이라고 한다든지, 예배 때는 앉아 있는 다든지...(교사 4, p.14:7-10).

변화를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것은 개별적인 것 같아요... (중략) ... 그것을 눈으로 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것이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교사 8, p.35:10-13).

아무튼 어려운 점은 심정적인 어려움은 아이들이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교사 9, 40:14).

#### **(4) 체계적인 교사교육을 통한 담당교사들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 다양한 문제행동, 간헐적 교사교육, 교사의 다양한 상황**

교회의 장애인부서에 소속된 장애인들의 문제행동은 빈번하고 다양하며, 현장 교사들의 역할 수행에서 가장 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며, 교회 내 통합교육(예배, 공과공부 및 행사 등)에 있어서 걸림돌에 속한다 할 것이다.

제가 맡은 아이는 자폐성향이 있는 아이인데... 막 소리 지르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깨물고 하는데...(교사1, p.2:29-30).

당치가 큰 아이들, 특히 여선생님들 경우에는 케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뇌병변이 심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해코지를 하고, 심지어 심한 아이는 옆의 머리 긴 선생님들의 머리 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장애아, 사랑부 아이들 케어하기가 많이 힘들죠(교사3, p.8:8-11).

문제행동이 있죠.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막 고함을 치면서 흥분을 한다고 해야겠죠?... 갑자기 제어가 안 되고, 갑자기 일어나서 고함을 치면서 막 돌아다니고, 꺾꺾거리고 드러눕고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교사 7, p.30:1-4).

또한 장애인부서 담당교사들은 운영과정 가운데서 교사교육이나 연수교육 등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교육을 너무 너무 느끼죠. 그래서 저희는 교육을 좀 받는 편입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받는 것은 장애인연합회에서 있더라고요...(중략) 그것이 일 년에 한 번도 하고 어떤 해는 두 번도 가고 정해지지는 안 했어요. 어떤 해는 그냥 지나칠 때도 있고.. (중략)저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교사 7, p.28:13-25).

너무 많이 느끼죠. 아마 일 년에 한 차례 정도는 부·울·경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장애인부서 전체 세미나가 000교회에서 있었고... 000교회에서도 있었고... (중략) ... 일 년에 한번 정도 밖에 안 돼요. 우리는 무대 뽀로 하잖아요? 어떨 때는 제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고, 원칙도 없이 그냥 안아 줄 수만은 없는데, 그때 조금 노하우를 가르쳐주니까... 직접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죠(교사 8, p.34:28-37).

문제는 우리 사랑부 교사도 사역을 한다는 마음으로 오기는 하지만, 분명히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문지식이 없이 그냥 사역하는 마음만 가지고 왔을 때는 여러 가지 돌발행동이 있을 때 선생님들이 좀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교사 10, p.45:8-10).

그럼에도 교사교육은 각 교회나 교사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교사관련 교육이나 연수는 교회 내·외부에서 매우 간헐적으로만 실시되고 있는 형편이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고 있어요. 외부로 나가서 배우고 오고... 그러더라고요(교사 1, p.2:20).

저희 사랑부에서는 특별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강사가 오셔서 하는 경우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외부에 가서 선생님들이 하는 경우는 일반 유치부나 초등부 등 일반아이들의 선생님들은 있지만... 사랑부는 자체적으로 교사교육을 받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교사 3, p.8:12-15).

우리 교회 담당 목사님이 그 쪽으로 전공을 하셨어요. 000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 씩 교육을 하시려고 하시고, 얼마 전에도 몇 주 전에도 교육을 했었고요...(교사 9, p.38:22-24).

사실 장애인 부서를 운영하는 현장의 담당교사들은 교사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먼저 담당교사들의 특성(다양한 직장, 장애인부서의 봉사활동에 대한 기본 인식 등)이나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인 문제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성을 갖춘 교사교육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한점이 있음을 살필 수 있다.

... 교사 연수에 가실 수 있는 선생님은 같이 가시고 못가는 선생님들은 형편이 안 되는 선생님들은 못가고, 저는 참석을 못해요. 거기에...(교사 1, p.2:21-22).

그런데 그 교육이 너무 수박 겉핥기식 같고 실제적인 내용이 아니라 장애등급 분류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마다 개인적인 일을 하시니까 그 시간대에 모여주세요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중략) ... 교사교육을 확실하게 좀 해주실 분도 있

어야 할 것 같아요. 특수교육을 하신 분들이 오셔서... (중략) ... 제가 몇 번을 교육을 받아도 사실은 현실적이기 보다는 이론적이라서...(교사 2, p.4:29-31; 35-36; p.5:2-5).

정말 다양한 직업에 다양한 직분자로서 이렇게 오시는데, 그냥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다 감사하지만은 아이들을 대할 때 보면 전공적인 지식이 없이 그냥 엄마의 마음으로만 대하시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중략)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교사 5, p. 17:9-13).

... 장애인 사역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잘 안 하시려고 하고... (중략) ... 다른 분들은 특별히 전문지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사 중에서도... (중략) ... 그냥 사랑부하고 손잡고 기도하는 소극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교사의 수와 전문성이라 할까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밖에 오지 않는 데요... (중략) ... 그런데 뭐냐 하면, 다른 분들은 쉽게 말하면,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전문성이 없으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좀 달랐거든요. 우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 깔려 있다 보니까,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교사를 확충하다보니까, 수급의 어려움이 있고, 교사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만들고 책자를 주면서 사랑부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면 되는데,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이 우리 믿음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 가지고 했을 때 어딘가는 모르게 부족하다는 것을...(교사 10, p.46: 25-31, p.47:13-15; 43-46, p.48:1).

## 2. 장애인 부서의 통합교육(예배, 공과공부 및 각종 행사 등)에 관한 인식

이어서 교회 내에 장애인부서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담당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기초적 인식과 관련하여 심층면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하위 주제와 더불어 주요 개념 및 단어들에 도출되었다.

### (1) 통합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수준은 단순성과 불명확성: 물리적 통합, 무지함

장애인부서의 담당교사들은 통합교육의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가 매우 다양하였는데, 우선 대부분 ‘물리적 통합’ 등 매우 단조로운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교사 1, p.2:24).

저는 그냥 구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도 그렇고...(교사 4, p.15:3).

통합교육, 그냥 함께 하는 것...(교사 5, p.20:19).

아울러 장애인부서의 담당교사들은 통합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도 동시에 관찰할 수 있었다.

어떤 뭐 일반학생들을 이야기 한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가지고 되지는 않잖아요? 수학이면 그런 문제들을 살면서 해결하는 한꺼번에 있는 것을 그것들을 함께 배워가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융합교육이라는 것들...(교사 2, p.6:12-15).

제가 통합교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교사 10, p.48:39).

## (2) 통합교육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려가 더 각인됨:

### 모방학습, 무시, 돌발적 행동

장애인부서의 담당교사들은 통합교육을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각각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일부 기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내가 그 아이들을 본다. 그러면 내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저를 들거든요... (중략) ... 장애아들은 비장애아들과 같이 있으면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장애아들이 비장애아들 보면서 좀 행동이 안 달라질까요?(교사 1, p.2:25-29).

장애 아이들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겠죠? 더 많은 것을 경험 할 수도 있겠죠... (중략) ... 비장애인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인생이 바뀔만한 변화가 있었는데, 장애인을 만나면서,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교사 4, p. 15:12-20)

장애아들은 함께 있으면 배려 받는 것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같이 있으면... 잘 안 보이는 학생들이 있을 때 그런 학생들, 불편함이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들, 아이들이 그렇게 배려 받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도움을 받는 것... (중략) ... 비장애아동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면,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다를 뿐이라는 것을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제가 같이 수업을 해보거나 하면 아이들이 어떤 때는 대개 잔인할 때가 있어요... (중략) ... 함부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웃고 즐기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장애아들이 같이 있어서 그 아이의 행동에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교사 2, p.6:22-36).

그러나 담당교사들은 실제적으로는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보다는 오히려 교육현장에서 현실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적

인 인식들이 더 깊이 각인되어 있는 듯하였다.

‘통합으로 교육이 되겠나’라고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이, 장애아들, 지적이든, 신체적이든, 뇌 병변이든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통합교육이 되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못 있고 애기를 하면 듣고 앉아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거의 다 소리를 지른다든지, 돌아다닌다든지 혼자 뭐 자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중략) ... 지적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3급 되는 아이들은 통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급이나 2급은 좀 힘들다고 보죠... (중략)... 아이들한테는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아에게 이점은 없고 상처만 안 받아도 다행이죠. 같이했을 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도... 무관심,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무관심이 많더라고요(교사 3, p.10:14-36).

... (전략) ... 너무 장애가 심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차라리 모아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인지가 가능한 아이들은 좀 통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극이 될 수 있고 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중략) ... 그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정상적인 아이들도 인성적인 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굉장히 장애가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무리죠. 정상인 아이들 옆에 있는 것도 좀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따로 모아서 케어를...(교사 9, p.41:16-23).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조금 더 이해한다는 것이죠. 통합교육을 통하여... 현실은 그렇지 못할지 모르지만... (중략) ... 결국은 비장애인들이 훨씬 많은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장애인의 협조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교사 10, p.49:10-17)

### **(3) 통합교육의 성공을 위하여 교회의 인식과 더불어 장애인의 문제행동 개선이 중요: 이해, 담임목사, 문제행동**

교회에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통합교육적인 예배, 공과공부 및 각종 행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교회 전체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인식개선이 가장 시급하게 요청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담임교사의 생각, 마인드가 일단 먼저 가지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 끼리 통합교육을 했을 때 초등부면 초등부 그 주일학교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그 부모님들께서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중략) ...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비장애인들이...(교사 2, p.7:1-17).

일반교육부서의 선생님들한테, 아이들한테 인식교육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장애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라는 것을...(교사 6, p.26:39-40).

하나로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죠.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넉넉해지고...(교사 8, p.36:37-38).

교회 내에서 일반성도들을 대상으로 크리스천으로서의 마음가짐이나 행동 가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교사 9, p.42:13-15).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담임목사의 관심과 사고의 전환이 교회 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의 통합 교육적 활동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과 과제로 꼽고 있다.

목사님의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어떤 길이 다 있으셔서 이 길로 눈을 안 돌리시려고 하죠... (중략) ... 신학교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교과목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없어요. 장애인에 대한 언급조차 신학교에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마땅히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 목사님들이 어느 정도나 하면 단어조차도 5, 60년대 쓰던 곱추라든지, 하여튼 그것을 설교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학교에서 그런 것을 안 가르치거든요(교사 4, p.16:34-45).

모든 담당부서의 사역자가 다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힘들지 않을까? 전체적으로는 인식 개선이 우선... 목사님의 인식개선이 되면 자연적으로 평신도들의 인식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내에서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관심사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목사님은 진도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쪽으로는 많이 들었지만은 장애인 쪽에서는 들어본 적이 제가 없어서...(교사 5, p.21:17-22).

담임목사님이 모든 장애인 부서 운영과 통합의 주요 키를 쥐고 있고요. 담임목사님이 그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비중을 두고 마음을 두고 품고 있느냐, 담임목사님이 그림으로써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지원하면서 힘을 실어주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교사 7, p.32:42-44; 8:1).

아울러 교회 내에서 통합 교육적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의 자세와 역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에서 다양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대한 수정과 개선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함을 짐작할 수 있다.

어려움은 있죠. 우리 장애아들이 사리분간을 못하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예배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단지, 친구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데로 하잖아요? 우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요? 절체가 안 되니까... 좀 다른 부서에서 양해를 해준다면... (중략) ... 같이 가서 통합해서 나이별로 들어가서

같이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교사 1, p. 2:38-39; 3:1-5).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거든요... 어떤 아이는 예배 중에 문이 열려 있으면 문을 광 닫고 잠그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 옆에 아이를 해코지하는 아이들... 그런데 비장애아들이 같이 섞여서 한다면 ... (중략) ...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교사 3, p.10:38-41).

장애인, 비장애인이 다 섞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그렇게 사실은 할 수도 없어요. 상태가 심한 아이들은 할 수도 없고 산만하고 정상인의 아이들도 방해를 많이 받으니까,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따로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교사 7, p.33:27-3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B광역시와 K도에 소재한 교회 내에서 장애인부서의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인부서 운영 실태와 통합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을 알아보고자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에 개별면담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교회 내에 설치된 장애인부서의 전반적인 운영 과정이 주로 신앙(믿음)적인 측면에 치중한 나머지 (특수)교육학적인 인식은 매우 과소평가되거나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장애인 부서가 설치된 장소가 일반기관이 아닌 교회인 만큼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 믿음이나 영혼구원에 있음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역사에서 기독교계가 학교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깊은 상호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의 발전사를 살펴보다도 쉽게 알 수 있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과 학교의 설립과정에서 외국의 기독교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의료와 더불어 교육 활동을 주요 매개체로 사용하였으며, 20세기 초기까지 설립된 미션학교는 광혜원, 배재학당, 언더우드 학당, 이화학당 등을 비롯하여 약 800개교에 이르렀다(손인수, 1987; 조성일·강진영, 2002). 이처럼 우리나라의 근대식 학교들은 관(官)주도 보다는 사학(私學)주도로 설립되었으며, 사학 가운데서도 기독교계의 사학이 민간인 사학보다 더 먼저 그리고 더 활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손인수, 1996). 특



히 당시 설립된 미션학교의 교육적 성격과 특징으로는, 기독교적 민주주의 교육과 인재양성, 자주정신의 한국인 양성, 평등사상을 기반으로 한 자주적 교육활동, 근대식 교육과정의 구성, 학기와 시간배정 등 근대 학제의 성립에 기여, 직업의 귀천 타파 및 근로정신의 배양 등 단순히 기독교 사상의 보급이나 선교를 넘어 교육을 비롯하여 사회윤리, 정치, 문화, 경제 등에서 민족정신을 일깨움으로서 세상과는 질 다른 시대정신을 주도하고자 하였다(박원희 외, 2009).

또한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경우에도 서양식 특수교육의 효시는 1894년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이며 의사였던 홀(R. S. Hall)여사의 시각장애인 소녀에 대한 점자교육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해방을 전후하여 평양 광명맹아학교, 대구 맹아학교 등 수 많은 우리나라 사립 특수학교가 기독교적 인도주의와 박애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권요한 외, 2015; 김기홍, 2014).

그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 참여한 담당교사들의 교회 장애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다음세대’, ‘주일학교’, ‘교회학교’ 혹은 ‘교육부서’ 등의 상급기관에 속하여 사실은 ‘믿음(신앙)’과 ‘교육’은 밀접한 관계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회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믿음이지만, 이 과정 가운데서는 교육이라는 도구 혹은 통로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교육은 결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에 교회학교 혹은 주일학교 등의 교육기관은 예배, 기도, 찬양, 믿음, 구원, 말씀 등의 신앙(학)적인 방향과 목적 및 대원칙을 바탕으로 한 후에 아동발달심리, 교육과정, 문제행동수정, 교수법, 상담, 교직, 교육관, 치료, 교육행정, 평가 등에 있어서는 반 기독교적이거나 비기독교적인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학교교육학의 이론과 실재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바이다. 즉 신학과 교육학의 상호 보완과 협력을 통하여 주일학교교육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의 적용과 실천의 한 부분이라고 여기는 바이다.

둘째, 교회 장애인 부서의 담당교사들이 가질 자질에 있어서 소위 인간적 자질(믿음, 인성, 사랑, 이해, 품성, 배려 등)과 전문적 자질(지식, 정보, 기능 등)의 함양을 위한 교사교육이나 연수교육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요섭, 2007; 양태수, 2006; 최석주, 2008; 이회능, 2004).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라는 교육학에서의 전통적인 격언은 전적으로 자율적이고 봉사차원이며, 특별한 자격조건이 없어도 가능한 교회교육에서의 담당교사에게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정영근 외, 2002; 임창재, 1999). 특히 인지, 정서, 신체운동, 감각, 의사소통, 사회성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능과 능력의 제한성을 가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담당교사들의 소명감과 더불어 전문성은 장애인 자신과 장애인부서 운영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질적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의 심층 면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율성, 봉사성 등을 기초로 한 장애인 부서 교사의 모집에서부터 간헐적이고 비체계적인 교사교육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교회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교사에 대한 다양한 연수교육을 통하여 교육학을 비롯하여 특수교육학 및 통합교육 등에 대한 기초적이며 포괄적인 지식과 정보 및 기능을 함양하여 최소한 교사, 교재, 교육과정, 교수법, 행동수정 등의 영역에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일정한 면모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이은주, 2002).

셋째, 교회에서 장애인이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이 통합적인 환경에서의 예배, 공과 활동 혹은 교회 행사에 참여하여 차별 없이 존중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풍토를 조성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담임목사의 인식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김종복, 2005; 황홍렬, 2008; 최대열, 2009; 김영기, 2011). 김요섭(2007)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부서의 담당교사들은 통합교육보다는 오히려 분리교육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연구의 심층면담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구대상자들은 통합교육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는 아니었다. 이는 장애인부서의 담당교사들이 장애인들의 문제 행동을 통합교육의 걸림돌로 보는 시각과 더불어 교회 내에서 현실적으로 여전히 만연한 장애인에 대한 거부, 회피 등 부정적인 인식에 오히려 더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일반학교 교육에서도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의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정착시키는 일은 특별히 교육행정을 주도하는 기관장이며 관리이자 행정가인 교장의 긍정적인 태도나 책임의식이 반드시 요구된다(박승희, 2004; 이소현·박은혜, 2006; 한국통합교육학회, 2009).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의 담임목사의 역할과 기능은 일선학교의 학교장과 유사한 의미와 기능을 가진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신총회(<http://cafe.daum.net>)의 헌법 제41조(목사의 직무)에 따르면, 목사의 직무는 총 8가지로 정하고 있다. 즉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 찬송을 지도하는 일, 성례를 거행하는 일,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하는 일, 교인을 교육하는 일, 교인을 심방하는 일 및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 등이다. 이에 교회 내에서 장애인부서의 올바른 운영이나 더 나아가서 통합 교육적 환경과 인식을 조성하는 일에 있어서 담임목사의 권한과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담임목회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학적 또는 특수교육학적인 인식을 준비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목회자 양성 대학에서부터 특수교육관련 교과목 개설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금섭·배내운·이민호(2005)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특수교육관련 교과목이 설치된 경우를 보면, 신학과가 설치된 35개교 대학 가운데서 2개교(약 5.7%), 기독교교육과가 설치된 12개교 대학 가운데 2개교(약 16.7%) 그리고 32개 신학대학원 가운데 2개교(약 6.3%)로 나타나 목회자의 양성과정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실제적이고 기초적인 지식과 객관적인 정보의 결핍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전국의 교육대학교의 경우에는 모든 학교에 특수교육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또한 교육과학기술부(2009)에 의하면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모든 유아, 초등 및 중등예비교사들은 2학점 이상의 ‘특수교육학개론’ 교직과목이 필수 교직소양과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기초로 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담임목사의 인식개선’이라는 두 가지 핵심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관련하여 교회의 장애인 부서의 담당교사들은 대부분 다양한 직업인으로서 주로 믿음, 사랑, 헌신의 정신으로 ‘자원(自願)’이나 ‘권유’를 통하여 해당 부서에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부서 담당교사의 자질을 살펴볼 때, 교사의 인간적 자질은 말할 나위도 없이 매우 우수하지만, 교육적 혹은 특수교육적인 인식 면에서 전문성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발견된다. 즉 장애인부서의 운영 과정에서 대체로 믿음, 기도, 예배 등 신앙(학)적인 면은 강조가 되는 반면에 이를 성취하기 위한 한 도구이자 수단에 해당하는 (특수)교육(학)적인 사고나 분석, 계획, 평가 등에 대한 교회 내·외적인 지원이나 기회 등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결국 장애인부서가 계획성, 조직성, 체계성 등 전문성이 매우 결여된 부서로 여전히 잔류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담임목사의 관심, 지원 및 참여 등의 인식은 결국 장애인부서의 흥망성

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의 통합교육적인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선결 요인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특히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기독교와 교회는 성공주의, 물질주의, 형식주의, 대형화 등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을 벗어나고 바른 믿음과 행함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회복하여 점점 혼란해져 가는 오늘날 시대정신을 바로잡는 세상의 빛과 소금 및 진리의 등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동일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본 연구는 교회의 장애인부서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처음으로 실시한 심층면담의 질적 연구를 통하여 실증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시함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자의 수와 지역적인 제한성이 있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참여 교사들 수와 더불어 지역적 확대와 양적 연구도 병행하여 시도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권요한 · 김수진 · 김요섭 · 박중휘 · 이상훈 · 이순복 · 정은희 · 정진자 · 정희섭 (2015). **특수교육학개론**. 2판. 서울: 학지사.
- [Kown, Y. H., Kim, S. J., Kim, Y. S., Park, J. H., Lee, S. H., Lee, S. B., Cheong, E. H., Cheong, J. J., Cheong, H. S. (2015).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2, Edition. Seoul: Hakjisa.]
-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9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 *2009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Practical Handbook*.]
- 교육부 (2016). **2016 특수교육통계**. 서울: 에프앤(주).
- [Ministry of Education (2016). *2016 Special Education Statistics*. Seoul: FN(Corporation).]
- 김기홍 (2014). **장애아교육학**. 개정판. 서울: 집문당.
- [Kim, K. H. (2014). *Disabilities Children Education*. Seoul: Jipmondang.]
- 김문수 (2009).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교회 장애인 복지 활성화 방안 연구. **인권 복지연구**, 7, 39-41.
- [Kim, M. S. (2009). *A Study on the Promotion of Welfare for the Disabled People of the Church for the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Journal of Human Rights Welfare, 7, 39-41.]
- 김영기 (2011). **한국 개신교 사회복지활동 활성화에 미치는 요인연구-부산광역시 교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Kim, Y. K. (2011).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Activation of Social Welfare Activities in Korean Protestant Churches - Focused on Busan Metropolitan City*. Masters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김요섭 (2007). 교회장애인 부서교사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 **기독교교육정보**, 16, 157-180.
- [Kim, Y. S. (2007). A survey of the consciousness of teachers of disability department of church.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16, 157-180.]
- 김윤옥 · 박성미 · 박소영 · 손 미 · 신경숙 · 이은화 · 정명화 · 허승희 · 황희숙 (2009). **질적연구실천방법**. 경기도 파주: 교육과학사.
- [Kim, Y. O., Park, S. M., Park, S. Y., Son, M., Shin, K. S., Lee, E. H., Cheong, M. H., Huh, S. H., Hwang, H. S. (2009). *Qualitative study practice methode*.

Keoyunggido Paju: Gyoyuggwahagsa.]

김은경 (2007). 장애인 통합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방향. 교회학교 통합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교회**, 356권, 24-30.

[Kim, E. K. (2007).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for the Inclusion of Disabled Persons. Focusing on Inclusion School Education in Church Schools. *Educational Church*, 356, 24-30.]

김종복 (2005). **현대사회의 장애인의 현실과 한국교회의 역할**.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05대회,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05 추진본부.

[Kim, J. B. (2005). *The reality of disabled people in modern society and the role of Korean church*.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05,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05 Promotion Headquarters.]

박승희 (2004). **한국 장애학생 통합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Park, S. H. (2004). *Inclusive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Korea*. Seoul: Gyoyuggwahagsa.]

박원희 · 김기창 · 김영일 · 김영옥 · 이은주 · 신현기 · 한경근 · 이숙정 · 김애화 · 윤미선 · 김은경 · 송병호 · 이병인 · 김송석 · 양경희 (2009). **특수교육학**. 경기도 파주: 교육과학사.

[Park, W. H., Kim, K. C., Kim, Y. I., Kim, Y. W., Lee, E. J., Shin, H. K., Han, K. G., Lee, S. J., Kim, A. H., Yoon, M. S., Kim, E. K., Song, B. H., Lee, B. I., Kim, S. S., Yang, K. H. (2009). *Special Education*. Keoyunggido Paju: Gyoyuggwahagsa.]

박혜전 · 김정임 · 조영길 (2011). 한국 교회의 장애인식 및 장애수용(장애인 편의시설 포함)에 관한 연구. **신앙과 학문**, 17(1), 97-126.

[Park, H. J., Kim, J. I., Cho, Y. G. (2011). A Study on the Disability Recognition and Disability Acceptance of Korean Churches. *faith & scholarship*, 17(1), 97-126.]

박혜전 · 조영길 (2009). 장애인 재활과 기독교적 소명. **신앙과 학문**, 14(3), 135-175.

[Park, H. J., Cho, Y. G. (2009). Rehabilitation and Christian Call for the Disabled. *faith & scholarship*, 14(3), 135-175.]

손인수 (1987). **한국교육사**. 서울: 문음사.

[Son, I. S. (1987). *Korean Educational History*. Seoul: Muneumsa.]

손인수 (1996). **교육사 · 교육철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문음사.

[Son, I. S. (1996).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al History and Philosophy*. Seoul: Muneumsa.]

- 양태수 (2006). **21세기 감리교 장애인 선교방향 모색**. 실천신학 석사논문. 감리교 신학대학교.
- [Yang, T. S. (2006). *Seeking the direction of missions for 21st Century Methodists*. Master's Thesis. Practical Theology at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 오세철 (1987). 성서(聖書)에 나타난 장애자관(障碍者觀).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9, 1-23.
- [Oh, S. C. (1987). Perspectives of the disabled person in the Bible.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9, 1-23.]
- 이계윤 (2002). **재활복지실천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밀알선교단 출판부.
- [Lee, G. Y. (2002). *Theory and Practice of Rehabilitation Welfare Practice*. Seoul: Milal Mission Press.]
- 이금섭 · 배내운 · 이민호 (2005). 목회자 양성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 조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4), 297-313.
- [Lee, G. S., Bae, R. Y., Lee, M. H. (2005). Survey on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Education Related Subjects in Pastoral College.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und Practice*, 6(4), 297-313.]
- 이소현 · 박은혜 (2006). **특수아동교육**. 서울: 학지사.
- [Lee, S. H., Park, E. H. (2006). *Special Child Education*. Seoul: Hakjisa.]
- 이용숙 · 김영천 (2005).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Lee, Y. S., Kim, Y. C. (2005).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Seoul: Gyoyuggwahagsa.]
- 이은미 (2010). 장애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한국교회의 장애인 선교 실천방안 연구. **선교신학**, 25, 337-371.
- [Lee, E. M. (2010). A Study on the Practice of Mission of the Korean Churches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 Change of Disability Paradigm. *Theology of Mission*, 25, 337-371.]
- 이은미 (2013). 장애인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연구, **신학과 선교**, 42, 215-246.
- [Lee, E. M. (2013). A Study on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the Christian Approach to the Disabled. *Theology und Mission*, 42, 215-246.]
- 이은주 (2002). 통합교육 현장 비디오 시청활동이 예비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36(4), 213-237.
- [Lee, E. J. (2002). The Effect of the Integrated Video-on-Demand Video Watching

- on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Integrated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6(4), 213-237.]
- 이희능 (2004).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교육에 관한 기독교적 접근. **기독교교육정보**, 9, 113-151.
- [Lee, H. N. (2004). Christian approach to integrated education for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9, 113-151.]
- 이희철 (2009). 장애인 선교의 단계별 사역방안. **월간고신** 4월호.
- [Lee, H. C. (2009). Step-by-step ministry plan for the disabled person mission. *Monthly Koshin*, 4th. Monthly.]
- 임창재 (1999). **교육학의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 [Lim, C. J. (1999). *Understanding Pedagogy*. Seoul: Hyeongseol Press.]
- 조성일 · 강진영 (2002). **교육학개론**. 서울: 문음사.
- [Cho, S. I., Kang, J. Y. (2002). *Introduction to Education*. Seoul: Muneumsa.]
- 정영근 · 정혜영 · 김미환 · 최종인 · 박용석 · 정기섭 (2002). **교육학개론**. 서울: 문음사.
- [Cheong, Y. G., Cheong H. Y., Kim, M. H., Choi J. I., Park, Y. S., Cheong, K. S. (2002). *Introduction to Education*. Seoul: Muneumsa.]
- 최대열 (2009). **선교신학적 접근에서 본 장애인: 장애인선교신학의 정립을 위하여. 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 서울: 도서출판 세계밀알.
- [Choi, D. Y. (2009). *Mission Theological view of the disabled person*. Seoul: Sege Milal Press.]
- 최석주 (2008). **지역교회의 장애인복지선교 발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연구**. 재활 복지대학원 석사논문. 나사렛대학교.
- [Choi, S. J. (2008). *A Study on the Direction to Advance the Development of Welfare Mission in the Local Church*. Masters Dissertation. Nazaret University, Seoul, Korea.]
- 통계청 (2016).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 표본 집계결과. 인구 · 가구 · 주택 기본 특성항목**. 조사 관리국 인구총조사과 보도자료.
- [Statistical Office Korea (2016). *Sample of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of 2015. Population · Household · Housing Basic Characteristics*. Census Bureau Population Census Division Press Release.]
- 한국통합교육학회 (2009). **통합교육**. 2판. 서울: 학지사.
- [Korea Inclusion Education Society (2009). *Inclusive Education*. 2. Edition. Seoul:



Hakji-sa.]

한남희 (2001). **장애인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Han, N. H. (2001). *A Study on the Role of the Korean Church in the Mission of the Disabled*. Masters Dissertation. 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황홍렬 (2008). 장애인선교신학 정립을 위한 한 시도. **부산장신논총**, 8, 부산장신대학교출판부.

[Hwang, H. Y. (2008). An attempt to establish the theology of the disabled person.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8,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Press.]

Greving, H. & Ondracek, P. (2005). *Handbuch Heilpaedagogik*. Troisdorf: Bildungsverlag EINS.

[Greving, H. & Ondracek, P. (2005). *Handbook of Therapeutic Pedagogy*. Troisdorf: Bildungsverlag EINS.]

Hensle, U. & Vernooij, M. A. (2000). *Einfuehrung in die Arbeit mit behinderten Menschen 1*. 6. Aufl. Wiebelsheim: Quelle und Meyer.

[Hensle, U. & Vernooij, M. A. (2000). *Introduction to working with disabled people 1*. 6. Edition. Wiebelsheim: Quelle und Meyer]

Mosen, G., Lohs, A., Hagemaiier, R., Knapp, R., Sackarendt, B. (2001). *Bildstoerung! Der lange Weg vom Tollhaus zur Werkstatt fuer Behinderte*. Eine Ausstellung ueber die Geschichte des Umgangs mit behinderten Menschen. Frankfurt a. M., Bundesarbeitsge-meinschaft Werkstaetten fuer Behinderte e. V.

[Mosen, G., Lohs, A., Hagemaiier, R., Knapp, R., Sackarendt, B. (2001). *Imagedisorder! The long way from the Tollhaus to the workshop for the disabled*. An exhibition about the history of dealing with disabled people. Frankfurt a. M., Federallaborcommunity Work-shops for disabled organization].

Moser, V. (1995). *Die Ordnung des Schicksals*. Zur ideengeschichtlichen Tradition der Sonderpaedagogik, Butzbach-Griedel: AFRA-Verlag.

[Moser, V. (1995). *The Order of Destiny*. On the tradition of special pedagogy. Butzbach-Griedel: AFRA-Press.]

Speck, O. (2003). *System Heilpaedagogik*. Eine oekologische reflexive Grundlegung, 5. Aufl., Muenchen & Basel: Reinhardt.

[Speck, O. (2003). *System of therapeutic education*. An ecological reflexive foundation. 5. Edition. Muenchen & Basel: Reinhardt.]

고신총회헌법. <http://cafe.daum.net>(2017.7.10).

[Constitution of the General Assembly. Retrieved from <http://cafe.daum.net>(2017.7.10.)]

교회복음신문 2017. 1. 21일자 12면. “신년대담.”

[“New Year talk”, Gyohoebogeumsinmun(2017.1.21.) page 12. ]

크리스찬연합신문. <http://cupnews.kr>(2017.3.16).

[Christianyunhapsinmun. Retrieved from <http://cupnews.kr>(2017.3.16.)]

## 논문초록

# 교회 내 장애인 부서의 운영 실태와 통합교육에 대한 담당 교사들의 인식

김기홍 (부산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본 연구는 교회의 장애인부서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부서 운영 실태와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B광역시와 K도에 소재하고 장애인부서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6개 교회의 총 10명의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개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내용은 장애인 부서 운영의 실태와 통합교육에 대한 담당교사들의 인식 등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회의 장애인 부서 운영 실태에 관한 인식에서, 첫째, 담당교사들은 장애인부서의 존재의미로는 장애인의 믿음생활에 핵심가치를 두고 있었다. 둘째, 장애인부서의 담당교사 수급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로 인하여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장애인 부서의 주일 프로그램은 교회별, 담당교사별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있었다. 넷째, 체계적인 교사교육(연수)을 통한 담당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는 시급하지만 담당교사의 개인적인 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어서 통합교육에 대한 담당교사들의 인식과 관련하여, 첫째, 통합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수준은 단순하거나 불분명하였다. 둘째, 통합교육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보다는 교육현장의 현실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각인되어 있었다. 셋째, 통합교육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선결과제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장애인의 문제행동의 개선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 통합교육, 교회학교, 장애학생 부서, 담당교사



## 이슬람권과의 문화 산업 교류 방안 연구

–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Cultural Exchange between Muslim Countries and Cultural Industries

– Focusing on Aceh region in Indonesia –

김성규 (Sung-Kyu Kim)\*

김형길 (Hyung-Gil Kim)(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Abstract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ways about the exchange of culture industry with the Islamic world— focusing on Aceh of Indonesia which has the greatest population of muslims in the world. Cultural industry exchange with Muslim countries has been limited to temporary or partial. Until Aceh has become the Special Province of Indonesia since it signed the Peace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in Helsinki with its central government in 2005 followed by the worst tsunami disaster on December 26, 2004, that resulted in the death of more than 200,000 people, it has not been opened as a disputed area that was extremely closed and blocked from the outside world, because the civil war had continued for 30 years from 1976 to win the Aceh independence from Indonesia. In order to study the exchange of culture industry with Aceh region which is governed by strict Islamic law, Sharia, it is imperative to understand the Islamic rea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Indonesia and Aceh region. The real exchange starts with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and residents of the area to create goodwill, friendship and peace. To begin with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Islamic countries and cultural industries; First, establis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Korean Culture Industry Center' in consultation with the local Islamic government. Secondly, they will continue to cooperate with the local cultural industries by developing and

---

\*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sqkim2002@gmail.com

\*\*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jejumarketing@gmail.com

2017년 11월 15일 접수, 12월 09일 최종수정, 12월 20일 게재확정

materializing appropriate contents. Third, the promotion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can achieve the desired purpose by genuinely helping the Muslim people with the Biblical worldview based on the Word, loving it as brotherly love, and promoting it with trust. When the exchange of culture industry programs with Aceh is gradually activated, it will help to promote cultural industry exchanges with Indonesia, Southeast Asia and all Muslim countries worldwide. Through this, cultural industry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Islamic world would contribute to creating mutual understanding, friendship, reconciliation and a peaceful society, which is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to make the work of God's vision of salvation.

**Key Words** : culture industry, Islam, muslim, Islamic law, Biblical worldview

## I. 서론

인도네시아는 인도양과 태평양에 있는 1만 8천여 개의 섬이 동서로 5천여 km 펼쳐져 있고 인구 2억5천만 명 이상인 나라로 세계 네 번째의 인구 강대국이며 다량의 천연자원을 가진 자원 강대국이다. 350여 종족 이상의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중동의 무슬림을 합친 것 보다 더 많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무슬림 국가이며, 6대 고등종교(이슬람 87%, 기독교 10%, 천주교, 불교, 힌두교, 회교, 유교)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종교 대국이기도 하다(어성호, 2010: 33).

인도네시아 아체는 804년 이슬람 독립왕국인 페르라크 왕조를 건설하고 이슬람교를 동남아시아로 전파한 말라카 해협의 관문이자 무역항구로 각광을 받았다. 1873년 네덜란드의 침공을 시작으로 30년간의 ‘아체전쟁’(1873-1902)에서 술탄은 항복했지만, 계속된 독립항쟁과 2차 대전 직후 인도네시아에 병합되는 아픔을 겪으면서 이에 항거하여 중앙정부군과 2004년 쓰나미가 나기까지 분리 독립을 위해 30여 년간 치열한 내전을 치르면서 외부 세계와는 단절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근세 사상 최악의 쓰나미로 내전을 종식하고 분리 독립을 포기하면서 중앙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아체특별자치주가 된 지역이다.

현재 전 세계의 무슬림 인구는 약 16억 명, 세계인구의 4분의 1에 이른다. 가톨릭은 무슬림이 이미 유럽에서 가톨릭 인구를 능가했다고 발표했으며, 유엔도 2020년이면 이슬람이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종교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슬람은 산아 제한을 하지 않아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한다. 지난 70년 동안 2억에서 16억으

로 800% 급속히 성장했다(Christian Life Jeju, 2016.4.1).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 1997)은 기독교와 이슬람, 정교,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유대교 등 세계의 주요 문명 종교를 기반으로 10여 개의 문명권으로 나누어 논술한 ‘문명의 충돌’(Clash of Civilizations)에서 ‘앞으로 전쟁이 나면, 문명의 불연속선(Fault line)을 따라 일어날 것’이라고 갈파하여 서양문명에 대한 이슬람 일부 세력의 공격을 예견한 바 있다<sup>1)</sup>. 그러나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함으로써(마 22:37-40, 막 12:30-31) 행복한 사회를 세울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명의 충돌’에서 우려하는 부정적인 미래를 예측한 헌팅턴의 논지(論旨)에 반하여 서로 다른 문명이 성경 말씀에 따라 서로 조화를 이룸으로 ‘충돌보다는 화합’으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를 수용하면서 이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다. 잠언서는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하고”(잠 3:29), “이웃에 신실하게 행하며”(잠 11:3), “이웃에게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잠 14:21, 31), “이웃에 좋은 친구가 될 것”(잠 17:17)이라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슬람권과의 문화산업 교류를 믿음으로 실천할 때, 온 인류가 행복한 삶을 공유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있다.

성경에는 메시아를 평화의 왕(사 9:6)으로 묘사하며 메시아의 왕국을,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되는”사회(사 2:4; 7:25)로 기록하고 있다. 이 시대의 우리 사회는 이슬람 근본주의에 관한 풍조를 바로 ‘악을 악으로 갚으며,’ 이슬람 지하드 곧 성전론(聖戰論)을 ‘테러주의’라는 사고구조가 팽배한 실정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평화의 사자였던 것처럼(엡 2:14-22)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용서만이 평화의 발걸음이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현한나, 2014: 199-231).

이 논문의 목적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아제 지역과의 문화산업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호이해와 친선을 도모하고, 앞으로 모든 이슬람권과의 교류의 폭을 넓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슬람권에 확산되면 무슬림들과의 우호적이며 화해와 상생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평화로운 사회를 세워 가도록 기여하는데 있다.

1) Samuel Huntington의 『문명과 충돌』이 1997년 발간된 후 불과 4년 뒤인 2001년 9월 11일 미국 본토는 물론 전 세계를 미증유의 대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9·11 테러’는 전통적 의미의 전쟁은 아니었더라도 서양문명에 대한 이슬람 일부 세력의 정면 공격으로 볼 수 있다.

## II. 선행연구

### 1. 문화산업의 특성

‘문화산업(Culture Industry)’이란 용어는 1930년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호르크하이머(M. Horkheimer)와 아도르노(T. Adorno)의 저서 『계몽의 변증법(*The Dialectic of Enlightenment*), 1944』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당시 문화산업에 대한 논의는 문화산업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문화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따른 대중문화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 사용된 성격이 짙었다(김승수, 2007: 15). 문화산업은 ‘문화·예술을 상품화하여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가능한 산업’이라는 개념으로 정착하게 되었으며, 소수 특권층에만 국한되었던 ‘엘리트 문화’에서 다수 대중이 참여하는 ‘대중 참여 문화’로의 이행이라는 문화민주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이 논의되었다(문화관광부, 2002). 20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대중문화는 경제적 부흥기를 등에 업고 보다 전문화되고 광범위 화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결과 문화산업도 좀 더 세분화되고 상품화의 형태도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안종배, 2012: 52-54).

우리가 흔히 문화산업이라고 부르고 있는 영화, 음악, 공연, 게임, 전시 등의 장르는 일반 산업과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0년 1월 표준산업분류를 개정, 문화산업을 ‘특수분류’로 설정해 출판, 음반, 게임, 영화, 방송, 공연 분야를 문화산업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사진촬영 및 처리업, 전문 디자인업, 광고업, 공예품 및 한복 제조업과 유통업, 뉴스제공, 도서관, 박물관, 예술 및 문화 부문 교육 서비스업 등을 기타 문화산업으로 분류했다. 문화산업은 1)사회구성원의 정체성과 생활양식에 영향을 끼치고 2)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이 강하며 3) 유행 상품이어서 수명이 짧고 4) 타 산업에 비해 창구효과(window effect)가 높다는 특성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은 아직까지 산업화의 초기단계이며, 산업화의 성숙기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의 확대가 필수적인 관건이다(삼성경제연구소, 2004).

문화산업에 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이견이 있을뿐더러 이슬람올법으로 통치하고 있는 아제 주와 문화산업의 교류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 범위와 한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크리스 바커(Chris Barker, 2002: 121)는 문화를 소재로 기업이 생산, 저장,



배포 등의 활동을 하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 즉 문화콘텐츠를 대량생산, 대량유통하는 것을 ‘문화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산업은 대중문화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며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이다. 이 논문에서는 교류가능한 문화산업과 연관된 산업 즉, 중소기업의 시장진출, 산업기술의 이전과 중개 등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

## 2. 문화산업 교류의 유형

이 논문은 이슬람권과의 문화산업 교류를 연구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실태와 아체의 역사와 사회, 교육, 문화, 산업, 정치, 종교 등에 대하여 선행 문헌연구와 인도네시아 아체에서 개최된 학술회의, 세미나 등에서 토의 내용과 리포트, 현지 언론 매체 등의 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아체와 지금까지 추진한 문화산업 교류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유형의 콘텐츠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1) 중소기업 비즈니스와 산학 협력

아체가 2005년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맺은 ‘헬싱키 평화협정’에 따라 외교, 국방, 국가안전, 재정, 사법 등 일부분을 제외한 광범위한 자치권을 2006년 수립된 아체특별자치주에 보장하고 있고, 이 협정에는 아체 주가 ‘국내 국제적으로 무역과 비즈니스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직접 투자와 관광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2)</sup>. 아체 주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석유, 천연가스, 주석, 니켈, 목재, 팜오일, 고무 등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장 많은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간의 분리 독립운동과 쓰나미, 그리고 정세불안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3년 1월 29일 한국기업들이 아체 주 정부와 시아쿠알라대학교에 제안함에 따라

2) ‘헬싱키평화협정’ 『The Helsinki Agree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The Free Aceh Movement, 2005』- 이 양해각서는 2005년 8월 15일 헬싱키에서 인도네시아 정부(GOI)와 자유아체운동(GAM) 사이에 체결된 일명 ‘헬싱키평화협정’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협정에 의해 아체는 새로운 특별자치 법으로 아체특별자치주를 통치하되, 외무, 국방, 국가안전, 통화 재정, 사법의 자유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아체와 한국 기업 간의 교육산업, 문화 예술, 과학 등의 협력을 위한 『Aceh Korea Corridor: 아체 한국지대』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목적으로 아체 주정부 각 기관 대표와 개발 파트너인 시아쿠알라대학교 총장과 각 단과대학 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체쓰나미연구센터』에서 발족했다. 이 프로젝트의 추진을 맡게 될 교육, IT, 그린에너지, 의료, 해양수산 개발 등으로 이루어진 분야별 인사들로 구성된 한국 측 T/F(Task Force) 팀도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구성하기로 했다. 아체 주의 현재의 경제발전 상황에서 볼 때 한국 중소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하여 아체에 진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의 유형을 이 프로젝트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아체 주에는 교육자료 회사인 (주) EduStandard를 비롯하여 태양광과 배터리 등 3-4개 한국 중소기업이 법인을 만들어 비즈니스에 진출하고 있다.

## (2) 교육 기능에 대한 협력

인도네시아 아체는 최근 30여 년간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의 분리 독립을 위한 무력투쟁으로 인한 교육 공백으로 문맹률이 높은 편이며, 오랜 동안 지속된 분쟁과 쓰나미 재해로 교육 시설은 소실되었고 어린이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사와 교수 등 인적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 사회의 특성상 미술, 음악, 예술, 체육 등 예체능 교육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국립대학인 시아쿠알라대학교에도 미술 관련 과목이 없고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미술에 관한 수업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2010년 시아쿠알라대학교의 부총장과 체육 교수가 한국의 교육제도와 커리큘럼 연구차 서울과 제주를 방문하고 아체 주정부와 교육당국에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어린이 유치원으로부터 대학까지 각 급 학교 학생들이나 교사들은 물론 학부모와 일반 주민들이 예체능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교육 제도와 체제 그리고 재정 형편상 이들의 요구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아체 주 정부 교육 당국에서는 우선 인터내셔널 유치원과 국제학교 그리고 직업전문학교를 한국에서 세우도록 제안하고 있다. 아체 대학에서는 모든 분야 학생들에게 정부 또는 대학의 �칼라십으로 아체 대학생들을 한국이 초청하여 교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간 제주대학교를 비롯하여 매년 2-3명 정도 교환 장학생 12명의 아체

대학생들이 2016년까지 한국에 유학하고 있다. 현재 ‘아체 한국문화원’에서는 대학생들을 위한 기초 미술 세미나와 실기 워크숍 그리고 한국어 강좌를 초급반에서부터 8개 클래스를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 강사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sup>3)</sup>.

아체는 국립 쓰나미 연구소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해양과학기술공원’에 인터내셔널 유치원과 초급학교 과정, ICT 센터 및 영어 한국어 등 언어 교육을 위한 시청각 교육관, 문화예술센터와 한국홍보전시관, 한국전통음식관, 그린에너지, 의약 및 의료기기 사업과 우수 산업 전시관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제커뮤니티’ 건설을 추진하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 (3) 스포츠 교류

804년 최초의 이슬람 독립왕국을 수마트라에 세운 아체 족은 1873년 네덜란드의 침입을 받고 30년간의 ‘아체 전쟁’ 끝에 1902년 술탄은 항복을 했으나 아체 족 주민들은 남녘을 불문하고 줄곧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항거한 용맹스러운 종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의 문화산업 교류를 처음으로 협의할 때 아체 주 당국이나 대학에서는 다른 문화산업 교류도 중요하지만 먼저 태권도 사범 파견을 제일 순위로 요청할 정도였다. 아체 주민들은 특히 호신술을 겸한 격투기로서 글로벌 올림픽 스포츠인 태권도를 직접 수련하거나 시범을 보기를 몹시 좋아한다.

태권도는 이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개발도상국에까지도 보급되고 지원을 통한 한류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 태권도 이외에도 세계 및 아시아 정상급 수준에 있는 축구, 양궁, 유도, 레슬링, 역도, 테니스 등 종목의 한국 스포츠 지도자를 파견하고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 선수와 경기 지도자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교환 경기와 전지훈련 등 스포츠 교류의 확대를 통해 무슬림 지역의 국가들과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다. 특히 2018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아시안 게임을 대비한 스포츠 교류는 아체와의 문화산업 교류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3) ‘아체한국문화원(Korean Cultural Center, Aceh)’: 2008년 3월18일 제주열방대학(University of the Nations Jeju Campus) 대표와 아체특별자치주 지사와 국립시아쿠알라대학(Universitas Syiah Kuala: [www.unsyiah.ac.id](http://www.unsyiah.ac.id)) 총장 간의 쓰나미 재해 복구와 산업, 교육, 학술, 문화 등 상호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MOU를 맺고, 그 목적의 실천을 위하여 3자 대표자가 협의하여 세운 한국 인도네시아 아체 간 문화산업 교류 협력을 담당하는 비정부기관이다.

기대된다.

#### (4) 문화 예술 교류

한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은 주로 K-Pop, 가요 등 음악, 드라마, 한국어, 한국음식, 게임, 애니메이션, 스마트폰, 자동차 등 한국의 우수 산업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TV 방송 과 SNS 등 대중 매체의 발달로 한국의 문화콘텐츠, 즉 한류가 세계화의 물결을 타게 되었고 아체 주민들은 물론 청소년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한국의 드라마, 음악, 전통 음식, 미술실기 지도, 한국어 교육 등이 점차적으로 교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아체와의 문화산업 교류는 아체 무슬림 주민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선정하여 교류의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아체 지역 사회에도 급속도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아체 내에서는 K-Pop 아이돌 그룹의 음악과 무용이 청소년 대학생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면서 동시에 한국의 가요와 전통 무용을 즐기고 있다. 특히 뮤직 비디오나, 유튜브 등으로 접한 이들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SNS를 통해 아체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

아체를 방문하는 대학생 현장 실습 팀이나 사회봉사 팀들이 준비해 간 콘텐츠는 곧바로 아체 사회에 전수되어 합동 공연이 가능할 정도로 익숙하게 전파된다. 여기에는 한국의 고유 의상인 한복과 전통 음식으로 비빔밥, 불고기, 김치전, 떡볶이, 태권도 시범 등이 곁들여져 또 한 종류의 성향을 이룬다.

2012년 6월 시아쿠알라대학의 학술문화대표단 32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인덕대학에서 학술회의와 아체 전통무용 사만을 공연하였고 아체 풍물전시회를 가졌다. 2016년 11월에는 아체 대학원생들과 지도교수들로 구성된 17명의 학술문화대표단이 제주를 방문 열방대학에서 논문 발표와 아체 전통 문화예술 공연을 하고 자매 결연을 맺은 제주대학에서 교류 협력에 관한 협의를 한 바 있다.

2016년 11월 초 주인도네시아 한국 조태영 대사가 시아쿠알라대학과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을 때 아체와 한국 대학생들의 합동공연 프로그램은 K-Pop과 가요, 부채 춤, 태권도 시범, 그리고 끝으로 88서울올림픽 주제가 ‘손에 손잡고’를 40여명이 한국어로 합창하여 관중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 Ⅲ.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 1.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현황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Muslim) 인구를 가진 나라임에도 이슬람이 국교는 아니다. 오늘날 전체 인구 약 2억 5천만 명의 87%인 2억 명 이상이 무슬림으로 추산되는 인도네시아는 그 구성 종족들이 지리적, 문화적, 종족적 그리고 언어적으로 배경이 매우 다양하여 동질적인 요소보다 이질적인 요소가 더욱 강하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300여 종족과 국어인 ‘바하사 인도네시아어’ 외에도 583종류의 지역 언어가 공존하고 있다(Johnston, 2002: 583). 1596년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들어 왔을 당시 이슬람은 인도네시아 사회의 왕족들과 지배계층에서 유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이슬람화 과정은 중동의 정통 이슬람과는 서로 다른 이슬람 과정을 거쳤다. AD600년 이전까지는 인도네시아의 신앙은 정녕숭배였고 바다를 통해 왕래가 이루어지면서 항구를 통해 힌두, 불교가 전래되어 거의 1천년이 지난 후 이슬람이 인도네시아에 전파되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슬람은 민속신앙과 실천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신비주의와 애니미즘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도에서 수세기 전에 건너 온 인도화 된 이슬람도 섞여있다(공일주, 1997: 79).

인도네시아 이슬람 초기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술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지만 Samsul Rizal(2014) 시아쿠알라 대학 총장 등 아체 학자들에 의하면 632년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 사후 40년이 되는 672년에 아라비아 예멘을 통해 이슬람이 아체왕국에 전파되었고,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는 아체를 통해 이슬람교가 포교되었다고 주장한다.

Marco Polo(1254-1324)의 동방견문록에서도 1292년 북 수마트라의 파사이에 이미 무슬림 공동체가 있었다는 보고를 하였고(Lapidus, 2008: 634), 804년 수마트라 섬 서북단에 세운 아체 왕국이 이슬람교를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로 전파하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아체 지역 곳곳에 남아 있는 사실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역사의 주목할 만한 사건은 1945년 8월 17일 건국일에 선포된 헌법 제 11장 종교 제29조에 규정된 팡짜실라(Pancasila)이다<sup>4)</sup>. 제1항 국가는 최고의 신에 기

초를 둔다. 제2항 국가는 모든 국민에 대한 신앙의 자유와 각자의 신앙과 종교에 따른 종교적 자유와 의무를 수행할 권리를 보장한다. 뻘짜실라의 이러한 규정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 및 종족 문화를 합중국 형태의 거대한 통일국가를 만들기 위한 기틀이 되었고,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가진 나라이면서도 이슬람을 국교로 정하지 않은 이유이다. 무슬림들에게 이슬람은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인도하는 원리를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제시한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며 사는 자로 여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어떤 인종, 피부색, 공동체, 국가에 속해 있든지 무슬림이라고 말한다(Cooper Ann, 1993: 32, 48). 따라서 무슬림들은 이슬람을 민족이나 국가, 자연이나 혈연을 초월한 ‘형제애’를 강조하는 세계종교라고 설명한다(정수일, 2002: 32, 57).

지난 반세기 동안 수카르노와 수하르토가 이슬람 세력의 국가건설 요구를 외면했지만, 이슬람 부흥운동은 인도네시아의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약속을 재 정의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양승운, 2003: 52). 이들이 원하는 이슬람 정부는 이슬람법이 확립된 정부로서 종교학자나 지도자들이 정치권력을 쥔 수 있는 정부를 의미 한다(어성호, 2010: 33).

## 2. 인도네시아의 민속 이슬람

일반적으로 이슬람은 ‘공식(formal)’ 이슬람과 ‘민속(Folk)’ 이슬람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공식 이슬람을 고급(high), 이상적(ideal), 정통적(orthodox), 형식적(formal)이라고 하고 민속 이슬람은 이와 상대적으로 저급(low), 대중적(popular), 애니미즘적(animistic), 비형식적(informal)이라고 한다. 공식 이슬람은 알라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데 초점을 두지만 민속 이슬람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 신적인 것을 조종하려 한다. 공식 무슬림은 예배 때 신의 이름을 묵상한다면 민속 이슬람은 이런 이름들을 사용하여

---

4) 뻘짜실라(Pancasila)는 산트크리스티어에서 ‘다섯’을 의미하는 뻘짜와 ‘원칙’을 의미하는 ‘실라’의 합성어이다. 다섯 가지 선포된 인도네시아 헌법이념은 ① 유일신에 대한 믿음(Belief in the one and only God) ② 공정하고 문명화된 인본주의(Just and civilized humanity) ③ 인도네시아의 통합(The unity of Indoneia) ④ 합의제와 대의제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Democracy guided by the inner wisdom in the unanimity) ⑤ 인도네시아에 대한 사회정의(Social justice for all of the people of Indonesia)

그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공식 이슬람은 내세와 꾸란과 신학자에 중점을 두지만 민속 이슬람은 질병과 고난 등 일상생활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둔다(공일주, 1997: 79; 2008: 88)민속 이슬람(folk Islam) 혹은 대중 이슬람(popular Islam)은 정령 숭배 요소들이 교리 또는 신학적인 이슬람으로부터 분리된 대중적인 이슬람의 민간 신앙이다(Musk, 1979). 일반 공식 이슬람은 이슬람 율법학자인 올라마와 이맘 등 여성이 포함되지 않은 공식 계층 구조의 권위를 인정하고 고전 아랍어로 낭송하는 꾸란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순종하는 자세를 취한다. 반면 민속 대중 이슬람은 의술인, 마법사 등 여성도 포함된 능력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형성된 그룹과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와 같은 중심 건물은 없고 능력이 나타난 장소를 사당으로 하는데 나무나 시냇가 등에서 의식을 행한다. 이슬람 윤리 면에서는 일반 무슬림들은 꾸란에 근거한 법적 사회적 체제를 갖추고 주기적인 의식을 갖고 사회 종교적 기능을 수행한다(Musk, 1989 ).

한편 민속 이슬람은 구어체 방언을 사용하면서 영적 세계에 적합한 것으로 도덕과는 무관한 이슬람교의 신화인 정령-진(Jinn)을 달래거나 복을 비는 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위기에 처했을 때 지역적이거나 주기적으로 의식을 행한다(Musk, 1979).

민속 이슬람의 주요 관심은 일상생활과 죽음의 의미, 개인이나 집단의 불행과 안전,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인생의 성공적인 계획과 미지(과거, 현재, 미래)의 세계, 인간관계, 조상, 영, 귀신, 마귀, 동물과 식물과의 관계 등이다. 이러한 관심을 해결하는 과정에는 주로 천국, 성자, 심령치료사, 점성술, 강신술, 부적 등의 민간신앙의 요소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공일주, 1997: 81).

일반적으로 무슬림들의 70% 혹은 85% 이상이 대중(ordinary) 혹은 민속(folk) 이슬람에 속한다고 한다. 이들 안에서도 대중 이슬람에 해당되면서도 서로 다양한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계층들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부적이나 주술을 시행하거나, 가끔 샤먼(Shaman)이나 주술사를 찾고, 위기 시에 몰래 샤먼이나 주술사를 찾는 무슬림, 그리고 모든 형태의 주술을 거부하는 무슬림까지 포함된다고 한다(하호성, 2011: 16).

일반(ordinary 또는 formal) 이슬람의 강조점이 알라에게 복종과 경배라면 대중(popular 또는 folk) 이슬람은 신적인 것이 어떻게 인간의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Musk (1978)는 이슬람의 여섯 가지 교리와 다섯 기둥의 행위가 갖는 일반 이슬람(또는 공식 무슬림)에서의 의미가 민속 이슬람(또는 대중 무슬림)에서

어떻게 다른 의미로 나타나는가를 Table 1에서 보여주고 있다.

Table 1 Meaning Difference between Ordinary Islam and Popular Islam

Function	Form	Ordinary(Formal) Islam	Popular(Folk) Islam
Expression of Obedience to Allah (Six Doctrines)	Allah, monotheism	Confession of faith in monotheism	Using the magical name of Allah
	Angels	Servants that please Allah	Function of mediator, using angels to order
	The Qur'an	Allah's revelation	Fortune-telling, the Qur'an
	Prophets	Tools to convey the word of Allah to humans	Functional figures, relic worship
	The Last Judgement	Ethical focus of human life	Actions getting achievements for the dead
	Jinn/Destiny	Ultimately everything is in the hands of Allah	Attempts to change the fate of All in the night of power
Expression for Community Affiliation (Five Pillars)	Confession of Faith	To prove true muslim	In the space where evil lives Protected
	Prayer	Body cleanse to worship Allah	To wash away the pollution and sin of the devil with water
	Charity	Responsible for fellow muslim	Prevention of Evil eye (Nazar boncuk)
	Fast	Sign of community commitment	With Muhammad worship a night of power
	Ritual	Visiting the center of faith (mosque-temple)	Barakah-god's 'blessing' or visit the shrine instead

IV. 아체 지역의 특성

1. 아체의 역사, 종족 및 지리적 특성

아체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서북쪽 말라카 해협 입구에 위치한 이슬람 특별자치주이다. 2014년 아체특별자치주 정부통계(Buk Saku Aceh 2014: 17-60)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아체 주의 인구는 총 4,639,900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 중 남자가 2,346,900명이고 여자가 2,347,000명이다. 아체의 면적은 57,385.57km<sup>2</sup>이며 119개 섬과 35개의 산, 2개의 호수, 그리고 75개의 크고 작은 강으로 되어 있다.

아체는 2차 대전 후 스카르노와 하타가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을 선언했으나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식민지로 재점령하기 위한 무력을 사용하는 가운데 아체는 분리 독립을 주장했다. 1949년 12월 27일 ‘인도네시아 연방공화국’이 탄생되었다가 1950년 8월 연방헌법이 폐지되면서 아체를 북수마트라 주에 합병하게 되자 아체 주민들은 이를 거부하고 ‘이슬람 국가 건설’이라는 기치를 걸고 무장투쟁에 들어가게 되었다(양승윤 2003: 52).

1976년 아체는 ‘자유아체운동’(GAM: Free Aceh Movement)을 조직하는 한편 스웨덴에 아체망명정부를 수립하고 무장독립 투쟁을 했다. 2004년 12월 26일 쓰나미 대재앙으로 끝이 보이지 않던 아체 내전은 30여 년 만에 헬싱키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GAM 간에 평화협정으로 종식되고 아체특별자치주가 탄생하게 되었다.

2004년 아체지역의 쓰나미 피해는 당시 아체 인구 약 400만 명 중 20여만 명의 인명 피해와 50여만 명의 이재민을 냈다. 한국, 미국 등 세계 56개국의 국가 원수와 수반들 그리고 UN, EU, 국제적십자사 등 구호기관으로부터 막대한 원조가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를 통하여 지원되었다. 이를 계기로 수많은 NGO와 자원 봉사자들이 폐쇄되어 왔던 아체를 방문하여 복구지원 활동을 벌였다. 결국 자유아체운동(GAM)과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는 2005년 8월 15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전 핀란드 대통령 마티 아티사리(Martti Ahtissari)의 중재로 평화협정을 맺게 되었다.

아체 지역에는 아체 족(Acehnese)이 79%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과 인도에서부터 바탁(Batak) 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종적 혼합의 기원을 이루고 있다. 아체 족은 오랜 역사와 전통, 외세에 굴하지 않는 강한 종족으로 알려져 있다. 네덜란드와 아체 왕국 간의 30년 전쟁(1783-1893)은 아체 족의 강인한 투쟁정신과 긍지를 보여주고 있다. 아체 족은 전통적으로 모계사회로 결혼하면 첫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처가에 들어가서 사는 관습이 있고, 아체 지역 태생 이외의 주민들과는 철저하게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 아체특별자치주의 공식 언어는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체지역 안에는 8개 정도의 서로 다른 아체어가 공존하고 있다.

## 2. 아체 지역의 사회, 교육, 문화, 산업

1945년 2차 대전 후 2005년 평화협정을 맺기까지 아체는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분리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으로 40여 년간의 분쟁지역으로 외부 세계와는 극단적인 단절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의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초등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는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했다. 아체 학교에서는 교육이나 사회적 환경, 인적 자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암흑기였다. 노년층은 물론 청년들 심지어 소년들까지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문맹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공백이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주민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로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세대 간의 정서적 공백이 크게 벌어져 있다.

2004년 쓰나미 대재앙은 아체의 인적 물적 거의 모든 자원을 파괴하고 앗아갔다. 시아쿠알라대학교의 교수진과 가족도 쓰나미로 2백여 명이 희생되어 아직까지도 충원되지 못하고 60% 정도의 교수진만이 상위학위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희생된 교수들의 자리를 충원하지 못한 채 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이다(Overland, 2005: 37-38). 아체도 1994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총 9학년에 대해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에는 학비에서 크게 차이가 나며 국립대학으로는 시아쿠알라 종합대학교와 이슬람 종교대학 외에 사립 및 전문대학이 8개 있다.

아체의 인구 밀도는 1km<sup>2</sup> 당 83명에 불과하다. 15세 이상 취업 인구는 1,798,547명으로 농업과 수산업 종사자가 46.86%, 서비스 분야 19.67%, 무역업 15.70%, 제조업 4.11%, 기타 업종이 13.66%로 되어 있다. 아체의 주요 산업구조는 석유, 가스 산업, 천연고무, 농산물, 임산물, 금속광물 등인데 특용 작물로는 야자유, 코코넛, 카카오, 커피, 사탕수수 등이 있다. 축산은 소와 물소, 염소, 양, 말을 기르고 있다. 그 밖에 수산업도 유망한 업종이지만 현재로서는 전력 생산이나 공급이 절대 부족하여 냉장 등 갈무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Buk Saku Aceh 2014: 463-479). 인도네시아 통계청자료(Badan Pusat Statistik, 2014)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GDP(국내총생산)는 1조 3,230억 달러로 2012년 PPP 기준 세계 16위, 1인당 GDP는 3,562.6 달러(PPP 기준 5,280달러)이나 아체 지역 경제의 지표는 이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슬람 문화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종교와 삶의 일체라는 점에서 이슬람 세계의 학

문과 종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아체 주의 중심도시인 반다아체조차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 아직까지도 없으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아체 주민들에게는 유일한 오락이고 문화생활이다. 아체의 전통 문화 예술로는 사만(Saman)이라는 아체 전통 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아체(Aceh)라는 지명은 흔히들 Arab, China, Europe, Hindia(India)의 첫 글자의 약자라 하여 4개 지역의 문화가 공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 3. 아체지역의 정치와 종교

2005년 8월 15일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평화협정을 맺고 특별자치주로 출발한 아체는 평화협정에 규정에 의해 제정된 법에 따라 외무, 국방, 국가안전, 통화 재정, 사법, 종교의 자유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체특별자치주는 인도네시아 34개 주에서는 유일하게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로 철저히 샤리아로 통치하고 있으며 이슬람 외에 모든 종교적인 활동을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2기(2012년-2017년) 선거에서 아체 주지사로 당선된 자이니(Dr. Zaini Abdullah)는 GAM(자유아체운동) 망명정부 제2인자인 외무장관이었고, 부지사 무자킬(Gen. Muzakir Manaf) 역시 GAM의 총 사령관 출신으로 강성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지도자들로 정치 경험이 없는 지도자들이다. 주 정부 지도자들이나 공무원들이 정치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다. 특별자치주의 필요한 법규와 운영 세부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일도 여의치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특별자치주로서의 입법, 사법, 행정 제도와 조직을 효율적으로 갖추고 운영하는 일은 물론 쓰나미 재해 복구와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등 중앙정부와 외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하는 주 정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2010년 『베다니세계기도센터』와 한국컴퓨터선교회의 세계복음화 리서치센터 보고에 의하면 아체지역의 이슬람교도 무슬림은 샤피-수니파 원리주의자들로 99.9%로 보고하고 있다. 아체 지역 주민은 약 8개의 방언을 쓰고 있으나 공식 용어는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사용하고 있다. 아체 족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1% 미만으로 등록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319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성경 일부가 아체어로 번역되고 있고, 미전도

족인 아체 종족을 위한 선교단체는 18개 단체가 있다.

2010년 아체지역 주민 4백 10만 명 가운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1,231,500명(39%)으로 현지 기독교인에 의한 경우가 95,000명(3%), 외지인에 의한 경우가 1,136,500명(36%)으로 되어 있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1,925,400명(61%)으로 나타나 있다. 주도(州都)인 반다아체에는 감리교 등 개신교 3개소, 카톨릭교 1개소 등 4곳의 교회가 있지만 아체 족이 아닌 외부인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북 수마트라 주 접경지역 싱길(Singkil)에 10여 개의 교회가 산재하고 있으나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외에 일체의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13일 무슬림들이 교회를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고, 아체 정부에 대해 교회를 폐쇄하라는 건의가 있었다(Jakarta Post, 2015.10.15: 6). 보통 우리는 이슬람을 종교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슬람을 종교로 국한시켜 이해하자면 무슬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무슬림에게 있어 이슬람은 종교이자 곧 삶이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복합적인 면에 영향을 끼치므로 이슬람 자체를 하나의 세계로 이해해야 한다(남은영, 2016: 158-177).

## V. 한국과 아체지역 간 문화산업 교류실태

### 1. 아체와의 교류협정(MOU) 및 아체 한국문화원 설치 운영

제주열방대학은 2004년 아체 쓰나미가 발생한 당시 긴급구호 팀을 현지에 파견한 것이 인연이 되어 2008년 3월 18일 아체특별자치주와 국립시아쿠알라대학교(Univertas Syiah Kuala: Unsyiah, 운시아) 3자 간에 교육, 학술, 문화, 산업 등 교류협력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맺고 시아쿠알라대학교의 초청으로 방문교수 1명과 태권도 사범 가족 등 6 명이 아체 주도인 반다아체(Banda Aceh)에 들어갔다<sup>5)</sup>. 아체지역과의 문화산

5) 제주열방대학(University of the Nations Jeju campus: [www.uofnjeju.org](http://www.uofnjeju.org))은 하와이에 본부를 둔 기독교 종합대학교의 분교로서 1996년 제주시 조천읍 북촌에 세우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기독교 지도자를 훈련하고 양성하여 사회 각 영역(8-Mind Molders: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커뮤니케이션, 문화 예술, 종교, 가정, 과학기술)에서 선교와 헌신을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업에 관한 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체한국문화원』을 설립하고 한국 홍보를 위한 전시관 「Korea Corner」를 시아쿠알라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개설했다.

2012년 1월 26일 주 자카르타 대사관의 김영선 대사가 처음으로 아체를 방문하여 한국문화원을 공식 개원한 이래 정부의 해외문화원과 자카르타 대사관,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기관의 협조로 아체지역과의 문화산업 교류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체와의 문화산업 교류를 위한 목표는 아체의 슬픈 전쟁과 분쟁의 역사를 조명하고 쓰나미로 인한 재난 복구를 위하여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사랑과 화해, 그리고 상생을 모색하며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사회사업가인 럽과 스티브(Rob Gymrek & Stephen Goode, 2008: 1-12)에 따르면 “아체는 1945년 2차 대전 후 평화협정을 맺을 때까지 분쟁과 내전으로 거의 모든 분야가 공백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문화 예술 및 스포츠 활동은 침체되었고, 예체능 교육은 전무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아체의 정서를 회복하도록 예체능 교육을 도와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아체와의 교류 협력을 위해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이 태권도 사범 파견과 미술 실기 지도 와 한국어 교실을 여는 것이었다. 한편 국내 대학과 문화 기관 그리고 중소기업들 간의 문화산업 교류를 위한 가교역할을 하면서 아체지역 주민들이 복음을 접하도록 도우며 예수를 믿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힘쓰는 일을 하는 것이다. 복음 전파는 믿음의 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이는 기독교의 범세계 성을 강조할수록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김형길·이규현, 2013: 37-54).

#### (1) 교육, 문화 산업, 스포츠 등 교류

2008년 11월 시아쿠알라대학교 총장과 교수들, 아체 주정부 지도자들로 구성된 11명의 대표단이 최초로 한국을 방문하여 교육 문화 산업계를 시찰함으로써 아체와의 문화산업 교류가 본격화 되었다.

2008년 인도네시아 아체와 MOU를 맺은 후 매년 열방대학 FAF(순수미술학교) 미술센터 팀이 아체를 방문하여 시아쿠알라대학교 건축과 학생들과 미술/건축 세미나와 워크숍, 전시회, 어린이 미술실기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09년 8월에는 열방대학과 아체 대학 공동으로 「종합스포츠 세미나/워크숍」을 1주일간에 걸쳐 실시하여 스포

츠의 가치와 역할 등 체육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왔다. 2009년부터 3년간 태권도 지도자를 파견하여 아체 대학생과 경찰 및 주민들에게 태권도를 지도 보급했다.

2010년 대학건축학과 교수와 학생 2명을 신동아건설의 협조로 서울에 초청하여 1개월 간의 건축 인턴십을 하도록 했다. 2010년 6월에는 학사담당 부총장과 체육 교수가 대학커리큘럼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제주, 부산, 서울을 방문하도록 초청한 바 있다. 2011년에는 서울 인덕대학교와 열방대학의 초청으로 아체 대학 부총장 2명, 대학원장, 경제대학장 등 교수 12명과 학생 대표 19명 등 31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학술 문화 산업 세미나와 전통예술 공연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 기간 중 아체 대표단은 삼성, LG 등 한국의 선도 기업 견학과 문화 산업 등을 돌아보면서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견학할 수 있었다.

2011년 9월 9일부터 1주일간 (주) 에듀스탠다드와 열방대학의 초청으로 시아쿠알라대 하교의 Samsul Rizal 신임 총장과 Darusman 부총장(현 대학원장), 의과대학장 등 7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과 원주, 제주에서 한국-인도네시아 아체 간 교육 문화 학술 의료 교류와 산학협력, 특히 아체 대학에서 신설하는 대학 부속병원 설립을 돕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과 원주의료원, 그리고 제주대학교 부속병원을 방문하여 자문을 받고 교류협력을 협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2010년 2월 제주대학교와 자매결연(MOU)을 맺고 아체 대학생 3명이 제주대학교의 풀 스칼라십을 받아 제주대학교에 유학한 이래 2012년과 2013년 각 2명을 교류수학 학생으로 제주대학교에 유학했다. 이에 앞서 제주대학교가 추진하는 외국학생 초청 <2011 JNU Summer Program>에 2명의 남녀 학생이 참가하기도 했다. 앞으로 한국어 능력 3급 이상 받으면 학년 편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교류협력 추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서로를 알고 알리는 기회를 통해서 서로 신뢰하고 도우며 서로 사랑하며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 수 있는 관계와 삶의 비옥한 터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2013년 서울 교육대학교, 2014년 6월 강원대학교,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 2015년 한양대학교와도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수학학생과 교직원 교류를 포함한 문화산업 교류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6년 10월 20일부터 1 주일간 시아쿠알라대학교 대학원장 인솔로 대학원 학술문화 교류 팀 17명이 제주를 방문하고 열방대학과 제주대학교에서 학술 교류 행사를 가졌다.

2009년부터 계절별로 열방대학 현장실습 팀이 아체를 방문하고 이곳 대학생들과 Korea-Aceh 친선캠프, 미니 콘서트, ‘리틀 코리언 나이트’ 등 전통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매년 운시아 대학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2012년 첫 학기부터 운시아 대학언어센터(Pusat Bahasa, Unsiyah)에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2015년 현재 초급반 3 교실, 중급반 3 교실, 특별반 2 교실 등 8개 한국어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홍보전시관 『Korea Corner』에는 한국 홍보자료로 서적 및 DVD, 영상자료, 사진, 한국 인형, 태권도 복 등 스포츠 용품과 기념품, 한국의 전통의상(남여 한복, 소아복 등)과 사진과 관광포스터 등을 전시하여 축제 때 사용하고, 기념사진 촬영 등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밖에 한국 대학의 스칼라십, 유학제도 소개와 우리 고유의 전통 악기로 대·소 북, 징, 쟁과리, 장고 등을 갖추어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음식축제 등 문화 행사 때에 연주용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서울 인덕대학교 학생 봉사단 각 팀 32 명이 2010년-12년에 3회에 걸쳐 여름 방학 기간에 아체를 방문하여 아체대학생들과 코리아-아체 친선 캠프, 세미나 등 문화교류와 사회봉사 활동을 한 바 있다. 2012년 3월 자카르타에 있는 교회 지도자 “믿음의 가족” 22명이 아체를 첫 방문한 이래 매년 ‘한국전통음식문화축제’와 곁들여 민속공연을 열고 있다. 2012년 2월 20일부터 3주간에 걸쳐 열방대학의 목조건축 팀 6 명이 아체를 방문하여 이 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목조건축 워크숍으로 “드림 태권도 체육관”(18.2m × 8.2m)을 건축했다. 2017년 중반부터 태권도 사범을 아체에 파견하여 대학생들과 현지 경찰 등 주요 기관 요원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고 보급하게 된다.

2016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시아쿠알라대학교 총장의 초청으로 대학 창립 54주년 기념행사와 졸업식에 제주열방대학 책임자와 기획처장, 아체 한국문화원장이 아체를 방문했다. 이 기회에 열방대학 현장실습 팀과 미술센터 인턴십 팀이 어린이 미술대회와 전시회 그리고 태권도 시범과 민속공연 행사를 주최하고 자카르타 한인 교회들의 지원을 받아 한국 전통음식 문화 축제 행사를 개최했다.

2016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조태영 대사가 아체를 공식 방문하여 운시아 대학에서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의 정세’라는 연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대학 총장 등 일행과 함께 한국문화원과 『Korea Corner』전시장에 준비된 한국-아체 대학생 연합 문화예술 공연을 참관하고 한국과 아체 간의 문화산업 교류협력에 더욱 힘써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제 믿음의 공동체는 한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현지

이웃들과 사회 공동체를 위한 모든 봉사활동들을 책임이 아니라 ‘사명’이며 본분으로 믿고 수행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어 누구나 살고 싶은 세상인 ‘하나님의 도성(Civitas Dei)’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김성호, 2012: 180-203)

## (2) 아체 교육·문화산업 엑스포

2011년부터 산학 협력을 위하여 교육, ICT, 그린에너지 개발 사업 등 아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그린에너지, LED, 의학 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아체 대학과 한국기업들 간의 산학협력을 통하여 쓰나미로 인한 아체지역 사회의 복구 작업과 개발을 도움으로써 한국과의 문화 산업 교류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체지역과의 교육·문화 산업 협력을 위하여 한국의 교육학습 자료제작을 하는 (주)에듀스탠다드와 시아쿠알라대학교 간의 MOU를 체결하도록 협조하고 교육·문화 산업박람회를 개최했다. 2012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시아쿠알라대학교와 (주)에듀스탠더드, 아체한국문화원의 공동 주최로 대학의 특설 전시장과 캠퍼스에서 <EDU 2012 Aceh EXPO> 를 열었다.

우리 정부의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KOTRA, 상공회의소, 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등의 후원과 자카르타 한국대사관과 아체 주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개최한 행사였다. 이 엑스포에는 한국의 43개 중소기업체와 3개 교육 문화 관광 업체가 참가했다. 한국 중소기업의 우수 상품을 소개하여 한국의 발전상을 홍보하고 뒤쳐진 아체 산업발전에 자극과 도움을 준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2013년 10월에는 이 대학 자체 EXPO인 <2013 UNSYIAH FAIR>에 한국으로부터 영어 교재와 학습용구, 그린 에너지, 제약 및 의료기기 회사들을 초청하여 홍보하고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열악한 아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하여 교육·문화 산업, 그린에너지, 의약 및 의료기기 제작 등을 위한 현지 회사 법인을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3년 2월 28일 아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아체 대학 총장, 부총장과 아체 진출 기업 대표들이 자카르타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김영선 대사 임석 하에 KOICA, KOTRA 대표와 자카르타 주재 한국문화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체 지역의 교육 문화산업 발전 전망에 관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인도네시아 아체는 자원의 보고로 아체와의 문화산업 교류가 발전적으로 추진될 때



사회 문화 경제 등 다방면의 교류가 활성화 될 것이며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 진출로 경제적인 교류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체와의 산업 교류를 위한 창업 프로그램 개발 협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체 지도자들에게 성경적인 재물관 즉,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재물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도에 재물을 신실하게 사용하는 것이 재물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이다’(조성표, 2003: 41-54)라는 인식을 공감함으로써 아체 산업 환경 변화에 기여하도록 협조하는 일이기도 하다.

다음은 한국과 아체지역 간 문화산업 교류실태- 교육, 문화 산업, 스포츠 등 교류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주요 정보를 요약한 자료를 Table 2 로 정리한 것이다.

Table 2 Exchange Programmes between Korea and Aceh, Indonesia(2008-2016)

Date/Month/year	Exchange Programmes	Participants	Results
2008 18/Mar	MOU signed by UofN, Unsyiah, Aceh Special Province	Presidents of UofN/ Unsyiah/Governor, Aceh	To exchange all kinds including education, arts, sports, culture industry, etc.
Mar-Dec	4 times of Conferences in Aceh for Exchange Programmes	Delegates of 3 parties	Invitation for One Visiting Professor and Taekwondo Instructor(family) to Aceh
November	Fine Arts Seminar in Aceh for one month	7 Artists of UofN Jeju	300 Students/School Teachers & Citizens
2009 2 weeks in July	Sports Seminars, Taekwondo, Basketball, Football Rules & Training	Sports Instructors & Coaches(Koreans/American)	100 instructors & 500 Students
One month in August	Korean-Aech Students Camp	Language, Visit to Culture/Historic sites	15 Korean vs. 50 Aceh Students
2010 February	MOU with Jeju National University(JNU) and Syiah Kuala University(Unsyiah)	Scholarship for 3 Students of Unsyiah	To study Korean language and one major for one year
April	Architecture Internship, Seoul sponsored by Sin Dong-A Construction Co.	One Professor & one Student	Field Training & Research in Seoul/ Incheon
June	Curriculum Research Programmes for Unsyiah Professors	Vice President & Professor of P.E. Dept.	Universities in Jeju/Busan/Seoul for 12 days

<continued>

Date/Month/year	Exchange Programmes	Participants	Results
2011 August	Social Service & Field Training Programme in Aceh from Induk University in Seoul MOU with Unsyiah	2 Professors & 30 students/Unsyiah students for 15 days (3 times in Summer in 2010/2011/2012)	Social Service Programme /Language, Arts & sports-Taekwondo demonstration
September	To Visit Medical College Programmes for Consulting Management for Establishing New Medical college	Unsyiah President, Vice President, Dean & Professors from Unsyiah	University Hospitals in Jeju/ Busan/ Seoul for 12 days
Oct-Dec	Industrial & Academic Cooperation, Korea-Aceh universities	Unsyiah-Korean Small & Medium Industries Cooperation Programmes	Seminars for Education, ICT, LED, Medical & Green Energy Development
2012 February	Wooden Construction Workshop in Unsyiah, Aceh for 3 weeks from 20 Feb	7-members' UofN School Team working with Unsyiah Students	Constructed Taekwondo Gym (18.2mx8.2m)
February	Edu 2012 Expo in Aceh supported by Korean government & Embassy Feb 29-Apr 2	43 Small-Medium Industries & Edu/Tour/Culture Org. participated	More than 15,000 Students & Citizens witnessed
March	Teaching Korean Language Class established in Pusat Bahasa, Unsyiah	Unsyiah Students & Residents in Aceh	Present: 80 students at 8 classes
August	Korean Traditional Food Festival in Aceh sponsored by Jakarta Residents leaders	20 Korean Residents in Jakarta, 40 students Unsyiah/UofN Field Training Team(UofN)	400-500 Aceh students and citizens enjoyed
2013 28/Feb	Presentation at Korean Embassy by Koean Industries in Aceh	Ambassador, KOTRA, KOICA, Rep. Industries in Jakarta, etc.	Explanation on Industries, Korean-Aceh Cooperation
2013-2015	MOU with Universities of Seoul Edu/Kangwon/Daejeon /Dongguk/Hanyang	Students, Professors & Staff Exchange Programmes started	4 Students from Unsyiah in Seoul universities
2013-2016	2-3 Field Training Teams & Fine Arts Teams from Korea to Aceh every year	For Exchange Programmes	With Unsyiah Students & Residents in Aceh

## 2. 문화 산업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아체지역의 문제와 특성

아체지역과의 문화 산업 교류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현재 아체 지역의 ① 역사와 전통, 종족 및 종교 ② 사회, 교육 및 문화 ③ 정치, 경제 및 산업 등이 처하고 있는 문제와 특성을 이해하고 현 실태 상황을 예의 검토함으로써 아체지역 교류 방안을 실효성 있게 수립하고자 한다.

### (1) 아체 지역의 역사와 전통, 종족 및 종교의 특성

아체는 인도네시아 34개 주 가운데 유일하게 근본주의 이슬람 율법, 샤리아로 통치하고 있다. 1873년부터 1904년 또는 관점에 따라서는 1914년까지 네덜란드와 30년-40년간 ‘아체전쟁’을 치룬 술탄왕국이기도 하다. 2차 대전 후 인도네시아가 독립하면서 아체가 북수마트라 주에 합병되자 아체 주민들은 이를 거부하고 1976년부터 2004년 쓰나미가 날 때까지 스웨덴에 망명정부를 세우고 중앙정부군과 무장투쟁을 벌여왔다. 2004년 아체지역의 쓰나미로 당시 아체 인구 약 400만 명 중 20여만 명의 인명 피해와 50여만 명의 이재민을 냈다. 아체 주민은 이와 같이 전쟁과 내전, 그리고 쓰나미 대재앙으로 많은 고통과 큰 상처를 받은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다.

아체 지역에는 아체 족(Acehnese)이 79%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과 인도에서부터 바타(Batak) 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종적 혼합의 기원을 이루고 있다. 아체 족은 오랜 역사와 전통, 외세에 굴하지 않는 강한 종족으로 알려져 있다. 아체 족은 전통적으로 모계사회로 결혼하면 첫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처가에 들어가서 사는 관습이 있고, 아체지역 태생 이외의 주민들과는 철저히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

보통 우리는 이슬람을 종교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슬람을 종교로 국한시켜 이해하면 무슬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무슬림에게 있어 이슬람은 종교이자 곧 삶이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복합적인 면에 영향을 끼치므로 이슬람 자체를 하나의 세계로 이해해야 한다. 아체지역의 이슬람교도 무슬림은 사피-수니파 원리주의자들로 99.9%로 보고하고 있다.

주도(州都)인 반다아체에는 감리교 등 개신교 3개소, 가톨릭교 1개소 등 4곳의 교회가 있지만 아체 족이 아닌 외부인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북 수마트라 주 접경지

역 싱킬(Singkil)에 10여 개의 교회가 산재하고 있으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외에 일체의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13일 무슬림들이 교회를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고, 아체 정부에 대해 교회를 폐쇄하라는 건의가 계속되고 있다.

## (2) 아체 지역의 사회, 교육, 문화 특성

아체는 1945년 2차 대전 후 2005년 평화협정을 맺기까지 60여 년간의 분쟁지역으로 외부 세계와는 극단적인 단절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의 공백이 있었다. 초등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는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했다. 노년층은 물론 청년들 심지어 소년들까지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교육공백이 문맹률이 높고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주민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세대 간의 정서적 공백이 크게 벌어져 있는 실정이다.

2004년 쓰나미 대재앙은 아체의 인적 물적 거의 모든 자원을 파괴했다. 시아쿠알라 대학교의 교수진과 가족도 쓰나미로 2백여 명이 희생되어 아직까지도 충원되지 못하고 60% 정도의 교수진만이 상위학위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슬람 문화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종교와 삶의 일체라는 점에서 이슬람 세계의 학문과 종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아체 주의 중심도시인 반다아체조차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 아직까지도 없으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아체 주민들에게는 유일한 오락이고 문화생활이다. 아체의 전통 문화 예술로는 사만(Saman)이라는 아체 전통 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 (3) 아체지역의 정치, 경제, 산업의 특성

2005년 8월 15일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평화협정을 맺고 특별자치주로 출발한 아체는 평화협정에 규정에 의해 제정된 법에 따라 외무, 국방, 국가안전, 통화 재정, 사법, 종교의 자유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체특별자치주는 인도네시아 34개 주에서는 유일하게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로 철저히 샤리아로 통치하고 있으며 이슬람 외에 모든 종교적인 활동을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1기에 이어 3기(2017년-2023) 아체특별자치주 선거에서 주지사로 당선된 Irwandi Yusup주지사는 전직 국립시아쿠알라대학의 교수와 GAM(자유아체운동)의 대변인 출신이지만 주정부 지도자들이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정치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별치자주로서의 입법, 사법, 행정 제도와 조직을 효율적으로 갖추고 운영하는 일은 물론 쓰나미 재해 복구와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등 중앙정부와 외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하는 주 정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인도네시아 아체는 금, 철광석, 석유, 가스 등 자원의 보고로 아체와의 문화산업 교류가 발전적으로 추진될 때 사회 문화 경제 등 다방면의 교류가 활성화 될 것이며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 진출로 경제적인 교류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체와의 산업 교류를 위한 창업 프로그램 개발 협력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Badan Pusat Statistik, 2014)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GDP(국내총생산)는 1조 3,230억 달러로 2012년 PPP(구매력평가) 기준 세계 16위, 1인당 GDP는 3,562.6 달러(PPP 기준 5,280달러)이나 아체 지역 경제의 지표는 이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 VI. 향후 아체지역과의 문화산업 교류의 활성화 방안

### 1. 교류협력의 추진 시스템 구축

아체와의 문화산업 교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기 위하여 현 ‘아체한국문화원’의 기능을 ‘문화산업원’으로 확대하고 한국의 정부 및 문화산업 기관과 협력하여 아체지역 교류협력 지원 체제를 더욱 강화한다. 아체 지역의 협력대상 기관인 특별자치주와 대학 등 문화산업 관련 기관들과 구체적인 문화산업 교류 전략을 수립하고 쌍방 간 다양한 문화산업 콘텐츠를 개발하여 일방적이 아닌 쌍방 간의 교류로 상호 보완적인 구조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한다. 문화산업 교류의 방향은 먼저 상호간에 필요를 충분히 협의하여 어떤 문화 콘텐츠를 선택할 것인가를 선별적으로 결정하고 교류 협력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도록 한다.

## 2. 교육기관 간의 교류 확대 및 강화

교육은 영아로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기관이 있다. 오늘날 세계화는 교육기관 간의 상호협력으로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일꾼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상이한 교육제도와 다양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류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체 지역의 교육기관과의 자매결연(MOU)을 통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다. 현재 아체 시아쿠알라 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인 열방대학을 비롯하여 제주대학교, 강원대학교, 동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대전대학교, 인덕대학교 등과 MOU를 맺고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아체 주정부 기관에서는 어린이 유치원과 국제학교 직업전문학교 설립 운영과 기능 전문직 인력 훈련을 한국에서 협조해 주기를 제안하고 있다.

## 3. 대학 간 스칼라십 교류학생 및 교직원 교류

아체 대학생들은 한국에 유학하기를 열망하고 있다. 2012년부터 아체 대학생 10여 명이 스칼라십을 받아 교류학생으로 유학을 했으나, 한국정부와 대학의 스칼라십이 제한되어 있어 아체 학생들이 자비로 유학을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한국 대학에서는 대부분 한국에 유학지원 학생들에게 한국어 능력시험(TOPIK)에서 3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 외국학생의 특별 장학제로 6개월 내지 1년간의 한국어 수강 기간의 제정을 지원하고 입학 또는 편입하도록 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아체 지역의 특수한 역사와 환경에 따라 예·체능과 의학 및 기술계통 전문분야의 학문이 낙후된 실정으로 일부 대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삼술(Prof. Dr. Samsul Rizal) 시아쿠알라대학교 총장은 일본에서 학위를 받았음에도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수시로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한국을 모델로 학습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 4. 문화산업 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류확산

현재 시아쿠알라대학교의 언어센터(Pusat Bahasa, Unsyiah)에서는 한국어 반 8개 클래스 강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청소년과 일반 주민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과 미술, 태권도 등 예·체능 아카데미를 시중에 개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자카르타 한인 교회 지도자들이 아체를 방문하거나 지원하여 ‘한국음식문화축제’를 매년 라마단 금식 기간 전후로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아체 대학과 주 정부 지도자와, 주민 대표들 그리고 학생들을 초청하고 있는데 대개 400명 이상이 참가한다. 음식축제와 때를 맞추어 한국 및 아체 전통 무용과 가요, 태권도시범 등 문화예술 공연을 아체 대학생들과 단기간 파견 한국 대학생들이 연합하여 개최한다. 이러한 행사를 통한 아체와의 문화산업 교류는 이슬람권과의 한류 확산에도 자극제가 될 것이다. 오늘날 문화산업은 그 범위와 콘텐츠가 다양하므로 어느 누구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로 전문적인 사역을 감당하면서 현지 주민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봉사할 때 교류의 폭을 넓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5. 태권도 등 스포츠 및 예술문화 교류의 활성화

한국의 고유한 국기인 태권도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와 미술, 음악 등 예체능 지도자들을 아체에 파견하고 아체 체육 지도자와 선수들을 초청하여 양국 간의 교류를 활성화 한다면 양국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우정을 돈독히 하면서 문화산업 교류를 확대하고 더불어 한류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문화원에서는 아체 대학 당국과 주 정부지도자들에게 한국과의 친선 경기 등 스포츠 교류를 구체적으로 제의하면서, 불비한 아체의 체육시설 확충과 국내 및 국제 주요대회를 아체에 유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18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아시안 게임에 대비하여 아체 주정부에서는 태권도, 양궁, 축구, 배구, 농구 등 구기 종목과 유도, 레슬링 등 투기 종목의 한국 지도자들이 아체 주 청소년 선수들을 지도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2017년 9월 초에 태권도 4단의 자매사범이 아체 대학생들과 현지 청소년 주민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언어 연수를 받고 반다아체 들어갔다.

## 6. 아체지역 현장실습 및 사회봉사 팀 방문

해마다 현장실습을 위해 두 세 차례 정도 아체를 방문하는 기독교 대학생 팀들의 ‘Korea-Aceh 캠프’를 통해 아체 대학생 및 청소년들과의 공동생활과 학습, 문화교류, 사적지 탐방, 봉사활동을 통한 『우정과 친선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독교미술학교 팀이 아체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미술 워크숍과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위한 미술 실기지도는 매년 큰 행사로 인기를 끌고 있다. 종교와 신앙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이 다르지만 문화산업의 교류를 통한 정서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아체 지역 주민들과 상호 이해와 신뢰의 폭을 더해가고 있다. 매년 자카르타 교회 지도자들의 아체방문 또는 지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전통음식문화축제’는 상이한 전통의 생활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현지 주민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다 차원 높은 우정과 친선, 그리고 형제애로 발전시키고 있다.

## 7. 문화산업 교류 추진의 핵심 가치 “사랑”

아체와의 문화산업 교류의 방향은 오직 성경 말씀의 새 계명에 따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추진한다. 그리스도인의 사상적 가치로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내재하는 대의로써 영원히 변치 않는 ‘크리스천의 열개’로서 그 영원성을 구가하게 될 것이다(정중호·심종석, 2016: 1-8). 오늘날 이슬람권에 속하는 인구는 세계인구 71억1천4백만 명의 22.43%에 해당하는 15억6천2백만 명으로 추정된다(US Census Bureau, 2014). 이슬람이 아라비아의 예멘을 통해 최초로 아체에 들어와서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에 전파되었듯이 아체와의 문화산업 교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이슬람권에 확산된다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잠 16:3)는 말씀이 증거 될 것이다. 인간이 감히 ‘아가페’(Agape: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 할지라도 사람이 서로 교감을 나누는 필리아(Philia: 우정적인 사랑)가 원활하게 소통된다면 그 사회는 한결 평화롭고 삶의 의욕이 넘치게 될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보다 더 위대한 예술은 없다’고 한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의 세계관이 바로 문화산업 교류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 Ⅶ. 결론 및 시사점

2004년 쓰나미로 한 순간에 20여만 명의 생명이 희생된 아체 주민들에게 베푼 작은 사랑의 손길이 인연이 되어 MOU를 맺은 후 나눔의 사랑과 축복이 되어 아체와의 문화산업 교류가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아체와의 문화산업 교류는 이슬람권과의 관계가 점차 우호적이며 친밀하고 평화로운 관계로 진화되면서 다각적인 문화산업 교류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최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 열풍은 인도네시아 아체에도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청소년과 대학생들 그리고 많은 젊은 세대들이 한국의 드라마, 노래, 영화, 게임은 물론 한국의 언어, 전통 음식과 의상 등에 이르기 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아체 주 지도자들은 1950년대 6.25 한국전쟁으로 폐허 속에서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 한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한다. 20세기에 등장한 대중문화로서의 한국 문화산업도 SNS와 같은 대중매체 도구의 영향으로 점차 세계화가 되어가고 있다. 아체 지역의 무슬림 청소년과 주민들도 한국의 K-Pop, 드라마와 춤, 노래, 스포츠를 접하면서 열광하며 동호인 그룹을 만들어 ‘한류’에 몰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심을 갖게 한다. 특히 한국 태권도는 스포츠로서 뿐만 아니라 호신 무술과 격투기로 또는 무용으로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아체 젊은이들에게는 보편화 되어 가고 있다.

아체와의 문화산업 교류는 우리의 대중문화를 매개로 아체 주민과의 이해와 협조를 도모하고 국내 스포츠와 예체능 분야별 전문인들이 연합하여 아체와 모든 이슬람권 지역에 한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통해 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하게 될 것이다. 아체와의 문화산업 교류는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콘텐츠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원리주의 이슬람권인 아체에서 실현되기 시작함으로써 우리의 대중문화에서부터 시발된 한류열풍을 인도네시아와 여타 이슬람권에도 파급 확산하게 되는 효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슬람법으로 통치하고 있는 아체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아체 지역과의 문화산업 교류는 많은 제한을 받는다. 아체에서는 현재 외국인 거주자와 여행자들에게도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적용하도록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중동의 아랍과 아프리카의 이슬람 등 타 지역 이슬람권의 특성과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연구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한 계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선 아체 지역을 대상으로 이슬람권과의 문화산업 교류를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무슬림들과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아 나간다면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 이슬람권과의 친선과 우정은 증진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슬람권에 확산되면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온 세계 인류가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어 가는데 일조를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슬람권과의 문화산업 교류를 통하여 기독교의 본질적 사명인 복음증거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가는 계속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공일주 (1997a). **이싸냐? 예수냐?**. 조이선교회, 79.
- [Ilju Kong (1997a), Issa? Jesus?, *Joy Mission*, Seoul, Korea, 79.]
- 공일주 (2008b). **코란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88.
- [Ilju Kong (2008b), An Introduction to Qur'an. *HUFS Press*. Seoul, Korea, 88.]
- 공일주 (2010c). **이슬람 율법**. 살림출판사.
- [Ilju Kong (2010c), The Islamic Law. *Sallim Publishing co.*]
- 김승수 (2007). **정보자본주의와 대중문화산업**. 한울아카데미. 15.
- [Seungsoo Kim (2007), Information capitalism and mass culture industry. *Hanul Publishing Group*, 15.]
- 김요한 (1990). **신약개론**. 서울: 가나다 출판사.
- [John Kim (1990). An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Ganadas Press*. Seoul, Korea.]
- 김용선 (2002a). **코란(꾸란)**. 명문당.
- [Yongsun Kim (2002a), The Qur'an. *Myungmundang Publishing co.*]
- 김용선 (1991b). **코란(꾸란)의 이해**. 민음사.
- [Yongsun Kim (1991b). Understanding the Qur'an. *Minumsa com.*]
- 김정위 (1993). **이슬람 입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12.
- [Jhungwee Kim (1993). An Introduction to Islam. *Press\_HUFS*. Seoul, Korea.]
- 김성호 (2012). “글로벌 시대의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10(4), 180-203.
- [Sungho Kim (2012). A Study o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Church in the Global Age. *Logos Management Review*, 10(4), 180-203.]
- 김형길 · 이규현 (2013). 교회성장을 위한 마케팅 과학의 적용. **로고스경영연구**, 11(2), 37-54.
- [Hyunggil Kim and Kyuhyun Lee (2013). Application of Marketing Science for Church Growth. *Logos Management Review*, 11(2), 37-54.]
- 남은영 (2016). **아제르바이잔에서의 한류 수용 양상: 세속적 이슬람 문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Acceptance of Korean Wave in Azerbaijan: Focusing on secular Islamic culture*.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Seoul, Korea.]
- 문화관광부. (2002). **문화산업백서**.
-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2002). White Paper on Culture Industry.]

삼성경제연구소 (2004). **한국문화산업의 7대 발전과제**.

[Samsung Economics, Research Institute (2004). Seven Major Challenges of Korean Culture Industry.]

성서원 (2010). **좋은 성경**(개역개정).

[Bible House (2010). The Premium Good Study Bible.]

안종배 (2012). **콘텐츠 마케팅-Contents Marketing**. 박영사.

[Jongbae Ahn (2012). *Contents Marketing*. Pakyoungsa.]

양승운 (2003). **인도네시아**.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Seungyoon Yang (2003). *Indonesia*. HUFs Press, Seoul, Korea.]

어성호 (2010). 신학교 사역을 통한 이슬람 사역의 허와 실. **국제다문화포럼 Contexts, (KMIC)**, (2010.2.9.-10, Semarang, Indonesia), 33.

[Sungho Eoh (2010). Hell and room of Islam ministry through seminary ministry. *Seminar in Semarang, Indonesia*, 9-10 Feb., 33.]

외교부 (2010). **인도네시아 개황**. 인도네시아 경제/인도네시아 문화와 관습.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0). *Introduction to Indonesia: Focusing on Economics, Culture and Customs*.]

정수일 (2002). **이슬람 문명**. 서울: 창비.

[Sooil Jhung (2002). *Islamic Civilization*. Changbi Publishers.]

정중호 · 심종석 (2016). 다문화 사회의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교의적 고찰. **로고스 경영연구**, 14(1), 1-18.

[Joongho Jhung & Jongsok Shim (2016). A Doctrinal Review on the Status of Foreigners in a Multicultural Society. *Logos Management Research*, 14(1), 1-18.]

조성표 (2003). 성경의 재물관. **로고스경영연구**, 1(1), 41-54.

[Sungpyo Cho (2003). Biblical Property. *Logos Management Review*, 1(1), 41-54]

하호성 (2011). 인도네시아종교현황: 인도네시아선교 40주년 기념집. **인니한인선교 사회**, 16.

[Hosung Ha (2011). Indonesia Religious Status: The 40th Anniversary of Indonesia Mission. *Korean Mission Society in Indonesia*, 16]

한국이슬람연구소 (1996a). **이슬람의 이상과 현실**. 예영 커뮤니케이션.

[Korea-Islam Institute (1996a), The Ideal and Reality of Islam. *Yeyoung Communication*.]

한국이슬람연구소 (2004b). **민속이슬람**. 김아영 편. 예영 커뮤니케이션.

[Korea-Islam Institute (2004b). *Folk Islam*. A-Young Kim ed., Yeyoung Cmmunication.]

- 현한나 (2014). 이슬람국가(IS)와 성전(지하드) 가운데 들려올 소식 “평화”. **신앙과 학문**, 20(1), 199-231.
- [Anna Hyun (2014). The message to be heard among the Islamic countries (IS) and the temple (Jihad) ‘Peace’. *Faith and Scholarship*, 20(1), 199-231.]
- Bird Jack (1992). **이슬람이란 무엇인가**. 중동선교회, 도서출판 예루살렘, 30.
- [Bird Jack (1992). *What is Islam?*. Middle East Mission, Jerusalem, 30]
- Cooper Ann (1985). **우리형제 이스마엘**. 편집부 역 (1993). 도서출판 두란노, 32, 48.
- [Cooper Ann (1985). *My brother Ishmael*. Editorial Dept. Duranno, Seoul, Korea, 30.]
- Creswell, John W. (2015). **질적 연구방법론**. 조홍식 외 역. 학지사, 121-123, 431-463.
- [Creswell, John W. (201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Le Compte et al. Hakjisa Publishing co., Seoul, Korea, 121-123, 431-463.]
- Gymrek, Rob & Stephen (2008). 수마트라 아체 보고서. 1-12.
- [Gymrek, Rob & Stephen Goode (2008). Report Aceh in Sumatera, 1-12.]
- Huntington, Samuel P. (1997). **문명의 충돌**. 이회재 역 (1997). 김영사. 243-276, 363-410.
- [Huntington, Samuel P. (1997).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Gimmyoung Press, Seoul, Korea.]
- Johnston Patrick (2002). **세계기도정보**. 조이선교회 출판부/WEC, 583.
- [Johnston Patrick (2002). *World Prayer Information*. Joy Mission, Seoul, Korea, 583.]
- Lester C. Throw (1999). 한기찬 역. **지식의 지배: 부는 지식이 결정 한다**. 생각의 나무.
- [Lester C. Throw (1999). *The dominance of knowledge: wealth is determined by knowledge*. Namu Book, Seoul, Korea.]
- Lapidus, Ira M. (2008). **이슬람의 세계사 1**. 신연성 역. 이산, 634.
- [Lapidus, Ira M (2008). A History of Islamic Societies 1. Isan Publishing Co., 634.]
- Abu Bakar & Aceh Province (2013). *Buk Saku*, Aceh, Kerasama Bappeda Aceh Dengan Badan Pusatstatsstik Aceh, Indonesia, 39-104.
- Aceh Province (2005a). *BRR Report on Aceh Tsunami on 26 Dec. 2004*.
- Aceh Province (2013b). *Buku Saku Aceh* (The Pocketbook of Aceh), (BAPPEDA, Badan Pusat Statistik, Provinsi Aceh), 463-479.
- AJRC (Aceh Justice Resource Center) (2009). *An Evolving Model for Conflict Transformation and Peace building in Aceh-Analysis of the Aceh Peace Process from an Acehnese Prospective Wiratmadinata*.
- Asia Research Institute. et al. (200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eh and Ocean Studies II Civil Conflict and Its Remedies 23-24 Feb 2009, Banda Aceh, Indonesia*.

- Ananta, Aris, Lee Poh Onn (2007), *Aceh*, ISEAS, Singapore, 7-14.
- Barker, Chris (2002). *Making Sense of Cultural Studies: Central Problems and Critical Debates* (Abridged). Sage Publications Ltd.
- East-West Center, (2005). *The Helsinki Agreement*, A More Promising Basis for Peace in Aceh, Washington DC, Policy Studies 20, Aspinall, E.
- Goudzwaard, Bob. (1979). *Capitalism and Progress*. Toronto, Canada, Wedge Publishing Foundation.
- INDONESIA. (2003). *Anguish in Aceh, and Casualties of the War In Aceh*. Lapidus, Ira. M. (2002). A History of Islamic Societies, I & II.
- Maudui, Abdul A'la. (1981). *Towards Understanding Islam*, Islamic Foundation, Leicester, 91.
- Musk, Bill A. (1979). *Popular Islam: The Hunger of the Heart*. The Gospel & Islam: A 1978 Compendium, Don M. McCurry ed. Monrovia, CA: Missions Advanced Research and Communication Center, 218.
- Musk, Bill A. (1989). *The Unseen Face of Islam*. Eastbourne. E. Sussex: MARC, Evangelical Missionary Alliance. 202-203.
- Overland, Martha Ann (2005). "Post-Tsunami Aid Fails to Reach Universities in Banda Aceh, *Chronical of Higher Education*, Vol. 52 Issue 17, 37-38.
- Samsul Rizal, M. Eng, (2014). Rector(President) of Syiah Kuala University, Banda Aceh, Indonesia, interviewed on 7, November, 2014.
- Stott, John R. W. (1979). Creative by Creation: Our Needs for Work. *Christianity Today*, 27(6), 32-33.
- Wiratmadinata(2008), *An Evolving Model for Conflict Transformation and Peace building in Aceh*. Aceh Justice Resource Center(AJRC), 103-132.

## 인터넷 자료

- "Foreign Policy in Focus/Indonesia: An Archipelago of Self-determination & Communal Conflicts." Retrieved from <http://www.fpif.org/>(2016.10.10)
- "Aceh's History of No Surrender." Retrieved from <http://www.worldpress.org/WorldPressReview/> (2014.10.5.)
-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4," Retrieved from <http://www.census.gov/> (2016.10.9.)

논문초록

## 이슬람권과의 문화산업 교류 방안 연구 -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을 중심으로 -

김성규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김형길 (교신저자/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 논문은 이슬람권과의 문화산업 교류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무슬림 인구가 2억 5천만 명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의 한 특별자치주인 아체지역을 대상으로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이슬람권과의 문화산업 교류는 지금까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것으로 극히 제한적이었다. 아체는 2004년 12월 26일 20여만 명의 희생을 가져온 최악의 쓰나미 재앙을 당함으로써 2005년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헬싱키평화협정』을 맺고 특별자치주가 되기까지 30여 년간 아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군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외부 세계와는 극단적으로 폐쇄되고 차단돼 온 분쟁지역이었다. 샤리아 즉, 엄격한 이슬람율법으로 통치하는 아체지역과의 문화산업 교류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는 물론 아체지역의 이슬람 실체와 특성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교류는 그 지역의 특성과 주민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아체 지역과 같은 이슬람권과의 문화산업 교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문화산업원’과 같은 비정부기관을 현지 이슬람 정부와 협의하여 설치하고, 둘째, 현지에 적합한 문화산업 콘텐츠를 선택 개발하여 교류 방안을 구체화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셋째, 교류 협력의 추진은 말씀에 기초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슬림 주민들을 진정으로 도우며 형제애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면서 추진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아체와의 문화산업교류가 점차 활성화 되어 이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동남아시아는 물론 세계 모든 이슬람권과의 문화산업 교류를 보다 폭 넓게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슬람권에 확산되면 무슬림들과의 우호적이며 화해와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평화로운 사회를 세워 가게 될 것이다.

주제어 : 문화산업 교류, 이슬람, 무슬림, 이슬람율법, 성경적 세계관





## 윤동주 십자가에 나타난 실존적 자기실현

### An Existential Self-Actualization from Yoon Dong-Ju's "The Cross"

배지연 (Jiyeon Bae)\*

#### Abstract

This study analysis in detail the deeper inner world based on sense and sensibility of the poet Yoon Dong-Ju in the work of <The Cross> to gain an insight reaching for the completion of self-actualization in the process of existential suffering. For this, three parts of collection were constructed from the first, the second and the third, and the fifth and the fourth among five verses and each theme in the three parts were focused on with a lens of existence. Three themes which are 'existential anxiety', 'existential despair,' 'existential self-actualization' were used for as a tool of interpretation of the poem.

The preceeding studies were focused on the poet's life with agony and resistance under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 poet's noble spirit in his faithful belief regarding his sacrificial determination like Jesus. But this study tried to approach wholistic understanding of the poet's inner being with the foundation of three polemic themes: the periodic darkness vs the personal agony; despair of the loss of the nation vs personal despair in the human finitude; the liberation of the nation vs self-actualization. The work of <The Cross> would be a beautiful-representation of prayer to bestow courage to all of us who want to seek self-actualization in his/her faith beyond the existential limitation of anxiety and despair and to resemble like the happy Jesus Christ.

**Key Words :** The Cross, existential anxiety, existential despair, existential self-actualization

---

\* 실존힐링홈 대표(EH<sup>2</sup>: Existential Healing Home),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86,  
lifelightlove67@yahoo.com

2017년 11월 03일 접수, 11월 30일 최종수정, 12월 11일 게재확정

## I. 서론

짧은 <십자가> 시 한편은 한 인간의 심오한 실존적 자기완성에 대해 풍부하고도 긴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시인의 실존과 존재됨의 깊이와 무게는 시인의 27년 2개월의 삶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고스란히 전달된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민족의 해방을 6개월을 앞두고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한 시인 윤동주는 <십자가>란 시어를 통해 자기 자신의 운명과 소명에 대해 신에게 기도하듯 대화를 시도한다.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명료한 한글로 기록된 <십자가>는 시인의 실존과 시대의 실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그림으로 보여주듯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괴로움을 벗어던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했던 시인의 시는 인문학적 인간이해를 강조하는 오늘날 다른 어떤 인문학서보다 풍부한 상상력과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윤동주는 <십자가>를 통해 고뇌의 가득 찬 자신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단순히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속에 살아가는 자신의 고뇌를 전달한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인 상황은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탄압하고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게 함으로써 한 개인의 실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 인간의 삶의 이야기는 세계내 존재(Being-in-the World)<sup>1)</sup>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삶은 한 사람이 관계된 실존적 “세계가 한 개인이 존재하며 참여하는 의미 있는 관계의 구조이자 그/녀가 그 관계에

---

1) 개별화(혹은 self)와 세계는 인간 존재의 삶에 근거가 되는 대극성의 한 면이다. 인간의 실존은 이러한 대극(주관과 객관, 자유와 책임 등)이 반드시 존재한다. 실존치료는 존재론적 인간 이해에 대해 실존 철학의 창시자인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이데거, 현존재 분석자인 빈스방거(Binswanger)와 그의 제자 보스(Boss)의 계보를 잇는다. 특히 메이는 하이데거(Heidegger)의 세계내 존재의 개념을 자신의 임상에 적용하였다. 그는 하이데거의 세계내 존재 유형 모델 즉, 주변세계, 동료세계, 자기세계를 기초로 정신과 의사였던 빈스방거의 현존재분석(세계내존재를 모델로 한)에 영감을 얻어 자연과 동료와 자기세계에 대한 통합적인 차원에서 심층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특히 세 가지 관계의 통합적인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면서도 현대 심리학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심층적인 자기 세계에 대한 이해를 부각시켰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십자가>는 세계내 존재자라는 렌즈로 볼 때 시인이 처한 조국의 현실 vs 타국에서의 삶 vs 자기 존재감에 대한 깊은 고뇌를 반영하는 기도문으로서 통합적이고도 깊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에 대한 보충자료로는 배지연(2013)의 “롤로 메이의 실존적 성격 심리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 32-44를 참조하라.

참여함으로 형성된 삶의 모습임을 반증한다”고 메이는 말한다(May, 1994: 59). 이러한 관점에 근거할 때 <십자가>는 윤동주가 남겨놓은 한편의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와 그가 속한 세계를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넘어 ‘영원한 현존성’에 이르고자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짧은 생애를 통해 그는 끊임없이 자국의 주권과 영토상실에 대한 슬픔을 자기 상실로 내재화시키며, 그것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 고통을 직면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러한 고투는 실존신학적인 관점에서 ‘영원한 현존’을 향한 실존적인 고통과 고뇌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실존적이고 존재론적 고뇌는 온전한 자기실현을 지향하는 역동적인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짧은 한편의 시로서 <십자가>는 단순한 미학적인 시어의 나열이 아니라 일종의 언어 행위(speech act)로서 독자들에게 두터운 해석(thick description)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와 같이 <십자가> 시에 대한 연구가 그 어느 문헌보다 민족과 개인의 실존적 고통에 대한 깊은 지혜와 통찰을 얻게 함으로써 본 논문의 의의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을 위하여 본 연구는 <십자가>에 나타난 시인의 실존적 불안과 절망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짧은 생애에서는 완결하지 못한 시인의 자기실현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 II. 실존적 불안

실존 치료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삶에서 불안이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sup>2)</sup> 인간의 삶에 의미가 존재하는 한 불안은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불안은 과

2) 메이는 *불안의 의미*(1950)라는 제목으로 임상심리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불안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와 학제간의 연구를 시도하였다. 기존 철학 논문에서 메이의 ‘불안’ 이해는 매우 편협한 접근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김재철·송현아는 메이가 불안을 “대상적인 것과 연관되어” 설명한 것으로 국한 시킨다(2014: 242-243). 메이는 알루이나 프랭클과 같은 실존심리학자와 달리 불안에 대해 매우 광범위한 접근을 시도한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불안과 신경증적인 불안으로 나눈다. 정상적인 불안은 신경생리학적인 반응을 포함한 실존적 불안과 존재론적 불안이 이에 해당된다. 실존적 불안은 인간이 살면서 본능적 혹은 신경생리학적으로 느끼는 위협에 대한 반응이다. 가

괴적이든 건설적이든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찾으려 사는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sup>3)</sup> 실존 심리학자 메이에 의하면, 불안의 핵심은 무기력(helplessness)과 불확실성(uncertainty)이다(May, 1950: 205). 달리 말하면 상황에 대한 위협은 감지하지만 그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소진된 무기력한 상태와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 될지에 대하여 불확실한 것에 대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sup>4)</sup> 이와 같은 불안의 특징은 불안의 정서가 인간의 궁극적인 곤궁(ultimated predicament)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안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나 자유를 상실하고 의미를 상실했을 때와 같이 인간의 유한성과 궁극적인 문제는 결부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불안은 존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에 대한 손상과 상실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불안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메이는 불안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고 권면한다. 이 말은 불안은 그것을 인지하고 자각할 때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말과 상응한다.<sup>5)</sup> 여기서 불안은 신경증적인 불안이나 병리적인 불안과 구별되어야 한다. 신

---

장 쉬운 예로 신호등을 건너던 중 빨간 불이 켜지고 양쪽 도로에서 차가 달려올 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른다. 무사히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식은땀이 흐르고 명치끝이 아파오는 경험을 한다. 이것이 불안에 대한 기본적인 예이다. 그 외 전쟁이나 천재지변을 포함한 국가의 재난상황이나 중요한 시험이나 인터뷰를 앞둔 상황 나아가 내일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인생의 무가치와 무의미로 인한 공허감 또한 불안의 범주에 속한다. 이처럼 불안의 범주는 매우 넓다. 위에서 ‘불안이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정상적인 범위에서 느끼는 실존적 존재론적 불안을 말한다.

3) 의미와 관련된 불안은 존재론적 불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메이에 따르면 인간의 핵심가치 상실은 곧 죽음에 비유할 수 있다. 여기서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이라기보다 존재론적인 유한성으로 인한 죽을 것 같은 느낌을 의미한다. 이런 차원에서 메이의 불안이해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불안이해를 포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존재론적 불안 또한 정상적인 불안으로서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 유한성과 유한한 존재로서 인생의 덧없음과 무의미와 공허 등에 대한 반응이다. 키에르케고르와 틸리히의 불안이해에 크게 영향을 받은 메이에 의하면 실존적이고 존재론적 불안은 불확실한 존재와 깊은 관련이 있지만 죽음에 직면해야 하는 인간의 유한성(메이는 이것을 운명이라고도 함)을 자각하고 수용할 때 자유와 책임에 더욱 민감해지며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고 본다.

4) 메이는 미국에 실존심리학을 정착시킨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가 실존심리학에 집중했던 원인 중 하나는 자신의 실존적 존재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불안’을 주제로 콜롬비아 대학 임상 심리학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동안 결핵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불안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게 된다. 특히 이때 케에르케고르의 불안개념을 접하면서 불안이해에 대한 한층 더 실존적이고 존재론적인 차원에 대해 시야를 넓히게 된다(May, 1950: 205-206).

5) 이것은 정상적인 불안에 대처하는 임상적인 처방이다. 비록 한 개인이 막연한 전쟁의 위협이나 경제

경증적인 불안은 스스로 감지하기 어려울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이다. 실존적 혹은 존재론적 불안은 회피하거나 방어할 때 더 큰 불안의 위협으로 확장될 수 있다. 키에르케고르와 틸리히의 실존 사상으로부터 양향을 받은 메이는 불안에 대해 “인간 존재의 핵심 요소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빨리 인식할수록 더 나은 해결점을 찾게 된다고 말한다(May, 1950: 205). “불안은 언젠가 자기 자신도 죽어야 한다는 실존적 사실을 자기 존재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하는 실재적인 체험이며 자기 이해에 대한 자원을 확보하는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배지연, 2015: 129). 이와 같은 불안은 인간의 유한성에 근거한 “자유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매개가 될 수 있다(키에르케고르, 2006: 148). 이상으로 언급한 불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인은 자신의 불안을 철저히 인지하고 수용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십자가’를 자신의 실존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십자가>에 나타난 시인의 내면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십자가>가 작성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윤동주는 1938년 3월에서 1941년 12월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약 33편의 시를 썼다. 그중에 <십자가>는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재학하던 1941년 5월 31일에 작성한 것이다. 그가 처음으로 쓴 시는 1934년 12월 24일에 쓴 <삶과 죽음>과 <초 한대>와 <내일은 없다>이다. <초 한대>는 기독교의 속죄양 의식을 나타내는 시로 해석될 수 있다. <초 한대>는 속죄양과 같이 자신의 죽을 운명을 예감하면서 시를 통해 그의 정신을 확장하고 심화시켜나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최명환, 2000: 45). 그가 쓴 마지막 시는 1942년 6월에 작성된 <봄>이다. 이시의 4연은 푸르른 하늘은 아른, 아른, 높기도 한데... 로 끝을 맺는다. 이것에 대해 권오만은 “그는 도달할 수 없는 ‘봄’을 한없이 그리워한 채, 이 세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삶과 시는 마치 누군가 짜 놓은 듯 신화적입니다. ‘봄’으로 자신의 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

적인 어려움에 대한 불안을 느끼더라도 그것은 피상적인 현상일 뿐 그 수면 아래는 존재로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심오한 가치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메이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불안은 존재나 존재를 규명(identify with) 어떤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일어나는 기본 반응”이다(May, 1953: 40). 한마디로 불안은 존재감의 상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더 이상 현존에서 자기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일어난다(“would feel he/she no longer existed as a self”). May, 1953: 41). 따라서 어떤 형태의 불안이 일더라도 불안의 이유나 근거를 파악하면 훨씬 현실을 책임감 있게 건설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실존 치료의 임상적 차원에서 볼 때 불안을 회피하고 억압하면서 불안에 무감각하기 위해 쇼핑이나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쾌락에 몰입할 경우 불안은 신경증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 몰입했던 것들에 중독이 될 수도 있다.

까지도” 기도와 같다고 말한다(권오만, 2015). 이처럼 그의 미완성 작품 <봄>과 그의 초기작품인 <삶과 죽음>은 <십자가>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듯하다.

<십자가>는 시인의 기도와 같은 삶의 행위가 시적 언어의 행위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는 모두 3문장과 5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에 먼저 첫 번째 문장과 1연을 보고자 한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십자가와 교회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단어들이다. <십자가>를 제외한 다른 시작들(초한대, 태초의 아침, 또 태초의 아침, 무서운 시간, 서시 등)도 읽는 자들에 따라 예수의 고난과 희생정신을 담은 기독교적 색채가 강한 작품들로 볼 수 있다(이동근, 2010). 그러나 <십자가>는 읽는 자들의 시적 감각이나 신앙적 민감성 없이도 제목 자체에서 기독교적인 믿음의 깊이가 전달된다. 그가 선택한 많은 시어들 중에 <태초의 아침>이나 <팔복>과 그리고 <참회록> 등과 같이 신앙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단어들은 있지만 십자가는 너무나 명백한 성경적인 용어이며 기독교의 상징성을 지닌다. 그가 살던 동시대가 민족의 주권을 상실하고 반감지 않는 타자로부터 사상과 언어의 자율성에 대한 탄압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십자가>란 제목의 시는 단순히 충성심이 가득 찬 신앙고백으로만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윤동주 시인의 시가 오늘날까지 많이 읽혀지고 연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의 시에는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부끄러움을 견뎌낸 그 어둠의 시대...폭력의 시대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깔고 있”으며 “시인의 마음 깊이 짙게 드리운 그 음영은 정결하기 짝이 없는 시인의 마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시를 읽는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느끼게 한다(류양선, 2012: 191).

시인의 시는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여전히 직면해야 하고 고쳐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직시하게 해준다. 시대적인 아픔과 부끄러움에 대한 내용은 다르지만 인간 실존은 인간에게 곤경 없는 삶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매일의 십자가를 져야하는 제자도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면 진리의 빛을 쫓고 있는 한 그 빛은 반드시 십자가를 비출 것이고 십자가 앞에 서서 고뇌하게 될 것이다. 시인 또한

십자가 앞에 서서 나라를 잃어버린 실존을 직시해야 했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고뇌와 방향은 그가 빛을 쫓고 있었고 빛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는 중에 그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햇빛이 걸린 십자가였던 것이다.

영원히 시간을 뚫고 들어와 고뇌에 찬 어떤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이 곧 그에게 십자가가 허락된 순간일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운동주라는 시인처럼 한없이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에게 영원히 세속의 시간을 깨뜨리고 나타나는 것이겠지요. 이것은 마치 해바라기가 해에게서 햇빛을 끌어올 수 없고, 해가 해바라기에게 햇빛을 보내주는 것과 같습니다(류양선, 2012: 187).

영원성의 시간과 해의 햇빛은 영원한 삶을 바라나 유한성에 머무는 즉시적 인간의 삶과 햇빛에 의존하는 식물의 필요충분조건관계를 인식시켜준다. 이것처럼 십자가에 걸린 햇빛은 시인에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실존적 한계와 영원한 구원을 간구하는 시인의 대극의 긴장을 반영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심재웅, 2010: 37). 또한 햇빛은 신앙의 태도, 신의 은총, 기독교 진리, 광명과 진리와 자유와 해방과 구원 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심재웅, 2010: 37). 이와 같은 해석은 성경에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즉, 성경에서 ‘햇빛’의 발원은 빛이고 빛의 근원은 빛을 창조한 신이신 하나님임을 명백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한 예로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은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인류의 빛” 이고 “이 빛이 어둠 속에 빛나고 있었으나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기록한다(현대인의 성경: 생명의 말씀사). 또한 요한복음 12장 36절에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군중들이 “그리스도란 도대체 누구니까?”(요한복음 12장 34절)라고 묻는 말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맥락을 추론해볼 때 <십자가>에서 햇빛은 문자 그대로 햇빛인 동시에 햇빛을 창조한 하나님을 의미하며 나아가 인류에게 생명과 빛을 주기 위해 성육신한 그리스도 예수라고 볼 수 있다. 시인이 “쫓아오던 햇빛”은 앞의 성경 구절을 추론해볼 때 그리스도이다. 그렇다면 시와 함께 살다 시와 함께 죽고 시와 함께 현존하고 있는 운동주는 그가 사용한 시어를 통해서 암울한 중에서도 희망을 품고 새 아침이 도래할 것을 믿은 듯하다. 김인섭(2013: 94)은 그의 희망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에 대

해선 명확하게 알지 못했겠지만 그가 햇빛을 쫓으며 살아온 것이 확실해진 시점에서 그의 모든 진지한 고뇌는 희망을 품은 실존적인 고뇌였을 것으로 해석한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시작이 <봄>이었다는 것에서 잘 반증해 준다. 그의 진지하고 엄중한 시적 고백에서 그가 시대적인 절망 속에서도 오히려 더 밝게 환희 비치는 이른 새벽의 봄 햇살과 같은 생명의 환희를 교회당 꼭대기에서 보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시인 윤동주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기에 십자가라는 무거운 역설을 품고 있는 단어를 시어로 선택하면서 기꺼이 그동안 자신이 햇빛을 쫓아왔다고 말한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서시>에서 시인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길 희망하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마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스스로 다독이고 있다. 이것을 증명하듯이 조재수(2005: 637-638)는 윤동주를 “젊은 날의 방황 고뇌, 절망, 슬픔, 참회, 동경”의 시를 쓰는 청년으로, “자기 성찰과 극복을 위한 독백”을 무수히 되뇌며 “부끄럽지 않는 삶과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로 해석하고 있다. 시인이 <십자가>를 쓰기 3개월 전에 창작한 시가 <무서운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무서운 시간>과 <십자가>를 작성한 기간에 일어난 시인의 고뇌어린 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 이상섭(2004: 45)은 <무서운 시간>에서 윤동주가 “곧 죽을 자기를 무서운 지경으로 불러내어 괴롭히지 말라고, 정체 불명의 어떤 부르는 자 - “거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 에게 직접 대답했다”고 지적한다. 이렇듯 ‘무서운 시간’에서 시인을 괴롭혔던 부름에 대해 시인은 3개월 후 <십자가>에서 아주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

그가 그렇게 달라진 태도를 보인 것은 그렇게 죽을 것처럼 무섭고 어둡게 느껴지던 시간에 그가 본 것은 한 가닥의 빛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은 새롭게 그의 삶에 비취진 것이 아니라 이미 태중에서부터 쫓아왔던 빛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인정하고 바라보기까지 그는 <팔복>이나 <무서운 시간>과 같은 ‘운명론적인 불안’을 노래했어야만 했다. 시인은 1939년 9월에 <자화상>을 창작한 이후 1년여의 공백을 거쳐야 했고 그 이후 나온 첫 작품이 <팔복>이다. 이 시는 시인의 운명론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시인에게 <자화상>을 쓴 이후 신앙적 회의가 찾아왔고 그 시기는 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임수만, 2008: 118).

유한성을 가진 모든 인간을 사랑하며 살고자 조용히 맹세하는 시인은 자기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죽음을 떠올리는 시간은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의 신앙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느낀 죽음에 대한 무서운 공포감은 실존적인 불안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존적 관점에서 그의 불안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sup>6)</sup>

절대로 모든 것의 최후가 아니며, 죽음 또한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작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는, 단순히 인간적으로 말해서 생명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고, 이 생명은 건강과 힘으로 충만해 있는 경우에 발견되기 보다는 그 죽음 가운데서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이다(키에르케고르, 2006: 161).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볼 때 죽음에 직면하여 고뇌에 빠진, 불안한 시인은 생명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경외심을 일으키는 모습에 비유할 수 있다. 한편으로 시인의 번민, 고통, 우수, 비탄 등의 실존적인 번뇌는 더욱더 죽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키에르케고르, 2006: 161). 여기서 죽음은 삶의 최종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보다 실존의 유한성을 넘어 영원한 자기를 향해 나아가는 열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불안은 죽음보다 더 괴로운 번민이지만 죽음에 이르지 않을 어떤 희망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sup>7)</sup> 그것이 시인이 쫓던 햇빛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일으킨다. 그러나 그 햇빛은 시인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높은 교회의 첨탑에 있는 십자가를 비추고 있다. 여기서 시인의 불안은 절망을 암시해 준다. 털리히는 인간 존재는 궁극적으로 자신과 신과 소외된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고 하였다. 극도의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믿음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 절망상태에 빠지게 된다. 절망은 인간의 가장 처참한

6) ‘십자가’ 앞에 서서 죽음에 대해 고뇌하는 시인의 입장은 다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죽음은 모든 것의 종국인 죽음이 아니라 무한성에 대한 갈망으로서 죽음, 죽음으로 살아가는 부활신앙, 옛 자아는 죽고 새 자아로 태어나는 바울의 관점, 절망의 밑바닥의 불신앙을 수용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존재로서의 삶에 대한 털리히 관점 등으로 조명해 볼 수 있다. 키에르케고르의 개념으로는 인간의 대극성 즉 유한성과 무한성, 필연성과 가능성의 종합체이자 변증법적 관계에서의 영원성에 참여하고자 죽을 수 없는 죽음을 선택할 귀로에 선 시인의 고뇌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키에르케고르에 대한 죽음개념에 대해서는 그의 저서 불안의 개념 160-199을 참조하라.

7) 여기서 희망은 ‘십자가에 비친 햇빛’이라는 표현과 ‘조용히 피를 흘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연결시켜 볼 때 시인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에 나타난 시인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볼 때 이와 같은 희망을 품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밑바닥을 경험할 때 생기는 정서이다. ‘십자가’에 걸린 햇빛은 죽음과 생명의 대극 상태를 묘사하며 가장 극심한 불안과 긴장의 순간을 상징한다. 그러한 긴장을 견디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관계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분열의 바닥에는 절망이 숨어 있는 것이다. 시인은 지금 그러한 대극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 Ⅲ. 실존적 절망

절망은 출구가 없는(No Exit)상황을 의미한다(Tillich, 1980: 56). 다른 말로 도망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서 거듭된 절망 속에 자포자기 상태를 의미한다. 절망은 불안의 한 유형으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실존이고 경계선(boundary-line)에 직면한 상황을 의미한다. 즉 희망이 없는 상태로서 벗어날 어떤 출구도 없고 나아갈 아무런 미래도 없는 상태이다. 절망과 희망 사이에 놓인 경계선을 넘어갈 출구가 없는 상태에서 남은 것은 절망이라는 감정(feeling)뿐인 것이다. 비록 절망의 감정은 비존재에 대한 절망이지만 이 절망의 고통이 너무나 강렬해서 비존재의 위협 중에도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 결국 비존재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인정함으로써 절망에서 벗어날 탈출구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탈출구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존재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오직 이 세 가지를 통합하는 전 인격적인 시도를 통해서만 탈출의 가능성은 열린다고 톨리히는 말한다(Tillich, 1980: 40-41, 54-57).

위에서 언급한 톨리히 관점에서 보면 시인에게 ‘십자가’는 출구인 동시에 출구가 되지 못 할 수 있다.<sup>8)</sup> 그것은 그가 절망한 이유는 인간의 유한성을 벗어날 출구를 찾기 못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 유한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출구가 ‘십자가’에 오르는 길이라는 사실에 대해 더욱 그는 절망을 한 듯 하다. 그 십자가는 궁극적인 경계로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달 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이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시인의 절망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그것은 그가 자신의 유한성의 한계를 자각한 것이고 둘째는 그가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기는 했지만 그 한계로

8) 십자가는 기독교적으로도 역설의 상징이듯 시인의 의식에 투영된 십자가도 역설적이고 대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인이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바라 본 대상은 십자가에 걸린 햇빛인데 그 햇빛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쫓아온 그 햇빛이 걸린 자리가 자신과 투쟁을 멈추게 해줄 자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십자가로부터 찾아야만 했다. 달리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가 계속 빛을 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가 자신의 십자가로 허락되어야만 했다.

지금 그는 너무나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신의 몸으로 체화해야 하는 격이 다른 신앙적 위상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것이 그의 개인적인 실존이고 민족의 실존이었다. 그러나 그 길은 여전히 그에게서 까마득히 먼 길이고 도달하지 못할 목표 지점인 것이다. 그것은 그가 그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존재의 한계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을 벗어나려는 그는 조용한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과 자신이 완성된 존재로 되기 위해서 상호적인 합의를 통해 일치성을 이루어 가야만 했다.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는 것은 육체나 정신으로 자신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새로운 존재로 부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힘 없는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자신이 과연 신의 본성을 가진 예수가 올랐던 그 높은 첨탑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는 기도이자 화자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여기서 강조된 부분은 첨탑이 높다든 것보다 그 높은 곳을 “어떻게” 오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다고 할 때의 “~ ㄴ 데라는 어미에는 시적 자아가 감당하기 어려운 아득한 거리감이 미묘하게 담겨” 있으며 햇빛이 머문 그 십자가는 “참으로 진리에 이르는 길”이나 시인의 능력으로 “열어 쫓히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길”인 것이다(류양선, 2012: 193). 지금까지 쫓아왔고 앞으로도 쫓아야 할 그 진리의 빛과 사랑의 빛이 비추는 곳이 십자가이다. 그리고 지금의 그의 실존적

운명이 교회당의 높은 첨탑에 있는 십자가에 오르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 곳을 올라 갈 수 있느냐가 그의 실존적 고뇌로 보아야할 것이다. 지금까지 <십자가>를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 지적하지 않는 그 지점이 바로 “어떻게” 부분이다. 이상섭과 최명환 등의 연구에서는 첨탑이 높다는 것만 부각시키면서 시인이 정작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놓고 서성거리며 고민하는 지에 대해 놓친 것이다(이상섭, 2004; 최명환, 2000). “지금” 시점에서 시인의 실존적 고민은 식민지국의 국민으로서 광복한 타자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탄식과 호소와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과 민족의 실존적 한계를 이미 직시했고 실존을 수용하기 위해 죽음과도 같은 고통스런 아픔을 겪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그 실존적 한계를 넘고 초월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다.

시인은 외부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릴까 아니면 내면에서 어떤 소리가 들릴까를 기다리며 십자가가 있는 교회당 주변을 서성거린다. 시인의 서성거림은 “순교자적 결단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의 정신적 패배”(채현주, 1991: 31)나 “교회 생활에서 소외된 자로” 보이나 “교회와 완전히 단절하지 않”는 자로서 “교회와 관계가 없는 양”(이상섭, 2004: 126) 보이려고 서성거린 것이 아니다. 시인이 “종소리”가 울리길 기다리며 “회파람”을 분 것은 자신의 실존적 한계로 인한 절망(존재의 필연성)의 끝에서 신이 부르는 ‘소명’(존재의 가능성)이 십자가에 있는지에 대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다. 시인은 신이 부를 그 “소명”의 길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과도 같은 고난의 길임(“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을 이미 의식하였다. 그 십자가의 길이 결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진리의 빛을 향해 고독하지만 용기 있게 신의 존전으로 나아간 것이다. 그는 <십자가>를 창작하기에 앞서 한차례 강한 광풍과 같은 내적인 갈등을 겪었다. 지금은 궁극적인 관심에 대해 신과 단독자로서 대면하는 시점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시인의 시작의 순서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시인이 <십자가>를 창작한 시점은 1941년 5월 31이고 죽음이 부르는 무서운 시간을 노래한 시점은 1941년 2월 7이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노래한 시점은 1941년 11월 20이라 해서 착안할 수 있다.

시인이 <십자가>를 노래한 것은 시인으로서 <쉽게 씌여진 시; 1942, 6,3>에서 처럼 “슬픈 천명”을 다함이라기보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 준비를 한 것이다.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자신을 준비한 것이다(전광하, 박용일, 2002: 22, 24;

류양선, 2012: 175). 그래서 시인의 서성거림은 시대적 고난에 대한 회피나 부인과 같은 자기방어적인 행위가 아니다. 또한 순교라는 신의 ‘부르심’을 미리 짐작하고 그 부르심에 앞도당한 자의 행위도 아니다. 오히려 그의 존재됨(becoming being)과 존재됨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놓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시인은 나이가 20대 중반에 미치지 못한 젊은이지만 존재적인 성숙도는 연대적 나이와 무관하게 성숙한 성인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어쩌면 청년이었기에 더욱 명철하고 예리한 시선으로 시대와 자기 존재를 통찰할 수 있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십자가>를 쓰기 전 약 2 여 년 전 1939년에 쓴 『별뿔 떨어지는 데』란 제목의 그의 수필을 보고자 한다.

밤이다.... 나는 이 어둠에서 잉태되고 이 어둠에서 성장하여서 아직도 이 어둠속에 그래도 생존 하나보다. 이제 내가 갈 곳이 어딘지 몰라 허우적거리는 것이다.... 다만 나는 없는 듯 있는 하루살이처럼 허공에 부유하는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점의 대침에 또 하나 다른 밝음의 초점이 도사리고 있는 듯 생각한다. 덤석 움켜 쥐었으면 잡힐 듯도 하다.... 이것이 생생한 관념세계에만 머무른다면 애석한 일이다.... 이 밤도 과제를 풀지 못하여 안타까운 나의 마음에 나무의 마음이 점점 올라오는듯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량을 자량치 못함에 빠져리듯 하나 나의 젊은 선배의 웅변에 선배도 믿지 못할 것이라니 그러면 령리한 나무에게 나의 방향을 물어야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동이 어디냐, 서가 어디냐, 남이 어디냐, 북이 어디냐, 아차! 저 별 이 번쩍 흐른다. 별뿔 떨어진 데가 내가 갈 곳인가 보다. 하면 별뿔 아! 꼭 떨어져야 할 곳에 떨어져야 한다.

“어디로 가야 하느냐, 동이 어디냐, 서가 어디냐, 남이 어디냐, 북이 어디냐”며 시인은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시인이 이글을 쓴 때는 연희전문학교(1938, 4, 9)를 입학하고 1년이 지난 23살 무렵이다. 같은 해 5월에 시인은 학교 기숙사 생활을 정리하고 종로구에서 하숙생활을 하다가 일본형사의 감시를 피해 하숙집을 북아현동으로 옮긴다(전광하·박용일, 2002: 150). 시인의 피상적 실존은 일본 형사의 감시를 피하는 삶이었지만 궁극적인 실존은 인생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이다. 그는 한 존재자로서 잉태와 성장과 실존이 “어둠”에 머물러서 새벽을 손님 기다리듯 기다리지만 그의 마음은 “암담”하다고 고백한다. 시상을 떠올리고 시를 창작하는 일은 “생생한 관념세계”에만 머무는 것이기에 새벽이 온다 해도 가야할 방향과 취해야 할 행동의 목표는 “암담”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암담한 마음은 그로부터 2여년이 지나서 <십자가>에서 “서성거림”으로 묘사된다. “서성거림”을 시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시적인 관념세계로부터 이미 벗어난 모습을 암시한다. 시인은 <별똥 떨어지는데>에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밤이 새도록 고민했다고 고백한다. 그는 실존을 놓고 번민하는 중에 “별이 번쩍” 흐르는 것을 보았고 그 별똥 지점을 놓치지 않고 쫓아오다가 그 빛이 침탑에 걸린 십자가를 비추는 것을 본 것이다.

시인은 오랫동안 어둠과 싸우면서 절망했다. 십자가를 목표로 둔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절망은 아니다. 오히려 십자가 앞에 선 그는 그 십자가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나에 대한 절망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절망이라기보다 현실성 속에 던져질 가능성을 기다리며 참아야 하는 절망감이다. 시인은 예수가 십자가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고통스럽게 기도한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마태복음 26:39; 현대인의 성경). 예수는 세 번 반복해서 동일한 기도를 했고 기도하기 전에 “몹시 괴로워”(마태복음 26:37)하며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서 자신의 실존의 고통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다. 시인이 교회당 주변을 서성거리며 종소리를 기다리는 것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인류를 구원하는 대과업을 앞두고 괴로워하며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깨어”(마태복음 26:40) 있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궁극적인 관심에 직면하여 단독자 앞에 선 시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 무거운 무게를 타자에게 양보하거나 물려줄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의 기다림에 참여해주길 바라는 양가적인 감정 상태였을 것이다. 이런 시인의 실존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것이다.

전력을 다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오직 자기 혼자 힘으로만 절망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그때 그는 여전히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로서는 전력을 다해 노력한다고 해도, 노력하면 할수록 그만큼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 갈 뿐이다. 절망의 분열은 단순한 분열이 아니고, 그 자신과 관계하는 동시에 타인에 의해 조정되어 있는 관계에 있어서의 분열이다. 따라서 그것의, 그것만으로 독립되어있는 관계에 있어서의 분열을 동시에 이 관계를 조정한 힘에 대한 관계 속에서 무한히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절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경우의 자기 상태를 나타내는 정신은 자기 자신에 관계하고 자기 자신이고자 함에 있어서 자기가 자기를 조정한 힘 가운데에 투명하게 근거를 두는 것이다(Kierkegaard, 2006: 164-165).

시인의 절망은 자신이 자기와 관계하는 관계성의 불완전함 혹은 분열로 인한 것이다. 나아가 그것을 해결하는 힘은 온전히 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지각하는 데서

오는 절망이다(이상섭, 2004: 196). 그러나 그의 절망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의해 인간 예수가 죽음으로서 인간 예수는 원래의 영원성으로 귀속되고 인류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는 메시아예로의 승화된 희망을 앞 둔 절망이다. 겟세마네에서 예수의 절망은 인간 예수 자신이 인간 자신과 단절과 분열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조정하는 힘, 즉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성으로부터 놓인 상태에서 살아가는 인류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성으로 끌어올리는 데 인간 예수의 죽음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는 점에 대한 절망이다. 다행스럽게 시인은 자신이 자신과 관계에서 오는 소외<sup>9)</sup>를 극복하려는 자기와 관계하는 자기를 수용함으로써 겸허히 신의 소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그가 또 다른 절망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둠의 시대 속에 있는 자기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자 그 어둠이 결국 자신의 내적인 어둠임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시인은 희망을 찾아 절망을 벗어날 출구를 찾은 지금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인간은 절망한다(Kierkegaard, 2006). 왜냐하면 절망은 신이 인간과 관계하고 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신이 인간에게 손을 놓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절망은 인간이 신과의 연합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증명한다. 시인은 지금 신과의 연합하는 동시에 자신과 온전한 자기 연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출구 없는 궁극적인 절망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향한 소리 없는 큰소리의 기도문으로 볼 수 있다.

#### IV. 실존적 자기실현

윤동주가 태어날 무렵 조국의 실존은 주권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에 반해 한 개인으로서 그의 삶은 매우 평화롭고 넉넉하며 여유로웠다. 그가 태어나서 소학교를 다녔던 명동초은 산과 바위 그리고 자연이 절경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예비 시인으로서 꽃과

9) 틸리히는 인간의 실존적 죄의 결과로 소외를 초래한다고 말한다. 우리 인간의 소외(strangement)는 신과 자신과 타인과의 분리로 인한 결과이다. 그로 인해 초래한 불안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다. 불안 해소의 방법으로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에 적응하려 시도하지만 그 시도는 더욱더 큰 인류의 분열을 불러일으킨다(Paul Tillich, 1984: 63-65).

나무 등의 자연과 깊은 교감을 하면서 시상을 떠올리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 속에 살았다. 윤동주는 성품이 좋고 교육적이며 재력을 갖추고 살아가던 증조부 윤재옥과 조부 윤하연 그리고 북경에서 유학을 하고 교편을 잡았던 부친 윤영석의 피를 물려받았다. 그의 외삼촌 김약연 목사 또한 명동 촌에 일찍이 이주하여 공동체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그는 윤동주가 문과를 선택해서 부친과 갈등을 빚을 때 중재 역할을 해 주는 등 윤동주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또한 명동학교의 교사 정재면에 의해 집안이 개종을 하게 되고 집안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에 교회회를 세움으로써 그는 신앙적인 면에서도 자연적으로 좋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모든 조건은 윤동주의 건강한 인성과 풍부한 지성 그리고 신실한 신앙심을 키우는데 의미 있게 작용했다. 한 인간으로서 세상에 던져진 시인의 현존은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신앙적으로 만족스러웠다. 시인의 시를 통해 본 그의 존재론적이고 심리적인 실존은 앞에서 추측한 것과는 사뭇 다른 듯하다.

조국의 독립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앞두고 독립에 기여하고 민족의 주체성을 회복할 인재가 필요했던 시점에서 시인의 시야에 비친 현실은 냉혹했고 야비했다. 일본의 제재를 받고 있던 조선인으로서 조국을 떠나 중국에 살았고 그곳 또한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손길이 뻗치고 있어서 시인의 마음은 결코 평화롭지만 않았던 것이다. 그의 이런 갈등은 <이런 날>에 잘 나타나 있다. “사이좋은 정문의 두 돌기둥 끝에서/오색기(만주제국의 국기)와 태양기(일본국기)가 춤을 춘다”라고 노래하고 있다. 시인에 대해 김혁은 “수상스러운 시대를 조소하듯 시대의 고통을 명민하게 바라보기 시작한 윤동주의 세계관이 엿보인다”고 기술한다(장백산, 2012: 6월호). 릿쿄 대학 문학부 사학과를 졸업하고 윤동주 업적을 20여년 이상 조사하고 발굴한 일본인 야나기하라 야스코는 윤동주 시를 통해 나타난 그의 사상에 대해 “외적인 권위나 한시대의 가치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로운 느껴진다”고 술회한다(월간중앙, 2015년 8월). 시인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에 나타난 그의 존재됨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계관이 필요했던 시점에 가장 원숙한 인품이 엿보인다.

시인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과 공감을 주고 민족 간의 화해의 표상으로 제시될 정도이지만 그가 남긴 글은 한권의 시집이 전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실존의 슬픔과 아픔 그리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부활을 꿈꾸는 그의 시어의 향연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간적인 그의 원숙함, 사상의 보편적 가치, 풍부



한 서정성, 깊은 민족애와 인간애, 예리한 지성과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지닌 윤동주였지만 그가 신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는 의문과 고민에 빠진 한 인간이었다. “저렇게 높은 첩탐에 있는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나요”라고 조용하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시인은 신과 오랜 시간 단독자로 서왔고 <십자가>를 노래하는 지금도 고뇌하는 단독자로 신 앞에 서 있는 것이다.

피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시인은 <십자가>를 쓰면서 십자가의 독배를 마시기전 피로워 죽을 지경에 처하여 기도했던 예수를 떠올렸을 것이다. <십자가>를 창작하기 약 5개월 전에 <팔복>을 쓰면서 그는 또 한 번 팔복을 역설하던 예수를 떠올렸을 것이다. 시대를 통해 시인이 떠올린 예수는 “슬퍼하는 자”였고 그런 예수의 모습은 고스란히 자신의 마음에 투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을 간구하는 중에 예수와 동일시될 수 없는 한 실존자로서 절망을 느낀다. 그것은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절망자로서 예수가 갔던 십자가의 길을 자신도 갈 수 있느냐이다. 예수는 스스로 십자가를 졌지만 신 앞에 선 그는 신의 긍정을 기다려야만 했다. 신의 부정은 자신의 부정이고 그로 인한 신의 상실은 자기 상실을 의미한다. 신의 수용 없는 십자가는 자기 고난의 불과하지만 신의 수용을 통한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과 연합이다.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성 앞에서 절망을 하게 된 것이다.

자기에 대해 절망하는 것, 절망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절망의 공식인 것이다. 따라서 절망해서 자기 자신이기를 바라는 절망의 제2형태는, 절망해서 자기 자신이기를 바라지 않는 제1의 형태로 환원될 수가 있다. 소크라테스는 육체의 병이 육체를 먹어버리는 것과는 달리 ‘혼의 병(죄)은 혼을 먹어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데서 혼의 불사성을

증명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절망은 절망적인 자기를 먹어버릴 수 없다는 데서 그것이 곧 절망에 있어서의 모순의 고뇌라고 하는 데서 인간 속에 영원한 그 무엇이 존재함을 증명할 수도 있다. 인간 속에 아무런 영원한 것이 없다고 하면 인간은 결코 절망할 수 없었을 테고, 또 절망이 절망자인 자기를 먹어버릴 수 있었다고 하면, 절망이라는 것도 이미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키에르케고르 2006: 172).

시인의 절망은 식민지국의 국민으로서 주체성을 상실한 실패나 패배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최악에 조건에 처하더라도 그런 조건이 그를 삼켜서 그의 존재를 없애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절망이다. 즉 그는 지금 십자가에 걸린 햇빛이 자신을 영원으로 초대하는 빛임을 감지하였고 십자가가 그가 가야할 궁극적인 길임을 알았지만 지금 신이 자신을 그 자리에 초대할 것인지에 대해 절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의 절망은 자신이 자기의 실존적 한계를 벗어나도 여전히 자기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더욱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처럼”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서성거리며 신의 계시를 기다리던 그에게 십자가가 허락되었음을 확신한 것이다. “십자가가 ‘허락’되는 순간이란 영원이 세속의 시간을 뚫고 들어와 고뇌에 찬 시인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허락’의 순간에 괴로움은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새로운 탄생”(이상섭, 2004: 203)은 <팔복>에서 강조되었던 슬픔이 이제 영원한 행복의 노래가 될 시점에 있다. 침탈 위의 십자가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던 시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떠올린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기 전까지 죽음의 고통을 느끼며 몹시 괴로워했던 예수, 죽음의 역설을 부활로 보여준 예수, 슬픔의 애통을 행복한 기쁨으로 승화시킨 예수를 떠올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 “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꽃처럼.....피를...흘리겠습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인생관이나 세계관의 문제보다 “바람과 구름과 나무와 우정”으로 인해 더 괴로워했다(윤동주, 1939: 127). 애써 시대의 어둠을 외면한 듯하지만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피를 흘리겠다는 말속에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양이 된 것처럼 본인도 민족의 구원을 위해 희생을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만 해석한다면 그를 단지 독립투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노승욱, 2011: 92-93). 그

러나 그의 조용한 성품을 반영하는 “조용히”라는 부사의 사용은 십자가를 남들의 주목이나 영웅심의 발로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이 결코 아님을 보여준다. 그는 조용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고백적인 기도를 올린다. 조용하게 자신의 선택이나 결단을 내면에 담아두었지만 그것이 세상과 시대에 대해 결코 무관심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서 하늘은 땅위의 하늘이고 세상을 품고 있는 하늘이라는 점에서 하늘은 자신의 고향이자 조국이고 일본의 식민지 정책과 민족주의 파시즘 정책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상을 의미한다. 그가 보고 살아가는 세상은 진리의 빛이 가려진 어두운 세상이고 지속적인 어둠에 덮여 있는 세상이다. 그는 세상을 향해 큰 소리 대신 고통스런 죽음을 택하여 조용한 외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이런 모습은 “역경의 고통이 많을수록 그리스도와 의 사귀이 더욱 확실하게 보장” 된다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은 분명히 영적인 기쁨으로 조절” 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태도이다(존 칼빈, 2006: 225, 228; 김창훈, 2006: 373-374).

이제 더 이상 시인에게서 십자가는 애통이나 고통이나 절망의 상징이 아니다. 시인은 십자가 앞에서 서성거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소리를 지르지 않고 조용히 어둠을 밝히는 꽃과 같은 붉은 등불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를 마친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위한 새로운 존재에 참여하고 있다. 그의 괴로움은 기쁨이 되고 “괴로웠던 사나이”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존적인 소외의 죽음을 극복한 자의 십자가”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실존적인 소외의 죽음에 종속시킨 자의 부활이다”이기 때문이다(폴 틸리히, 2005: 236). 시인은 절대자와 단독으로 대면하는 용기를 통해 신에 손에서 벗어난 자기를 발견하고 절망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소외된 관계를 극복한 것처럼 자신도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행복을 얻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 V. 결론

새로운 탄생은 죽음의 역설이듯이 꽃처럼 피어나려는 시인의 소망은 죽음의 역설을 내포한다. 시인은 자신의 고뇌에 예수의 괴로움을, 자신의 죽음에 예수의 죽음을, 그리

고 햇빛과 진리의 빛을, 피어나는 꽃과 부활을 서로 연결시킨다. 전자가 후자의 후광을 받아 그 자체의 실존을 초월할 가능성을 개방하고 후자는 전자로 말미암아 더 실존적인 감각으로 체현하도록 하고 있다. 시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꽃처럼 피어나는 피”는 ‘죽어가는 꽃’이 아니라 ‘피어나는 꽃’이다. 그리고 그것은 부활을 함축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 죽음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함이고 어둠과 거짓을 밝혀 줄 진리의 빛과 연합하는 죽음인 것을 암시하고 있다. 시인은 역설적으로 그는 거창한 세계관이나 인생관에 대해 고뇌하기보다 진리를 깨우치고 우애로운 삶을 살기 위해 더 괴로워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역설을 내포한다. 본질과 실존에 대한 미해결 과제를 앞둔 시인의 시어는 상당한 역설적 내포할 뿐 아니라 유비 속에 강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시인은 죽었으나 살았고 절망했으나 절망하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완성된 자기의 다른 형태이다. 영적이고 신앙적인 의미에서 “죽음은 절대로 모든 것의 최후가 아니며, 죽음 또한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작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키에르케고르, 2006: 161) 시인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의 지혜를 전하며 인생의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게 해준다. 시인이 관념세계로부터 탈피했다는 것은 그의 “정신 활동” 즉 “정신과 육체”의 관계가 일치된 것을 의미한다. 즉, 외면적인 자기와 내현적인 자기가 합일을 이루는 자기성숙에 이른 것이다. 달리 말하면 죽음의 불안과 궁극적인 절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향한 영원한 현존과의 연합으로 새로운 생명에 참여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다. 시인이 죽어서 자기실현을 이루었다는 말은 시인은 몸은 죽었지만 그의 영과 정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히 지금 여기에 현존하고 있다는 의미다. 윤동주는 1917년 만주의 북간도(현재 중국 연변자치주)의 명동 촌에서 태어나서 27년 2개월의 삶을 살다가 1945년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애를 마쳤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의 최후가 아니다. 그의 죽음은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 안에 존재” 하며 이 생명은 “건강과 힘으로 충만해 있는 경우에 발견되기 보다는 그 죽음 가운데서 더 많이 발견“되는 것과 같다(Kierkegaard, 2006: 161).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에게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자기실현에 이르는 하나의 표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김인섭 (2013). 윤동주 시 평가의 재조명-성서수용과 신앙발달단계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8(3), 75-103.
- [Kim, I. S. (2013). On basis of faith development of relighting-the biblical acceptance about the poem of Yoon dong-ju. *The Journal of Faith and scholarship*, 18(3), 75-103.]
- 김재철 · 송현아 (2014). 불안에 대한 임상철학적 이해 - 하이데거와 보스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철학연구**, 제 50집, 230-261.
- [Kim, J. C., Song, H. A. (2014). A Study on Anxiety in the Clinical Philosophy. *Journal of The Society of Philosophical Studies*, 50, 230-261.]
- 김 혁 (2012). **장백산**. 룡정 윤동주 연구회, 6월호.
- [Kim, H. (2012). *Jang Back-San*. Study of Yungjung Yoon Dong-Ju, 6.]
- 김창훈 (2006).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핵심**. 도서출판 솔로몬.
- [Kim, C. H. (2006). *The Biblical Essence and Biblical Core*. Seoul: Solomon Press.]
- 권오만 (2015). **윤동주와 걷는 새로운 길, 마지막회**. 기독교사회 2월호.
- [Gwon, O. M. (2015). *A new way walking with Yoon dong-ju*. The Journal of Christian Thought Feb.]
- 노승욱 (2011). 윤동주 시에 나타난 고백의 기독교적 성격 연구. **신앙과 학문**, 16(1), 83-102.
- [No, S. H. (2011). The study of characteristic of Christianity on the poetry of Yoon dong-ju. *The Journal of Faith and Scholarship*, 16(1), 83-102.]
- 류양선 (2012). 순교예의 소망: 십자가, **다시올 문학**, 18, 186-208.
- [Ryu, Y. S. (2012). Hope for martyrdom: the Cross. *Literature of Dasioll*, 18, 186-208.]
- 류양선 (2012). 윤동주의 시에 나타난 시간과 영원: 쉽게 씌어진 시 분석. **한국시학 연구**, 34(8), 157-183.
- [Ryu, Y. S. (2012). Time and eternity in the poetry of Yoon dong-ju: analysis of poem written easily. *The Study of Korean Poetry*, 34(8), 157-183.]
- 배지연 (2015). 실존적 자기 이해에 대한 메이와 틸리히의 변증법적 대화에 관한 고찰. **신앙과 학문**, 20(3), 123-146.
- [Bae, J. Y. (2015). The dialectical dialogue between May and Tillich on an existential self-understanding. *The Journal of Faith and Scholarship*, 20(3), 123-146.]
- 배지연 (2013). **롤로 메이의 실존적 성격 심리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

- 대학교 대학원 기독교전문대학교.
- [Bae, J. Y. (2013). *A study on the existential psychology of personality of Rollo May*. Doctoral Dissertation. BaekSeok Graduate School, Seoul, Korea.]
- 심재웅 (2010). **윤동주 시에 나타난 기독교 정신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Sim, J. W. (2010). *A Study of The Thought of Christianity on Yoon don-Ju's Poetry*. Masters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Suwoon, Korea.]
- 이동근 (2010). **윤동주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십자가 표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서 대학원 조직신학.
- [Lee, D. K. (2010). *A Study on the poetry, "Cross" by Yun Dong Ju and Its implication to the Contemporary Christian Life*. Masters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Osan, Korea.)]
- 이명성 역. (2006). **불안의 개념: 죽음에 이르는 병**, Kierkegaard, S.A. (1848). The concept of anxiety. 서울: 홍신문화사.
- [Lee, M. S. (2006). *The concept of anxiety: a simple psychologically orienting deliberation on the dogmatic issue of hereditary*. N.J.: Princeton.]
- 이상섭 (2004). 윤동주의 '순교적' 비전: '십자가' 깊이 읽기. **새국어 생활**, 14권 4호, 겨울, 125-133.
- [Lee, S. S. (2004). Yoon dong-ju's a martyr's vision: reading deeply the Cross. *New Life of Korean*, 14(4), 125-133]
- 이유식 (2009). 윤동주시 십자가 해석에 대한 이의. **월간문학**, 4월호.
- [Lee, Y. S. (2009). The meaning of interpretation on The Cross of Yoon dong-ju. *The Journal of Monthly Literature*, 4]
- 윤동주 (2002).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전광하·박용일 (편저). 흑룡강 조선출판사.
- [Yoon, D. J. (2002), *Sky, Wind, Star, and Poem*. Jun, K. H & Park, Y. I.(Eds.). WukYongKang Chosun Press.]
- 임수만 (2008). 윤동주 시의 실존적 양상: 절망과 불안, 그리고 존재에의 용기. **한국현대문학연구**, 24집 4월, 97-136.
- [Im, S. M. (2008). A study on the existential aspect of Yoon Dong-Ju(윤동주)'s poetry. *A Study of Korean Contemporary Literature*, 24(4), 98-136.]
- 조재수 (2005). **윤동주 시어 사전**. 연세 대학교 출판부.
- [Joe, J. S. (2005). *A Dictionary of Yoon Dong-Ju's Poetry*.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최현주 (1991). **윤동주 시에 나타난 기독교 정신**.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대학원.

- [Choi, H. J. (1991). *A Study of The Thought of Christianity on Yoon don-Ju's Poetry*. Master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최명환 (2000). 윤동주의 십자가 분석. **국제어문**, 21집, 45-59.
- [Choi, M. W. (2000). A Analysis of Yoon dong-ju's the Cros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nguage and Literature*, 21, 45-59.]
- Calvin, J. (1988).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III.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 May, R. (1950). *The meaning of anxiety*. New York: Ronald Press Co.
- May, R. (1953). *Man's search for Himself*.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May, R., Angel, E. & Ellenberger, F. F. (ed). (1994). *Existence*. London: Jason Aronson Inc.
- Tillich, P., & LeFevre, P. (Eds). (1984). *The meaning of health: essays in existentialism, psychoanalysis, and religion*. Chicago: Exploration Press of The Chicago Theological Seminary.
- Tillich, P. (1980). *The Courage to Be*. New Haven: Yale University.

## 논문초록

# 운동주 십자가에 나타난 실존적 자기실현

배지연 (실존힐링홈(EHF)<sup>2</sup>대표)

본 연구는 운동주의 <십자가>시에 나타난 시인의 섬세한 내면세계를 밀도 있게 분석하여 그의 깊은 실존적 고뇌와 성숙한 자기완성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5연으로 된 시를 세 부분(1연, 2연과 3연, 4연과 5연)으로 구성하여 각 영역의 주제를 실존의 렌즈로 재조명하였다. <십자가>를 해석할 도구로 실존적 인간이해에 기초한로 ‘실존적 불안,’ ‘실존적 절망,’ ‘실존적 자기실현’이란 세 가지 개념을 활용하였다.

<십자가>에 대한 기존 자료는 대부분 일제 강점기에 조국을 상실한 시인의 고뇌와 저항적인 생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와 같은 희생적인 자기희생의 결의를 다짐하는 숭고한 신앙심을 강조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대적 암울과 개인의 고뇌; 민족상실에 대한 절망과 개인의 유한성에 대한 절망; 민족의 해방과 개인의 자기실현이라 포맷을 구조로 시인의 존재성에 대해 총체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러면서도 시인의 정신적 영적 인격적인 성숙을 시어를 통해 포착하고자 했다. <십자가>는 행복한 예수를 닮고자 십자가가 허락되기를 기다리는 한 존재의 진정성 있는 기도로써 불안과 절망을 넘어 자기실현에 이르고자 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표상이 될 것이다.

주제어 : 십자가, 실존적 불안, 실존적 절망, 실존적 자기실현



## 기독교 교육적 인재 덕목과 성령의 사역

# Christian Educational Virtues of Competent Persons and the Works of the Holy Spirit

이 란 (Ran Lee)\*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tract the 6 virtues of the competent persons based on the goals and the contents of Christian education and to discuss them connecting to the ministries of the Holy Spirit. For this, Cooperation Curriculum Project, and Overman and Johnson's Christian worldview education program were applied to the virtue extraction. Consequently, the six virtues were faith and sanctification, wisdom and prudence, worldview understanding and discernment, self-understanding and character, leadership and cooperation, Gospel spreading and society revolution. Discussing these 6 virtues with biblical examples on the works of the Spirit, this study tries to shed light on the Christian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ministries of the Spirit. Finally, this study emphasizes the fact that the Spirit is a more fundamental and ultimate inner teacher in education and that we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Spirit's works in the formation of Christian educationally competent persons by declaring the absolute consistency of the Spirit's works with the Triune God's restoration ministries from His full authority among both persons and the world.

**Key Words :** Christian education, virtues of competent persons, ministries of the Holy Spirit, Triune God

---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 박사(Sungkyunkwan University),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iran370@hanmail.net

2017년 07월 27일 접수, 12월 15일 최종수정, 12월 20일 게재확정

## I. 서론

현대 기독교교육 이론들은 교육에서 성령의 사역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다(서철원, 2003: 19). 그러나 1990년대 세이무어(J. L. Seymour)와 밀러(D. Miller)가 기독교교육에 두 과제-기독교적 경험과 계시의 표현을 교육의 문제로 가져오기, 교회의 실제에서 기독교교육이 일어나게 하기-를 던짐으로써 성령이 기독교교육의 핵심 주제임을 제시하였고 이로써 성령이 더 이상은 주관적 신비의 영역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내적 교사(inner teacher)로서 제자들을 ‘모든 진리로 이끄는 분’이다(요 14:26; 16:13). 그는 거룩하고(눅 11:13) 영원하시며(히 9:14), 무소부재하시고(시 139:7-10) 전지전능한(사 40:13) 신성과 동시에, 지성(고전 2:10-11), 감정(롬 15:30), 의지(고전 12:11) 등의 인격적 속성을 소유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다.

기독교교육의 가장 핵심적 영역은 영혼 구원과 성화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의 거듭남은 오로지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롬 8:9). 이 사실은 성령이 구원 사역에서 하는 절대적 역할을 설명해준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부으심은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에 절대적 열쇠가 된다(요일 2:27).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시며(엡 6:17), 성경 이해와 적용(고전 2:12-14), 전달(고전 2:4-5)에 깊이 관여하시므로 거룩한 삶(갈 5:16)과 효과적인 사역(롬 15:18-19)을 위한 “절대적 동력원(권능의 원천)”이다(Harvey, 2015: 27). 이 역시 성화를 위한 교육 사역에서 내적 성령 교사(inner teacher, 요일 2:27)와 전과 사역에서 주권적 성령이 역사해야 한다는 실천적 중요성을 피력해준다.

성령론을 이론적 차원에서 다루는 단행본들은 다수 출판되었다. 또 성령의 역할을 교회 내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논의하려는 시도들도 여럿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가 보여주듯이 성령의 사역이 다만 교회의 성경 교육에만 관여한다고 보는 관점은 편협한 감이 없지 않다. 성령의 일반 사역은 종교적인 영역뿐 아니라 사회, 문화, 세계, 우주 속에서 활동하고 이것은 개인과 교회 뿐 아니라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미치기 때문이다(최윤배, 2010: 95-96).

본 연구는 성령의 특별 사역만을 강조해 온 기존 연구의 경향성을 뛰어 넘어 성령의 일반 사역에도 관심을 둔다. ‘기독교교육’의 개념을 다만 교회 교육뿐 아니라 기독교

교 교육기관이나 가정에서, 또는 개인 간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하는 행위 전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모든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교육 원리에는 특정 교육목표와 내용, 그리고 교육의 결과로서 기대되는 인재상과 그에 따른 덕목들이 있다. 기독교교육에서도 무엇을 교육목표로 하고 교육과정 내용으로 삼느냐에 따라 그 교육활동이 키워내고자 하는 인재상이 달라질 것이다. 현대의 모든 교육이론이 그러하듯이, 본 연구 역시 많은 지식과 정보를 단순히 갖춘 인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인재를 참된 인재로 보는 관점을 취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적 인재는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요 16:13; 빌 1:19), 그리고 성령을 좇아 사는 삶(갈 5:16)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전제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하는 모든 종류의 교육 형태에서 기독교 교육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성령의 사역은 어떤 함축적 의미를 가지는가를 논의하는 것이다.

## II. 선행연구 분석

성령이라는 용어 대신 영성이라는 완곡한 용어로 대체해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러한 연구의 용례는 오늘날 포스트모던 시대에 자칫 혼합주의 영성으로 기울 수 있다. 정확히 ‘여호와 하나님의 영’의 개념으로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내적 교사인 성령의 역할을 교회교육과 연결하여 논의한 학위 논문들이 있으나(김대순, 2003; 지성일, 1991) 성령의 특별사역에만 집중한 개념적 연구에 그쳤고, 국내 학술논문 중에는 기독교교육 관점에서 거룩과 세속의 이분법을 극복한 성령운동을 소개하면서 성령과 교육의 상호관계성을 전개한 소태은의 연구(2014)와 기독교 학교에서의 성령의 역할을 논의한 Bondy의 연구(2011)) 등 소수의 연구가 있다.

소태은의 연구(2014)는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성령과 함께 세상을 변화하는 것을 기독교교육의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잠재적 교육과정의 경이를 발생시키는 주체를 성령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성령의 경이를 체험하는 구체적 교육방법을 역설, 영적 글쓰기, 거룩한 독서 등으로 소개했다. 성령과 함께하는 기독교교육의 방법을 교회 내·외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안한 의의가 있으나 논문의 성격상 이러한 성령과 함

게하는 교육이 어떠한 목적과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실시되는가에 대한 설명은 제한적이었다. Bondy(2011)의 연구는 성령을 교육의 중심에 놓는 것을 21세기 기독교학교의 사명으로 이해하고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학습과 도덕과 영성 간의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21세기 기독교교육의 도전은 교육에 있어 성령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삶에서의 성령의 역할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의 기여점은 성령의 일반 사역에 주목하면서 교회 밖 기독교교육의 목적과 성령의 역할을 연결하여 논의하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성령이 교육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점이다.

Miller(1962)는 기독교교육과 성령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논의하면서 주로 성령의 조명, 설득, 재생, 변화 사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성령은 활동 중인 하나님으로서, 인간 교사들은 성령을 주도할 수 없고 오직 심고 물주고 기다리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기독교교육은 신학이나 교리 교육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존재하시는 성령에 대한 응답이라고 표현했는데(Miller, 1962: 180) 모든 지식적 학습이 그대로 믿음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현상이 그 증거이다. 성령이 기독교교육에 절대적인 주체임을 강조한 것이다.

성령의 역할에 대한 본격적 논증은 Farley의 연구(1965)에서 시작된다. 그가 상정하는 성령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다음의 진술로 요약된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에 대하여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하나의 방식(way)이다. 영으로서의 하나님은 그의 사역의 한 형태(mode)이다. 하나님의 강력하고 개인적 임재의 목표는 그의 의지를 성취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영으로서 현존하며,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 은혜, 자유, 용서, 사랑의 삶이라는 내용들을 포함한다. 이를 토대로 Farley는 성령 안에서의 교육을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복음의 기이한(strange) 내용, (교회 밖) 전쟁에 대비하는 교회의 기이한 상황, 성령 안에서 삶의 기이한 자유이다. 한 마디로 성령의 교육은 양육(nurture)과 다르며 개방적이고 힘을 부여하며(empowering) 역동적이다.

Smart(1966)는 위의 Farley의 논의를 재평가하면서 교사들의 역할이 강조될수록 성령이 잊혀져가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특히 세상의 교육이나 문화에서도 교육적 개념을 차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회교육의 목표는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고 적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회심, 성화, 구원 같은 구원의 서정에 대한 지적인 가르침이 기독교교육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보다 더 풍성하고 실제적인 삶의 새로운 방식에 열려져 있는 것이 성령 안에서의 교육이라고 논증했다.

성령의 특별 사역을 논의하면서 일반 사역을 시사한 것이다. 이러한 성령의 화해적 사역을 위해서는 성령의 지속적 소유(permanent possession)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부여지는 성령의 사역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의 Miller, Farley, Smart의 연구는 교회 교육적 관점에서 성령의 개념적 역할을 설명과 논증의 방식으로 서술한 것이다. 성령의 풍성한 실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개념으로부터 성령의 역할을 몇 가지로 요약 제시하고 그에 따라 교회가 추구해야 할 교육적 방향을 연결하여 논의했다.

이외에도 교육학자 Mason의 교육경험에서 추출된 견해에 의존해 성령의 역할을 논의한 Kaufmann의 연구(2005), 주로 Farley와 조직신학자 Barthes에 기대어 성령의 역할을 논한 Rogers의 연구(1994) 등이 있다. 이 두 연구는 주로 한두 학자의 견해를 비평하는 방식으로 성령의 교육적 역할을 논증하였는데 특히 Rogers의 연구는 교재 의존과 성령 의존을 대비시켜서 성령 중심 교육이 기독교교육의 목표라고 규정하고 이것이 학교 교육에서도 가능함을 제안했다. 그는 과학과 기독교의 이분법을 피하고 반지성주의적 믿음이나 유물론적 과학의 배타적 선택이 아닌, 그 모든 자료와 출처가 성령 안에 존재함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령이 지배하는 교육은 교사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균등의 교육이 될 수 있음을 피력한 것이다.

그밖에 서구의 말씀 지성적 신학 조류의 유입 속에서 아프리카 오순절파 신학 교육에서 성령 사역의 회복을 강조한 역사적 연구(Omenyo, 2008), 민주주의에 적합한 도덕적 덕목(virtues)과 성령의 은사를 비교하여 연결한 Jordan의 연구(2016), 예언적 시작(詩作)을 통한 성령 사역의 활성화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Guare, 2001) 등이 있다. 이러한 비교적 최근 연구들은 개념적인 논의보다 실제적인 방법론이나 사회 이슈, 역사적 사건 등을 구체적으로 탐구해 성령과 교육의 연결점을 찾았다.

요약해보면, 대부분의 성령과 교육을 연결하는 연구는 교회 교육과 (기독교)학교 교육을 각각 분리해서 논의하거나 한 가지 영역을 논의하면서 다른 영역에 대한 제언에 그치는 연구가 많다. 또한 성령에 대한 성경적, 조직신학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으며 각각 연구 성격에 맞도록 몇 가지 성령의 역할을 조작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교육학적 정보를 토대로 논의한 연구가 많다. 신학적 조명보다는 교육학적 조명이 대체적이다. 나아가 대부분의 연구에 성령이 함께하는 교육에 대한 묘사나 효과는 있으나 어떤 교육 목적, 어떤 인재를 개발할 목적으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적 고리가

분명하지 않다. 즉, 특정 형태의 교육에서의 구체적 목표와 이를 위한 성령의 역할을 연결시켜 논의한 연구가 부재한 형편이다. 본 연구 IV장에서 논의할 것이지만, 오늘날 교회교육과 일반 기독교교육은 매우 융합적인 형태로 가고 있으며 이 두 가지 형태의 교육 목적과 내용을 하나의 비전으로 보여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동향을 따라 본 연구는 기독교교육이 추구하는 인재의 구체적 덕목들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육 목표들로부터 추출해 제시하고 이를 성령의 사역에 대한 신학적 논의와 연결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 III. 성령의 특별 사역과 일반 사역

성령론은 크게 삼위일체론적 성령론과 그리스도론적 성령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최윤배, 2010: 86-88). 두 성령론 모두 성령을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위격으로 보는 관점에는 이견이 없다. 신적 본질을 공유하면서 자존하는 위격들 간 ‘보내심’의 관계성은 위격들 간의 선-후행 관계가 아닌 본질의 일체성 개념을 내포하기 때문이다(정원래, 2015: 118). 바빙크에 따르면 하나님의 존재와 위격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삼위는 단지 나타남의 양식들이 아니라 신적 본질 안에 있는 존재의 양식들이다. 삼위는 그들의 영원한 내재적 관계에서 서로 구별된다. 즉 아버지 되심, 아들 되심, 그리고 나오심이라는 그들의 위격적 속성들에 의해서 구별된다는 말이다(Bavinck, 1992: 435).

삼위일체론적 성령론은 성령을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속 제3의 위격으로 보므로 모든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일하게 강조한다. 삼위일체의 관계적 속성은 위격들 간의 일치와 다양성, 상호침투와 연합, 페리코레시스,<sup>1)</sup> 신비성 등으로 나타나며 존재가 연합을 선행하지 않고 처음부터 관계성 속에 존재했으므로 성령은 다른 두 위격과 동시성 및 동등성을 가진다(Boff, 2011: 89-132).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일치와 사랑의 관계성은 참된 신성에서 비롯된 참된 인성, 교회 연합의 모델이 된다.

1) 페레코레시스는 상호침투(perichoresis)로 번역되는데 하나님의 위격들의 연합을 의미하고 라틴어로는 상호순환 또는 상호내재로 번역되기도 한다(김영선, 2015: 296).

황승룡(1999: 308-309)도 성령을 비피조자, 거룩한 영, 비시간적, 초시간적, 초공간적 존재, 인간의 체험적 대상으로서의 영, 역사와 인간 속에 변화를 가져오는 역동적 존재로 묘사함으로 그 신성과 인성을 정리한 바 있다.

그리스도론적 성령론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이중출원, 즉 성부와 성자가 성령의 출처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연히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에게서 나오시는 지혜를 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의 계획의 작정들을 시행하시는 능력을 바라보는 데에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Calvin, I. 13. 18).”<sup>2)</sup> 이 표현에서 삼위 하나님이 질서와 경륜의 관점에서 존재하는 순서의 차이이지 우열이나 종속의 관계는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최운배, 2015: 149).

성령은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끈, 영적인 접착제(spiritual bond)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비밀스러운 교통을 가능하게 하고(Calvin, III. 1. 4; 김재성, 2012: 445), 교회 차원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하나로 연합하기 때문이다(Calvin, III. 1. 1; 김재성, 2014: 113). 후크마(Hoekema, 1967: 192)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성화가 성령의 주된 역할임을 강조하였다. 이 연합이 중요한 이유는 이로써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며 그와의 교통을 통하여 거룩한 성화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과의 연합과 교통에는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하는데 첫째 개인적 차원이고, 둘째 공동체적 차원이다. 개인적 차원은 개인적 연합과 교통을 통해 구원을 적용 받아 다양한 은사를 체험하고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공동체적 차원은 공동체를 통해 머리되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몸으로 살아가면서 지체된 성도의 은사를 발휘하는 차원이다(김재성, 2014: 118). 성령은 믿음과 구원을 주시고 내주하시면서 개인적 은사를 공급하시고 성화와 권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영이시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으로도 그 은사(재능)를 지체 사랑의 증거로 사용하게 하셔서 머리되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지체들을 단단하게 연결시키신다(Calvin, III. 1. 3). 이러한 점에서 성령은 지체된 이웃 사랑을 위한 실체적인 능력을 제공하며, 세상과 구별시키는 성결과 성화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성취하시는 주가 되어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이끈다.

사실 기존 연구들이 주목한 성령의 사역들은 대부분 특별 사역의 영역이라 할 수

2) 이 논문에 직접 인용된 칼빈 <기독교강요>의 모든 내용은 크리스찬다이제스트 출판사에서 2009년 중판으로 번역된 책에서 가져온 것이다.

있다. 본 연구는 통전적 성령론을 지향한다. 성령 사역을 오직 성도의 중생과 구원 사역에만 제한시키는 것은 좁은 안목이다(김재성, 2014: 97). 성령 사역은 개인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사회 전반을 갱신하는 일에까지 미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성령과 협동하여 총합적인 자신의 뜻을 향해 이루어 가는데, 이는 우주적 일반섭리(자연질서), 보편적 섭리(특수한 자연현상과 인간의 모든 학문들), 특별섭리(성령을 통한 믿음과 구원의 적용) 모두를 통해서이다(김재성, 2014: 97). 성령은 이 모든 섭리에 주권적이다.

최윤배도 성령의 일반사역을 다음과 같이 광범위하게 설정한 바 있다.

성령은 종교적인 영역 속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세계 우주 속에서 활동하고 이것들을 유지 또는 변화시키는 영이다. 성령은 개인과 교회의 구원만을 위해 활동하지는 않는다. 성령은 개인과 교회와 더불어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이다. 성령은 정의의 영이고 평화의 영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세상 속에 확장시키는 영이다. 성령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영이고, 세상 속에서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시는 영이다. 성령은 세상 속에서 인간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살리는 영이다. 성령은 모든 과학적 문화적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지만 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리시는 영이다. 따라서 성령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적 사상과 무신론적 철학과 학문에 저항하는 영이다. 성령은 종교적 영역에서만 활동하고 계시지 않는다. 성령의 활동은 제도적인 교회 속에 가두면 안 된다. 인간과 사회와 만유 속에서 모든 것의 생명을 유지시키면서 사랑과 공화와 정의로 그것들을 보호하고 억압과 파괴와 죽음의 세력에 저항하는 성령이다. 성령이 바로 이런 영이시기에 모든 인간과 사회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성령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다(최윤배, 2010: 95-96).

따라서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 땅의 모든 영역을 섭리하시며 다스리신다. 인간의 지, 정, 의, 전(全)인격에 관여하시며, 기독교인의 교회에서뿐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모든 진리, 역사, 학문의 영역, 자연 현상 등에 개입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영이다(고후 4:4-6). 이러한 이해는 성령의 역할이 교회를 넘어서서 사회의 변혁을 가져오는 자리에 관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기독교인들이 성령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에서 변혁의 힘을 드러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는 것이다.

칼빈 역시 성령의 사역이 모든 인간의 전(全)영역에 매우 포괄적으로 개입하여 유지



및 회복의 영으로 일하신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인류의 공통적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지극히 탁월한 은사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막을 짓는 데 필요했던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총명과 지식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었다(출 3: 2-11; 출 35: 30-35). 그렇다면 인간 생활에서 가장 탁월한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말하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는 불경건한 자들이 대체 하나님의 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는가? 하나님의 영이 오직 신자들 속에만 거한다는 진술(롬 8:9)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시는 거룩의 영(고전 3:16)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만물을 채우시고 움직이시고 또한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자신이 친히 창조의 법칙을 따라 각 종류에게 부여하신 그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유지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물리학, 변증학, 수학 등의 학문들에서 불경건한 자들의 업적과 활동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셨다면 마땅히 그런 도움을 받아들이어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학문들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선물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나태함에 대하여 공의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Calvin, II. 2. 16).

물론 칼빈에게 불신자들의 지혜와 은사는 초등학교의 능력으로서 진리의 견고한 근원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은 불안정한 것으로 제한하고는 있으나,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각 사람의 소명에 따라 특별한 활동들을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사기에 이런 실례가 많이 나타난다.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자들에게 “여호와와 영이 임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요컨대 범상치 않은 사건들 속에는 언제나 무언가 그 사건을 추진시키는 특별한 역사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의 뒤를 따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삼상 10:26).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을 것을 예언하면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하였다: “네게는 여호와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삼상 10:6).” 그리고 후에 다윗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듯이 이런 사실은 정치의 전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삼상 16:13).”(Calvin, II. 2. 17)

위와 같은 언급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특정인에게 베풀어지는 특별한 재능과 기술은 하나님의 손과 뜻에 의해 다스려지고, 이 재능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주어지거나 빼앗기기도 하는 것이다(요 12:24; 32:8).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재능과 기술들은 일반, 자연 학문의 영역, 예

술적 재능, 관계의 기술, 성품 등 실로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떤 사명을 맡기는 인재에게 임하게 하시는 여호와와 영은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특정한 뜻이나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깊고, 이 특정한 기름부음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에 의하여 그분의 뜻대로 주도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다. 고레스와 같은 불신자들의 지혜에도 성령이 관계하는 바, 하물며 우주적 변혁과 종말론적 회복에 관여하여(Ferguson, 2008: 275-290) 성도들의 삶과 학문 전반, 재능과 기술, 복음 전파, 사회 개혁 등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능력을 선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 IV. 기독교 교육적 인재상의 덕목

기독교교육은 기독교와 교육의 합성어로 두 단어의 관계를 따라 그 의미를 규정할 수 있다. 첫째, 기독교를 교육하는 것, 둘째, 기독교가 교육하는 것, 셋째, 기독교 교육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박상진, 2008: 18-19).

첫째, 기독교를 교육하는 것은 기독교를 교육내용으로 하는 경우로 주로 교회 교육을 의미한다. 기독교 경전인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다. 둘째, 기독교가 교육한다는 것은 기독교 기관이나 단체, 기독교인 등이 하는 모든 유형의 교육을 의미한다.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이다. 셋째, 기독교 교육적인 교육이다. 모든 교육에 기독교적인 관점,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접근하는 교육을 총칭한다.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육 기관, 일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정신으로 행하는 교육 형태를 포괄한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다만 성경뿐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다양한 내용의 기독교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 부설의 기독교 학교, 홈스쿨,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기독교교육의 세 가지 유형들 간에 경계를 정확하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모든 기독교교육 형태들이 성령의 특별한 사역뿐 아니라 일반 사역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영은 교회 안에서 중생과 구원, 믿음, 성화의 과정에 연합의 원리로 함께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지, 정, 의 모든 영역의 역량과

여러 형태의 사회 개혁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교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다차원적 경험들, 즉 교회 생활뿐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달성되어야 할, 포괄적이고 완전하며 동시에 궁극적인 기독교 세계관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고용수 외, 2010: 39).

이 세 형태를 아우르는 기독교교육의 목표는 오늘날 장로교 기독교교육 목표 설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협동교육과정 계획안(Cooperation Curriculum Project, 이후 C. C. P)에서 설정한 교회교육을 위한 교육목표와, 기독교 세계관과 교육의 실재를 연결하여 구체적인 교안을 제시한 오버만과 존슨(Overman and Johnson, 2007: 30)의 성경적 가르침을 위한 교육목표를 결합하여 제시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sup>3)</sup>

먼저 C. C. P. 가 제시한 목표 진술<sup>4)</sup>을 분석하면 크게 8가지 중심 주제를 끌어낼 수 있는데 (1) 하나님의 자기 계시, (2)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적인 사랑, (3) 믿음과 사랑 안에서의 우리의 응답, (4) 자기 인식과 인간의 삶의 정황, (5) 기독교공동체 안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일, (6)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삶, (7) 세상 안에서의 제자도, (8) 기독교적 소망 등이다.

오버만과 존슨(Overman & Johnson, 2007: 30)이 제시한 기독교교육의 목표는 기독교인들이 (1) 성경적 세계관의 차별성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 (2)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 주변 세계의 모든 측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온전히 이해하는 것, (3) 왜 성경적 세계관이 다른 어떤 세계관보다 더 이치에 맞는지 아는 것이다. 이것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적 내용을 추가하면 (4)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목표에 이어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복음의 빛 안에서 인간이 갖는 관계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할 때, C. C. P. 교육과정의 세 가지 차원이 발견된다. (1) 복음의 빛 안에서

3) 기독교 세계관의 개념 관련 연구물은 많지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목표, 목적, 교육과정 등으로 체계적으로 조직, 교육 현장에 접목하여 가르침의 실재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많지 않다. Overman과 Johnson(2007)의 연구물은 위에서 제시한 기독교교육의 세 가지 유형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을 위한 교육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독교 세계관과의 통합 교육을 지향하는 기독교 대안학교연맹에서 번역하여 회원학교들의 교육 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4) 미국의 N.C.C.에 의해 주도된 교회교육을 위한 “협동교육과정 계획안(Cooperation Curriculum Project)”은 복음주의를 표방한 미국과 캐나다의 16개 개신교 교단이 연합으로 연구 개발한 교육과정 기본계획안으로 1964년 출판되었다.

이루어지는 실재의 “신적인” 차원, 즉 하나님 아래 있는 인간의 기독교적 경험, (2) “인간적” 차원, 즉 인간 상호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기독교적 경험, (3) “자연적” 차원, 즉 세상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기독교적 경험 등이다(고용수 외, 2010: 121-122). 이 내용범위를 교육목적과 상호 관련시켜서 다섯 가지 영역으로 확장시키면 “삶과 그것의 환경(life and its settings), 계시(revelation), 아들됨(sonship), 소명(vocation), 교회공동체(the church)”가 된다(고용수 외, 2010: 122-123). 그리고 오버만과 존슨은 교육과정 내용의 5 영역을 “하나님, 창조, 인류, 도덕체계, 목적”으로 정하였다(Overman and Johnson, 2007: 43-44). 이러한 교육과정의 내용들은 아래 표 1에서와 같이 기독교교육 목적 중 영적 목적, 인격적 목적, 사회적 목적의 세 가지 성장의 차원(정정숙, 2000: 123)에 각각 배치될 수 있다.

기독교교육은 한 마디로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가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온전한 성도’를 기르는 교육이다(엡 4:12; 롬 12:2; 고후 10:4-5; 한춘기, 2005: 32). 따라서 성경적 제자도와 각 소명에 따른 특별한 은사를 소유한 탁월한 인재를 키우는 것을 중대한 하나의 목표로 상정해야 함이 옳다. 따라서 위에 제시한 기독교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 이로부터 본고가 논의할 기독교 교육적 인재상의 덕목들을 필자가 추출해 제시해 보면 표 1과 같다. 아래에서 추출한 인재상의 덕목은 기독교 교육적 인재상의 가치영역을 사도 바울과 모세의 삶으로부터 추출하여 ‘기독교인의 정체성,’ ‘리더십,’ ‘베헌정신,’ 세 부분으로 분할해 제시한 한미라, 김소연의 연구(2010)를 보다 확장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먼저 영적 목표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구속적 사랑,’ ‘세계관 분별’ 등이 해당하는데 이를 위한 교육 내용으로서 ‘계시,’ ‘아들됨,’ ‘하나님,’ ‘창조,’ ‘목적’ 등이 연결된다. 이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이해하는 “믿음,” ‘창조’와 ‘삶의 목적’에서 추출된 “성화,” ‘계시’와 ‘세계관 이해’에 핵심인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관 이해와 분별’이 교육 목표로부터 인재 덕목으로 추출되었다.

인격적 목표로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의 우리의 응답,’ ‘자기 인식과 인간의 삶의 정황,’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 이해’ 등이 해당되며 이에 해당하는 교육내용은 ‘아들됨,’ ‘삶과 그것의 환경,’ ‘인류,’ ‘도덕체계’ 등이다. 이들 내용은 인간이 신앙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처해진 삶의 정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할지와 관계되므로 “자기 이해와 성품”의 덕목으로 추출되었다. 물론 이 항목에

도 환경에 대처하는 보다 활동적인 영역이 포함될 수 있지만 사회적 영역과 겹쳐지는 부분은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목표로는 ‘기독교공동체 안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일’,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삶’, ‘세상 안에서의 제자도’, ‘기독교적 소망’, ‘기독교 세계관으로 복음 주체자로서 사는 삶’ 등이 포함되는데 이를 교육내용과 연결해 보면 ‘삶과 그것의 환경’, ‘소명’, ‘교회공동체’, ‘도덕체계’, ‘목적’ 등과 관련된다.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인간관계와 환경을 하나님 나라와 소명으로 이끌어야 할 인재의 덕목은 “리더십과 협력”이며, ‘제자도’, ‘복음 주체자’, ‘소망’ 등의 목표는 “복음 전파”와 “사회 변혁”의 인재 덕목으로 나타난다. 인간 간 관계에서 나타내야 할 정적인 덕목은 인격적 목표의 덕목에서 ‘성품’ 항목 안에서 논의되게 하였으므로 사회적 덕목에서는 제외하였다.

Table 1 Virtues of Competent Persons According to Goals and Curricula of Christian Education

Objectives	Educational Goals	Curricula	Educational Virtues
Spiritu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od’s Self-Revelation,</li> <li>• Redemptive Love in Jesus Christ,</li> <li>• Understanding and Discernment of Worldview.</li> </ul>	Revelation, Sonship, God, Creation, Objective.	Faith and Sanctification, Wisdom and Discernment, Understanding and Discernment of Worldview.
Affec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ur Response in Faith and Love,</li> <li>• Self-Recognition and Situations of Human Life,</li> <li>• Understanding of Self-Identity in Christian Worldview.</li> </ul>	Sonship, Life and its Surroundings, Humanity, Moral System.	Self-Understanding and Character.
Soc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rowth as God’s Kids Based on Christian Community,</li> <li>• Living by God’s Spirit in All the Relations,</li> <li>• Discipleship in World,</li> <li>• Christianomical Hope,</li> <li>• Living as Main Agents of Gospel with Christian Worldview.</li> </ul>	Life and its Surroundings, Calling, Church Community, Moral System, Objectives.	Leadership and Cooperation, Preaching of the Gospel and Social Reformation.

## V. 교육 목표에 따른 인재 덕목과 성령의 사역

이번 장에서는 위에 제시한 기독교 교육의 목표에 따른 인재 덕목을 주로 성경에 소개된 성령 사역과 구체적으로 연결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 1. 믿음과 성화

기독교 교육적 인재상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믿음과 성화라 할 수 있다. 기독교 교육의 일차적 목적은 각 개인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 영생을 얻고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이 덕목은 성령의 특별 사역의 하나로 생겨나며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로서 어떤 사람을 돕거나 변호하기 위해 부름 받은 사람을 뜻한다. 법정적인 의미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며 변호인이다(Ferguson, 2008: 40). 사도들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인될 자격이 있었듯이(요 15:27), 성령은 처음부터 더욱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동반자였으며,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은 성령의 임재와 함께였기 때문이다(마 3:16-17; 마 3:34; 눅 4:1; 눅 4:18). 그리스도는 성령을 취하셨고(Bavinck, 2015: 387) 성령은 예수라는 존재와 더불어 “새겨졌다”(Dunn, 1975: 322). 성령과 예수는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완수하셨다. 근본적으로 성령은 믿음의 영이시다(고후 4:13). 따라서 성령을 소유한 자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며 그를 소유하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것이다(롬 8:9-10).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적 인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였을 뿐 아니라 성령을 소유하게 되면서 믿음의 덕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성도의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로 인 치심의 보증이 성령이다(고후 1:21-22). 두 위격은 완벽한 친밀함을 전제로 한 경륜적 일체성을 가지며(고후 3:18; Ferguson, 2008: 62-63), 성령은 성도들에게 임할 아들됨(양자의 영)과 확신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다(롬 8:15-16). 그 영은 성도의 믿음을 강화하고(고전 12:9; 갈 5:5),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롬 8:11). 이런 점에서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일치, 상호협력, 보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독교적 인재가 다른 덕목들을 갖추기 이전에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성령은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뿐 아니라 교통케 하며(고후 13:13) 성도를 성령의 전으로 만드셔서(고전 6:19) 옛 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은 소생시키는 일, 두 일을 양면적으로 성사시킨다(롬 6:3-5; Calvin, III, 8.1). “칼빈이 가졌던 구원의 서정이 있다면 믿음으로 역사하는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작용하는 믿음으로 주어지며, 칭의가 함께 포함된다(김재성, 2014: 133).” 이 연합은 일회적 믿음과 칭의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여정에 관여하여 기독교적 인재의 성화 과정을 실천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신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이해되고 있는 칭의를 성령과의 연합이나 성령의 사역과 연결하고 있으며(갈 6:11; 롬 15:16; 살후 2:13), “믿음 가운데서의 인내 혹은 견인”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고 표현한다(엡 4:30; 엡 1:13-14; Hoekema, 2001: 54).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 교육적 인재가 성화 과정에서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인 인내, 신실함, 충성, 절제 등의 속성 역시 성령의 주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열매가 있다(갈 5:16-26; 갈 6:8). 벌코프(L. Berkhof)는 이 같은 성령의 성화시키는 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성령과의-필자 주) 연합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따라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리스도가 그분의 백성 안에서 행사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분에게 일어났던 일의 복제이자 재생산이다. 객관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의미에서도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새로움으로 일으킴을 입는다. 그들은 다소간 그들의 주님의 경험을 공유한다(Berkhof, 2005: 451).

회심과 중생, 성화로 가는 과정은 성령의 사역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기독교교육이 추구하는 가장 첫 번째 인재의 덕목은 무엇보다 영생을 소유하고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자이며 이에 성령의 역할은 필수불가결하다. 이 덕목은 앞으로 제시할 지혜, 자기 이해, 세계관 분별, 복음 전파 등의 모든 교육 사역들의 기초가 되며 이 사역들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덕목으로서 인재 양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이다.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와 진리에 입각한 성경 연구를 통해 성취될 수 있다.

## 2. 지혜와 총명

성령은 연령을 초월하는 지혜의 영이시다(요 32:8-9; 고전 12:8). 제사장 옷을 짓는 일에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을 확보하게 하시고(출 28:3),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고 정교한 일(성막 관련)을 고안, 제작, 교육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므로(출 35장), 성령은 모든 종류의 지혜의 근원이시며, 모든 지식과 기술에 내적 교사가 되신다. 사 11:2에 여호와의 신에 대한 6가지의 명칭을 살펴볼 때, 그리스도가 지상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셔야만 했는데(사 61:1; 마 3:16), 그 결과로 그리스도는 지혜(기술, 경험, 전문적 지식), 총명(지각, 통찰, 분별력), 모략(기획, 전략), 재능(수행, 추진력), 지식과 하나님 경외 등의 자질을 가지게 되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잠 1:7)”이므로 이 여섯 가지 명칭은 모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어 서로가 연결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따라서 “성경이 모든 시대에 통하는 진리에 대한 궁극적 표준(Gaebelein, 1991; 64)”이며 세상의 “모든 진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다(Gaebelein, 1968/1991; 55).” 이러한 점에서 모든 진리를 성경의 보편적 원리들로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는 인재상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이 지혜 역시 성령의 특별 및 일반 사역 모두에 해당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요 14:17; 15:26; 16:13), 다만 진리를 깨달을 뿐 아니라 이러한 진리와 깨달음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이다(고전 2:12-14). 본고에서는 다만 성경의 진리를 잘 깨달을 뿐 아니라 이를 삶 속에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실천적 인재를 기독교 교육적 참된 인재로 전제하였다. 따라서 모든 진리의 궁극적 표준이신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알아가고 실천하는 인재는 반드시 지혜의 영을 소유해야 하며 그 영의 지도를 받아 삶 가운데 진리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보혜사”라는 명칭이 상기시키는 바, 성령은 위로자, 교사, 보호자로서 성령의 계시와 진리의 교육 사역에 헌신되어 있다(요일 2:27). 따라서 성도는 그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안에 거해야 한다(갈 5:16-17).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있는데, 이 영을 통해서만 영적인 일의 분별력(고전 2:13)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에 관한 충만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이 지혜는 세상을 살



아가는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도 힘을 발휘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요셉의 꿈 해석은 세상 정치 속에서도 지혜와 분별력(창 41:38)을, 사사들과 사울의 승리는 전쟁에서의 힘과 모략을(삿 6:34; 11:29; 13:25; 삼상 11:6-11), 다윗의 탁월한 시편 저작과 성전 건축 준비는 예술적 영감을(삼하 23:2; 대상 28:12) 각각 보여준다. 신약에서 찾으면 영의 구변을 갖춘 스테반(행 6:10)의 설교, 어부 출신 베드로의 언변의 역사(행 10:44) 등을 그 증거로 들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그 분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나아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하여, 기독교 교육적 인재들은 지혜의 영을 소유하고 자신의 특정 영역에서 이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

“이교도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분의 뜻을 이루었다고 말한다면(사 45:1),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시대에는 좀 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야 하지 않는가? (Ferguson, 2008: 279)”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종말의 시대에, 기독교 교육적 인재는 진리의 영을 좇아 사고하고 세상 속에서 그 지혜를 발휘하는 자이다. 불신자에게 있는 재능과 지혜가 성령의 일반 사역의 하나라는 견해에 대한 논박이 있는 점은 차치하고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의 진리를 이해하고 지혜와 모략과 학문적 영감, 예술적 재능 등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이해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은 이러한 모든 종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진 인재들을 예배와 교육 사역을 통해 키워내야 한다.

### 3. 세계관 이해와 분별

기독교 세계관 이해와 타 세계관 분별은 모든 유형의 기독교교육에 가장 기초적인 요소다(Overman and Johnson, 2007). 이러한 이해를 갖춘 인재는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세상의 영(spirits)을 분별(test, discernment)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세계관을 분별한다는 것은 교육의 현장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삶의 모든 부분에 통합시키고 주변 문화의 다양한 양상을 성경적 세계관에 연결시키는 일을 의미한다(Overman and Johnson, 2007: 22). 구체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명령(창 1:28), 대

계명(요 15:12), 지상명령(행 1:8)을 포함하며, 궁극적으로는 ‘제자도’를 의미한다(Hull, 2009: 165). 다시 말하여, 이 분별은 단순히 생각(ideas)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actions)으로의 진보를 포함하며, 교육을 실천하기 전에 이미 믿고 있어야 하는 진리에 대한 차별적 지향이다(Van Brummelen, 2006: 49).

성령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다시 말하여, 표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더라도 이 세계는 하나님 계획의 성취 역사임을 증거한다(Sire, 2009: 58). 대표적으로 다윗은 성령의 영감으로써(삼하 23:2)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시 24:1; 89:11) 이 세계를 운행하시고(시 83:18; 93:1) 이 세계 위에 높아지시며(시 46:10; 57:5) 이 세계를 심판하실 것을(시 9:8; 94:2) 선포했다. 다윗은 그가 누린 형통이 성령의 임재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사울의 전례를 예방하였다(시 51:11).

다니엘 역시 이 세상 학문과 영적 지혜 모두에 능통한 자였는데(단 1:17) 어린 시절부터 ‘뜻을 정하고’ 바벨론의 세계관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단 1:8). 그는 이방 땅에 살면서 이방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범세계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왕은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단 5:14)”고 그의 지혜를 인정하였다.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관이 이방의 세계관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남다른 명철과 분별력을 통해 드러내보였다. 단순히 생각만이 기독교적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강대국의 혜택과 위협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세 번 예배하는 실천적 인재였다. 다니엘의 이러한 제자도가 이스라엘과 주변국의 역사까지 움직였다. 기독교 교육적 인재는 이처럼 영적 지혜와 세상 지혜 모두에 능통하면서도(단 1:17)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을 지지하고 견지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 역사를 써나가는 제자형 인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성령의 임재는 세상과 차별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비결이다(Harvey, 2015: 259). 고린도전서 2장은 세상의 어리석은 지혜와 성숙한 지혜를 말한다. 성령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완전히 구별되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전 2:10).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고전 2:15) 새로운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롬 12:1-2). 세계관 분별과 실천적 대응은 교육에 있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요, 핵심이다(Overman & Johnson, 2007: 20-21).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대로 일하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도우신다. 우리의 이해력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만큼 성장한다. 우리의 이해력이 자라는 만큼 세상을 보는 우리의 틀(세계관)도 변한다. 우리의 세계관이 변하는 만큼 사물을 보는 관점도 달라진다(Harvey, 2015: 259).

기독교 교육적 인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갖추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지혜를 배우고 분별하는 인간이다. 성령은 이 분별의 영역에 깊이 관여한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세상을 거둬낸 시각으로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은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를 따라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제자를 양성하고, 동시에 성령의 지혜로 세상의 세계관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재로 자라나도록 해야 한다.

#### 4. 자기 이해와 성품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양자됨의 정체성을 가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영생을 이해하는 것인데,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요 17:3). 바울도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재발견하였다(빌 3:8-9). 그러나 이를 믿는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들을 선택하심에 따라 성령에 의해 그들 안에 생기는 것으로서 전적인 은혜이다(롬 11:6; 고전 15:10; Machen, 1996: 81).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2:12).”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양자됨의 정체를 이해할 수 없다. 메이첸(J. G. Machen)은 고린도전서 2장 14, 15절을 언급하면서 신령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혼적인(육에 속한-필자 주) 사람이란 인간의 영혼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란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다... 성경적 의미에서 영적인 사람이란 거둬낸 사람이며 자기 본성의 일부가 아니라 본성의 전부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변화된 사람이다(Machen, 1996: 164-165).

거듭남의 정체성은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본성적 변화를 의미하며 옛 사람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온다(롬 6:6).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실존적으로 실현되었으며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분과의 연합의 결과다(갈 2:20; Ferguson, 1999: 169). 그러한 자는 죄로부터 자유하며(롬 6:2), 성품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다(롬 15:5).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부어지고 이를 경험하게 되면서(롬 5:5)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되는 것이다(벧후 1:4).

이것(사랑에 사로잡힘-필자 주) 역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성령의 일반 사역의 한 측면이다. 이러한 구속사적 구조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정서가 그리스도인의 의식을 가득 채워서 모든 신자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도록 인도한다. 이에 비추어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벧전 1:8; 갈 5:22).(Ferguson, 1999: 206).

따라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의 우리의 응답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는 신적인 성품과 행동적 특성을 의미하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갈 5:22). 이처럼 성령 사역은 율법의 목표를 이룬다(롬 8:4; Ferguson, 1999: 192). 성령에 의해 율법은 내적인 법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렘 31:33-34).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거룩한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된다(요 15:5).

기독교교육에서 인제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반응하고 자기 자신을 기독교 세계관 위에 굳건히 세워 거듭난 자의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행하는 자이다.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walking)(갈 5:25):의 ‘행함’을 주석하면서 롱제네커(Longenecker, 1990: 264)는 이를 성령과 보조를 맞추라(행군)는 의미로 해석하기를 권면한다. 즉,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걷는 자에게 성령의 구령과 음성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적인 안목에서 참된 자기 이해와 성품을 갖춘 인제는 성령에 의해 완성되어간다.

자기 정체성 이해는 기독교를 차치하고서라도 교육학계의 화두이기도 하다. 발달학적으로 정체성 형성의 실패는 일생에 걸친 정체성 위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시기적절한 정체성 확립은 자아 발달에 핵심적인 과제이다(사미자, 2012: 34; 106; 143). 에릭슨도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미래의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자신을 찾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신앙이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청년 루터의 삶을 조명하며 이야기한 바 있다(Erickson, 1985: 71).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누구이며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는 정체성 확립이 없이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김도일·장신근, 2009: 34). 참된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일에 성령이 깊이 관여한다는 것과, 이러한 지속적인 자기 이해에 바탕으로 두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모든 교육 장면에 성령의 임재를 우선적으로 간구해야 할 것이다.

## 5. 리더십과 협력

리더십은 교회 공동체와 일반 사회 공동체 모두에서 발휘되어야 할 기독교 교육적 인재 덕목이다. 오늘날 리더십은 다양한 정의를 가지지만 이들 정의에서 공통되게 도출된 속성은 목표지향성, 사람들 간의 영향력, 상호교류, 힘, 자발성, 영향력행사 과정 등이다(백기복, 2002: 220). 리더십은 지적 지능보다는 사회적 지능과 보다 관련되어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성공의 척도로까지 이해된다.

그러나 기독교교육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개인과 집단의 이익이나 성공보다는 공동선과 정의를 향한 헌신과 이를 수행하는 능력과 보다 관련된다. 그리스도가 가장 적합한 모범이시다. 교회 공동체 안이라면 다양한 은사를 어떻게 협력적으로 활용하여 선을 세우며, 성도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회 행정적 의사결정에 있어 어떤 절차를 거쳐 결론화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고, 일반 사회 공동체라면 사회 목표를 향한 추진력, 방법적 전략, 네트워크 기술, 요구 수렴과 결정 과정의 합리성 등의 내용을 수반할 것이다.

성령은 리더를 세운다.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을 세우는 기름부음이나 안수 의식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여 리더로 세우는 유일한 의식이었다(삼상 10:1; 시 132:10; 민 3:3; 27:18). 장로 리더십을 세울 때에도 유사한 장면이 나온다(민 11:17). 요셉에게 있던 ‘거룩한 영’(창 41:38)과 다니엘의 ‘민첩한 마음’(단 5:12; 6:3)은 모두 지혜와 총명의 다른 이름이지만 이방 나라의 환경 속에서도 리더십으로 세워지기에 충분한 자질을 의미하였다. 신약에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사도로서의 강력한 리더십을 갖추다(행 2장). 따라서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야 할 책임이 있는 기독교

교교육의 관점에서, 리더십의 개념과 형태는 신구약의 시대와 현대가 다소 이질적인 모습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리더십 자체가 성령에 의해 주어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리더십은 많은 부수적인 자질을 필요로 한다. 모세는 영으로 충만하여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송사를 판단하는 능력’을 가졌고 ‘행정적인 일’을 하도록 ‘다른 리더십을 세우는 책임’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민 11:17; 27:22-23). 초대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가 세워졌는데(행 6:3), 이중 스테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행 6:5)’이라는 사실은 그를 지도자 되게 한 것이 배경이 아니라 지도자적 ‘품성’이었음을 알게 해준다(Harvey, 2015: 219). 바나바 역시 예루살렘 교회에 참된 구제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행 11:20) 사울과 같은 ‘인재를 채용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셨다(행 11:25-26). 기독교교육은 교회 내 행정과 말씀, 양육 등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를 키워내는 것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 다양한 학문의 영역과 일의 영역, 즉, 정치, 외교, 교육 등의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지도자적 임무를 지혜롭게 수행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인재를 키워내는 일을 목표로 한다. 어떠한 유형의 리더십이든 성령의 도우심이 그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협력과 하나됨은 리더십의 또 다른 표지이며 성령 충만의 증거이다.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 영적으로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방식 중 하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 ‘협력적으로 성령의 생각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울 때 그리하였다(행 13:2). 이방인 선교를 두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논의와 협의’를 통해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도 성령이 개입하였다(행 15:28). 개인적으로 받은 성령의 여러 은사를 논의할 때도 그리스도 몸의 하나됨과 몸 전체의 유익이 강조되었다(고전 12-13장). “우리가 소유한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우리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조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Calvin, III. 7. 5).” 성령의 열매가 사랑, 화평, 절제, 친절과 온유 등 대인적 자질을 주로 언급하고 있는 것도 그것을 보여준다(갈 5:22).

기독교 교육적 관점에서 인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바른 비전을 제시하고 성경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성도들 간의 협력적 관계를 나타내는 자이다. 성경에 제시된 성령의 사역은 이러한 참된 지도자의 자질과 밀접히 관련된다. 포스트모던 사회로 올수록 사회 기조가 자기중심주의로 변해가고 있으며 영성이나 리더

십도 지나치게 개인의 안녕에만 치중하고 있다(김도일·장신근, 2009: 35). 세상과는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는 무관한 파편화된 존재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협력과 하나됨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서로가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성령을 통해 도전하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교육의 또 하나 과제인 것이다.

## 6. 복음 전파와 사회 변혁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복음 전파와 사회 변혁의 과제를 가지고 살아간다. 예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창조명령(창 1:28), 대계명(요 15:12), 지상명령(행 1:8)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교육적 인재의 제자도는 진리에 대한 앎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의 진보를 의미한다(Van Brummelen, 2006: 49).

성령은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진리를 깨닫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로 전해야 할지 가르치신다(고전 2:13; Harvey, 2015: 237). 따라서 ‘성경 이해’와 ‘복음 증거’는 모두 성령 사역이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증거와 이해의 영으로서 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 간의 복음 전파를 실제로 가능케 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이처럼 성령은 모든 것, 즉 바울의 전파, 회중의 회심, 그리고 하나님의 참 지혜로서 특히 메시지 이해에 핵심이시다(Fee, 1987: 105).” 따라서 진리를 전파하는 복음 주체자로 교육하는 기독교교육은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실제 전파의 현장에 우선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일을 잊지 않아야 한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제자들의 말씀 전파 ‘능력’을 암시하였는데(눅 24:49; 행 1:8), 성령의 뿌림(Sparkling) 사건과 비교할 때(요 20:22),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성령의 흡수(Saturation) 사건이라는 견해(Calvin, 1961: 205)는 성령의 충만함, 즉 부어주신 증인으로서의 능력의 중요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말세에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으심은(골 2:28-9)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특정 선지자만 선택받았던 구약적 방식을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시킨다. 대표적으로 집사 스테반의 긴 증언은 유대사에 대한 지식과 언변, ‘담대함’을 보여준다(행 6-7장).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울(행 9:17)이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탁월한 증언을 하기 시작한 것(행 9:20), 성령의

능력을 입은 예수님의 말씀 선포에 권위가 있었다는 것(눅 4:14-22) 모두가 이를 증거한다.

성령이 역사하는 설교의 증표는 담대함(행 4:13; 29; 31; 빌 1:20)이다. 구약 성경에서 그러하였듯이 성령이 하나님의 종을 충만케 할 때 그분은 그의 인격으로 옷을 입으며 성령의 권위가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가운데 나타난다. 이런 담대함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곧 자유로운 선포이다(Ferguson, 1999: 273).

복음 전파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킨다. 복음 전파를 수행하는 제자를 교육해내고자 하는 기독교 교육도 결국은 사회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성령에 사로잡혀 복음을 삶의 여러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주체자로서의 삶은 사회를 변혁시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세계에 알려진 사회 변화 수단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 교회가 행사해야 하는 유일한 주도력은 말씀과 성령의 주도력인데 그것은 바울 사도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고후 10:5)시키기 위해 사용한 그 무기다(Vanhoozer, 2007: 94).” 이방 왕 고레스에게도 기름을 부어 역사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셨다면(사 45:1) 내적 교사(inner teacher)인 성령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감동시켜서 세상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전권적인 뜻을 펼치실 수 있다. 모세, 여호수아, 느헤미야, 학개, 에스라 모두가 이러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

기독교 교육적 인제는 복음 전파와 사회 개혁을 위해 쓰임 받는 자이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성령의 사역임을 인지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지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 더 의지하는 일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요 4:24), 전심으로 구할 때(눅 11:13; 행 8:15), 복음을 전파할 때(눅 4:18-19; 행 13:52), 말씀을 읽을 때(요일 2:27), 그를 따라 행할 때(갈 5:25), 그를 소멸하지 않고 존중할 때(살전 5:19), 성령은 능력 있게 역사하신다. 어떤 유형과 내용의 교육을 시행하든 성령이 임재하실 수 있는 합당한 환경과 순종을 드려 그분의 능력이 인간적 한계에 구속되지 않도록 한다면 기대 이상의 교육적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VI. 결론

본고는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기독교 교육적 인재 덕목과 연결하여 논의하였다. 기독교 교육적 인재 덕목은 오늘날 교회 교육과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형태에서 비롯된 교육 목표와 내용에 근거를 두고, ‘믿음과 성화, 지혜와 총명, 세계관 이해와 분별, 자기 이해와 성품, 리더십과 협력, 복음 전파와 사회 변혁’라는 6가지 덕목으로 추출하여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성령의 사역은 구원의 서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제한적 사역이 아니라 전인격적이며 범우주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과 폭넓게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동안 기독교교육에서 키워내고자 했던 인재의 주요 자질들은 보다 근원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육 현장에 성령의 사역과 임재를 구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가르치는 일은 교육의 탁월한 효과와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는 근원적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성령 사역에 대한 사변적이고 교육학적 접근이 많았던 선행연구들과 비교할 때, 본 연구는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해 성령과 함께 하는 교육이 키워내야 할 인재 덕목을 기독교교육의 목표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추출하고 이를 성령의 역할에 대해 시사하는 성경의 인물이나 풍부한 말씀 고찰을 통해 실증적이고 원리적으로 제안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즉, 성령 중심의 교육과 기독교교육 목표 간의 논리적 고리를 제시했으며, 교육학적 접근, 신학적 접근 모두를 포괄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기독교교육을 교회교육과 기독교 학교교육으로 이분화 하여 논의하면서도 이 두 가지를 한 가지 비전으로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 하는 한계에 아쉬움을 던졌던 기존 연구들에 응답하여 본 연구는 그 통합적 논의에 대한 하나의 예를 남겼다. 다만 본 논문의 성격상 이러한 인재 덕목 교육을 구체화할 성령 중심적 기독교교육의 실천적 방법론은 포괄하지 못 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교육에 있어 성령의 사역에 대한 무관심과 오류적 사고 모두 위험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다만, 성령 사역에 대한 체계가 일목요연하게 조직화되기 어렵다는 점은 다른 신론과 마찬가지로 그 주권적 사역이 그만큼 방대하고 인간과 공유되지 않는 신적인 속성에 기인한다는 점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접근일 것이다. 삼위일체론에 근거한 성령 사역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연구는 이러한 무관심과 오류적 사고를 예방

하는 데 부분적으로나마 기여할 수 있다. 이를 명시화 하면서,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가 행사하는 대부분의 교육 활동에, 의식하든 못 하든 교회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역하신 풍성한 결과를 취하면서도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영적 태만이 만연하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은 영적 성숙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사역이요, 서로의 친밀한 관계 속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대하여 온전하고 균형 잡힌 반응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고용수 · 김도일 · 박상진 · 사미자 · 양금희 · 임창복 · 장신근 (2010). *기독교교육개론*. 서울: 장신대 기독교교육연구원.
- [Go, Y. S., Kim, D. I., Park, S. J., Sa, M. J., Yang, G. H., Lim, C. B., & Jang, S. K. (2010).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Seoul: Presbyterian University Christian Education Institute.]
- 김대순 (2003). *교육에 있어 성령의 사역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 [Kim, T. S. (2003). *A Study on Employment of the Holy Spirit in Education*. Master Dissertation. Chongshin Univ.]
- 김도일 · 장신근 (2009). *기독교 영성교육*. 서울: 동연.
- [Kim, D. I. & Jang, S. G. (2009). *Education for Christian Spirituality*. Seoul: DongYeon.]
- 김영선 (2015). 레오나르도 보프의 관계적 삼위일체론. 웨슬리신학연구소 (편저). *관계 속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pp. 281-316). 서울: 아바서원.
- [Kim, Y. S. (2015). The Relational Trinitarianism of Reonardo Boff. In Wesley theology institute (Ed.), *Triune God in Relation* (pp. 281-316). Seoul: Abba Vow.]
- 김재성 (2012). *개혁주의 성령론*. 서울: CLC.
- [Kim, J. S. (2012). *Reformism Pneumatology*. Seoul: CLC.]
- 김재성 (2014). *존 칼빈: 성령의 신학자*. 서울: CLC.
- [Kim, J. S. (2014). *John Calvin: The Divine with the Holy Spirit*. Seoul: CLC.]
- 박상진 (2008). *교회교육 현장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Park, S. J. (2008). *Christian Education Field Theory*. Seoul: The Presbyterian University Press.]
- 백기복 (2002). *조직행동연구*. 서울: 법문사.
- [Baek, G. B. (2002). *Organizational Behavior Research*. Seoul: Bobmunsa.]
- 사미자 (2012). *인간발달과 기독교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Sa, M. J. (2012). *Human Development and Christian Education*. Seoul: Korean Presbyterian Press.]
- 서철원 (2003). *성령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Seo, C. W. (2003). *Pneumatology, How Will We Educate?*. Seoul: GAPCK.]
- 소태영 (2015). 성령이 베푸는 신비의 향연에 참여하는 교육.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8, 301-328.

- [So, T. Y. (2015). Christian Education as Participating in the Banquet that the Holy Spirit Holds. *Korea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98, 301-328.]
- 정원래 (2015). 토마스 아퀴나스와 관계적 삼위일체론. 웨슬리신학연구소 (편저). **관계 속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pp. 99-129). 서울: 아바서원.
- [Jung, W. L. (2015). Thomas Aquinas and Relational Trinitarianism. In Wesley theology institute (Ed.), *Triune God in Relation* (pp. 99-129). Seoul: Abba Vow.]
- 정정숙 (2000). **기독교교육학**. 서울: 베다니.
- [Jung, J. S. (2000).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Seoul: Bethany]
- 지성일 (1991). **교회의 교육목회와 성령과의 관계 소고**.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
- [Jee. S. I. (1991). *A Research on Relationship of Educational Ministry of Church and the Holy Spirit*. Master Dissertation. Presbyterian Theological University.]
- 최윤배 (2010). **성령론 입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Choi, Y. B. (2010). *Introduction to Pneumatology*. Seoul: The Presbyterian University Press.]
- 한미라·김소연 (2010).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미래인재 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 **기독교교육정보**, 27, 29-62.
- [Han, M. R. & Kim, S. Y. (2010). A Critical Reflection on the Image of the Future Core Leader in the Christian Education Perspective.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27, 29-62]
- 한춘기 (2005). **기독교 교육신학**.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 [Han, C. G. (2005). *Theology of Christian Education*. Seoul: KSCRE.]
- 황승룡 (1999). **성령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Hwang, S. R. (1999). *Pneumatology*. Seoul: PCKBOOK.]
- Bavinck, H. (1992) *The Doctrine of God*. (3rd. edition). Trans. Lee, S. G. Seoul: CLC. (Original work published 1978).
- Bavinck, H. (2015). *Our Reasonable Faith*. Trans. Kim, Y. K. Seoul: CLC. (Original work published 1956)
- Berkoff, L. (2005). *Systematic Theology*. Trans. Kwon, S. K. & Lee, S. W. Seoul: Christian Digest. (Original work published 1941)
- Boff, L. (2011). *Holy Trinity: Perfect Community*. Trans. Kim Y. S. & Kim, O. J. Seoul: Christina Herald. (Original work published 2000)

- Bondy, J. (2011). Role of the Holy Spirit in Christian School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formation Technology* 19. 55-71.
- Calvin, J. (2009).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2nd. edition). Trans. Won, K. Y. Seoul: Christian Digest. (Original work published 1559)
- Calvin, J. (1991).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Vol 2. Trans. D. A. Carson. Grand Rapids: Eerdmans. (Original work published 1961)
- C. C. P. (1965). *The Work of the Cooperative Curriculum Project, The Church's Educational Ministry: A Curriculum Plan*. St. Louis: The Bethany Press.
- Dunn, J. D. G. (1975). *Jesus and the Spirit*. London: SCM Press.
- Erickson, E. (1985).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W. W. Norton.
- Farley, E. (1965). Does Christian Education Need the Holy Spirit? *Religious Education* 60. 427-436.
- Fee, G. D. (1987). *The First Epistle of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 Ferguson, S. B. (1999). *The Holy Spirit*. (8th edition). Trans. Kim, J. S. Seoul: IVP. (Original work published 1996)
- Gaebelein, F. E. (1991). *The Pattern of God's Truth: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Trans. Lee, C. K. Seoul: CLC. (Original work published 1968)
- Goleman, D., Boyatzis, R., & McKee, A. (2002). *The Primal Leadership: Realizing the Power of Emotional Intelligence*. NY: Brockman Inc.
- Harvey, J. D. (2015). *Anointed with the Spirit and Power*. Trans. Whang, E. M. Seoul: CLC. (Original work published 2008)
- Hoekema, A. A. (1967). *What about Tongue-speaking?* Grand Rapids: Eerdmans.
- Hoekema, A. A. (2001). *Saved by Grace*. Trans. Ryou, H. J. Seoul: CLC. (Original work published 1989)
- Hull, J. E. (2009). "Education for Discipleship: A Curriculum Orientation for Christian Educators." *JE&CB* 13(2). 155-168.
- Jordan, M. D. (2016). Democratic Moral Education and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Journal of Religious Ethics* 44(2). 246-259.
- Kaufmann, S. (2005). The Role of the Holy Spirit in the Educational Thought and Practice of Charlotte Mason. *Journal of Education & Christian Belief* 9(2). 105-119.
- Longenecker, R. N. (1990). *Galatians*. Dallas: Word.

- Machen, J. G. (1996). *The Christian View of Man*. (8th edition). Trans. Chae. K. H. Seoul: Nachimpan Ministries. (Original work published 1984)
- Miller, R. C. (1962). The Holy Spirit and Christian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57(3), 178-229.
- Omenyo, C. N. The Spirit-Filled Goes to School: Theological Education in African Pentecostalism. *Ogbomosho Journal of Theology*, 8(2), 41-57.
- Overman, C. & John, D. (2003). *Making the Connection*. Trans. Kim, S. H. Seoul: Jeyoung Communications Publishing House. (Original work published 2003)
- Rogers, F. (1994). Dancing with Grace: Toward a Spirit-Centered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89(3), 377-395.
- Sire, J. W. (2009). *The Universe Next Door*. Trans. Kim, H. S. Seoul: IVP. (Original work published 2004)
- Smart, J. D. The Holy Spirit - Superfluous to Education or Essential? *Religious Education*, 61(3), 223-229.
- Van Brummelen, H. (2006). *Steppingstones to Curriculum* Trans. Lee, B. H. Seoul: IVP. (Original work published 2002)
- Vanhoozer, K. J., Anderson, C. A., & Sleasman, M. J. (2007). *Everyday Theology*. In K. J. Vanhoozer (Ed.). Trans. Yun, S. I. Seoul: Revival and Reformation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2003)

논문초록

## 기독교 교육적 인재 덕목과 성령의 사역

이 란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 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교육의 목표로부터 기독교 교육적 인재 덕목을 추출하고 이를 성령의 사역과 연결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먼저 복음주의 개신교 연합 협동교육과정 계획안(Cooperation Curriculum Project)에 따른 교육목표와 Overman & Johnson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목표로부터 기독교 교육적 인재상을 추출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추출된 여섯 가지 덕목은 ‘믿음과 성화, 지혜와 총명, 세계관 이해와 분별, 자기 이해와 성품, 리더십과 협력, 복음 전파와 사회 변혁’이었다. 그리고 이 여섯 가지 인재 덕목을 성령 사역에 대한 성경적 예를 통해 논의함으로써 성령 사역이 가지는 기독교 교육적 인재 양성에 미치는 기독교 교육적 함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고는 기독교교육에서 성령은 보다 근원적이며 궁극적인 내적 교사일 뿐 아니라, 그 사역이 개인과 세상 모두에 미치는 삼위 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회복 역사와 정확히 일치함을 적시함으로써 기독교 교육적 인재 형성에 있어 성령 사역의 중요성 인식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 기독교교육, 인재 덕목, 성령의 사역, 삼위일체 하나님





##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본 〈서서평〉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 A Semiotic Analysis on 〈Shepping〉 From the Perspective of Neighborly Love and Self Love

이 란 (Ran Lee)\*

지상선 (Sang Sun Ji)/(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a German-American Christian nurse missionary, the life of 'Shepping' from the perspective of neighborly love and self love. For this, the most recently published biography on 'Shepping' 〈A little Jesus in Chosun: Shepping: Slowly and Calmly〉 was determined as the text for that analysis. The used semiotic methods were the paradigmatic analysis, the semiotic square model, and the actantial model. The characteristics of Shepping's love by the analysis were these. First, the essential and the origin of Shepping's love were her love toward God. Second, Shepping's neighborly love took priority over self love. Third, Shepping's neighborly love took on a nature of enemy love. Fourth, Shepping's neighborly love was characterized as a mutual one. Fifth, Shepping possessed a mature self-love, not selfish one. The selfobjects who took care of and love her in order for her to have a healthy self structure were considered as not only God but also Korean neighbors. In the center of Shepping's mature love, there were the contributions of those selfobjects above.

**Key Words :** Elisabeth J. Shepping, neighborly love, self love, semiotic analysis

---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 박사(Sungkyunkwan University),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iran370@hanmail.net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 박사 수료(Sungkyunkwan University),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moathink@hanmail.net

2017년 10월 16일 접수, 11월 26일 최종수정, 12월 11일 게재확정

## I. 서론

서서평은 일제 말기 한국에 간호 선교사로 파견되어 53세로 일생을 마감할 때까지 한국인들과 동고동락하며 복음전도와 치료, 교육, 구제 사역 등에 일신을 헌신했던 독 일계 미국 선교사다. 서평은 자문화중심주의에 빠진 타 선교사들과는 달랐는데 한국문 화, 한국말, 특히 불우한 한국 여성들과 자신을 철저히 ‘동일화’하였다(임희모, 2015a: 174). 최근 그의 삶이 영화화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지고 회자되었는데 무엇 보다 서평의 한국인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과 구제, 청빈한 삶과 철저한 자기희생이 화 제가 되었으며 그의 이러한 면모는 선교를 꿈꾸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현대까지 귀감 이 되고 있다.

기독교에서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이 상호 협조적인가 상호 배타적인가 하는 논쟁 은 지속되고 있지만, 서서평 선교사가 보여준 헌신은 자기 유익 추구라고는 조금도 찾 아볼 수 없이 이웃 사랑에 몰두하는 ‘자기 부인’에 가까웠다(이종록, 2015: 84). 자기희 생을 통한 복음 전파와 폭넓은 사회사업을 통한 이웃 사랑 실천은 사실 서평의 하나 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지대했는지를 역설해 주는 것이다(요일 4:7-12). 그러나 서평 이 다른 선교사들과는 달리 자기를 위해 어떤 유익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고, 서평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신을 하 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분의 크신 사랑에 반응하여 자기를 사랑할 진정한 능력을 가 진 자만이 참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평이 이웃 사랑을 참되게 실 천하며 살았다는 사실은 그가 자기 자신을 주님 안에서 용납하고 사랑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서서평의 선교사로서의 삶을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이라는 기독교 윤리에 기초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서평에 관한 연구에 선교와 교 육, 사회구제에 초점을 맞춘 선교 실천학적인 연구(김은주, 2015; 임희모 2013; 2015a; 2015b; 차성환, 2014), 서평의 특수한 어린 시절 경험을 그의 선교적 삶의 특색과 연결 하는 심리학적 연구(이혜숙, 2016; 차성환, 2015) 등은 있었으나, 서평의 희생적 삶을 성 경적 원리와 이론에 의해 “사랑”이라는 통일성과 일관성 있는 주제로 통합하여 조명한 연구는 부재했다. 본 연구는 특히, 기독교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논쟁인 이웃 사랑 과 자기 사랑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서평 선교사의 선교적 한국 사랑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제안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논문은 분석 대상으로는 가장 최근 출판된 전기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2017, 이후 <서서평>)를 선택하였다. 최근 상영된 영화 이후 출판되어 영화보다 더 자세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으며 기존의 폭넓은 자료를 참고해 다각도에서 바라본 서평에 대한 진솔한 평가가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sup>1)</sup> 기존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서평에 대한 전기 텍스트는 양창삼의 <조선을 섬긴 행복>(2012)이었다. 이 텍스트는 2017년 현재까지 서평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물에서 빠짐없이 거론되어온 귀중한 자료로서 이미 여러 차례 인용되고 분석된 바 있다(김은주, 2015; 윤매옥, 2016; 이종록, 2015; 이혜숙, 2016; 임희모 2013; 2015a; 2015b; 차성환, 2014; 2015). 본 연구는 이미 다수의 논문에서 주요 연구 자료로서 활용되어 연구가치가 낮은 텍스트를 피하고,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바 없으며 그동안의 전기적 자료가 포괄적으로 축적되어 있고 서평에 대한 보다 최근의 시대적 재평가를 담은 전기 자료를 택할 필요가 있었다.

방법론적으로 볼 때는, 한 인물에 대한 전기적 자료를 최대치 모아 인물의 전체적 삶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기존의 연구 방법을 피하고, 특정 집필 저자의 한 인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 당대 기독교의 문화적 심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이점이 있는(이정운, 2010: 206) 기호학 분석을 택했다. 기호학은 한 문화 텍스트의 기표 자체가 의미하는 외시적 의미에서 나아가 이 기의가 사회적 의미로 전이되는 사회 함축적 의미를 밝힐 수 있어(이윤석·김슬기, 2011: 218), 현 시대정신을 미시적인 방식으로 심도 있게 읽어내는 연구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기호학 분석은 이전에 시도된 바 없는 서평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특정 텍스트 속에 표현된 서평의 삶에 대한 묘사와 평론을 통하여 현 시대가 어떠한 선교와 섬김의 삶을 이상화하고 모범으로 하는가의 기준을 발견하고 서평의 삶을 이러한 현 시대적 잣대로 재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때 기호학의 텍스트 질적 분석의 타당성을 위해 사용된 기호학적 분석 도구는 계열체 분석, 기호 사각형 모형, 행위주 모형이었다.

본고는 먼저 서서평의 일생과 선행 연구를 살피고, 기독교의 사랑 윤리에 대한 기존 논의를 정리한 후, 전기 텍스트 <서서평>(백춘성, 2017)을 서평이 보여준 사랑에 초점을 맞춰 기호학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사회 함축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기독교일보 2017년 4월 10일자 기사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참조.

## II. 서서평의 일생

서서평(徐舒平, 1880년~1934년)은 독일계 미국인 출신의 간호사이며 선교사이다.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Elisabeth Johanna Shepping)이다. 독일 비스바덴에서 태어났다. 3세일 때 어머니가 미국 뉴욕으로 홀로 이민 가자 조부모에게 맡겨진다. 9세에 할머니를 잃고, 서평은 엄마 주소를 들고 홀로 미국으로 떠난다.

서평은 미국에서 엄마를 8년 만에 다시 만났다. 서평은 가톨릭 미션 스쿨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뉴욕시립병원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실습하던 중 동료 간호사를 따라 장로교회 예배에 참석 후, 예배의식이 가톨릭교회보다 간결하고 자유로운 것에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게 되면서 개신교로 전향하였다. 인간의 공로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서평은 1904년 성경학교(Bible Teacher's Training School)에 입학하여 1911년까지 성경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진리인 성경공부에 몰두하게 되면서 “영적 세계가 목전에 펼쳐지고 그 생명이 포도주처럼 자신의 혈관을 채우는 경험”을 하게 된다(Swinehart, 1937: 161).

이처럼 개신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집안 대대로 믿어 온 가톨릭 신앙을 가진 어머니로부터 절연하게 되었다. Swinehart의 당시 여선교사 스케치에 따르면, 서평이 조선 땅을 밟은 지 17년이 되던 해, 미국에서 어머니를 재회하게 되나 누더기 차림의 서평을 부끄러워 한 어머니가 다시 한 차례 서평을 문전박대하여 재차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픔을 느끼게 한다(Swinehart, 1937: 161). 이처럼 어머니와 절연한 서평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 속에서 이탈리아 이민자 수용소 및 유대인 요양소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였고 간호전문학교를 졸업한다(임희모, 2015a: 174). 1904년 뉴욕 Bible Teacher Training School의 Traveler's Aid Missionary에서 1년간 봉사하였다. 1911년 졸업 후 미국 남장로교 해외선교부 모집에 1912년 지원하여 간호선교사로 조선으로 파송을 받았다(양창삼, 2012: 26)

서평은 32세에 조선으로 와서 53세로 소천하기까지 당시 일제점령기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던 광주의 궁핍한 지역을 중심으로 간호선교사로 활동하였던 조선 초창기 선교사이다. 광주 선교부 제증원의 간호사로서 병원과 주일학교를 도왔다. 제주와 추자도 등에서도 간호선교사로 활동하였으며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노숙인 등 어렵고 약한

사람을 보살폈다. 서평은 한국어를 매우 잘 했으며 온전한 조선인이 되고자 한국인의 풍습을 익히고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적 민족의식을 가지고 압제받는 한국인을 이해하였다(임희모, 2015a: 180-2).

외국의 돈이나 원조로 인해서 그 어떤 조선인도 가난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조선인의 통치자들, 즉 일본인들의 탓이라고 여깁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 아이의 손을 잡아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Shepping, 1930, 양창삼(2012: 389)에서 재인용).

서평이 1920년에 쓴 글에는 한국인들이 무지와 가난으로 인해 병원을 찾지 못 하는 현상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Shepping, 1920: 205-7). 입원 치료를 완료하고도 종 된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한 여아를 해방시키기 위해 서평이 겪은 갖은 고초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때 구조된 여아는 이후 기독교교육을 받고 기독교인과 결혼하여 양질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는 모두 서평의 희생적 도움 때문이었다.

특히 서평은 한국의 불우한 여성들에 대한 연민이 많았다.

현재까지 조선여인들은 자기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자기 이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여인들의 이름은 한자로 출생 증명을 했고... 자기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혹은 아마도 “큰 년,” “작은 년”으로 불리었습니다. 그녀는 60살이 넘었거나 아직도 그렇지만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고 불리었듯이 태어난 특정 지역의 이름을 넣은 상태로 어느 태생의 여인으로 부릅니다. 이와 같이 이름을 만들어 주는 일 혹은 이름을 다시 살려내는 일은... 여인들은 처음으로 자기 정체성과 인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Shepping, 1921, 양창삼(2012: 366)에서 재인용).

내가 더 가난한 계층의 장성한 여성들을 연민하게 만드는, 내 마음에 영적인 생활과 유익한 기독교 훈련의 모든 열매를 그들의 생활 속에 있게 하려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하는 이유는 주로 그들의 연약함과 영적 어두움이 주는 전적인 무기력 때문입니다(Shepping, 1928, 양창삼(2012: 355)에서 재인용).

따라서 서평은 한국 여성들의 인권운동과 이들의 자립과 정체성 확립을 가르치는 이일학교를 세웠다. 주일학교 확장운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간호협회를 만들고, 여전도회를 조직하였다. 이렇듯 사회개혁을 추진하는데 실천적 삶을 살았다. 선교 현지의 불우한 여인들과 고아, 과부, 나환자들을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았다. 임금 대부분을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하였고 입양하여 키운 고아가 양아들

요셉을 포함하여 무려 14명이다.

사회봉사 사역과 관련하여 이 일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던 거대한 분야입니다. 남쪽에 살면서 광주나 군산에서 병원 간호업무를 책임지고 있을 때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제 수고를 축복해 주실 것으로 믿고, 병자와 가난한 자를 돕겠다는 일념으로 사회구호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 극빈자, 병자, 그리고 노인을 돕는 일입니다. 그들을 위한 적절한 숙소를, 혹은 치료될 때까지 병실을 찾는 일, 혹은 매일 집에서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친구를 얻는 일이며 나만의 보상을 받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랑의 수고입니다(Shepping, 1920, 양창삼(2012: 351-2)에서 재인용).

Nisbet에 따르면 서평은 “Not Success But Service” 문구를 평생 침대 밑에 붙여놓고 좌우명으로 삼았다(Nisbet, 1934). 한국 사회는 서평을 ‘재생한 예수’ 혹은 ‘작은 예수’라 불렀다(임희모, 2015a: 175). 한국인들은 예수님이 서평을 통하여 한국 땅에 성육신한 것으로 이해하였다(임희모, 2015a: 184). 선교활동 시작 3년만에 걸린 스프루(sprue) 병으로 임종 시까지 고통에 시달렸고 침대에 누운 채로 강의하기도 했다(Brown, 1962: 121). 임종 때에는 자신의 시신을 의학용으로 기부하였다. 자신의 세운 이일학교의 학생이 운구 행렬을 이뤘고 수많은 여성들이 호느끼며 뒤따르는 광주 최초의 시민 사회장이었다(백춘성, 2017: 228-9). 그녀의 마지막까지의 삶에서 남은 것은 담요 반 장, 강냉이 가루 두 홉, 동전 일곱 개가 전부였다(임희모, 2015a: 189).

한 위대한 선교사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병을 뒤로 하고 엘리자베스 웨핑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서평 선교사는 조선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고 조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즉 그녀의 시간과 힘과 정력과 마음과 헌신과 소유를 다 바쳤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몇 일만에 유품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정리할 물건이 거의 없다는 슬픈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핍해서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을 항상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니다. 줄 돈이 없을 때는 침구류, 음식, 책, 옷가지, 수건 등 자기가 소유한 모든 물건을 나눠주었습니다. 이일 성경학교 예산이 충분하지 못했던 불황기에는 자신의 박봉을 털어서 예산에 보탬했습니다(Knox and Talmage, 1934: 218-9).

서평은 선교사이자 사회사업가로서 “근대적인 전문 사회사업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며(차성환, 2014: 29), 진정성 있게 한국을 사랑하여 무명옷에 고무신, 보리밥에 된장국으로 삶을 영위하는 등 한국인과 “동일화”하여 살았다(이종록, 2015: 69). 또한 한국주

제 타선교사들이 선교에만 집중한 반면, 서평은 작은 예수라 불리면서 사회사업과 선교를 접목한 사회봉사 선교, 즉 “통전적 선교”를 지향하였다(임희모, 2015b: 266). “자기희생의 섬김을 통한 성육신 선교”라고도 불리며(임희모, 2015a: 187) 오늘날 전문인 선교의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임희모, 2013: 206).

### III. 서서평에 관한 선행연구

서평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서평의 선교적 삶 전체에 대한 선교학적, 사회구체학적 의의 규명이 많다. 서평이 남긴 선교 편지, 일상적인 글, 주변 사람들의 진술, 관련 연구물들을 바탕으로 그의 선교 전략과 영성을 조명해보고 이를 통해 현대 한국의 선교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먼저 임희모(2013)는 서평을 전문인 선교사로 이름 붙이고 그의 선교는 목회적 선교와 평신도 자비량 선교를 결합한 통전적 선교임을 피력했다. 특히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간호의료선교, 교육선교, 교회개혁 선교, 사회봉사 및 사회개혁 선교를 아우르는 통전성을 현 시대의 선교가 지향해야 할 선교 전략으로 이해했다. 전문인 선교사 유형들의 일반적 전문성과 포괄성을 살핀 후, 서평의 장로교 복음적 선교사로서 준비되는 과정, 성경교사훈련학교에서의 경험, 간호사로서의 훈련과 준비 등을 서평의 전기에 기초하여 서술했다. 특히 서평의 전문성은 언어(한국어, 한자 포함), 지역(문화, 풍습, 전통, 윤리, 시대현실), 직업(간호사로서의 전문적 활동), 사역(이일학교 교육, 전도, 교회개혁, 구제와 봉사) 모두에서 통전적으로 성취된 것임을 증명하고 그 선교전략은 한마디로 섬김의 영성과 토착성에서 온다고 규명했다(임희모, 2013: 199-200). 이일학교를 선교센터로 구심적이기도 원심적 선교를 하였고 간호사역과 지역 순회사역을 통한 한국인과 사회에 대한 분석, 선교를 위한 성경학교, 지역주일학교 운동과 사회개혁 등을 실시하였기에 학교, 교회, 병원,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전문인 선교사의 상황적 창의적 사역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적 순종의 영성을 강조하였다.

임희모(2015a)의 두 번째 연구는 서평 선교사의 성육신적 선교를 강조하였다. 서평의 성장과정, 교육적 배경, 사회봉사적 실천, 선교내용과 구조, 영향 등을 서술하고 당

시 자문화중심주의에 사로잡혀있던 대부분의 선교사들과는 다르게, 한국 문화와 상황에 동일화하여 불우한 여성들의 삶에 성육신하여 선교한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다른 선교사들과 대조적으로 선교적 태도를 대비하고 서평의 복장, 음식,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적 민족의식 등의 일화를 강조하여 재생한 예수, 작은 예수로서의 서평을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현지문화와 상황에 대한 자문화 중심주의의 극복, 문화적 차원에서 외형, 내면 모두의 동일화, 진정성 있는 현지인에게의 전달, 총체적 복음으로 전달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 등의 가르침을 제시했다.

이와 유사하게 임희모(2015b)의 세 번째 연구는 평신도 선교사 서평을 통해 구현된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한국 교회의 선교적 교회 형성에 주는 함의를 논하였다. 선교적 교회의 신학적 근거를 서술하고 그것을 틀로서 서평의 선교적 삶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교회가 선교적 교회기 위해 서평의 지역사회 선교 개념과 활동을 준거점으로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로부터 신임과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서평의 사회사업에 초점을 둔 연구는 차성환의 연구(2014)로 의료 사업을 조직사회학의 관점에서 조명하여 그 사회적 의의를 규명하였다. 이 연구는 조선의 비천한 의녀 제도와 비교하면서 서평의 활동이 근대적 간호사업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동기 체계를 심어주었다고 설명했다. 간호직의 소명을 역설하여 노예 신분에서 있던 여성에게 정신적, 종교적 해방을 선사하고 사회적으로도 당당한 구성원으로서의 경제력을 갖추게 한 점을 강조한 것이다(차성환, 2014: 29-30).

서평의 삶을 사회학적으로 접근한 또 다른 연구는 이종록의 연구(2015)로서 서평에게서 보이는 비제국주의적 자세를 당시 만연하던 사회 진화론, 타선교사들의 우월의식과 비교하면서 서평의 남다른 비제국적 사고가 갖는 시대적 의의를 드러냈다. 당시 선교사들 사이에 만연하던 시대사조, 사회 진화론과 문명화 사명 논리에 빠지지 않고 특권적 삶이나 우월의식, 개인적 부 축적을 위한 상행위와는 거리를 두고 오히려 한국 여성들의 불우함에 동화되어 한국 여성들과 동일한 가난한 삶을 산 서평의 차원 다른 삶을 조명하면서 서평의 비제국주의적 정신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서평의 누미노제 신비 체험을 칼 융의 무의식 이론에 기대어 분석하고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은 불우한 어린 시절이 그녀의 정신적 에너지인 리비도를 내적 심연으로 내향화시킨 점을 강조한 차성환의 연구(2015), 서평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의 전기적 생애사 연구(이혜숙, 2016), 서평의 삶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사랑과 섬김



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생명존중을 최고 가치로 두는 간호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윤매옥의 연구(2016), 서평의 사역 중 신학과 교육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귀납법적 성경연구와 기독교 교육적 방법론에 초점을 맞춘 김은주의 연구(2015) 등이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가 그의 선교사적 희생, 사회봉사적 통전적 선교 방식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 전기적인 생애 탐구를 통해 심리적 접근을 한 연구, 서평의 다양한 사역 중 하나의 특수 사역에 중점을 두고 그 함의를 밝힌 연구 등이다. 그러나 그의 다채로운 사역을 하나의 관점으로 통합해 줄 이론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신학적, 성경적 원리를 서평의 삶에 투영해 파헤친 연구는 없으며, 특히 서평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중 문화 텍스트(전기문) 분석 방법으로 연구한 논문은 전무했다. 이에 본 연구는 서평에 대한 연구로서는 최초로 특정 텍스트 기반의 기호학 분석방법을 통해 서평의 선보인 삶을 “사랑”이라는 기독교 윤리이론을 투영하여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 IV. 기독교의 사랑

성도에게 부여된 이웃 사랑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긴밀히 연결된다.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에 기초해야만 이웃 사랑이 기독교적 사랑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계명은 명백히 차별화 된 두 가지 차원의 계명이다(마 22:37-40).

이웃 사랑의 계명 안에서 자기 사랑을 발견하려는 시도도 계속 있어왔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웃 사랑이 자기 사랑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사랑 계명 안에는 세 가지 사랑, 즉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유력한 전통이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에 존재해 왔다.

본 장에서는 서평의 삶을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의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랑의 범주를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1. 이웃 사랑

기독교는 사랑을 그 핵심 가치와 최상의 율법으로 삼는다. 하나님과 이웃이 그 사랑의 대상이다. 예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웃 사랑 계명은 그 상위 계명인 하나님 사랑을 뒤따르며(마 22:37-40), 아가페적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온다(요일 4:7-12). 이처럼 자기애를 넘어서서 타자들에 대한 사랑이 절대적인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대립하는 예외적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 사랑을 보다 우선해야 함도 성경이 권고하는 메시지이다(눅 9:61-2, 14:26). 이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은 부모, 자식, 전토,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포함된다. 하나님 사랑의 주된 방식은 이웃 사랑과 달리 ‘예배’에 있으며, 두 사랑의 선부른 동일시가 우상숭배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 하나님 사랑을 동료 사랑으로 환원하는 위험에 빠질 가능성 등이 그 경계해야 할 이유로 지적된다(이창호, 2016: 255-6).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에 서라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며(마 25장),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보지 못 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요일 4:20-21)는 점에서 두 사랑의 연결성은 명백하다.

예수의 이웃 사랑 계명이 구약적 관습과 차별적인 이유는 이웃 공동체의 범위가 배타적이고 특수주의적인 유대교의 제한성을 뛰어넘어 일종의 보편성을 가지기 때문이다(Nigren, 1953/2013: 67). 이스라엘 선민을 넘어 이방인까지, 믿는 가정을 넘어 불신자까지를 포함한다 해도 이웃 사랑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 결정적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 원수사랑인데 이 가르침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구현되었듯이 이웃과 절대 이웃이 될 수 없는 자의 경계를 허물고 “어느 누구든 모두”를 보편적으로 사랑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친구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이라는 기본 도식을 가진 고대 공동체 이상과 비교할 때 현저히 파격적인 것이다. 사실 구약의 레 19:18의 보복 금지 윤리도 당대 동태복수법에서 한 단계 승화된 것으로서 원수 보응의 최종 권위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례적인 윤리였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하나님 나라 윤리에서는(마 5장, 눅 6장), 심지어 원수가 이웃과 동의어가 되었으며, 오른뺨을 때리면(원수의 행동) 왼뺨을 돌려대는 자기희생적 사랑이야말로 이방인 사랑법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 파격적인 원수사랑의 요구는 하나님이 친히 악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원인적 사랑

안에 위치해 있다(눅 6:35-6). 즉,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원수) 사랑의 전형이다. 하나님 사랑의 속성에는 ‘동등’과 ‘배려’가 있다(Outka, 1972: 9). ‘동등’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가치 규범적 내용으로서 인류 전체를 향한 무차별적인 보편성의 사랑을 의미하며, ‘배려’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값없이, 가치평가 없이 사랑 자체에 헌신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같은 동등배려의 사랑은 대상의 적대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랑해야 하는 원수사랑의 성격까지 포괄한다. 이러한 사랑의 성격은 모두 하나님 사랑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일방향적(unilateral)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은 자발적이면서 동기 초월적이며(Nigren, 1953: 74-7)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을 넘어선다(Nigren, 1953: 77-8). Nigren은 원수사랑이 이웃 사랑의 ‘극단’이 아니라 본성상 이웃 사랑의 ‘기원’이라고 규정하고, 참 아가페 사랑이 자발적, 동기 초월적, 비(非)가치판단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수사랑이야말로 아가페의 본질임을 주장했다(Nigren, 2013: 102-3).

원수사랑은 당시 사회정치적인 관점에서 죄인과 병자, 세리를 친구로 여겼던 예수의 혁신적인 삶을 배경으로 할 때만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박인희, 2016: 297). 원수사랑이란 유대의 전통 관습에서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용납될 수 없었던 위 유형의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들로서 평등하게 수용되는 급진적 관용성을 띠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관계성의 혁신으로서 전통적 유대 사회와는 결별하는 새 공동체의 탄생을 의미했다(박인희, 2016: 303). 갈릴리에 범람하던 사회적 약자들과 사치와 착취를 일삼던 소수 지배층들은 예수의 새 공동체 이상, 즉 사회적 경계를 넘어서서 외부인을 내부인으로 포용하고 진정한 평등을 가능하게 하는 원수사랑 윤리를 받아들이도록 요구받았다. 이런 사회적 배경을 고려할 때, 산상수훈에서의 원수는 결코 선별될 수 없는 이웃 그 자체이며, 아가페 사랑은 개인적, 민족적, 정치적 타자, 신앙적 동지뿐 아니라 타종교인, 그리고 사회적 동류인의 개념 속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까지 예외 없이 포괄하는 “무한대적인 사랑의 확장” 개념이라 할 수 있다(조경철: 2000: 136). 따라서 이 사랑은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없으며 성령을 통해 위로부터 부어져야 가능한 하나님 원인적 사랑의 속성이다(롬 5:5, Nigren, 2013: 134).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이후 분석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 사랑이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그 외 사랑의 통칭인 에로스 사랑의 성격을 Nigren의 기술을 따라 요약적으로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Nigren, 2013: 217).<sup>2)</sup> 아가페는 희생적으로 베푸나

에로스는 획득적 욕망과 동경이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는 일이나 에로스는 사람의 노력이며 구원이 자기의 일이다. 아가페는 이타적이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나 에로스는 자기중심적 사랑으로 가장 높고 고상하고 숭고한 형태의 자기주장이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상실하나 에로스는 자신의 생명을 얻고자 한다. 아가페는 풍부하기에 베푸는 자유이나 에로스는 결핍과 필요에 의존하는 획득과 소유의지이다. 아가페는 하나님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도 이 신적인 사랑을 본받은 것이나 에로스는 하나님도 에로스 대상이 된다. 아가페는 악인과 선인을 다 사랑하나 에로스는 대상의 속성과 가치의 의해 결정되며 비자발적이고, 동기를 가진다. 아가페는 사랑하며 대상 안에 가치를 창조하나 에로스는 대상 안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사랑한다.

Outka는 사랑을 동등배려(equal regard)라고 지시한다(Outka, 1972: 9). 동등은 차별 없는 사랑을 의미하며 배려는 다른 목적이 없는 순수한 사랑 자체가 목적이 되어 끝까지 지속되는 속성이다. 따라서 원수사랑이 이웃 사랑 안에 포함되며 일방향적 사랑이라는 하나님 사랑의 속성이 Nigren과 동일하게 강조되지만 그 궁극적 목적은 ‘관계성’에 있다(이창호, 2016: 259). 그는 삼위일체의 관점을 투영하여 인격 상호간의 친밀한 교제야말로 신적 사랑이라고 규정하고 기독교 사랑은 ‘상호적 사랑’ 즉,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 더 고상한 사랑이라는 견해를 펼침으로써(Outka, 1997: 487) 일방향성 이타주의 못지않게 상호간의 사랑에 바탕을 둔 공동체를 이루는 일의 중요성 역시 강조하였다(Outka, 1972: 176). 이로써 일방향성, 자발성 등의 절대적 속성은 다소 약화된다. 그러나 Outka가 Nigren의 사랑론과 가장 확연히 구분되는 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사이에 연속점 못지않게 차이 역시 있음을 존중하자는 점이다. 실천 가능성에 그 초점이 있다. 예수님의 “절대 철회할 수 없는 타자지향성(Outka, 1987: 153)”은 어떤 인간도 실현할 수 없는 절대적 이상이라는 점이다.

Post(1994)는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이 사랑의 대상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랑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나 선호도의 설정을 상정한다. 사랑의 이상은 단순한 대가 없는 일방향적 헌신이 아니라 상호 친밀한 관계 형성에 있기 때문에(Post, 1990, 24) 정서적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보편적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개별적이고 구체적 관계로 진입하

2) Nigren은 아가페 외의 모든 유형의 사랑, 즉 필로스, 에로스 등의 사랑을 에로스에 포함시켰다. 즉 신적인 아가페 사랑이 아닌 여타 사랑의 통칭이 곧 ‘에로스’이다.

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 이때 기독교 사랑 윤리는 서로 간의 친밀한 관계가 전제된 감정의 역동적 소통이 불러오는 열정적 관계 형성이 그 규범적 이상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원수사랑은 그 우선순위에서 중요도가 하강하게 된다. 따라서 Post의 사랑론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Nigren(2013)의 보편성이나 친밀한 관계 형성을 강조하는 Outka(1972)의 견해와 일치하면서도, 사랑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Nigren과 Outka가 중요하게 상정하였던 사랑의 이타적 일방향성과 차별 없는 원수 사랑의 강조점과는 거리를 두게 되었다.

## 2. 자기 사랑

이제 자기 사랑에 대한 몇 가지 이해를 살피고자 한다.

Nigren은 자기 사랑이 인간의 자연스런 조건일 뿐이고 사람의 의지를 타락시키는 이 유라고 지적하면서 이웃 사랑은 자기 사랑을 오히려 배제하며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Nigren, 2013: 102). 왜냐하면 대계명은 명시적으로 자기 사랑을 제외한 두 계명으로만 요약되기 때문이다. 바울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롬 8:39)이 아가페의 원형이며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갈 2:20)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함(고전 13:5)을 그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가페는 에로스의 획득적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는 것이다.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 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되며(고후 5:14-15; 빌 2:21)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롬 15:1-3; 빌 2:4). Nigren은 바울을 언급하면서 그는 저급한 자기 사랑뿐 아니라 영적인 자기 사랑(고전 7장)마저도 배척한다고 말한다(Nigren, 2013: 133).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골육과 친척의 구원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롬 9:3). 그리고 이러한 실천은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가페가 그 마음에 부어짐으로 가능하다(롬 5:5).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Nigren은 자신을 부인하는 철저한 이타주의에 기초를 두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된 사랑만을 강조한다.

그러나 Hallet은 보다 자기 사랑에 자유롭다. 자아 선호 유형과 자아 부정 유형을 양 극단에 상정한 후, 그 연속선 위에 균형 유형, 타자 선호 유형, 자아 복종 유형, 자아 망각 유형 등으로 세분화하였다(Hallet, 1989: 2-10). 그리고 이 6가지 유형들이 기

독교인의 사랑 실천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였다. 먼저 자아 선호(self-preference) 유형은 자아와 타자 사이의 이해가 충돌할 때 타자보다 자신의 유익을 좀 더 생각할 여지를 둔다. 둘째, 균형(parity) 유형이란 자아와 타자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고 균등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예로 들 때, 사랑의 동량보다는 그 형식이나 방법에 동질성을 두는 것이다(이창호, 2013: 134). 셋째, 타자 선호(other-preference) 유형은 자신보다 타자에게 더 비중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어 배려하는 것이며, 넷째, 자아 복종(self-subordination) 유형은 타자에게 유익이 되는 한에서만 자아를 배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의 유익과 충돌하지 않을 때 자신의 유익을 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아 망각(self-forgetfulness)과 자아 부인(self-denial) 유형은 매우 유사한데 자기 유익이 타자에게 유익이 될 때에만 정당화하고 나머지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타자의 유익과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자기 유익을 고려해서는 안 되므로(Hallet, 1989: 53-55) 타자를 위한 자신의 희생만이 정당하다. 즉, 자신의 유익은 타인을 유익하게 할 때에만 정당하다(Hallet, 1989: 6). 이 유형은 자신의 몸을 극진히 사랑하는 열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아닌 타자를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한 Luther(1961: 366-369)의 견해와 가깝고 Nigren(1953)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Hallet은 여섯 가지 유형 중 자아 부정보다는 자아 복종의 규범을 신약 성경의 이상으로 제시한다. 타자 선호보다는 이타적이어야 하지만 자아 부정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타자를 우선시하는 이타적 희생이 더 큰 가치이지만 그렇다고 타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자기 사랑을 좌악시하지는 않는다. 규범적으로는 자기희생적 타자지향을 따르지만 자기사랑의 윤리적 가능성에도 열려 있는 것이다(이창호, 2013: 138).

자기 사랑에 대하여 보다 관용적인 Outka는 신중심적(theocentric) 자기 사랑론을 펼친다(Outka, 1992: 6-17). 하나님 사랑이 갖는 보편성에 상응하는 우리의 사랑을 상정할 때 모든 인간이 가치 판단을 무효화하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나 자신도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해이다. 신중심적 관점에서 타자와 자아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사랑하는 것은 Outka가 강조하는 동등 배려의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사랑이다. 물론 기독교 사랑의 이타주의가 타자지향성과 일방향성을 규범으로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참된 사랑이 없다는 Nigren의 사랑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도 특별한 사랑이나 자기사랑 형태의 고유한

사랑이 긍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Nigren식 사랑법은 자신을 정당한 사랑의 대상 범위에서 제거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Outka, 1992: 17-44). 자아-타자 동등한 가치 인식의 부정적 영향과 자기희생적 사랑이 타자에게 미칠 해악 등이 그 오류이다. 따라서 Outka는 Nigren과 같이 자기 희생적 이타주의가 기독교 사랑의 최상의 덕목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사랑이 정당한 종교 윤리적 명령이며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존재의 질서라는 점에서 의견을 달리한다(이창호, 2013: 151).

자기 사랑을 자연적 현상, 죄에 근거한 잘못된 이기심, 긍정적인 자기 존중감으로 구별하면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긍정적 해석의 가능성이 열린다. 이기심과 자기 존중감은 동일하게 자기 사랑의 동의어로 취급되지만, 이기심은 버려야 할 것이고 자기 존중감은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누가 내 이웃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의 문제로 이슈를 환기하는데, 제사장, 레위인 등의 이웃에 대한 무관심은 이기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동은 자신을 타인을 향해 내어줄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자기 사랑(존중감)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홍순원, 2015: 296). 즉,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기주의를 거부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존중과 자기 긍정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Fischer, 1994: 151). 예수님과 이를 본받는 우리의 자기 비움(빌2:5-8)도 자기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서 자기를 실현하고 완성하는 의미에 보다 가깝다(홍순원, 2015: 298).

현대 대거 등장하고 있는 자기에성 성격장애(Narcissistic disorder)자들은 인성에 있어 정당한 자기 존중감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Bingerman, 2000: 350). 이들에게 보이는 지나친 자기에, 즉 이기심은 자기대상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여 결과된 자기결핍의 현상으로 해석되는 것이다(홍이화, 2011b: 85-6). 이러한 접근은 진정한 자기 존중감과 이기심을 분리시킴으로 기독교계의 자기 사랑에 대한 논쟁에 하나의 해답을 제공할 수 있다. 인간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이나 부모 등에 의해 수여된, 선행하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원초적 관계성을 떠나서는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 모두 실천 자체가 불가능하다. 즉, 하나님, 이웃, 자기 사랑은 상호 연관되며 종속되어 있다(Outka, 2015: 34). 자기대상(Selfobject)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참된 자기 존중감 속에서 자기를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이란·이관직, 2014: 169). 오히려 자기를 긍정할 능력으로 비유할 수 있

는 ‘내재화된 자기구조’가 결여된 자, 즉 자기(Self)가 결핍된 자는 참된 사랑을 내면화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랑으로 퇴행하게 된다(홍이화, 2011b: 85-6).

그러나 기회는 언제나 있다. 참 자기대상이신 하나님이나 그 대리자인 부모와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 공허하거나 이기적인 사람도 또 다른 자기대상, 즉 중요한 타인을 통해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진정한 자기 사랑 능력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Kohut, 1984: 77). 따라서 자기 결핍을 의미하는 이기심은 생래적 자기애로, 진정한 자기 존중감은 성숙한 자기애로 표현 가능하다.

Douma도 자신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고 다만 자기 사랑이 하나님과 이웃 사랑과 대립될 때에만 부인되어야 하는데 심리적으로 병든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자기 사랑부터 회복하도록 권고해야 함을 강조했다(Douma, 2003: 152). Tournier도 심리적 약자의 정당한 방어를 옹호하면서 그리스도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 무력하게 자신을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심령을 방어하고 순종을 위하여 이미 소유했던 자기(Self)를 자의로 희생했던 강자라는 점을 역설하였다(Tournier, 1991: 299).

이와 같이 기독교 내에도 자기 사랑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접점을 전혀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사랑에 대하여 가장 보수적인 견해를 펼친 Nigren(1953)도, Outka(1997)나 기독교 심리학자들의 자기 사랑 옹호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원형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큰 이견이 없으며 어떤 사랑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하는 계명이라는 데 적극 동의한다. 또한 이웃 사랑 계명에 있어서도 자기 사랑이 그 최하 기준으로 제시된다고 할 수 있지만, 두 사랑이 부딪힐 때 결국 이웃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는 규범은 틀림없는 산상수훈의 요구이다(마 5:38-42). 이웃 사랑의 적용 수준은 개인에 따라 다차원적이지만, 형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요한의 진술은 자기보다 이웃을 우선하는 것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라는 점을 역설하는 것이다(요일 3:16). 다시 말해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의 갈등과 화해는 규범적이기도 하지만, 보다 제자도로서의 실천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자가 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이다.

좀 더 명백하게 자기 사랑을 이기심, 즉 생래적 자기 사랑과 자기 존중감, 즉 성숙한 자기 사랑으로 구별하여 적용한다면 이웃 사랑과 대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기심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없게 하지만 자기 존중감은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기 때문이



다. 가장 성숙한 자기 사랑은 이웃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 3:16).”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서야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그 사랑의 성품을 닮고 실천하는 일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 V. 연구 방법

###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독일계 미국인 서서평 선교사의 한국(인) 사랑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하여 전기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백춘성 지음, 두란노)의 주인공 일대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서평 선교사의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의 의미 체계를 분석하고자 계열체 분석, 기호사각형 모형과 행위주 모형을 적용하였다. 기호학은 상징체의 구조를 밝히고 내포된 의미를 분석하며, 이 상징체계가 구성하는 텍스트 기호들의 관계를 통해 그것의 심층 의미를 드러낸다(안주아, 2008: 265).

#### (1) 계열체 분석

계열체 분석은 등장인물과 소재 및 사건들 간 우호나 대립 관계를 근간으로 시간 추이나 어떤 연속선을 따라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이항대립 관계를 복합적으로 추적하여 심층 의미를 파악하는 분석방법이다. 등장하는 표현체들의 대립과 갈등을 근간으로 하여 이야기의 심층에 숨어 있는 중심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2) 기호 사각형 모형

그레마스의 기호 사각형 모형은 의미작용이 일어나는 생성 경로를 따라 가면서 담화의 의미 구조를 파악해 가는 분석에 유리하다. 그레마스는 의미가 텍스트 생성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보았고 발화자는 담화 생성 이전부터 의미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텍스트를 표출, 표층, 심층 단계의 세 단계로 나누고 생성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숨어 있는 맥락적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착안한 기호 사각형 모형은 결여적 대립과 범주적 대립이라는 두 대립 유형에서 나온다.

기호 사각형의 의미 관계는 대립과 모순으로 이루어진다. 대립은 서로 상반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모순은 의미가 현존과 부재에 의해 대립적 의미각을 가질 때 마주한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S는 기표의 현존을, -S는 부재를 나타낸다. 이를 결여적 대립( $S1 \leftrightarrow -S1$ )이라고 부른다. 범주적 대립은 S1과 S2, -S1과 -S2 범주 사이에 대립적 의미가 있을 때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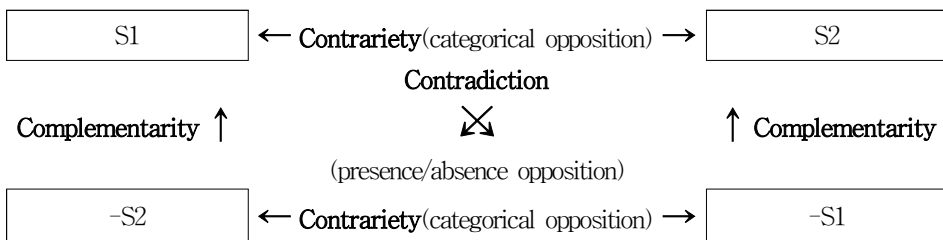


Figure 1. Greimas Semiotic Square Model(Greimas, 1997: 211)

## (3) 행위주 모형

그레마스 행위주 모형은 인물들 간의 관계구조를 도식화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특정 욕구를 가진 주체가 그 욕구 발생 목적의 타당성을 증명하고 충족하기 위해 주변인물을 지정하는 것을 모형으로 구현한 것이다(신향식, 2005: 86). 행위주 모형은 세 개의 축으로 생성된다. 첫째, 욕망의 축이다. ‘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나서게 되면 그것이 이야기 전개에서 ‘대상’으로 규정된다. 이들은 욕구가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대한 원인과 자명성을 설명해 준다. 또 다른 축은 전달의 축이다. 발신자 대 수신

자 축으로 정보전달 혹은 가치체계의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된다. 끝으로 조력자와 반대자는 ‘능력의 축’을 구축한다. 조력자는 주체의 실행을 돕고 반대자는 방해하는 행위주이다. 조력자와 반대자는 이야기의 확산에 관계하여 주체의 욕구가 실현되기 위한 도움이나 긴장을 유발한다(신항식, 2005: 87). 이야기는 위의 6개 기능(행위주)들의 관계가 전개되어 내러티브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성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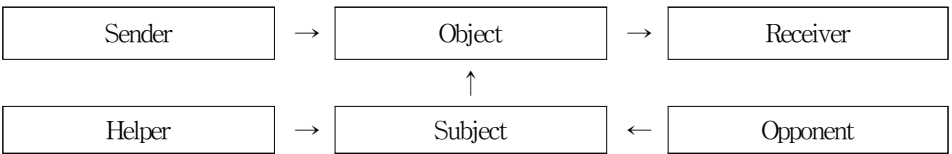


Figure 2. Greimas Actantial Model(Greimas, 1997: 278-97)

VI. 연구 결과

1. 계열체 분석

<서서평>의 주요 인물들 중 서서평의 엄마, 서서평, 타선교사들을 추출하여 계열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간의 이항 대립 구조와 그 중층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문장 끝 ( )로 표시된 것은 <서서평>의 페이지를 일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1 The Binary Opposition Structure of Shepping and her Mother and its Multi-level Meanings

Binary Opposition 1	Shepping's Mother	vs	Shepping
↓		↓	
Binary Opposition 2	Catholicism / Ignorance of Nurse	vs	Christianity/ Preference for Nurse
↓		↓	
Binary Opposition 3	Going to USA	vs	Going to Korea
↓		↓	

<continued>

Binary Opposition 4	Child Neglect	vs	Orphan Adoption
↓		↓	
Binary Opposition 5	Desire for Economic Power	vs	Desire for Missionary Work
⇓		⇓	
Deep Opposition Structure	Orientation to Success and Economic Power	vs	Orientation to Love and Service

‘서서평’과 ‘서서평의 어머니’의 이항 대립을 살펴보면 먼저 세 살 때 헤어졌다가 8년 만에 미국 땅에서 다시 만난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톨릭 신자였다. 그러나 서평은 동료 간호사에 의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다. 그 이유는 독일에서 가톨릭 학교를 다니면서 부유한 친구들에게서 멸시와 따돌림을 당했기 때문이다(25).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그는 개종을 극심하게 반대하는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 게다가 어머니는 간호사라는 직업도 초라하다며 무시했다. 서평은 나이팅게일을 존경했고 마 4:23에 영감을 받아 교육, 전도, 치료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간호 선교사로 헌신한다.

서평의 어머니는 사생아인 딸을 낳아놓고도 그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제 살 길을 찾아 미국으로 망명하지만, 서평은 개종 이후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 한국이라는 가난한 식민지로 떠난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버려진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서는 고아를 여럿 입양하여 키운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로 단 한 번 방문했을 뿐 미국이 주는 부귀나 모성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않고 한국과 결혼하여 한국인으로서 한국 여성들의 어머니가 되어 살아간다(137). 서평이 미국에 다시 방문했을 때에도 어머니가 문전박대 했던 이유는 그가 누추하고 어렵게 산다는 이유였지만(137), 서평은 반대로 불우한 고아들을 입양하고 학교를 세워 가난하고 천대받던 여성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교육을 제공했다. 그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고 섬기며 사랑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이들 대립항들은 심층 구조에 있어 다음의 의미를 드러낸다. 서평의 어머니는 성공과 경제력을 지향하는 인물이지만, 서평은 세상 자량과 부귀를 멀리하고 이웃 사랑과 섬김을 지향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서평과 어머니는 같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살았다는 점이 명백하다.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자기 사랑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무엇보다

자기 사랑이 우선되었다. 반대로 서평은 혈육 부모인 어머니가 바라는 세상 방식을 따르는 것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여 하나님 사랑을 우선시하였다(눅 14:26). 또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그의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다.

서평이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타인을 사랑할 자기 구조가 건강히 형성되었는가 하는 의문은 그의 한국에서의 참된 사랑의 실천이 증명해준다. 사랑을 받아본 자가 아니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능력을 소유할 수 없다. 즉, 서평은 부모의 사랑 대신 하나님이라는 원초적 자기대상의 사랑을 통해 이기심이 아닌 성숙한 자기 사랑 능력을 내부에 형성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자기를 봉괴하지 않고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서서평>에 기초해 볼 때, 어머니는 자기 자신, 하나님, 이웃이라는 사랑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다면, 서평이 사랑한 대상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이웃, 자기 자신 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Table 2 The Binary Opposition Structure of Shepping and Other Missionaries and its Multi-level Meanings

Binary Opposition 1	Other Missionaries	vs	Shepping
↓		↓	
Binary Opposition 2	Red Double-storied Western Houses	vs	A Dented One-storied House
↓		↓	
Binary Opposition 3	Abundant Salary and Commercial Activities	vs	Extreme Poverty and Unplanned Intemperate Relief
↓		↓	
Binary Opposition 4	Sermons for Selfish Ends	vs	Sermons on Christ's Love
↓		↓	
Binary Opposition 5	Disinclination to Services	vs	Commitment to Services
⇓		⇓	
Deep Opposition Structure	Orientation to Selfish Love and Economic Power	vs	Orientation to God Love and Neighborly Love

<서서평>에 따르면 미국에서 온 타선교사들(일부)과 서평은 같은 선교사이지만 전

혀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았다. 서평은 빈민 구제에 규모 없이 지출을 많이 함으로써 생활 형편이 극빈했으며 영양실조 상태에 신발은 늘 검정 남자 고무신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다른 선교사들은 그런 서평이 “미국인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선교사들 망신을 시키고 있다”(187)고 생각했다. 타선교사들은 빨간 벽돌로 지은 이층 양옥에 살았고, 해마다 한국인 하인을 시켜 페인트칠과 단장을 새롭게 하였다. 그러나 서평의 집은 나무 기둥과 흙벽의 초라한 단층집이었다. 서평이 서거한 후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을 보면 ‘찌그러진 집’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188). 이처럼 사는 집의 대조가 가능했던 것은 타선교사들의 경우, 가족과 애견 수당까지 나오는 자국으로부터의 월급을 받으면서 달러 장사, 토지 장사, 재산 소송, 고용인을 통한 축산과 농업까지 상업적 재테크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선교 활동을 국익 사업과 동일선 상에 두었기 때문이다(이종록, 2015: 69). 그러나 서평은 윤락 여성 구제, 장학금, 빈민 구제 등의 규모 없는 지출로 스스로는 극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선교사들이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서평도 한국의 참상을 외면하고 사치스러운 생활만 일삼는 다른 선교사들을 책망하곤 하였다(187).

설교나 예배에 있어서도 메시지나 참여 태도가 전혀 이질적이었다. 서평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한 설교를 한 반면, 다른 선교사들은 고용인들을 겨냥해 “도둑질 하지 말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같은 말씀을 주로 설교하여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설교를 이용한다는 인상을 주었다(189). 또 서평은 밤낮 모든 예배, 기도회, 정기 집회, 초청 집회 등에 아파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으나 다른 선교사들은 밤 예배나 기도회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189).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타선교사들(일부)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 재산 축적을 지향하는 선교활동을 한 반면, 서평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한 인물이었다. 타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 사랑과 연결된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 했다는 점에서 서평의 사랑과는 구별된다고 하겠다. 즉, 선교사들은 이웃보다는 자기를 우선시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Hallet이 구분해 놓은 6단계 중 자아 선호적인(Self-preference) 사랑을 했으나, 서평은 대상의 가치나 동기에 좌우되지 않는 Nigren 식 아가페 사랑, 즉 자아 부인의(Self-denial)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다는 점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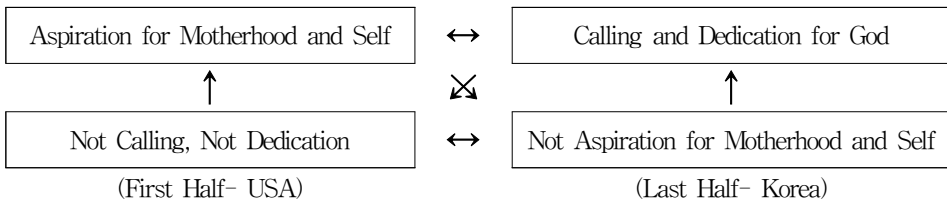
서평의 어머니와 타 선교사들의 사랑을 서평의 사랑과 비교하여 Nigren(2013)의 설명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 타선교사	vs.	서서평
획득적인 욕망과 동경		희생적인 베품
자기중심적 사랑.		이타적인 사랑.
자기의 생명 즉 신적인 영원불멸의 생명을 얻으려고 함.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상실함.
결핍과 필요에 의존하는 획득과 소유 의지.		풍부하기 때문에 베푸는 자유.
주로 인간의 사랑. 에로스가 하나님에게 돌려질 때에도 인간적 사랑을 본받은 것.		주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사람에게 돌려질 때에도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을 본받은 것.
대상의 속성과 미, 가치에 의해서 결정됨. 비자발적이고 환기되며 동기를 가짐.		대상과의 관계에서 주권적. “악인과 선인”을 다 사랑함.
대상 안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사랑함.		사랑하며 그 대상 안에 가치를 창조함.

이처럼 서평의 사랑 방식은 일방향적이고 보편적인 점이 확연하며, 아가페적 원수사랑을 절대적 이상으로 놓는 Nigren(2013)과 Outka(1972)의 사랑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의 선호적 선택을 옹호하면서 이웃 관계에서 개별적이고 감정적 역동을 중요시한 Post(1990; 1994)의 관점에서 보면 타민족이라고 하는, 감정적 연대가 약한 이웃들을 우선적으로 품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고아들, 여성들과 집단적으로 어울려 살았다는 점에서 좀처럼 자연적 인간으로서는 실현할 수 없는 사랑법을 실천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2. 기호 사각형 모형

### (1) 공간 이동: 잠재적 의미



서평의 이야기는 독일,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낸 삶과, 서른 살 이후 한국에서의 삶으로 크게 대별해볼 수 있다. 첫 번째 공간 이동은 서평이 할머니와 살던 독일을 떠나 그리움의 대상인 어머니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미국으로 떠난 일이다. 두 번째 공간 이동은 미국에서 간호학과 신학 공부를 마친 후 간호 선교사로 헌신하고 한국으로 건너간 것이다. 이 이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을 발견하고 이에 헌신하기 위해 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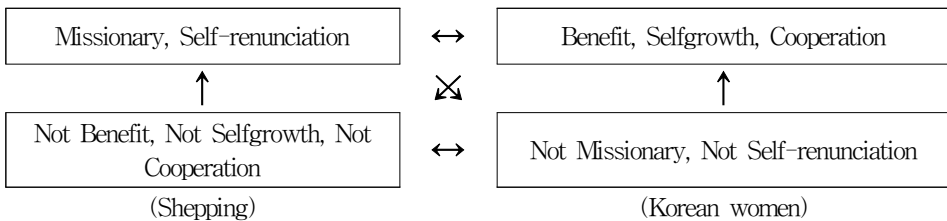
이 공간 이동은 그녀의 신앙 성장의 궤적과 일치한다. 독일 가톨릭 학교 친구들에게서 받은 심리적 어려움과 부모 부재로 인한 정체성 혼란은 미국이라는 땅에서 재회한 어머니와 기독교 개종으로 인하여 일부 해소된 듯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그의 신앙적 성장을 멈추지 않고 미지의 가난한 식민지 땅, 한국에 소명과 헌신이라는 두 날개를 달고 귀착한다. 당시 한국은 식민지 압제가 극에 달하던 때였는데 서평은 한국에 대한 사랑으로 독립 운동에까지 관여한다(28-30). 3.1운동에 가담했고 한국의 상황을 출애굽기에 빗대어 강조했으며 한글의 존귀성을 인식하고 존중했다(29). 서평에게 한국인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과 동일시되고 똑같은 처지가 되어 체휼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주로 죄인들, 빈민, 병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과 어울려 지냄으로써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무한대적인 사랑의 확장, 즉 진정한 의미의 원수사랑을 실천하였다. 이것이 그를 ‘우리말을 잘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닉네임으로 부르는 이유이다(27).

서평 자신의 사랑 방식은 미국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건 전후로 변화하였음을 분명히 보여주며,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방식인 에로스로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소



명으로 채워진 아가페로 전개되어 갔음을 시사한다. 이 변화의 중심에 그가 미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서평의 사랑 방식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깊은 통찰을 준다. 선행하는 사랑을 수여받지 않고는 타인을 올바르게 사랑할 능력이 부여될 수 없는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홍이화, 2011b: 85-6), 고아나 다름없었던 서평의 자기 대상으로 기능한 위대한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었음을 고지하는 것이다. 아가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될 때(롬 5:5)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해준다.

## (2) 서서평과 한국 여인들: 관계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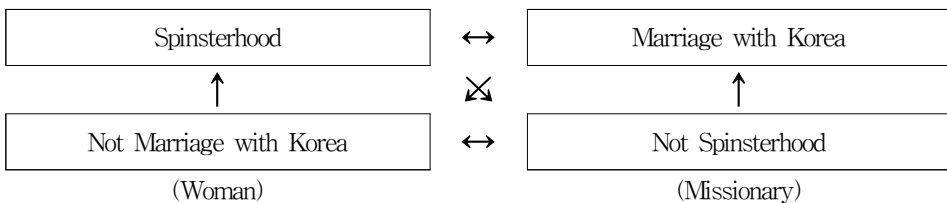
서평은 한국이라는 땅에서 선교와 사회사업을 실천하게 된다. 서평은 매사에 능동적 이어서 복음전도뿐 아니라 위생, 교육, 의료, 구제사업 등에도 열심이었다(148). 이일학교에 학생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마을 마을로 찾아다녔으며 창녀나 윤락 여성을 찾아가 구출하고 장학, 구제사업 모두에서도 개개인을 찾아가서 나눠주는 공격형 선교를 행했다(148). 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휴가도 없었고 최소한의 식사와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늘 뛰어다녔고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거나 오락 취미 등의 쾌락을 즐기는 일은 전혀 없었다(144). 월급의 절반은 교회에 바쳤고 학교 경영과 장학, 굶주린 사람에게 모두 나누었다(145). 동료 선교사들에게 위선자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고무신 한 켄레와 무일푼의 삶을 기쁘게 영위했다(146).

이 같은 서평 사역의 수혜는 한국 여성들에게 돌아갔으며 그의 사역으로 기독교인이 된 여성들은 결과적으로 신앙, 생활, 교육 모든 면에서 자기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서평이 여성 사역에 헌신했던 이유는 그의 눈에 한국 여성들의 삶이 비참했기 때문이다(68). 남녀 차별과 여성 문맹이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 교육의 시급성을 보았다. 이일

학교를 세웠을 뿐 아니라 재학한 여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는 양잠과 직조를 가르쳤고 (71-2) 까다롭다고 미움을 받으면서도 위생에 철저하게 교육했다(86). 졸업생 대부분이 교사나 유학생, 간호사, 전도부인, 전도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수혜자들 대부분이 서평의 동역자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평이 살았던 삶을 본받아 그대로 살았다. 서평이 가르친 제자들에는 김화남, 강계생, 오복희 등이 있는데 김화남 전도사의 경우, 서평 교장의 도움으로 공부했으므로 고령까지 외로운 할머니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였고(96), 강계생은 제주도 전도사로, 78세 이후에는 권사로, 여전도회 연합회장으로 활동하였는데 서평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사생활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였다(99). 오복희는 서평이 가장 총애하는 제자였는데 임종 때 유언대로 광주천변의 빈민들 구제, 귀일원(신체장애인 수용소) 전도사 사역으로 일생을 보냈다. 이와 같이 서평은 불우한 여성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관계에 있어서도 본을 보여 사랑의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형성하였고 그들 역시 사랑의 실천자로 변화시켰다. 이는 ‘상호적 사랑’ 즉,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 더 고상한 사랑이라는 Outka(1972: 176)의 사랑법도 실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사랑법은 이타주의뿐 아니라 상호간의 사랑에 바탕을 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Outka, 1997: 487) 또 다른 제자를 낳아 헌신케 하는 일이기도 하였음을 알게 해준다.

### (3) 여자와 선교사로서의 서서평: 패러독스적 의미



그는 여성로서는 독신의 삶을 살았지만 한국과는 결혼하였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미인이고 한국말도 잘했던 그녀가 54년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이유는 성격은 남자였기 때문이다(63). 서평은 남성적인 남자가 싫었을 뿐 아니라 자신처럼 급한 성격의 여성은 결혼과 육아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64). 결과적으로 그 자신의 행

복을 위한 동지를 트는 일을 포기했다. 그는 마 19:12와 고전 7:33-34 말씀을 자기 삶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여 오직 하나님 사업에만 심혈을 기울였다. 서평이 독신을 부르심으로 받아들였기에 한국과 결혼하여 헌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한국과의 결혼 발언은 하나님과 한국 사랑에 대한 자기희생적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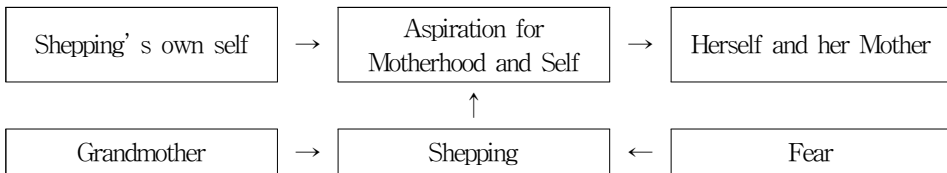
서평이 23년 한국에 사는 동안 본국에 돌아간 것은 단 한 번이었다(135). 안식을 꺼렸던 이유는 한국에서의 사역이 많았기 때문이다. 항상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마 19:29)” 이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마 12:50)”의 말씀으로 결혼에 대한 대답을 대신했다. 어머니나 형제를 만나는 것은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의 대답은 한국만을 가족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그의 의지이기도 했다. 그래서 14명이나 되는 입양아를 키웠고 빈민과 환자들을 일가친척이라 불렀다(136). 18년 만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서평의 초라한 모습에 기가 막힌 어머니는 집안 망신이라며 문전박대를 하였고 일제 치하에서 신음하는 한국 민족을 위해 일하느라 그렇게 된 딸을 이해해주지 못 하는 어머니를 서평은 원망하지 않고 더욱 한국 사랑을 키울 뿐이었다(137).

그가 한국을 사랑함은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 이웃(원수) 사랑에 능가하는 것이지만 이는 단순한 한국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을 우선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가 즐겨 인용하던 마19:29과 마12:50 모두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자기 것을 포기하는 헌신을 강조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가족이라는 뜻이 함축하듯 하나님 우선의 신앙인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원수라도 사랑함” 즉 이웃 사랑의 본질로 나타난 것이다. 두 사랑은 서평의 삶에서 밀접하게 연결된다.

그렇다면 서평의 사랑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 그의 자기대상은 물론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충분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기에 타인을 품을 수 있었다. 나아가 그가 돌보던 한국인들도 바로 그의 가족, 즉 자기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서평이 더 많이 베풀고 한국인들은 받기만 했다는 공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호적 사랑, 즉,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상호적 사랑이 가능하게 했던 사랑이었다.

### 3. 행위주 모형

#### (1) 서서평: 전반



행위주 모형을 통해 서서평 삶의 초반 6개의 행위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서평의 욕망 추구하고 관련된 축부터 살펴보면 ‘주체(subject)’ 서서평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나서게 되는 이야기 전개에서 욕망 추구의 ‘대상(object)’은 모성과 그 모성을 통해서 재확인될 자아이다. 이 욕구 추구는 사생아로 태어나 할머니 손에 키워진 서서평이 왜 미국행을 결정했고 어머니를 만나는 위험스러운 도전을 감행했는가를 잘 설명해준다. 다음으로 전달의 축을 살펴보면 주체의 가치체계 관리자 역할을 하는 ‘발신자(sender)’는 자기 자신으로 확인된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 추구를 통해 수혜를 받는 ‘수신자(receiver)’는 자기 자신과 어머니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능력의 축을 살펴보면 서서평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 능력을 주는 ‘조력자(helper)’는 이 행위를 동조해준 할머니였고, ‘방해자(opponent)’는 어린 나이에 혼자 미국으로 건너가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와 조우하는 일에 때때로 끼어드는 두려움이었다.

#### (2) 서서평: 후반



후반의 서평 삶은 모든 것이 바뀐다. 미국에서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

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한다. 욕망의 축에서 그의 추구 ‘대상(object)’은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과 미지의 식민지 땅 한국을 섬기는 것으로 변한다. 전달의 축에서 가치체계 관리자인 ‘발신자(sender)’는 하나님과 한국인이 되었다. 동시에 ‘수신자(receiver)’도 하나님과 한국인이 되었다. 그의 사명을 주고 사명을 이루도록 도와준 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가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수혜를 통해 성장했던 한국인 덕분이기도 하였다. 서평의 사명 실천의 수혜자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과 이 사명의 열매를 누렸던 한국인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능력의 축을 살펴보면, 서평이 하나님과 한국을 섬기는 사명에 있어 ‘조력자(helper)’는 하나님, 서평, 한국인 모두였으며, ‘방해자(opponent)’는 선교사와 간호사 되는 것 모두를 반대했던 어머니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서평에게 진정한 가족은 ‘발신자,’ ‘수신자,’ ‘조력자’ 모두에 위치하고 있는 대상들, 즉 하나님과 한국인으로서는, 서평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자기나 가족 사랑보다 최우선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평의 사랑의 실천을 가능하게 했던 1차 선행되는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었으며 점차 사역을 진행하면서 한국인들도 그에게 2차적 자기대상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준다.

## VII. 결론

위에서 발견된 서서평의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의 함축적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평의 모든 사랑의 핵심과 원천은 하나님 사랑이다. 서평의 삶을 전반과 후반으로 대별해 볼 때, 그의 삶의 가치관은 극명하게 대립된다. 그 전환점에 개종을 통한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위치해 있다. 서평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계명에 근거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다. 서평의 삶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선명하게 연결되어 함께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Nigren(1953)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규정한 아가페의 성격을 가장 닮아있는 사랑법을 나타낼 수 있었다. 획득적인 욕망이나 동경보다는 희생적인 베풀음, 자기중심적이기보다 이타적이며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자기의 생명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에 그것을

상실하는 사랑을, 결핍에 의지한 소유 의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풍부한 사랑을 받았기에 베푸는 자유를, 인간적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사랑을, 그리고 대상의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동기지향적인 사랑이 아닌 비가치판단적이며 비동기적인 사랑이었다.

둘째, 서평의 이웃 사랑은 자기 사랑보다 우선되었다. 자기 사랑을 긍정한 Outka(1997)의 사랑법이 아니라 자기 희생만이 이웃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는 Nigren의 사랑법에 가깝다. Hallet(1989)의 구분대로라면 자기 망각(Self-forgetfulness)과 자기 부인(Self-denial)에 해당된다. 서평에 대한 모든 일화, 독신의 삶, 임종의 순간과 유언, 임종 이후 남긴 무일푼의 메시지는 모두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 유익도 구하지 않은 삶이었음을 시사한다. 경제적 풍요와 성공적인 인생을 지향하였던 서평의 어머니나 제국주의적 사고에 젖어있던 타 선교사들과 비교해 볼 때, 서평의 이러한 면모는 확연히 드러난다.

셋째, 서평의 이웃 사랑은 원수사랑의 본질을 띠었다. 서평은 익숙하고 안정지향적인 혈연 가족을 떠나 가난하고 억눌리고 불우한 한국 여성들과 자신을 동일화하고 아예 한국인이 되어 한 가족으로 살았다. 여기서 원수사랑은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민족적 경계를 넘어 사회적 동류인의 개념 속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예외 없이 사랑함을 의미한다(조경철, 2000: 136).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서평의 닉네임은 이 점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서평이 가족을 떠났다는 사실은 경계를 넘어서 함께 하기 불편한 사람들을 일방향적으로 사랑하는, 모든 편견과 기호를 넘어선 보편적 사랑을 지향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대 타선교사들에게 없었던 비제국주의적이며 모국 초월적인 이타적 사랑이었다. 사랑할 가치도 이해관계도 개입되지 않은, 제3의 나라를 고국보다 우위에 두는 사랑이었다(눅 14:26). 따라서 Outka(1972)가 강조한, 이웃과 동등한 선상에서의 자기 긍정이나, Post(1990)가 상정한, 대상에 대한 선호적 선택이나 감정적 역동의 증시는 서평의 삶과는 무관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서평의 이웃 사랑은 상호적이었다. 서평은 원수(이웃)를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그를 친구로 만들어(Outka, 1972: 176) 보다 이상적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다. 서평은 그가 구제하고 선교한 한국인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14명이나 되는 고아를 입양하였을 뿐 아니라 학교를 세워 제자들과 한 곳에 기거하면서 결혼의 개념과 유사하게 한국인들과 동고동락했다. 이타주의뿐 아니라 상호간의 사랑에 바탕을 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주고(Outka, 1997: 487) 한국인들도 서평에게 또는 다른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했으며 자기대상이 되어주도록 했다. 서평이 키우고 가르친 많은 제자들은 이후 다른 제자를 낳아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헌신하였다.

다섯째, 서평은 이기심이 아닌 성숙한 자기애를 소유하고 있었다. 부모에게 버려졌던 서평이었지만 개종 이후 그가 새로운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 사실을 두고 볼 때, 그를 돌보고 사랑하여 건강한 자기(Self) 구조를 가지도록 해준 자기 대상은 하나님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한국인 이웃도 그에게는 가족 즉, 자기대상이었던 것이다. 서평과 한국인은 상호 이웃이었고 상호 헌신되어 있었다. 서평이 이기심이 아닌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근원에는 이러한 자기대상들의 공헌이 있다.

서평은 한국에서 남다른 이웃 사랑에의 헌신 때문에 선교사, 간호사, 교육가, 사회사업가 등의 다수의 별칭을 가지고 있다. 서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그의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이 배태되었다.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가는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 태도를 결정한다. 그가 온전하신 하나님 사랑에 전폭적으로 기대어 있었기 때문에 평생 넘어짐이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자들을 품고 헌신할 수 있었다. 이기심 없는 이웃 사랑을 아낌없이 실천하였지만 그렇다고 자기를 방기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가 보여준 사랑은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행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서평은 희생했으나 또한 얻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아가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많은 제자들과 가족을 얻어 자신이 베푼 사랑만큼이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서평이 보여준 선교지에서의 동일화 사고와 성육신 태도는 오늘날 교회들의 선교 사역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김은주 (2015). 서서평의 교육사역 이해와 기독교교육에 대한 함의. **신학과 사회**, 10, 45-90.
- [Kim, E. J. (2015). Understanding of Elizabeth J Shepping's Educational Mission and Its Challenge to Christian Education. *Theology and Society*, 10, 45-90.]
- 박인희 (2016). 원수사랑, 하나님 나라: 자비와 평등의 공동체적 이상. **신학논단**, 84, 281-313.
- [Park, I. H. (2016). Love for Enemy and the Kingdom of God : Ideals of Compassion and Equality in the Early Christian Community. *Theological Forum*, 84, 281-313.]
- 백준성 (2017).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서울: 두란노.
- [Baek, C. S. (2017). *A Little Jesus Shepping*. Seoul: Duranno.]
- 신항식 (2005). **시각영상 기호학**. 서울: 나남.
- [Shin, H. S. (2005). *Visual Image Semiotics*. Seoul: Nanam]
- 안주아 (2008). 애니메이션 영화 <슈렉>의 기호학적 분석: 등장인물의 이미지 및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사회학연구**, 8, 261-285.
- [An, J. A. (2008). Semiotical Analysis of Animation Movie 'Shrek': Characters' Images and Ideologies. *Sociology Studies*, 8, 261-285.]
- 양창삼 (2012). **조선을 섬긴 행복: 서서평의 사랑과 인생**. 서울: Serving the People.
- [Yang, C. S. (2012). *Happiness to Serve Chosun*. Seoul: Serving the People.]
- 윤매옥 (2016). 일제강점기 서서평 간호선교사의 삶과 간호. **JCCT**, 2(1), 71-78.
- [Yun, M. O. (2016). Shepping's Life and Nursing in Japaneses Period. *JCCT*, 2(1), 71-78.]
- 이윤석·김슬기 (2011). 한국 영화에 나타난 아버지 캐릭터의 부성성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2), 215-228.
- [Lee, Y. S. (2011). Research on the Semiotic Analysis of Father Characters' Paternity in Korean Film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1(2), 215-228.]
- 임희모 (2013). 전문인선교사 서서평의 통전적 선교 전략과 영성. **신학논단**, 74, 183-212.
- [Yim, H. M. (2013). The Holistic Mission Strategy and Kenotic Spirituality of Professional Missionary Elisabeth J. Shepping. *Theological Forum*, 74, 183-212.]
- 임희모 (2015a). 서서평 선교사의 성육신적 선교. **선교와 신학**, 36, 173-204.
- [Yim, H. M. (2015a). Incarnational Mission of Missionary Miss Elisabeth J.



- Shepping, R.N. *Mission and Theology*, 36, 173-204.]
- 임희모 (2015b).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서평 선교사의 선교 사역: 선교적 교회 형성에 주는 함의. **선교신학**, 38, 265-297.
- [Yim, H. M. (2015b). The Missionary Activities of Miss Elisabeth J. Shepping R. N. as a Missional Christian: Implications for Formation of Missional Church. *The Korea Society of Mission Studies*, 38, 265-297.]
- 이 란 · 이관직 (2014). 자기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중독 이해: 목회상담적 적용 가능성. **목회와 상담**, 22, 142-278.
- [Lee, R. & Lee, K. J. (2014). Understanding Addiction from a Perspective of Self Psychology: Implications for Pastoral Counseling. *The Korean Journal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22, 142-178.]
- 이정윤 (2010).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의 구조 기호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 **조형미디어학**, 13(4), 205-210.
- [Lee, J. Y. (2010). A Study on Analysis of Animation Storytelling based on Structural Semiotics. *The Treatise on The Plastic Media*, 13(4), 205-210.]
- 이종록 (2015). 무명옷에 고무신 보리밥에 된장국 - 서서평의 비제국주의적 정신이 갖는 시대적 의미에 대한 연구. **담론** 201, 18(4), 69-94.
- [Lee, J. L. (2015).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Non-imperialism of Shepping in Her Times. *Discourse* 201, 18(4), 69-94.]
- 이창호 (2013). 자기사랑에 관한 현대 기독교윤리학계의 담론 탐색. **기독교사회윤리**, 25, 121-164.
- [Lee, C. H. (2013). A Study on the Discourse of ‘Self-love’ in Contemporary Christian Ethics. *Christian Social Ethics*, 25, 121-164.]
- 이창호 (2016).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성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 탐구. **장신논단**, 48(1), 255-281.
- [Lee, C. H. (2016). A Theological and Eth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od’s Love/ Love for God and Neighbor-love/ Love for Neighbors : Focusing on Outka, Post and Moltmann.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48(1), 253-281.]
- 이혜숙 (2016).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서서평의 전기적 생애사 연구. **신학과 사회**, 13, 431-476.
- [Lee, H. S. (2016) A Biographical Study of E. J Shepping with Feminist Perspective, 13, 431-476.]

- 조경철 (2000). 예수와 원수사랑 계명과 하나님나라 선포: 예수와 하나님나라 윤리에 관한 연구. *신학과 세계*, 41, 128-148.
- [Cho, K. C. (2000). Das Gebot von der Feindesliebe und die Verkündigung von der Gottesherrschaft Jesu. *Theology and the World*, 41, 128-148.]
- 차성호 (2014). 근대적인 전문 사회사업의 선구자 서서평. *담론* 201, 17(4), 29-57.
- [Cha, S. H. (2014). A Study on the Modern, Professional, Social Mission Work of Ms. Elisabeth Shepping(1880-1934). *Discourse* 201, 17(4), 128-148.]
- 차성호 (2015). 서서평의 누미노제 체험과 지역사회서비스의 이해-칼 융의 무의식 이론에 기대어. *담론* 201, 18(4), 35-68.
- [Cha, S. H. (2015). Study on a Local Social Service Focusing on Elisabeth J. Shepping's Numinos Experience with Special Reference to Carl Gustav Jung's Unconscious Theory. *Discourse* 201, 18(4), 35-68.]
- 홍순원 (2015). 자기사랑을 통한 도덕 심리학의 기초 설정. *신학과 실천*, 47, 289-311.
- [Hong, S. W. (2015). The Establishment of Moraethics in the Light of 'Selflove.' *Theology and Praxis*, 47, 128-148.]
- 홍이화 (2011a). 자기사랑을 위하여: 건강한 나르시시즘. *기독교사상*, 628, 262-271.
- [Hong, E. H. (2011a). For Self Love: Healthy Narcissism. *Christian Philosophy*, 628, 262-271.]
- 홍이화 (2011b). *하인즈 코헷의 자기 심리학 이야기*1.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Hong, E. H. (2011b). *Kohut's Self Psychology Story 1*. Seoul: Korea Psychology Therapy Institute.]
- Bingerman, K. A. (2000). The New Narcissist and Pastoral Counselling. *Pastoral Psychology*, 48, 348-359.
- Brown, G. T. (1962). *Mission to Korea*. Atlanta: Board of World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 Douma, J. (1997). *Christian Morals and Ethics*. Trans. Shin, W. H. Seoul: CLC. (Original work published 1983).
- Fischer, J. (1994). *Leben aus dem Geist*. Zurich: Theologischer Verlag.
- Greimas, A. J. (1997). *Du Sense I, II*. Trans. Kim, S. D. Seoul: Human Love. (Original work published 1962-8).
- Hallet, G. L. (1989). *Christian Neighbor-Love: An Assessment of Six Rival Versions*. Washington D. 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Knox, M. B. (1926). An Interview. *The Korea Mission Field* (Oct.), 215-6.

- Knox M. B. & Talmage E. E. (1934). Miss E. J. Shepping: Appreciation, *The Missionary Survey* (Oct.), 218-219.
- Kohut, A. (1984). *How Does Analysis C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igren, A. (2013). *Agape and Eros: The Christian Idea of Love*. Trans. Ko. G. K. Seoul: Christiandigest. (Original work published 1953).
- Nisbet J. S. (1934). *Letter tp Mr. Green*. July 3. 1934. (private letter)
- Outka, G. (1972). *Agape: An Ethical Analysi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Outka, G. (1987). Following at a Distance: Ethics and the Identity of Jesus. In Green. G. (Ed.) (1987). *Spiritual Authority and Narrative Interpretation*. Philadelphia: Fortress.
- Outka, G. (1992). Universal Love and Impartiality. In Santurri, E. N. and Werpehowski, W. (Eds.). *The Love Commandment: Essays in Christian Ethics and Philosophy*.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Outka, G. (1997). Agapeistic Ethics. In Philip Q. and Sharles T. (Eds.) *A Companion to Philosophy of Religion*. Oxford: Blackwell.
- Post, S. (1990). *A Theory of Agape*. London: Bucknell University Press.
- Post, S. (1994). *Spheres of Love*. Dallas: SMU Press.
- Shepping, E. J. (1920). District Nursing II. *KMF* (1920), 205-7.
- Swinehart, L. H. (1937). Elise Johanna Shepping: A Missionary Deborah. In Hallie P. W. & Sarah L. V. T. (Eds.). *Glorious Living: Informal Sketches of Seven Women Missionaries of the Presbyterian Church*. Atlanta: Committee on Woman's Work, Presbyterian Church.
- Tournier, P. (1991). *The Strong and the Weak*. Trans. Kwon, M. D. Seoul: Voice. (Original work published 1963).

논문초록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본  
〈서서평〉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이 란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 박사)

지상선 (교신저자/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 박사 수료)

본 연구는 독일계 미국 간호 선교사 ‘서서평’의 삶을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의 관점에서 기호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장 최근 출판된 서서평의 전기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분석 텍스트로 정하였다. 사용한 기호학 방법은 계열체 분석, 기호 사각형 모형, 행위주 모형이다. 이를 통해 밝혀진 서평의 사랑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평의 모든 사랑의 핵심과 원천은 하나님 사랑이었다. 둘째, 서평의 이웃 사랑은 자기 사랑보다 우선되었다. 셋째, 서평의 이웃 사랑은 원수사랑의 본질을 띠었다. 넷째, 서평의 이웃 사랑은 상호적이었다. 다섯째, 서평은 이기심이 아닌 성숙한 자기애를 소유하고 있었다. 부모에게 버려졌던 서평을 돌보고 사랑하여 건강한 자기(Self) 구조를 가지도록 해준 자기 대상은 하나님과 한국인 이웃이었다. 서평이 성숙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근원에는 이러한 자기대상들의 공헌이 있다.

주제어 : 서서평, 이웃 사랑, 자기 사랑, 기호학 분석

## 엠든(Emden)의 종교개혁과 변혁에 관한 역사적 고찰

### A Historical Research on the Reformation in Emden and its Transformation

최용준 (Yong Joon (John) Choi)\*

#### Abstract

This article is a historical research on how the reformation movement in Emden, Germany took place in the 16th century and transformed the whole city. At that time Emden was a shelter to the protestant refugees from Europe who were persecuted by the Catholics. Johannes a Lasco, Gellius Faber, Albert Hardenberg and Menso Alting did so many remarkable ministries in Emden. Therefore, Emden became one of the most important reformation cities in Europe, together with Wittenberg and Geneva and so was called the 'Geneva of the north' and nominated as the first reformation city in Europe in 2017. Through the synod in 1571, the reformed church was firmly established in Emden as well as in Europe. The population increased from 3,000 to 20,000 due to the protestant refugees so it became one of the biggest cities in Germany and the most important port of Europe. Most protestant refugees who came to Emden were high skilled workers such as textile traders, grain traders, craftsmen and skilled printing workers. They made an enormous contribution for the economic and cultural prosperity of Emden. At the same time, various ministries were done to help the poor. In this article, therefore, an investigation is made to see how this reformation happened and changed Emden. In conclusion, the implications of this reformation to Korean context are drawn.

Key Words : Emden, reformation, Johannes a Lasco, Gellius Faber, Albert Hardenberg, Menso Alting, transformation

---

\* 한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Handong Global University),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crosspower@handong.edu

2017년 09월 29일 접수, 11월 03일 최종수정, 12월 11일 게재확정

## I. 서론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하지만 필자는 ‘Reformation’을 ‘종교개혁’으로 번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Reformation’은 단지 ‘종교개혁’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 변혁(Transformation)’이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예 중 하나가 독일의 엠덴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개신교도들이 박해를 피해 16세기 중반에 이곳에 오기 전까지 엠덴은 매우 가난하고 인구가 약 3천명인 작은 어촌이었다(Voß, 2014: 15). 하지만 이곳에 왔던 개신교 피난민들은 다수가 무역상인, 곡물업자 및 인쇄기술자 등 고급 인력들이어서 이들을 통해 엠덴은 문화적,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누리면서 인구도 약 2만 명으로 급증하여 유럽에서 가장 큰 항구도시가 되었고 독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들 중 하나가 되었다.<sup>1)</sup> 또한 이곳은 비텐베르크, 제네바와 함께 종교개혁 중심지 중 하나로 많은 목회자들을 훈련시켜 네덜란드 지역에 파송하고 재정도 지원하면서 개혁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여 ‘북구의 제네바’라는 별명도 얻었다. 따라서 2013년에 유럽개신교회 협의회에서는 이곳을 유럽의 ‘첫 번째 종교개혁도시(reformationsstadt)’로 지정했다<sup>2)</sup>([www.luther2017.de/de/neuigkeiten/emden-ist-erste-reformationsstadt-europas](http://www.luther2017.de/de/neuigkeiten/emden-ist-erste-reformationsstadt-europas)).

당시 엠덴이 속한 프리슬란트(Friesland) 지역은 특별히 “프리슬란트의 자유(Friesische Freiheit)”라고 불리는, 정치적으로 군주가 없이 족장(Häuptling)이 다스리는 상당히 민주적인 사회였으므로 개신교도들이 박해를 받자 특히 엠덴에 피난처를 찾아 몰려들었다([de.wikipedia.org/wiki/Friesische\\_Freiheit](http://de.wikipedia.org/wiki/Friesische_Freiheit)). 이 중에는 학식이 높은 엘리트들도 함께 왔는데 브레멘(Bremen)과 뤼네부르크(Lüneburg)에서 루터교 신학자들도 왔고 비텐베르크에서 안드레아스 칼슈타트(Andreas Karlstadt)도 왔으며 멜키오르 호프만(Melchior Hoffman)은 슈베비쉬 할(Schwäbisch Hall)에서 왔고 네덜란드에서도 많은 영적 지도자들 및 평신도들이 왔다.

엠덴의 개혁을 시작하던 지도자들은 이미 스위스 종교개혁자들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가령 엠덴 근처 보르썸(Borssum)과 올더썸(Oldersum)에서 1531년부터 1548년까지 목회하던 헤르마누스 아퀴로몬타누스(Hermannus Aquilomontanus, 1488-1548)는 취리

1) 이런 의미에서 1561년에서 1611년까지를 엠덴의 “황금시대(Das Goldene Zeitalter)”라고 부른다.

2) 이에 관련된 동영상은 [www.emden.de/kultur/reformationsstadt-europas/kurzfilm](http://www.emden.de/kultur/reformationsstadt-europas/kurzfilm) 참고.

히(Zürich)의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와 이미 서신을 교환하면서(Krömer, 2007: 31-67) 이 지역에서 성상을 제거하는 등 개혁운동을 최초로 시작하였으며(Smid, 1974: 152) 나중에 엠덴으로 온 폴란드 출신의 인문주의자 요하네스 아 라스코(1499-1560)도 스위스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았다. 아 라스코가 엠덴으로 오면서 아퀴로몬타누스를 존경하며 ‘아버지(Vater)’로 불렀다고 한다(Krömer, 2007: 17-18). 그 후 켈리우스 파버(1490-1564), 알버트 하르텐베르그(1510-1574) 및 멘조 알팅(1541-1612) 등 개혁교회 지도자들 중 알팅은 특히 장 칼뱅(Jean Calvin, 1509-1564)의 영향을 받아 칼빈주의를 엠덴에 심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당시 엠덴에 있던 루터교 신학자들과 재세례파 등 다양한 교파 지도자들<sup>3)</sup>과 계속 대화하면서 일치를 추구했으며 또한 여기서 일어난 개혁을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보급시키는데 공헌하기도 했다(reformation-cities.org/cities/emden).

이처럼 엠덴의 종교개혁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개혁의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작지만 함께 성장하는 것(Concordia res parvae crescunt: Durch Eintracht wachsen kleine Dinge)”이 엠덴 시청의 로고이기도 한데 다양한 그룹의 시민들이 모여 살던 엠덴의 역사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도 엠덴은 인구 약 5만 명으로 오스트프리슬란트에서 제일 큰 도시이며 학문의 중심지인 동시에 독일의 세계적인 자동차회사인 폭스바겐(Volkswagen)이 파사트(Passat) 모델을 제조하여 전 세계로 수출하는 자동차 수출항구로서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크다.

이 엠덴의 개혁에 대해 영어, 독일어 및 네덜란드어로 된 연구물들은 많이 있으나 한글로 된 선행연구 및 저서는 거의 없고 개혁주의학술원에서 출간한 『칼빈 시대 유럽대륙의 종교개혁가들』에서 김재윤이 “아 라스코의 삶과 신앙, 그리고 개혁교회”라는 논문을 게재한 것이 있을 뿐이다(개혁주의학술원, 2014). 하지만 유럽의 종교개혁사를 볼 때 엠덴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곳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엠덴의 개혁 운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났으며 그것이 이 도시를 어떤 방식으로 변혁시켰는지 고찰한 후 이 운동이 남긴 유산은 무엇이며 이것이 한국 교회 및 사회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결론적으로 도출하겠다.

3) 이 중에는 매우 신비주의적 성향을 지닌 헨드릭 니클라스(Hendrik Niclaes)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1540년에 엠덴에 와서 ‘사랑의 집(Haus der Liebe)’라는 운동을 했으나 나중에 이단으로 규정되었다([www.ostfriesischelandschaft.de/fileadmin/user\\_upload/BIBLIOTHEK/BLO/Niclaes.pdf](http://www.ostfriesischelandschaft.de/fileadmin/user_upload/BIBLIOTHEK/BLO/Niclaes.pdf)).

## II. 엠든의 종교개혁과 변혁

### 1. 역사적 배경

먼저 언급해야 할 중요한 점은 엠든의 개혁이 마틴 루터(Martin Luther)나 칼뱅에 의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다양한 준비과정을 거친 열매였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 중 주목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디보치오 모데르나(Devotio Moderna: 근대적 경건)” 운동이다. 이 운동은 1378년 히어트 흐로터(Geert Grote)에 의해 네덜란드의 데벤터(Deventer)에서 시작되었고 14-15세기에 즈볼레(Zwolle)의 “공동생활 형제단(Broeders van het Gemene Leven)” 운동으로 확산되어 북유럽의 많은 지역에 큰 영향을 주었다(Smid, 1974: 114). 이들 형제단원들은 초대 교회 성도들의 복음적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신학적 사변이나 외면적 형식보다는 영적 내면성의 충실 및 수도원 개혁 그리고 믿음이 약화된 성직자들의 재교육에 힘썼다. 이 중에 위크레흐트(Utrecht)의 성 히에로니무스학교(Sint-Hiëronymusschool) 교장이 된 힌느 로드(Hinne Rode)가 있다. 나중에 그는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베슬 간스포르트(Wessel Gansfort, 1419-1489)의 성만찬에 관한 개혁적인 글을 마틴 루터에게 전달하기도 했다([nl.wikipedia.org/wiki/Hinne\\_Rode](http://nl.wikipedia.org/wiki/Hinne_Rode)). 이들은 또한 신약성경 헬라어와 다른 성경연구에 집중했으며 구어체로 된 성경의 보급을 힘썼고 이를 위한 인쇄 출판에도 선구자였다. “그리스도를 본받아(*De imitatione Christi*)”를 저술한 토마스 아 캠프시스(Thomas à Kempis, 1380-1471)가 이 운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에라스무스(Erasmus of Rotterdam)도 이 운동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 인문주의자로 “우신예찬(*Stultitiae Laus*)”을 출판하여 당시 교회의 부패에 대해 비판하였고 헬라어 신약성경의 본문을 편집하여 출판했다(1516년). 차후에 언급하겠지만 엠든의 개혁자들 중 많은 이들이 이 운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종교개혁을 준비한 매우 중요한 공헌이었다.

이어 주목할 두 번째로는 네덜란드 북부 흐로닝겐(Groningen) 근처에 있던 아두아르트 수도원(Klooster van Aduard)에서 일어난 인문주의 운동이다. 이 수도원은 당시 북유럽의 기독교인문주의 교육의 중심지로 이곳에서 간스포르트, 에라스무스보다 앞선 인문주의자였던 루돌프 아그리콜라(Rudolf Agricola, 1443-1485) 및 독일에서 온 알렉산더 헤기우스(Alexander Hegius, 1439-1498) 등은 15세기에 소위 “아두아르트 씨클



(*Aduarder kring*)”을 형성하였는데 이 중에 특히 간스포르트는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을 지지하며 면죄부, 교황권 및 가톨릭의 성만찬 교리에 대해 비판하고 성경연구를 강조하여 루터 및 엠든의 개혁에 큰 영향을 주었고 필립 멜랑흐톤(Philip Melancthon)도 이를 인정하였다(nl.wikipedia.org/wiki/Abdij\_van\_Aduard).

엠든은 독일과 네덜란드 북부 지역 사이에 있는 돌라트(Dollard) 만의 독일 지역에 위치한 항구이지만 16세기에는 현재와 같은 국가적 구별이 없었고 언어(mittelniederdeutsche)도 같았다. 당시에 루터의 개혁사상이 퍼지면서 오스트프리스란트에도 그의 글들이 읽히게 되었는데 이는 이곳의 영주였던 에드자르트 1세(Edzard I)가 1519년에 이미 이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520년 엠든에서 최초로 개신교 예배를 대교회(Große Kirche)에서 인도한 게오르크 아포르타누스(Georg Aportanus: ca. 1495-1530)는 “디보치오 모데르나”의 영향을 받고 “공동생활 형제단”에서 훈련받은 후 최초로 개혁주의적 성만찬을 1526년에 제정하였는데 이는 츠빙글리(Huldrych Zwingli)와 칼슈타트의 사상과도 연결되어 있었다(Welker, Beintker, & de Lange, 2016: 147). 1529년에 에드자르트 1세의 아들인 엔노 2세(Enno II)가 영주가 된 후 그가 초청한 브레멘의 루터교 신학자 요한 펠트(Johann Pelt) 및 요한 티만(Johann Tiemann)이 엠든에 와서 설교하였다.<sup>4)</sup> 재세례파들도 엠든에 많이 와 1530년에 평신도 지도자였던 호프만은 300여명에게 세례를 주며 재세례파 운동을 시작하여 엠든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유럽에서 취리히 다음으로 많았다(Voß, 2014: 15).

1568년부터 80년간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네덜란드 개신교 난민들이 박해를 피해 엠든으로 왔다. 그러면서 엠든은 “하나님의 피난처(Herberge Gottes)”라고 불렸으며 나아가 다양한 개혁가들이 사역하면서 큰 변혁을 이루게 되었다. 가령 스위스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돌아온 게하르트 톰 캠프(Gerhardt tom Camp)는 1559년에 엠든에 도서관을 설립했다.<sup>5)</sup>

당시 엠든은 문화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변영을 구가하였는데 이는 당시 개신교 피난민들 다수가 직조상인들, 곡물업자들 그리고 인쇄기술자들이어서 도시의

4) 하지만 엠든의 대교회에서는 1540년까지 가톨릭의 미사와 개신교회 예배가 동시에 드려졌다. (Lange van Ravensway, 2013: 670)

5) 1993년에 이 도서관은 요하네스 아 라스코의 이름을 따서 새롭게 명명되었으며 지금도 종교개혁 및 근대 종교사에 관해 매우 중요한 도서들을 소장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www.jalb.de).

발전에 공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1574년부터 1576년 동안 르네상스식으로 건축된 엠든 시청(Emder Rathaus)은 암스테르담(Amsterdam) 출신의 건축가 라우렌스 판 스테인빙클(Laurens van Steenwinkel)이 당시 엠든이 누리던 ‘황금시대’를 상징하는 건물로 설계하였는데 당시 안트베르펜(Antwerpen) 시청건물을 모델로 하였다(Lange van Ravenswaay, Voss & Jahn, 2014: 20). 이는 안트베르펜이 15세기 세계 무역과 부의 중심지였으나 스페인 군대에 의해 함락된 이후 그 중심이 엠든으로 옮겨졌음을 상징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시청 건물 안에는 플레미시 화가였던 요하네스 페르하겐(Johannes Verhagen)이 1576년에 그린 큰 그림이 걸려 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바위를 쳐 물을 내어 사람들이 마시는 장면이다(landesmuseum.eezeebie.com/places/details/8). 이것은 당시 네덜란드 개신교도들이 박해를 피해 엠든에 와서 누리던 경제적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엠든에서의 개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대표적 지도자들이었던 아 라스코, 파버, 하르텐베르그 및 알팅의 사역들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동시에 당시에 중요했던 사회변혁과 빈민구제사역 및 엠든 총회에 대해 살펴보겠다.

## 2. 요하네스 아 라스코(Johannes a Lasco, 1499–1560)

### (1) 폴란드에서 엠든으로(1499–1542)

요하네스 아 라스코(폴란드식 이름은 얀 라스키: Jan Łaski)는 폴란드 귀족 출신으로 바르샤바 근처 라스크(Łask)에서 태어나 크라쿠프(Krakow)에서 자란 후 이탈리아에서 대학공부를 했다. 귀향한 후 1521년에 국왕 비서관 및 그니에즈노(Gniezno) 교구 주임 사제가 되었다. 1524년 그는 취리히에서 츠빙글리, 바젤(Basel)에서 에라스무스를 만났는데 특별히 에라스무스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아 1525년에 그의 집에서 반년 간 함께 살며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츠빙글리의 후계자인 불링거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에라스무스가 나를 인도하여 신학에 몰두하게 하였고, 진정한 종교를 만나게 해주었다.” (www.luther2017.de/kr/reformation/und-ihre-menschen/johannes-a-lasco) 그 후 그는 인문주의 연구에 헌신하다 1527년 그는 친형 히에로니무스(Hieronymus)와 함께 국제 정치에 개입하여 10년간 헝가리 왕위 계승전에 관여하

면서 여러 갈등에 휩싸여 집안 재정 상태는 악화되어 결국 교회 내 모든 직을 사임하였다. 그 후 1537년에 그는 라이프치히(Leipzig)로 가서 멜랑흐톤을 만났고 네덜란드 출신의 사제이며 신학자인 알버트 하르텐베르그(Albert Hardenberg)를 프랑크푸르트(Frankfurt am Main)에서 만나 함께 루벤(Leuven)으로 가서 개신교계와 교류하였다. 1540년에 그가 폴란드 성직자로서는 처음으로 플레미쉬 여성인 바바라(Barbara)와 결혼하자 이 소식이 폴란드에 알려지면서 독신 서약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그에게 지급되던 보수가 중단되었고 그는 종교재판의 위협을 받아 엠덴으로 도피해야만 했다. 그 후 그는 다시 폴란드 교회의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1542년에 안나(Anna) 백작부인이 제안한 오스트프리스란트 교구장(Superintendent)으로 엠덴에 돌아와 개혁을 시작했다.

## (2) 엠덴에서의 개혁 사역(1542-1549)

그가 엠덴에 오자 많은 성도들이 그를 환영했다. 그는 당시 브레멘에서 사역하던 하르텐베르그에게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는 모두 친척보다 더 따뜻한 사랑으로 성도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들의 정성과 우정 그리고 기꺼이 베푸는 모습을 나는 지나치게 칭찬할 수 없다네. 우리는 함께 조국에 도착한 기분이니네.” (de.wikipedia.org/wiki/Johannes\_a\_Lasco) 그는 1543년부터 오스트프리스란트 지역 교회들을 정비하면서 먼저 교회공동체를 천주교 수도원에 있던 수도사들과 재세례파신도로부터 구별하였고 교회 내 제단과 성상들을 제거했다(Jürgens, 2002: 222-244). 이는 그가 루터보다 츠빙글리적인 개혁을 더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그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였고 다른 교파의 그리스도인들과도 꾸준히 대화하여 가령 당시에 남아있던 프란체스코 수도사들 및 여러 재세례파 대표들도 만났다. 가령 그는 메노 시몬스(Menno Simons, 1496-1561) 및 다빗 요리스(David Joris, 1501-1556)와 토론하였는데 시몬스는 당시 평화를 추구하며 엠덴에 정착한 재세례파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당시에 공적인 교회 지도자가 박해받는 그룹의 지도자들과 공개적으로 토론한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던 일이다. 이들은 서로 의견이 달랐지만 상호 존중하면서 각 주제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 논쟁하면서 시몬스는 이에 대해 깊이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으나 아 라스코는 더 끈질

기게 토론했는데 이는 메노의 입장에 약점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sup>6)</sup> 나중에 이 두 사람은 이 주제에 관한 팸플릿을 출판했으며(Welker, Beintker, & de Lange, 2016: 150) 아 라스코는 별도로 1545년에 본(Bonn)에서 ‘메노 시몬스에 대한 변호(Defensio adversus Mennonem Simonis)’라는 최초의 저작도 남겼다(de.wikipedia.org/wiki/Johannes\_a\_Lasco).

그는 오스트프리슬란트 지역의 교회들을 새롭게 개혁하는 책임을 감당하면서 먼저 제도적 개혁으로는 지역의 “신앙고백교육”을 강화했으며 이를 위해 엠든에서 신학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다. 또한 당회를 재구성하여 교회행정 및 치리를 확립했으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Coetus”라고 하는 오스트프리슬란트 지역 목회자들의 모임을 처음으로 주선하였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그는 당시 여러 논쟁이 되는 주제들을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며<sup>7)</sup> 나중에는 설교 후보자들에 대한 시험도 실시했다. 이 모임에 루터교회 목회자들도 함께 모여 토론을 했는데 그는 언제나 중도적 입장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Jürgens, 2002: 315).<sup>8)</sup> 즉 상호 동의한 공통적인 부분은 강조하되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열어놓았다. 그 결과 양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만찬 및 요리문답을 담은 “교리집(*Moderatio doctrinae*)”을 발간하였고 엠든의 여러 목회자들과 함께 1546년에는 “엠든의 대요리문답(*Grote Emden Catechismus*)”을 출간하였다(Van der Heide, 2002: 24). 이를 통해 그는 교회적, 신학적으로 일치를 추구했으며 화해를 위해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일치된 교리 및 교회의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다(Welker, Beintker, & de Lange, 2016: 150-151). 그래서 그는 한때 교구장직을 내려놓기도 했으나 안나 공작부인의 만류로 다시 직분을 맡았다.

하지만 당시 엠든에는 여전히 천주교를 신봉하는 세력들이 남아 있었다. 특히 요한 폰 팔켄부르크(Johann von Valkenburg, 1506-72) 공이 여러 가지로 아 라스코를 공격했다. 그는 계속해서 수상한 난민들이 엠든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져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다. 그러자 그는 쾰른(Köln)에서의 종교개혁을 교훈으로 삼아 엠든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신앙적 청문회(*Glaubens Verhöre*)”를 실시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만 추방하였다. 하지만 메노나이트 교도들은 평화주의자들이므

6) 1544년 1월 아 라스코와의 대화 후 시몬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해 7월에 엠든을 떠나 쾰른으로 갔다(de.wikipedia.org/wiki/Menno\_Simons#Anschluss\_an\_die\_T.C3.A4uferbewegung).

7) 이를 그는 “einträchtigen Verschiedenheit(조화로운 다양성)”이라고 불렀다(Busch, 2000:143).

8) 하지만 나중에는 성만찬 교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커지면서 개혁교회 목회자들만 모이게 되었다.

로 엠든에 머물러도 좋다고 그는 보았다. 가톨릭의 반대자들은 계속 집요하게 그를 추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는 대부분의 귀족들로부터 지원과 보호를 받았다(Welker, Beintker, & de Lange, 2016: 151).

### (3) 런던에서의 개혁 사역(1549-1553)

독일의 개신교와 천주교 영주들이 싸운 슈말칼덴(Schmalkalden) 전쟁(1546-1548)에서 개신교도가 패배한 후 1555년에 아우스부르크(Augsburg) 평화협정이 맺어졌는데 그 협정은 개신교도에게 사제혼인과 평신도 성찬만 허용하였고 다른 개혁된 양식의 신앙생활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 라스코는 더 이상 엠든에 있을 수 없어 1549년 영국의 개혁자이며 캔터베리 대 주교였던 토마스 크랜머(Thomas Cranmer)의 초청으로 런던에 갔다(Rodgers, 1995: 7). 그는 런던에서 영국 왕 에드워드 6세(Edward VI)의 임명을 받아 개신교 피난민 교회의 교구장이 되어 교회법 및 요리문답을 집필하며 영국 교회의 개혁에도 동참하였다.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왈룬 지역 및 프랑스에서 피난 온 개신교 난민들도 많이 있어 이들을 위해서도 엠든에서의 사역 경험을 살려 1550년에 교회법인 “*Forma ac Ratio*(형식과 이론적 근거)”라는 중요한 저작을 남겼다(Jürgens, 1999: 66-67, Springer, 2007). 동시에 이 저작은 1552년에 공동기도서, 존 낙스(John Knox)의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 1563년 독일의 팔라티나트(Palatinate) 지역 교회의 예배서 그리고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영향을 미친 피터 다테누스(Pieter Dathenus)의 예배서 및 기도서에도 영향을 주었다(en.wikipedia.org/wiki/Jan\_Laski). 또한 그는 갈뎡처럼 교회공동체의 복지사업을 발전시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식탁”도 설립하였다(www.luther2017.de/kr/reformation/und-ihre-menschen/johannes-a-lasco).

### (4) 엠든에서의 두 번째 개혁 사역(1553-1555)

이 런던의 피난민 교회는 약 4천명이나 되었지만 5년밖에 가지 못했다. 철저한 가톨릭 신봉자였던 메리 1세가 즉위하여 영국 내 개신교도를 박해하자 아 라스코는 175명의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두 척의 덴마크 상선을 타고 코펜하겐으로 피난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성만찬과 관련된 루터교 교회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 이들은 다시 독일의 로스톡(Rostock), 뤼벡(Lübeck) 및 함부

르크(Hamburg)에 정착하려 했으나 계속 거절당했다. 그러자 이들은 엠든으로 방향을 돌려 1553년 다시금 환대를 받으며 정착하게 되었다.<sup>9)</sup> 그는 그 때의 감격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심지어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도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Welker, Beintker, & de Lange, 2016: 153).

엠든에서 두 번째 사역을 하면서 아 라스코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한 개혁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엠든 도시 전체의 변혁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비록 그가 두 번째 머문 기간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가 떠난 이후에도 엠든은 계속해서 변혁되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다루겠다.

### (5) 폴란드에서의 마지막 개혁 사역(1557-1560)

1555년에 그는 성만찬과 관련된 요리문답 수정작업 중 다시 논쟁에 휩싸여 엠든을 떠나야만 했다. 그 후 잠시 프랑크푸르트에서 피난민 교회 목회자로 섬기며 성만찬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루터교도들과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하였다. 1548년부터 폴란드에도 개혁운동이 조금씩 일어나자 그는 조국으로 돌아와 1557년부터 폴란드교회 개혁을 위해 헌신했다. 그 결과 개신교도들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결국 왕이 가톨릭으로 남자 폴란드는 가톨릭 국가가 되었고 1560년에 그는 당시 개혁운동의 중심지였던 핀주프(Pinczów)에서 별세하였다([de.wikipedia.org/wiki/Johannes\\_a\\_Lasco](http://de.wikipedia.org/wiki/Johannes_a_Lasco)). 그가 엠든에서 사역한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남긴 유산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개혁교회의 전통을 확립한 동시에 엠든에 온 개신교도들을 통해 도시 전체를 변혁시켜 나갔으며 그곳의 다양한 교회 지도자들과의 대화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한 화해와 일치의 추구 또한 중요한 공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9) 엠든으로 온 네덜란드 개신교 피난민들은 1660년, 대교회의 오른쪽입구 문 위에 자신들이 이 도시에 무사히 정착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기념물을 돌에 새겨 놓았는데 작은 배 한 척이 바다 위에 떠있는 모습이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배(Schepken Christi)”라고 하며 그 주변에 둥글게 이런 문장을 새겨 놓았다. “하나님의 교회는 박해를 받아 유랑했으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위로를 주셨다(Godts Kerck vervolgt, verdreven. Heft Godt hyr Trost gegeven)”. 그리고 그 밑에는 1553년이 새겨져 있다. 이 문은 2차 대전 때의 폭격에도 파괴되지 않아 지금도 요하네스 아 라스코 도서관 건물 동쪽 문 위에 있으며 피난과 영접, 축출과 통합이라는 현재 독일 개혁교회(Evangelisch-reformierten Kirche)의 역사적 상징이기도 하다.

### 3. 엠덴의 변혁

아 라스코와 함께 런던에서 엠덴으로 온 성도들은 대부분 네덜란드 출신의 엘리트 개신교도로 부유한 의류 및 곡물 상인들이었다. 이들은 선진적인 무역 및 금융 기법으로 엠덴의 황금시대를 열었다(Hagedorn, 1910: 126). 대표적인 인물로 파울 판 빙그네(Paul van Wingene)와 그의 부인 마가레테 첼로스(Margarethe Celos)가 있는데 이들은 당시 고급 직물제조업자로 엠덴에서도 직물업으로 큰 부를 쌓았다.

그 후에 수많은 네덜란드 개신교도들이 엠덴으로 오게 되었고 그 중에 인쇄업자들도 많아 엠덴은 인쇄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당시 네덜란드 개신교 지역에서 출판된 서적들의 약 70%가 엠덴에서 출판되었다. 이들은 개혁 운동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대표적인 인쇄업자들은 스티븐 미어드만(Steven Mierdman), 장 말레(Jean Mallet), 장 가이아르트(Jean Gailliard), 니클라스 판 덴 베르그(Niclaes van den Berghe), 길리스 판 데어 에르펜(Gillis van der Erven) 등이 있다(Pettegree, 1992: 87-108).

엠덴에서는 성경 번역 및 출판도 매우 활발하였는데 가이아르트는 1554년에 갈뱅의 저작들을 네덜란드어로 번역하기도 하였고 나중에는 성경을 네덜란드어로 직접 번역하여 출판하기도 했다(Voß, 2013: 22-23). 아 라스코의 친구였던 얀 우텐호브(Jan Utenhove)는 1556년에 신약 성경을 그리스어에서 네덜란드어로 번역하여 출판하였고 1560년에는 갈뱅의 기독교강요를 네덜란드어로 번역, 출판하기도 하였으며 기타 요리 문답 및 시몬스의 저작들도 출판하였다(Pettegree, 1992: 87-108). 1562년에 네덜란드어로 인쇄된 “엠덴 성경(Emder Bibel 또는 Deux-Aes-Bibel이라고도 함)”은 구약을 끝 프리드 판 빙겐(Godfried van Wingen)이, 신약은 요하네스 디르크니우스(Johannes Dyrkinius)가 루터 성경을 기초로 번역하였으며 1637년에 원어에서 번역한 네덜란드의 공식 성경(Statenbijbel)이 나오기 전까지 가장 많이 읽힌 네덜란드어 성경이다.

또한 엠덴의 네덜란드 개신교도들은 대교회를 ‘어머니교회(Moederkerk)’로 부르며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중심지가 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www.luther2017.de/kr/reformation/und-ihre-menschen/johannes-a-lasco](http://www.luther2017.de/kr/reformation/und-ihre-menschen/johannes-a-lasco)). 나아가 새로운 학교들이 설립되었고 인쇄술의 발달로 더 많은 평민들이 문맹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개신교에 대한 천주교의 박해로 프랑스, 플랑드르 그리고 네덜란드 등지에서 계속 많은 개신교 난민들이 엠덴으로 유입되면서 엠덴의 교회와 사회가 변혁되자 1540년 이후부터 엠덴은 개신교 난

민들이 가장 오고 싶은 곳이 되었다(Schmidt, 1994). 특히 네덜란드에서 온 개신교 난민들은 언어가 달라 엠든에 독자적인 교회를 세웠던 프랑스어권의 위그노들과 영국의 개신교회들과는 달리 언어가 비슷하여 기존의 개혁교회에 합류하면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교회공동체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의 치리(Kirchzucht)”가 있었다. 덕, 질서 또는 교회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교회 당회에 보고되었다. 그러면 치리회는 우선 처벌보다는 회개하도록 경고하고 감독하였다. 하지만 두 번의 경고에도 효력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 “출교(Kirchenbann)”를 선언하였다(Strohm, 2000: 145-171). 1554년에는 “엠든 요리문답(Emder Katechismus)”이 작성되어 19세기 후반까지 사용되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Heidelberger Katechismus)으로 대체되었는데 교회의 치리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에게 가서 직접 대화하라. 그가 당신의 말을 들으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하지만 그가 듣지 않으면 한 명이나 두 명을 더 증인으로 데리고 가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보고하라. 이런 경우 목회자와 장로들은 함께 의논한 후 교회의 허락을 받아 순종을 거부하는 자에게 최종적으로 출교를 선포한다. 하지만 그 후 그가 회개하고 교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www.diakonie-enden.de/armenversorgung-im-16-jahrhundert/index.html](http://www.diakonie-enden.de/armenversorgung-im-16-jahrhundert/index.html))

이 시기에 엠든은 급속히 발전하여 경제적인 번영을 통해 수많은 건물들이 새롭게 건축되었는데 특히 네덜란드 양식으로 지어졌다.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자 도시도 북쪽으로 더 확장되었고 요새도 새롭게 건설되어 30년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결국 개신교 난민들은 엠든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주었고 무역과 상업이 크게 활성화되어 영국 전체에 등록된 배들 숫자보다 엠든에 있는 배들의 숫자가 더 많았으며 1564년에는 런던에 있던 상인 모험가 회사(Company of Merchant Adventurers)가 유럽대륙 본부를 당시 세계 최대 무역중심지였던 안트베르펜에서 엠든으로 옮길 정도였다(Welker, Beintker, & de Lange, 2016: 155).

앤드류 페테그리(Andrew Pettegree)에 의하면 엠든은 당시에 개신교 난민들의 피난처인 동시에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훈련장이었다. 이로 인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려던 네덜란드 공화국은 점점 더 개신교 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고 엠든은 이들로 인해 무역이 급증하고 공동체 생활 및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는 등 총체적 변혁을 경험하였으며 네덜란드 독립 운동의 지도자였던 빌름 판 오란여(Willem van Oranje) 공



의 군대에 군사 및 재정 지원을 하였으며 새로운 교회 조직에 대한 모델도 제공하였다(Pettegree, 1992).

그 외에도 엠덴에는 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세워졌으며 각자 자신들의 모국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가령 독일영토에 최초로 세워졌던 프랑크 개혁교회 이외에 영국 및 스코틀랜드 교회도 설립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양한 개신교 난민들이 왈룬, 브라반트, 보헤미아 형제단 및 팔라타인 지역에서 와서 이곳에 정착하여 팔목할 만한 족적들을 남겼다(Welker, Beintker, & de Lange, 2016: 155-156).

#### 4. 젤리우스 파버(Gellius Faber, ca. 1490-1564)

##### (1) 생애

파버는 1490년경 네덜란드 북쪽 프리슬란트의 레우바르든(Leeuwarden)에서 태어나 그 근처에 있는 켈쉴(Jelsum)이라고 하는 곳에서 천주교 사제로 일했다. 그러다가 메노 시몬스와 함께 1536년에 오스트프리슬란트에 와서 개혁교회 사역자가 되어 노르덴(Norden)에서 1년간 사역한 후 1537년에 엠덴에 와서 사역했다(Van der Heide, 2002: 20). 1544년에 그는 시몬스 및 아 라스코와 함께 신학 논쟁에도 참가하였으며 1564년에 소천하였다(gameo.org/index.php?title=Faber\_de\_Bouma,\_Gellius\_(d.\_1564)).

##### (2) 엠덴에서의 개혁 사역(1537-1564)

아 라스코가 엠덴에 오기 전부터 파버는 이곳에서 개혁주의적인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였으며 아 라스코가 엠덴의 교구장으로 있는 동안 그와 함께 동역했다(Van der Heide, 2002: 22-25). 그는 아 라스코를 “우리가 존경하며 학식이 매우 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인 동시에 형제(unse leve hoch begavede unde Godtfrüchtige Herr unde broder)”라고 불렀다(Faber, 1552: BiiiI). 아 라스코가 런던으로 떠나자 파버는 더 독립적으로 사역하였다. 하지만 가톨릭교회와 어느 정도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어 가령 이 신칭의 교리는 받아들였지만 예배 예식에는 가톨릭 전통이 다시 적지 않게 들어왔다(Van der Heide, 2002: 2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546년에 출간된 “엠덴의 대요리 문답” 중 성만찬 부분을 1549년에 일부 수정하여 다시금 루터교회와의 일치를 추구했

다. 즉 성만찬시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단지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공된다고 본 것으로 이는 칼뱅과 불링거의 입장이며 이를 “취리히 협정 (*Consensus Tigurinus of Zurich*)”라고 한다(en.wikipedia.org/wiki/Consensus\_Tigurinus). 하지만 다시 엠든으로 돌아온 아 라스코는 이것이 지나치게 루터의 입장으로 기울었다고 생각하여 수정된 대요리문답의 출판을 중지시켰다. 그 대신 하나의 타협책으로 아 라스코는 파버와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엠든의 작은 교리문답집(*Kleine Emden Catechismus*)”을 1554년에 출간하였다(Van der Heide, 2002: 27).

1552년에 파버는 재세레파가 쓴 1550년의 저작에 대한 반론으로 78쪽 분량의 책자(제목: *Eine antwert Gellij Fabri, dener des hilligen wordes binnen Emden, up einen bitterhönischen breeff der Wedderdöper*)를 출판했으나 소실되었다. 이에 대해 시몬스는 자신과 동료들이 부당하게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1554년에 다시 답변(제목: *Een klare beantwoordinge over een Schrift Gellii Fabri*)을 적었는데 재세레파 사역자들, 세레, 성만찬, 징계, 교회관 및 성육신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다. 이 책은 시몬스가 출판한 가장 방대한 저서인데 여기서 그는 왜 재세레파 사역자가 되었는지 회심에 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

파버는 아 라스코가 런던에 있는 동안 계속 교회의 일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아 라스코보다 더 루터의 입장을 수용하고 멜랑흐톤과 마틴 부췌(Martin Bucer)의 이론도 받아들였다. 천주교 사제들과 루터교 목사들이 성만찬에 관해 충돌했을 때에도 그는 중간에서 화해를 주선했다(Van der Heide, 2002: 28).

그러자 아 라스코는 자신의 후계자로 브레멘에 있던 하르텐베르그를 데려 오려고 노력했으나 하르텐베르그가 이를 사양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크리스토프 판 올덴부르크(Christoph van Oldenburg) 공작과 엠든 시장이 멜랑흐톤에게도 접촉하였으나 그도 거부하여 아 라스코가 엠든을 떠난 1555년 이후 당분간 교구장 자리가 공백 상태로 있을 뻔하였지만 결국 파버가 이 직무를 감당하였다.

당시 당회 기록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이슈들에 관해 일치와 화합을 위해 노력했으며 교회와 정부 간에도 중재역할을 했고 엠든 교회 공동체는 대체로 그의 권위를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Van der Heide, 2002: 31-37). 기타 파버는 교회 음악에도 큰 재능이 있어 찬송가를 작사하여 ‘엠든 찬송가(*Emder gezangboek*)’ 출판에도 관여하였다(Van der Heide, 2002: 29-30). 따라서 그도 당시 엠든에서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한 개혁자 중 한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 5. 사회 복지 및 빈민 구제사역

16세기 당시 엠든에는 지금과 같은 사회복지제도가 없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웃들의 자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질병이나 노령 그리고 사망의 경우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아야만 했으며 이것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했다. 엠든으로 온 개신교 피난민들 중 1553년에 아 라스코와 함께 온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한 엘리트층이었으나 그 후에 온 개신교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그들은 너무 가난해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가족들이 서로 도와 가능한 대로 고아들, 병자들 및 노인들을 보살피 주었고 부모가 나이 들면 자녀들이 돌봐주었다.

하지만 당시 엠든 시민들 중 이미 잘 조직된 수공업자, 선원 및 상인 길드는 이미 상조회 같은 형제단을 구성하여 서로 돌봐주었는데 가령 “카란드 형제단(Kaland-Bruderschaften)”, “성모 형제단(Unserer lieben Frauen-Bruderschaft)”, “성 안나 형제단(St. Annen-Bruderschaft)”, “성 안토니우스 형제단(St. Antonius-Bruderschaft)” 등이 있었다(Barghoorn & Wagenaar, 1997: 37). 이런 이름들은 이미 15세기부터 사용하여 천주교적 뉘앙스가 있어 초기에는 성자들을 숭상하기도 하였으나 나중에는 빈민구제사역으로 전환되었다. 이 단체들은 우선 회원들을 서로 돌아보았고 다음에 교회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걸하는 빈민들을 구제하였다([www.diakonie-emden.de/armenversorgung-im-16-jahrhundert/index.html](http://www.diakonie-emden.de/armenversorgung-im-16-jahrhundert/index.html)). 하지만 1495년부터 엠든에는 네 가지 대표적인 구제사역, 즉 클레멘트 형제단, 엠든의 곡물구제협회, 나그네 빈민을 위한 구제사역 및 엠든 시민을 위한 구제사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각각 살펴보겠다.

### (1) 클레멘트 형제단(Die Clementiner Bruderschaft)

먼저 클레멘트 형제단은 원래 “경건한 형제단(fromme Bruderschaft)”으로 불렸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 클레멘트 교황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의 복지를 돌아보고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를 주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495년에 시작되어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선원길드(Schiffergilde)” 또는 “가난한 선원들의 동

료”라고 불리면서 선원들의 과부와 고아들을 구제했다. 당시에 선원이 된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컸던 동시에 고기를 많이 잡으면 수입도 많아 돈을 많이 번 회원들은 실패한 선원 가족들을 돌보았던 것이다([www.diakonie-emden.de/armenversorgung-im-16-jahrhundert/index.html](http://www.diakonie-emden.de/armenversorgung-im-16-jahrhundert/index.html)).

이 형제단을 기념하기 위해 엠든 시민들은 매년 1월 6일, 시청 앞에서 “성 동방박사의 날(heiligen Dreikönigstag)” 행사를 했는데 이 때 많은 성금이 모였다. 하지만 1676년에 이 제도가 폐지되고 신년 구제헌금으로 대체되었다. 모금원은 집집마다 다니며 구제를 요청했는데 이 전통은 지난 세기까지 남아 있었으며 이 단체는 지금도 있으나 더 이상 모금하지는 않고 기존 기금의 이자는 공적으로 유익한 곳에 기부하고 있다([www.diakonie-emden.de/armenversorgung-im-16-jahrhundert/index.html](http://www.diakonie-emden.de/armenversorgung-im-16-jahrhundert/index.html)).

## (2) 엠든 시의 곡물구제협의회(Stadt Emdens Kornvorrat)

이 단체는 1557년에 세속적 기원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교회도 매우 적극 참여했는데 그 목적은 곡물가 상승의 경우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즉 곡물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안나 백작부인과 시민들이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구매하여 보관하다가 가격이 내렸을 때 또는 춘궁기에 가난한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누구든지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한 것이다. 엠든의 교회들도 이것을 매우 의미 있는 사역으로 생각하여 교회 내에서 자체 운영하기도 했다. 이 제도는 20세기까지 지속되었고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그 자본금으로 새로운 병원을 건축하기도 했다. 1978년에 이 단체는 해산되었고 남은 재산은 “나그네 빈민을 위한 구제사역”에 기부되었다([www.diakonie-emden.de/armenversorgung-im-16-jahrhundert/index.html](http://www.diakonie-emden.de/armenversorgung-im-16-jahrhundert/index.html)).

## (3) 나그네 빈민을 위한 구제사역(Die Diaconie der Fremdlingen Armen)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엠든은 당시 새롭게 탄생한 개신교의 보루였으며 특히 16세기 중반에 네덜란드 개신교 난민들이 많이 유입되었다. 지금은 당시 이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들 중 부유한 계층도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었다. 그러면서 약 30년 만에 엠든의 인구가 네 배로 증가하자 기존의 교회 사역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엠든 시는 계속 유입되는 난민들

에 대해 스스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조건으로 그들을 받아들였다. 당시 개혁교회의 입장은 열심히 일한 결과 적절한 부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죄가 아니지만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돌아보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따라서 구걸은 허용되지 않았다.

1553년에 나그네 즉 외국인 빈민을 위한 구제사역의 필요성이 엠든에서 제기되었다. 안나 백작부인의 지원 하에 아 라스코가 의장이 되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했다. 하지만 그가 1555년 엠든을 떠나자 후계자가 없었다. 그 후에 빈민 구제의 필요성이 더 커지자 1558년에 8명의 위원을 선출하여 공식적으로 “엠든의 가난한 외국인들을 위한 봉사재단(Diaconie der aermen vremblinghen binnen Embden)”으로 출범하였다(Mülder, 1933: 7). 이 재단은 교회 지향적이었지만 동시에 교회로부터 독립된 단체였고 지금도 그렇다. 이를 위해 매주 월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시청 앞 광장인 델프트(Delft)에서 모금이 허용되었다. 모금하는 남자는 소위 검은 색의 ‘스페인 망토’를 입은 채 모금통을 들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2차 세계 대전 초반까지 계속되었고 도움이 필요한 빈민들에게는 숙소 및 빵과 같은 기본적인 식량이 지급되었다.

이를 위해 나중에는 12명의 집사들이 선출되었으며 매년 2명이 기도 후 투표로 선출되어 교체되었다. 이들은 매주 월요일 빈민들을 방문하여 필요를 채워주었고 모든 사역을 기록으로 남겼다. 일단 그들을 방문하면 다양한 자문도 해주고 감사 기도로 마쳤다. 그리고 매년 초에 전체 총회에 공적으로 결산 보고를 하였고 그 보고서에 임직자들이 서명하였다. 그러자 도움을 받던 빈민들도 열심히 일하여 조금씩 가난에서 벗어났으며 이들이 중산층이 되면 다른 빈민들을 구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하였다.

1594년에 스페인 군인들이 포위했던 호로닝엔을 포기하고 철수하자 네덜란드 난민들도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1609년에 스페인과 네덜란드 간에 정전조약이 체결되자 더 많은 난민들이 돌아갔다. 네덜란드의 독립운동은 1648년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으로 성취되었고 그 후 이 난민들을 돕던 사역은 종결되었다.

#### (4) 엠든 시민을 위한 구제사역(Die Diaconie der Huus-Sittenden Armen)

1648년에 외국인 빈민을 위한 구제사역이 끝난 후 1665년에 흑사병으로 수많은 회

생자가 발생하고 30년 종교전쟁, 홍수 및 다른 이유로 엠든에 원래 살던 시민들 중 빈민이 발생하자 이들을 돕기 위한 구제사역이 교회적으로 계속되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1954년부터 이 사역은 새롭게 시작되어 이제는 물질적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지원도 제공한다. 구제위원들은 전쟁으로 파괴된 대교회를 1995년에 재건한 이후 지금도 대교회 당회실에서 전통에 따라 ‘스페인 망토’를 입고 모여서 회의하여 구제대상을 결정한 후 마지막에 함께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며 은밀히 집행하기 위해 모든 내용을 잊어버린다는 구호를 함께 암송한다<sup>10)</sup>(Barghoorn & Wagenaar, 1997: 44-47).

## 6. 알버트 하르덴베르그(Albert Hardenberg, 1510-1574)

### (1) 학업 및 사역(1510-1567)

알버트 하르덴베르그는 네덜란드 오버아이슬(Overijssel)의 하르덴베르그(Hardenberg)에서 태어났다. 호로닝엔의 “공동생활 형제단”에서 자라며 “디보치오 모테르나” 운동에 큰 영향을 받아 개인의 경건 및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헌신의 삶을 배우며 1527년에 아두아르드에 있던 성 버나드 시토 수도원(Zisterzienserklöster St. Bernhard)의 수도사가 되었다. 1530년에 루벤으로 가서 3년간 신학을 공부하다 개신교도가 되었으며 이 탈리아로 가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중병에 걸려 머물던 중 아 라스코를 만나 매우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그 후 그는 마인츠(Mainz)에서 1537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Lange van Ravenswaay, Voss & Jahn, 2014: 74).

그는 1539년에 아 라스코와 함께 루벤에 가서 강연하다 개혁사상으로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풀려나 아두아르트 수도원에 숨어 도서관에서 일했다. 그 후 멜랑흐톤과 아 라스코의 조언으로 엠든에 와 있다가 다시 1543년에는 비텐베르크에 가서 멜랑흐톤을 만나 친분을 쌓으며 신학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 후에 다시 부처의 영향을 받아 스트라스부르그와 바젤 그리고 취리히에 머물며 교회법 및 개혁신학을 배웠다.

부처의 주선으로 그는 다시 쾰른으로 가서 당시 그곳에서 종교개혁을 시도하던 헤르만 폰 비드(Hermann von Wied) 대주교를 도와 신학자문위원으로 일했는데 1544년에 개최된 슈파이어 제국회의(Reichstag in Speyer)에 참가하여 부처와 멜랑흐톤이 작성한

10) 이러한 모습은 [www.youtube.com/watch?v=GylxwB3bjh4&feature=youtu.be](http://www.youtube.com/watch?v=GylxwB3bjh4&feature=youtu.be)에서 볼 수 있다.

개혁서 “단순한 염려(Einfältiges Bedenken)”를 변호하였고 나중에는 라틴어로 번역까지 하였다. 그 후 폰 비드 대주교는 그를 1545년에 열린 보름스 제국회의(Reichstag zu Worms)에 보냈고 이어 린쯔 암 라인(Linz am Rhein) 그리고 얼마 후에는 켐펜(Kempen)에서 목회를 하게 했는데 특별히 이곳에서는 천주교의 고해성사(Beichtpraxis)를 반대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위기도 경험하였다(Lange van Ravenswaay, Voss & Jahn, 2014: 77).

그 후 그는 쾰른을 떠나 아인벡(Einbeck)에서 사역하였으나 츠빙글리와 가깝다는 이유로 사직을 당하였다. 그 후 슈말칼덴 전쟁에서 야외 설교자로 사역하다가 드라켄부르그(Drakenburg) 전투에서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고 이 전쟁에서 개신교 군대가 승리함으로 1547년에 브레멘 돔교회에서 최초로 개신교 설교자 및 신학 교수가 되었고 호로닝엔 출신의 게르트루이드 시싱거(Gertruid Sissinghe)와 결혼하였다.

처음에 그는 다른 사역자들과 관계가 좋았으나 성만찬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야콥 프로프스트(Jakob Probst) 및 티만과 같은 다른 루터교회 목회자들과 갈등이 생겼지만 중, 하류층의 서민들은 그의 개혁교회를 지지하였다. 이 논쟁에 멜랑흐톤이 가세하면서 하르텐베르그를 옹호하였으나 갈등은 격화되었고 1555년에 티만과의 논쟁이 심화되어 도시 전체가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결국 덴마크 왕 크리스치안 3세(Christian III)의 개입으로 사태가 종결되면서 하르텐베르그는 1561년 2월 18일 브레멘을 떠나게 되었다([de.wikipedia.org/wiki/Albert\\_Hardenberg](http://de.wikipedia.org/wiki/Albert_Hardenberg)). 1562년에 그는 올덴부르크(Oldenburg) 근처에 있는 라스테데(Rastede) 수도원에 머물던 중 런던, 비텐베르크 그리고 마부르크 등지에서 초청이 왔으나 거절하였다. 그 후 1565년에 빌헬름스하펜(Wilhelmshafen) 근처 쟁바르든(Sengwarden)의 설교자가 되었다. 그 후 1567년부터 엠든의 설교자가 되어 1574년 이곳에서 페스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섬겼다.

## (2) 엠든에서의 개혁 사역(1567-1574)

아 라스코가 1555년에 엠든을 떠난 후 겔리우스 파버가 1564년까지 사역했고 3년 후 하르텐베르그는 엠든에서 설교자로 사역을 시작했다. 그는 1540년에 아 라스코와 함께 엠든을 방문하여 설교한 적이 있기에 이미 잘 알려져 있었다(Janse, 1994: 102). 그의 주 사역은 대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었지만 당회도 인도하였는데 그 분야는 국가, 정치, 사회, 사회복지 및 보건, 결혼 및 가정, 칼빈주의 교회 및 교회 협의회 그리고 치리

였다. 이 중에서도 그는 특히 세 번째 사역, 즉, 교회 행정, 신학적 및 교회법적 주제들에 대한 해설 및 조치, 자매 교회들에 대한 설교자 지원, 개혁교회들 간의 국내외적인 협력 등에 집중했다(Janse, 1994: 104).

나아가 엠든 지역 목회자들의 모임인 ‘Coetus’ 의장으로 섬기면서 목회자들에 대한 영적인 감독 역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설교자 선발과 임명 및 교회 공동체와 목회자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사역도 했다(Janse, 1994: 106-107). 이와 동시에 그는 16세기 당시 북부 독일지역에서 가장 많은 도서들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이 도서들은 지금까지도 엠든에 있는 요하네스 아 라스코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sup>11)</sup>

또한 하르텐베르그는 세속 정치 영역에 대한 교회의 독립성도 강조했다. 그 한 가지 예로 엠든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을 추방하자는 청원이 당회에 접수되었을 때 그는 이를 거부하면서 이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Janse, 1994: 109). 그는 1574년 5월 18일에 소천하여 대교회에 묻혀있으며 그의 사역은 칼빈주의 사역자 멘조 알딩이 이어 받았다. 결국 그는 아 라스코 및 파버의 개혁 사역을 계승하여 개혁 교회 및 신학을 견고히 하며 엠든 지역에서의 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 7. 엠든 총회(Synode von Emden, 1571)

하르텐베르그가 사역하는 기간 중 1571년 10월 4일에 최초로 엠든 총회가 개최되었다. 1559년에 프랑스어권 교회들은 이미 총회를 통해 교회의 조직을 갖추었으나 네덜란드 개혁교회들은 80년간 독립전쟁을 하면서 엠든뿐만 아니라 노이스(Neuss), 베젤(Wesel), 엠머리히(Emmerich), 고흐(Goch), 레이스(Rees), 아헨(Aachen), 쾰른, 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그 및 프랑켄탈(Frankenthal) 등 여러 지역들로 흩어졌기 때문에 이 개혁교회들을 통합하는 총회를 개최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하여 1568년 10월에 베젤에서 36명의 네덜란드 난민들이 모인 개혁교회 목사 및 장로들이 모여 총회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총회 시기는 1571년 10월 1일로 잡고 처음에는 장소를 프랑크푸르트로 정했다가 다시 쾰른으로 변경되었고 나중에 엠든으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 엠든에서도 하르텐베르그가 시무하던 대교회에서 하는 것은 정치적 스파이의 참여 등 여러

11) 이 도서들은 독일 정부의 후원으로 1998년에 전부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다.



부담이 있어 프랑스어권 교회에서 조용히 개최되었다(Lange van Ravenswaay, Voss & Jahn, 2014: 57-58).

10일간 계속된 총회에 29개 교회 대표가 참석하였고 의장은 가스파르드 판 데어 헤이든(Gaspard van der Heyden)이 맡았으며 엠든을 대표해서 프랑스어권 교회 목사인 요하네스 폴리안더 아 게르코호븐(Johannes Polyander a Kerckhoven)이 서기로 섬겼다. 이 총회를 통해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규정 및 교리를 확립하고 장로교 정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벨직 신앙고백과 네덜란드어권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프랑스어권 교회들은 제네바 요리문답을 채택하였다([de.wikipedia.org/wiki/Synode\\_von\\_Emden](http://de.wikipedia.org/wiki/Synode_von_Emden)).

나아가 보충성(Subsidiarität) 원칙을 천명하면서 위계서열적인 교회구조를 배격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 개별 교회도 참여(Partizipation)할 수 있는 참여의 원칙도 강조하면서 제 1조에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어떤 공동체도 다른 공동체들보다 위에 있지 않으며, 어떤 목회자도 다른 목회자들보다 위에 있지 않고, 어떤 장로도 다른 장로들보다 위에 있지 않으며, 어떤 집사도 다른 집사보다 위에 있거나 우선순위에 있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기며 겸손해야 한다.”<sup>12)</sup>(Perlich, 1973: 49).

총회 조직은 당회, 노회 그리고 총회라는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이는 갈뱅이 1559년에 제네바에서 실행한 “교회법(Ordonnances ecclesiastiques)”을 따른 것이다. 여기서 각 지역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 장로 및 집사들이 모인 회의<sup>13)</sup>가 스스로 모든 결정을 내린다(제 6조). 그러나 여기서 처리할 수 없는 사안들에 관해서는 지역 노회에서 결정하며 노회는 각 당회에서 2명(목사와 장로)의 총대를 파송하여 구성한다(제 7조). 지역 노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제 8, 9조).

이러한 엠든 총회의 결정은 1578년 네덜란드의 도드레흐트(Dordrecht) 총회에서 재확인되었으며 전 세계 개혁 및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신교회 헌법 및 조직의 모델이 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정치 모델은 전 세계 민주국가들의 헌법에도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2) 원문은 다음과 같다: “Keine Gemeinde soll über andere Gemeinden, kein Pastor über andere Pastoren, kein Ältester über andere Älteste, kein Diakon über andere Diakone den Vorrang oder die Herrschaft beanspruchen, sondern sie sollen lieber dem geringsten Verdacht und jeder Gelegenheit aus dem Wege gehen.”

13) Presbyterium, Kirchenrat, Kirchenvorstand 또는 Konsistorium이라고도 한다.

## 8. 멘조 알팅(Menso Alting, 1541-1612)

### (1) 학업 및 하이델베르크 사역(1541-1575)

멘조 알팅은 네덜란드 출신의 개혁주의 설교자요 종교 개혁자였다. 그는 호로닝엔 근처인 엘드(Eelde)에서 태어났다. 호로닝엔의 성 마틴학교(Sint Maartenschool)에서 공부하면서 스승인 레그네루스 프라이디니우스(Regnerus Praedinius)에게서 개혁인문주의(Reformhumanismus)를 배웠다. 당시에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하르텐베르그와 간스포르트가 있었는데 이들 모두 “공동생활 형제단”에서 훈련받았다. 하지만 알팅은 이곳에서의 학업을 잠시 중단한 후 나중에 독일의 여러 곳에서 공부했다(Voß, & Jahn, 2012: 13-14).

그 후 알팅은 독일의 쾰른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1564년에 그는 네덜란드 북부 하른(Haren)에서 부교역자로 일하다 몇 개월 후 그 근처 슬렌(Sleen)의 목회자가 되었다. 1565년에 그는 성경, 특히 로마서를 깊이 연구하다 개혁에 가담하여 하이델베르크에서 학업을 마친 후 헬펜(Helpen)으로 돌아와 있다가 슬렌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Voss & Jahn, 2012: 15).

1566년 네덜란드의 가톨릭 성당에 있던 성상들을 파괴한 사건(Beeldenstorm) 이후 네덜란드에서 스페인의 알바 공에 의해 개신교도들에게 박해가 시작되자 알팅은 1567년 7월 독일로 피난 와서 하이델베르크 등 여러 곳을 전전하던 중 1574년에는 테오도르 베자(Theodor de Beza)를 알게 되었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집필한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Zacharias Ursinus) 및 카스파 올레비안(Caspar Olevain)과도 오랫동안 친분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하이델베르크에서 설교자로 사역하다가 1575년에 엠덴교회의 청빙을 받아 처음에는 몇 번 거절했으나 마침내 수락하여 엠덴에서 담임 사역자로 일하게 되었다.

### (2) 엠덴에서의 개혁 사역(1575-1612)

하르텐베르그를 계승하여 1575년 10월 그는 엠덴의 대교회에서 담임 설교자가 되었으며 동시에 정치 지도자가 되어 엠덴에서 칼빈주의의 부흥을 일으켰다. 이전의 교회 지도자들과는 달리 알팅은 루터교회와의 타협보다는 보다 더 개혁주의적으로 교회적,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했다.

또한 알팅은 1578년 엠덴에서 종교대화(Emden Religionsgespräches)을 열어 당시 그곳에 있던 재세례파 지도자들과 대화했다(Lange van Ravenswaay, Voss & Jahn, 2014: 17). 이를 통해 그들 간의 다양한 갈등과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Voss & Jahn, 2012: 17).

당시 프리슬란트의 영주인 빌럼 로드베이크(Willem Lodewijk)는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알팅을 1594년에 호로닝엔과 드렌테로 초청하여 설교하게 했는데 그 해 7월 17일 호로닝엔의 마르티니교회(Martinikerk)에서 최초로 개혁주의 예배를 인도했으며 그 후 드렌테에 가서 설교했다. 이때부터 그는 “드렌테의 개혁자(de kerkhervormer van Drenthe)”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다. 그 때 그는 그곳에 있던 고인돌을 설교단으로 사용했다고 한다(nl.wikipedia.org/wiki/Menso\_Alting).

1595년 3월 18일, 그는 오스트프리스란트의 루터란 영주인 에드자르드 2세에 대항하여 엠덴에서 칼빈주의 주민들의 반란을 주도하였다. 이를 “엠덴의 혁명(Emden Revolution)”이라고 부른다(Lange van Ravenswaay, Voss & Jahn, 2014: 16). 그 결과 1595년 7월 5일에 맺어진 “델프자일 협약(Vertrag von Delfzijl)”에 의해 그 때부터 1744년까지 엠덴은 반독립적 지위를 누리는 칼빈주의적 도시공화국이 되었다. 그 후 1612년 알팅은 70세에 소천하였다. 그는 앞선 개혁자들이 이룬 사역을 더욱 견고히 하여 엠덴에서의 교회개혁뿐 아니라 정치적 안정과 독립성을 확립하는 데 공헌했다고 말할 수 있다.

###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엠덴에서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 사회를 총체적으로 변화시켰는지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먼저 도출하고 싶은 첫 번째 결론은 종교개혁이 중세와 의 극단적인 단절로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속적인 개혁의 과정이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루터를 보면 천주교와 대립한 모습들이 더 부각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유럽 북서부 프리슬란트 지역에서 일어난 개혁 운동은 우선 호로닝엔 근처 아두아르트 수도원을 중심으로 일어난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이 개혁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아가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이 종교개혁의 길을 열어주는 빗장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파버, 하르텐베르그 그리고 알팅 모두가 이러한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엠든의 개혁은 단지 교회와 신학만 개혁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개혁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개혁자들은 당시의 어렵고 위기적인 상황도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여러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해 나갔다는 것이다. 가령 개신교 난민들이 몰밀 듯 유입될 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였고 그 중에 가난한 난민들이 많아지자 다양한 구제사역을 하였다. 이런 점은 제네바에서 개혁을 주도한 칼뱅과 이후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네덜란드에서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sup>14)</sup>가 신학자와 목회자로 네덜란드의 세속화된 국가교회를 개혁할 뿐만 아니라 암스테르담에서 기독교 대학인 자유대학교를 세워 수많은 인재들을 키웠고 나중에는 기독교당을 창당하여 수상까지 지내면서 교육 및 사회개혁을 추구하여 신칼빈주의를 낳은 것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의 교회는 아직도 성숙을 구별하는 이원론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주일 중심의 신앙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사회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높은 자살률, 저출산 및 고령화, 소득불평등의 심화 및 불공정한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한국 교회는 더 설득력 있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 해결을 위해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엠든의 개혁자들이 천주교와의 차이점은 강조하면서도 개신교 내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화해와 일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이다. 다양한 신앙 고백 속에서도 화합을 추구하기 위해 협의체(Coetus)를 만들고 대화 모임에 참여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근대교회사를 보아도 선교사들 및 교회 지도자들이 교단 간 서로 협력하였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 많은 분열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교회들이 특히 이 점을 개혁해야 할 것이다(최용준, 2006).

네 번째로 엠든의 개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체는 개신교 난민들이었다는 점이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수많은 개신교 난민들을 낳았고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전 세계로 흩어졌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 난민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회에 통합한 도시들은 얼마 후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황금시대를 누렸다는 사실이다. 16세기 스위스의 제네바, 독일의 엠든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역사가 이

14) 카이퍼의 박사 학위 논문이 칼빈과 아 라스코의 교회관을 비교한 것이었고 이후 그는 직접 아 라스코전집을 출판한 것을 보면 그가 아 라스코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를 분명히 증명한다.<sup>15)</sup> 하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도 북한에서 오는 새터민들 이외에는 타국의 난민들에 대해 그리 개방적이지 못하며 지역 교회들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한국으로 오는 여러 종류의 난민들과 다문화가정을 복음으로 지혜롭게 섬길 때 한국 사회는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장 깔뱅과 요하네스 아 라스코의 공통점이기도 한 데 이들의 신학 사상이외에도 한번 떠났던 곳에 다시 가서 개혁의 꽃을 피웠다는 점이다. 이것은 개혁에 한번 실패하였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모든 개혁에는 수구세력의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진리에 기초한 진정한 개혁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다

엠든의 개혁자들과 성도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의 총체적 개혁에도 헌신하여 세상을 변화시킨 신앙의 거장들이었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곤 하였고 그렇게 헌신함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었다. 따라서 한국 교회 및 기독교인들은 이 엠든의 개혁 역사를 더욱 깊이 연구하고 본받아 이 시대에 한국사회에 새롭게 적용함으로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15) 이런 의미에서 엠든의 요하네스 아 라스코 도서관과 오스트프리스란트 박물관은 공동으로 2017년 5월 14일부터 11월 5일까지 “종교개혁과 피난 - 16세기의 엠든과 신앙난민들(Reformation und Flucht - Emden und die Glaubensflüchtlinge im 16. Jahrhundert)”라는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다. [www.jalb.de/17380-0-309-42.html](http://www.jalb.de/17380-0-309-42.html) 참고.

## 참고문헌

- 개혁주의학술원 (2014). **칼빈 시대 유럽대륙의 종교개혁가들**. 부산: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2014). *Reformers in the European Continent at the time of J. Calvin*. Busan: Kosin University Press.]
- 최용준 (2006). **하나됨의 비전**. 서울: IVP.
- [Choi, Y. J. (2006). *Vision for Unity*. Seoul: IVP.]
- Barghoorn, J. & Wagenaar, A. (1997). “500 Jahre Emder Armenversorgung” Züchner, C. (Hrsg.) *Über Zeiten und Räume*. Gerhard Verlag Emden. 37-48.
- Busch, E. (2000). “Die Ekklesiologie bei a Lasco und Calvin”, Strohm, C. (Hrsg.) *Johannes a Lasco (1499-1560): Polnischer Baron, Humanist und europäischer Reformator*. Tübingen: Mohr Siebeck.
- Faber, G. (1552). *Eine Antwort Gellij Fabri, dener des hilligen wordes binnen Emden up einen bitter-Hönischen breeff der Wedderdöper*. Madgenburg.
- Hagedorn, B. (1910). *Ostfrieslands Handel und Schifffahrt im 16. Jahrhundert*. III. Berlin: Curtius.
- Janse, W. (1994). *Albert Hardenberg als Theologe*. E.J. Brill.
- Jürgens, H. P. (2002). *Johannes a Lasco in Ostfriesland: Der Werdegang eines europäischen Reformators*. Mohr Siebeck.
- Jürgens, H. P. (1999). *Johannes a Lasco - Ein Leben in Büchern und Briefen. Eine Ausstellung der Johannes a Lasco Bibliothek*. Foedus.
- Krömer, E. (2007). “Der Briefwechsel des Hermannus Aquilomontanus mit Heinrich Bullinger”, *Emder Jahrbuch für historisch Landeskunde Ostfrieslands*. Bd. 87. Risius. 31-67.
- \_\_\_\_\_. (2007). “Hermannus Aquilomontanus”, in Martin Tielke (Hrsg.) *Biographisches Lexikon für Ostfriesland*, 4 Bde. Aurich 1993-2007, Bd. 4, 16-18.
- Lange van Ravenswaay, J.M.J. (2013). “The importance of the John a Lasco library Emden/Germany for the history and theology of the Reformed churches” *International Congress of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es*. Seoul.
- Lange van Ravenswaay, J.M.J., Voss, K.D., Jahn, W. (2014). *Emden: Orte der Reformatio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Leipzig.
- Mülder, J. (1933). *Die Diakonie der Fremdlingen-Armen im Emden: 1558-1933*.

Wenzel.

Perlich, D. (1973). *Die Akten der Synode der niederländischen Gemeinden, die unter dem Kreuz sind und in Deutschland und Ostfriesland verstreut sind, gehalten in Emden, den 4. Oktober 1571*. In: Evangelisch-Reformierte Kirche in Nordwestdeutschland (Hrsg.): *1571 Emden Synode 1971. Beiträge zur Geschichte und zum 400jährigen Jubiläum* Lomberg, E. (1973). bearb. und red. Neukirchener Verlag.

Pettegree, A. (1992). *Emden and the Dutch Revolt: Exile and the Development of Reformed Protestantism*. Clarendon Press; 1 edition.

Rodgers, D. W. (1995). *John à Lasco in England* (American University Studies) Peter Lang Inc., International Academic Publishers.

Smid, M. (1974). *Ostfriesische Kirchengeschichte*. Pewsum.

Springer, M. S. (2007). *Restoring Christ's Church: John a Lasco and the Forma ac ratio* (St Andrews Studies in Reformation History) Routledge; 1 edition.

Strohm, C. (2000). "Kirchenzucht und Ethik bei a Lasco", Strohm, C. (hrsg.) *Johannes a Lasco (1499-1560): Polnischer Baron, Humanist und europäischer Reformator*. Tübingen: Mohr Siebeck.

Van der Heide, J. W. (2002). *Gellius Faber: pastoor in Friesland, predikant in Oost-Friesland*.

Voß, K. D. & Jahn, W. (Hrsg. 2012). *Menso Alting und seine Zeit. Glaubensstreit - Freiheit - Bürgerstolz* Oldenburg, Isensee Verlag.

Voß, K. D. (Hg.) (2013). "Wie eine Lilie unter Dornen.."–theologische, historische und genealogische Aspekte von Wanderbewegungen flandrischer Buchdruckerfamilien im 16. Jahrhundert" in ... *doch die Welt nicht Heimat mir?: Beiträge zu sechs Jahrhunderten Migrationsgeschichte in Ostfriesland und den benachbarten Niederlanden*. Ostfriesland Verlag. 9-50.

Welker, M., Beintker, M. & de Lange, A. (2016). *Europa reformata: European Reformation Cities and their Reformers*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Schmidt, H. (1994) *Geschichte der Stadt Emden von 1500 bis 1575*. Pewsum

[de.wikipedia.org/wiki/Albert\\_Hardenberg](https://de.wikipedia.org/wiki/Albert_Hardenberg) (2017.09.01.)

[de.wikipedia.org/wiki/Friesische\\_Freiheit](https://de.wikipedia.org/wiki/Friesische_Freiheit) (2017.09.01.)

[de.wikipedia.org/wiki/Johannes\\_a\\_Lasco](https://de.wikipedia.org/wiki/Johannes_a_Lasco) (2017.09.01.)

[de.wikipedia.org/wiki/Menno\\_Simons#Anschluss\\_an\\_die\\_T.C3.A4uferbewegung](https://de.wikipedia.org/wiki/Menno_Simons#Anschluss_an_die_T.C3.A4uferbewegung)

(2017.09.01.)

[de.wikipedia.org/wiki/Menso\\_Altling](https://de.wikipedia.org/wiki/Menso_Altling) (2017.09.01.)

[en.wikipedia.org/wiki/Consensus\\_Tigurinus](https://en.wikipedia.org/wiki/Consensus_Tigurinus) (2017.09.01.)

[en.wikipedia.org/wiki/Jan\\_Łaski](https://en.wikipedia.org/wiki/Jan_Łaski) (2017.09.01.)

[landesmuseum.eezeebie.com/places/details/8](https://landesmuseum.eezeebie.com/places/details/8) (2017.09.01.)

[nl.wikipedia.org/wiki/Abdij\\_van\\_Aduard](https://nl.wikipedia.org/wiki/Abdij_van_Aduard) (2017.09.01.)

[nl.wikipedia.org/wiki/Hinne\\_Rode](https://nl.wikipedia.org/wiki/Hinne_Rode) (2017.09.01.)

[nl.wikipedia.org/wiki/Menso\\_Altling](https://nl.wikipedia.org/wiki/Menso_Altling) (2017.09.01.)

[gameo.org/index.php?title=Faber\\_de\\_Bouma,\\_Gellius\\_\(d.\\_1564\)](https://gameo.org/index.php?title=Faber_de_Bouma,_Gellius_(d._1564)) (2017.09.01.)

[reformation-cities.org/cities/emden](https://reformation-cities.org/cities/emden) (2017.09.01.)

[www.jalb.de](https://www.jalb.de) (2017.09.01.)

[www.jalb.de/17380-0-309-42.html](https://www.jalb.de/17380-0-309-42.html) (2017.09.01.)

[www.luther2017.de/kr/reformation/und-ihre-menschen/johannes-a-lasco](https://www.luther2017.de/kr/reformation/und-ihre-menschen/johannes-a-lasco)  
(2017.09.01.)



## 논문초록

# 엠든(Emden)의 종교개혁과 변혁에 관한 역사적 고찰

최용준 (한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본 논문은 16세기에 독일 오스트프리스란트(Ostfriesland) 지역의 엠든에서 어떻게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 그 도시 전체가 어떻게 변혁되었는가에 관한 역사적 고찰이다. 당시 유럽에서 개신교도들이 가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엠든은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었다. 그리고 요하네스 아 라스코(Johannes a Lasco), 겔리우스 파버(Gellius Faber), 알버트 하르덴베르그(Albert Hardenberg) 및 멘조 알팅(Menso Alting) 등은 이곳에서 개혁의 지도자들로 다양한 사역들을 펼쳐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그리하여 당시 엠든은 비텐베르크(Wittenberg) 및 제네바(Geneva)와 함께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 도시 중 하나가 되어 ‘북구의 제네바’라는 별명을 얻었고 2017년에 유럽에서 최초로 종교개혁도시(Reformationsstadt)로 지정될 정도였다. 나아가 1571년에 개최된 엠든 총회(Synode von Emden)를 통해 개혁교회(Reformierte Kirche)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인구도 3천 명에서 개신교 난민들의 유입되어 2만 명으로 급증하여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항구도시가 되었고 독일에서도 가장 큰 도시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곳에 왔던 개신교 피난민들은 다수가 무역업자, 곡물상인, 수공업자 및 인쇄기술자들과 같은 전문 직업인들이어서 이들을 통해 엠든은 문화적,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누린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구제가 시행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개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 엠든을 변혁시켰는지 살펴본 후 이것이 남긴 유산은 무엇이며 한국 교회 및 사회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결론적으로 도출하겠다.

**주제어 :** 엠든, 종교개혁, 요하네스 아 라스코, 겔리우스 파버, 알버트 하르덴베르그, 멘조 알팅, 변혁



##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기독교 유아양성 교회교육 실천방안 연구

###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Church Education to Teach Young Christians Leading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허계형 (Kay-Heoung Heo)\*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mplementation strategies to teach young Christia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irst of all, attempts to explore concepts of young Christian children to b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made. Then, practical methods to develop the foundation of Kingdom of God's citizenship based on a Christian world-view is explored.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ed below. First, young Christian children to b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to be young Christians who becomes "the light of the world" with balanced competencies among the Pious Area(behavior and thoughts based on the Christian world-view), Character Area(communication competence with careful listening, caring, respect, open mind), and Ability Area(creativity problem-solving ability). Second, description of each competency was presented in detail. Third, it was further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inking church-home-school programs, and implementation examples were followed. In addition, it suggested the direction of the church school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Key Words :** Church school educa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ary, competencies, Pious competence, character competence, ability competence

이 논문은 2017 충신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제102회기 총회전도정책포럼 『제4차 산업혁명시대 복음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 A.I. 시대 유아의 특성과 복음전도전략』(2017년 11월 27일) 발표내용을 수정·확장함

---

\* 충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Chongshin University),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43, kayheo@chongshin.ac.kr  
2017년 11월 02일 접수, 11월 16일 최종수정, 12월 11일 게재확정

## I. 서론

인류는 200년 전에 공장생산체제가 가능해졌던 제1차 기계 산업혁명을, 1876년 전기 동력에 의한 제2차 에너지 산업혁명을 지나고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의한 3차 디지털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 이제 디지털 공간과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4차 사이버 물리 융합(CPS, Cyber-Physical System) 산업혁명(김진하, 2017)을 맞이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초연결성(Hyper-Connected), 인공지능(A.I.)과 빅 데이터의 연계 및 융합으로 인한 초지능화(Hyper-Intelligent)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도 대대적인 개편이 종전의 1, 2, 3차에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양상은 사람들의 생활과 인간관뿐만 아니라, 교육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제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모두가 직면하게 될 현실이므로, 이에 따른 적극적 대처를 필요로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여파는 교회, 특히 유아교회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까?

이미 우리나라의 제3차 산업혁명의 정보통신기술은 영유아의 일상 속에 깊이 파고 들어 있다. 영유아기부터 스마트폰 동영상 과다노출로 인한 모바일 기기 중독과 이로 인한 뇌 균형 발달 저해를 염려하고 있고, 주일학교 학생들의 상당수가 경건생활 실천 시간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에 의지(총회교육진흥국, 2017)하고 있을 정도이다. 지금까지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기술혁신은 생활편의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바가 큰 반면 기술력의 폐해를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영유아의 경우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아기 발달에 적절하지 않은 인터넷·게임 등의 과다사용에 따른 언어발달 지연, 주의력결핍과 같은 전반적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에 대한 관심 저하와 같은 교회교육측면에서의 부정적 결과로까지 이어져 신앙형성에까지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을 바르게 이해하여 유아단계에서부터 적절한 개입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신앙을 학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람직한 실천을 통하여 공유할 수 있을 때(김광열, 2012; 김경진, 2014; 이신혜, 2015), 가장 영향력 있는 전도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하므로 생활에서 함께 나누

고 경건한 삶을 통하여 전할 수 있다면 전도의 파급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교회교육을 통해 성경말씀을 받아 믿음에 이르고 삶 속에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서 참 기독교 유아 인재 양성의 토대를 마련 할 수 있다. 경건한 삶을 실천 하면서 동시에 제4차 산업혁명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미래의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교육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제4차 산업 혁명시대를 위한 기독교 유아인재 양성을 위한 교회교육혁신에 대한 논의는 이제야 비로소 시작단계에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요구에 대응하고 교회교육에 적용 가능한 기독교유아교육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는 교회학교의 미래를 위한 준비단계에서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사회를 맞이하면서 유아 교회교육 분야에서는 다음 몇 가지 이유에서 유아교회교육 혁신을 위한 분석과 대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 진다. 첫째, 제4차 산업혁명의 진보와 영향이 가속화되더라도 제4차 산업혁명의 주체는 여전히 인간이라는 점에서 먼저 유아대상 교회교육을 통하여 기대하는 그리스도인 유아 인재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인재상은 교회 교육과정 운영의 핵심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회교육 안에서는 기독교 유아 인재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므로 현재의 기독교교육을 받는 유아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자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교회학교의 유아가 갖추길 기대하는 구체적인 인재상을 개념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교회교육의 주 대상인 유아기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이정민, 2017)한 교회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유아기에는 인격형성과 신앙형성의 토대를 구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제4차 산업혁명의 인재에게 필요한 기본 역량인, 창의 융합하는 역량, 문제해결 능력 발달의 시작점임을 고려할 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교육관련 핵심 이슈는 유아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교회환경 마련에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아를 위한 교회교육을 통하여 기대하는 유아 인재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 기독교 유아교육은 무엇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 유아기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교회교육의 실체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 창의성, 융합성, 문제해결역량에 초점을 맞춘 성경교육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 초연결성, 초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회-가정연계 유아교육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인 현장구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제4차 산업혁명시대 교회교육을 통하여 기대하는 기독교 유아 인재상

유아교회교육의 목적은 유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받은 새 피조물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인성을 함양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기초를 형성하는데 있다(허계형, 손병덕, 김남임, 김소희, 마은희, 2017). 여기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우리나라 유아교육목적이 대한민국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3)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일반 유아교육이 시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현안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교육목표와 유아발달 특성을 고려한 교육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노력에는 소홀했다. 이를 교회가 갖는 책임이라고 인식하지 않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일반 유아교육과정의 시대적 현안을 고려하지 않거나, 지금까지 유아교육이 축적해 온 근거기반(evidence based)의 효과적인 교육방법의 적용을 소홀히 한 결과, 교회학교 유아부모로 하여금 교회교육보다 외부교육이 더 효과적이거나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선호하게 만들었고, 궁극적으로 주일학교의 양적 감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회교육의 교육이념은 유아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의 목표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교육이념에 따른 교육목적을 가지고 기독교 인성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교육의 목적이 된다. 이를 위해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생활습관, 행동, 태도를 갖추도록 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개발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교육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Figure 1 참조).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회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독교 유아 역량은 경건한 유아(경건훈련, 기독교세계관적 사고훈련), 인성을 갖춘 유아(협업역량으로 언어와 습관에서 경청 배려 존중을 통한 의사소통의 기반을 형성), 지성 역량(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포함한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 필요한 인재상은 세상의 빛이 되는 유아를 의미한다. 세상의 빛이 되는 유아는 경건, 인성, 지성역량이 균형적으로 발달한 유아를 가리킨다. 기독교

유아 인재상을 구성하는 역량에서 지금까지 교회교육은 기독교 세계관적 사고를 갖고, 경건훈련을 실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인성과 지성역량은 가정과 사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이로 인해 신앙과 삶의 분리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박상진(2009)은 현 교회교육의 위기는 교회학교 학생 수의 양적인 감소 뿐 아니라 “교회교육의 무기력”이라는 질적인 현상으로 인함을 제시하였다. 다음 세대를 위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교회는 보다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교회교육의 복음전도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여야 함이 분명하다. 이를 위해 교회는 경건역량뿐 아니라 인성과 지성역량을 함께 개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교회학교는 기독교 유아교육 인재<sup>1)</sup>가 가져야 할 역량을 균형 있게 교육과정에 제시하여 교회교육혁신을 단행하여야 한다. 교회교육을 통하여 빛이 될 기독교 유아는 제4차 산업 혁명시대에 요구되는 협업역량, 창의적 역량, 문제해결역량을 갖춘 유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여야 할 것이다.

---

1) 세상에서 빛이 되는 기독교 유아 인재는 경건훈련을 통한 기독교세계관적 태도를 가지고 ①자신과 남을 존중하고 협업하며, ②바른 언어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③창의적 역량·문제해결역량의 기반을 잘 형성해가는 사람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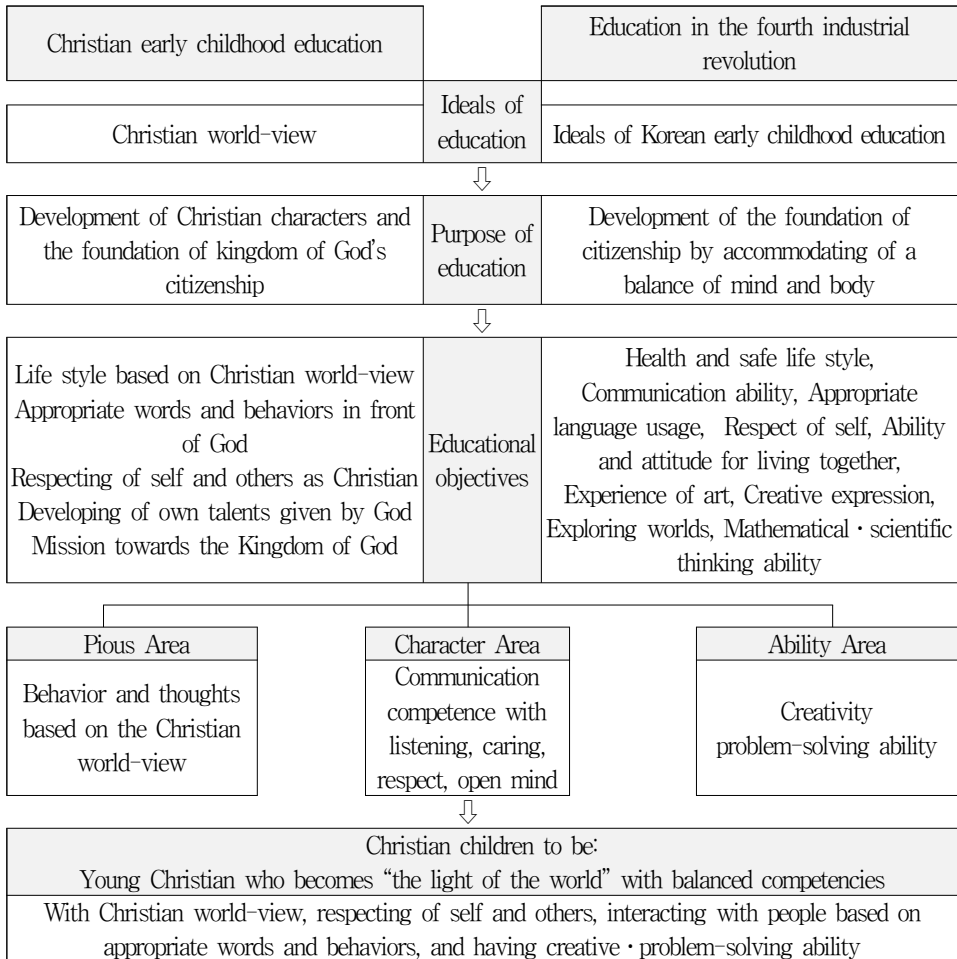


Figure 1. What Christian young children to be and their competencies

### Ⅲ.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갖추어야 할 기독교 유아 역량

유아기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 혹은 민감한 시기(sensitive period)라고 일컬을 정도로 인간의 전 생애 가운데 발달이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다(Diamond et al., 2007). 이와 같은 사실은 인간의 뇌 발달 중 80-90%가 영유아기에 완성되며, 특히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시냅스 연결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연구결



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Stevens et al., 2008; Meany, 2010). 즉, 영유아기에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따라 학습발달에 영향을 주는 뇌 시냅스 형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적 환경을 조성할 때,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가능케 하며, 여기에는 향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갈 수 있는 신앙발달도 포함한다. 영유아시기에 형성된 신앙발달은 이후 인생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영유아기 발달적 측면은 신앙적 성장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효과적인 교회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유아기 동안 긍정적 발달을 도모하고, 성공적인 교회교육을 실행하려 한다면 유아기의 발달특성을 고려하되 지원적 교회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갖추어야 할 기독교 유아역량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1. 경건 역량

유아기 사고 경향은 성숙한 합리적인 이해보다는 비조직적 단편적인 인식 특성이 있다. 이는 유아의 신앙적 사고에 있어서도 성경말씀을 조직적으로 학습하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유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신앙교육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유아기에 해당하는 2-6세는 ‘놀이의 시기’로 놀이가 신체·인지·심리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Berk, 2011),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놀이는 유아의 신체발달뿐만 아니라 인지적 지식과 기술을 정교하게 발달시키고, 무엇보다 자신의 탐구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유아에 대한 교회교육의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관련되어 고려될 수 있다. 먼저, 인지발달 측면에서 눈앞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상징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어떤 한 사건으로부터 다른 한 사건을 유추하는 추론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조망수용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비록, 자신과 타인의 관점을 구별하는 것은 아직 어려워하나 구분하기 시작한다는 점(Berk, 2011)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유아기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유아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아에게 흥미를 일으키는 놀이중심의 유아교회교육

과정을 실행할 수 있다.

놀이의 중요성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위한 유아교육 전략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김지영, 2017; 장명립, 20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존재하게 하는 특성 즉 호기심, 상상력, 창의력 직관력 그리고 다양한 감정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지영, 2017). 이와 같은 인간의 독특한 특성은 인생의 전 시기 중에서 유아기에 가장 활발하게 발달하며, 유아의 건강한 발달은 놀이를 통해서 발달하고, 놀이의 질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교회교육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유아교육은 공통적으로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성공적인 교회교육을 실행하려 한다면 유아기의 발달특성을 고려하되 지원적 교회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지원적 교회교육 환경이란 이와 같은 유아의 특성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성인중심적인 관점에서 고정 관념을 갖고 교육하지 않는 교회환경, 흥미, 동기유발 없이 조건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환경 안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 교회 교육은 기독교인 유아들이 “발달에 적합한”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질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의도적인 개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2. 인성 역량

준비된 인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으며, 이는 그리스도인 인성을 강조하는 교회와 민주시민의 자질로서의 인성을 강조하는 사회 모두에 적용된다. 특히 인성교육은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만연한 인간성 상실에 대한 교육적 대안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예: 인성교육진흥법<sup>2)</sup>, 2016). 유아기는 인성의 기본 바탕이 형성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

유아를 위한 기독교 교육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인성의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모범을 제시하는 것이다(허계형 외, 2017). 올바른 세계관과 실천 능력을 상실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바른 인성을 함양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자

2) 인성교육을 법으로 규정한 법이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길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의 통과 이후 유아교육현장에는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 적용되고 있다.

신과 이웃을 덕스럽게 하는 인성적 역량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인성에 기초한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삶을 배워 실천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허계형 외, 2017). 기독교 인성 항목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있다. 정희영 외(2014)는 경건, 절제, 화평, 정직, 협동, 기쁨, 양선, 인내, 책임, 사랑, 존중, 배려의 항목을 제시하였고, 허계형 외(2017)는 이를 교육과정에 통합할 때, 기독교적 인성개발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특히 요구하는 인성역량은 협업역량이다. 과거에 비하여 인간의 업무에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이 요구됨에 따라, 여러 분야의 전문인이 융합하여 업무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협업에 필요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포용성과 배려할 수 있는 태도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 필수적인 역량으로 작용한다(장명립, 2017).

협업역량과 협업에 필요한 인성역량들은 인간의 생애에서 유아기 상호작용과 놀이를 통해서 발달하기 시작한다. 유아들은 놀이를 시작하고 지속하기 위해 또래가 한 말이 무엇인지 듣고 적절히 반응하며, 나누어 쓰고, 적절히 요청하고, 배려하는 다양한 상호작용 기술이 필요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에 적절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해결 방안을 창의적으로 고안하고, 분노조절을 포함한 자기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의 유아교육 실체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지향적인 유아교육은 놀이다운 놀이를 유아가 할 권리에 대하여 강조한다. 미래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교육개혁은 인성의 초기 단계에 있는 유아기의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기독교 인성교육을 포함하되, 협업 역량을 강조하여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인성의 기초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3. 지성 역량

지성역량은 유능하게 준비된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 유능성에 대한 부모의 요구는 매우 간절하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지닌 부모라도 신앙교육보다 학과 공부 및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을 더 중요시하고, 아동들은 학교 공부와 사교육에 더 비중을 두는 현상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장화선, 2015).

과거 한국의 교회는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른 시간 동안 부흥하였다. 기독교가 전파되고 확장되었을 때, 한국의 시대적 상황은 전쟁과 사회적 혼란기로 신앙자체를 추구하

는 세대였으며, 양적 부흥은 이와 같은 상황적 맥락의 필요를 충족시켜준 예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였고, 이에 따른 요구가 변화하였는데 교회는 과거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교회주일학교 학생의 감소는 단순히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결과 뿐 아니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교회교육 실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교회교육은 상황적 맥락의 변화에 민감해야 하고, 미래사회의 유능한 그리스도인 양성에 대한 역할과 이에 대한 책임을 위해 적극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즉 교회학교 교육과정은 과거의 강조점이었던 기독교 유아교육의 목표를 질적으로 달성 하는 것 뿐 아니라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려는 사회적 목표도 함께 달성하는데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 필요한 교육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코딩교육을 교회교육에 적용하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느헤미야가 쌓은 성벽에 대한 설교 후 유아들의 과업은 다양한 레고블록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쌓은 성벽을 쌓아보도록 한다. 이때, 유아에게 ‘우리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성을 느헤미야와 함께 쌓아보도록 하자.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적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잘 지키는 성을 쌓을 수 있을까?’를 질문하고, 패턴화 된 성벽을 쌓도록 한다. 이렇게 성경활동과 연계된 문제를 줌으로서, 유아가 코딩<sup>3)</sup>을 위한 ‘분류 유목화 예측 패턴’을 사용하여 문제해결력과 논리 수학적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성경적 이해에 녹여서 제공한다.

이상과 같이 기독교 유아 인재 상 검토를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교회교육과정의 혁신을 통한 내실화 및 탄력적인 교육과정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제 교회교육 교과과정에서도 성경지식의 단순 주입을 지양하고 직접 참여경험을 통해 성경을 더 깊이 탐구하고, 서로 협력하며, 성경적 관점에서 창의적으

3)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전국 초등·중등·고등교육에서 소프트웨어교육(코딩교육) 의무화를 예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들은 규칙화된 컴퓨터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코딩은 이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코딩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고가의 코딩 학원, 캠프, 방문교육 등 미취학 유아에게 선행학습이 되기 시작하고 있으나, 유아발달에 적절하지 않는 접근들이 올바르게 행해지고 있다. 유아에게 적절한 코딩 교육은 코딩의 기술 자체를 가르치는 것, 스마트 기기에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사물을 가지고 실제로 조작하며, 논리적으로 실행해보고, 잘못을 찾아내고 고치는 작업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기르게 하고, 이를 컴퓨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로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학습방법의 시도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교회교육 사역자들과 교사들은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교회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질적인 강화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이경민, 2017). 교회교육을 통하여 자라는 유아들이 모든 역량에서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헤쳐 나갈 뿐만 아니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다.

#### Ⅳ. 제4차 산업혁명시대 역량 강화를 반영한 교회-가정-기관연계 유아교육 지원의 실제

##### 1. 교회-가정-기관 연계의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며, 이에 따른 인재상의 변화 또한 자명하다. 교회의 유아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은 시대적 변화에 대하여 사회보다 더 나은 질의 교회교육을 구축함으로써 미래사회의 인재 양성에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할 때임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시대적 현안을 달성하기 위한 교회의 대처 전략으로 교회는 가정과 기관과의 생태학적 연계(Bronfenbrenner, 1992)가 필요하다.

가정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고 특히 신앙공동체로서 가정은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격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책임이 있다(이정관, 2017). 교회교육의 본질이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딤후 3:16-17)임을 고려할 때 부모가 성경적 양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회교육이 가정에서도 실현 될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양육지원환경 조성 없이는 기독교 유아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많은 교회교육 연구들은 교회와 가정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존의 교회교육이 교회교육과 가정 그리고 사회(유아교육기관)의 분리가 현 교회교육의 문제점임을 지적한다(이정관, 2017; 박상진, 2009; 한만오, 2016). 기독교 교육은 본래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적 성숙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 일군으로 세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

독교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회에서 실행되는 교육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며, 의미 있는 환경으로서의 교회, 가정, 기관이 통합된 전체 기독교교육과정이 수립되어야 한다(박상진, 2009).

다시 언급하여,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기독교가 생겨난 이후 변한 적이 없다. 마찬가지로 제4차 산업혁명시기에도 동일하다. 세상의 빛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양성하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 혹은 비전 아래에서 내외적인 바탕을 견고하게 다짐으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먼저, 내적인 프레임으로 교회교육과정의 내용은 유아의 발달적 측면을 고려하고, 동시에 제4차 산업혁명의 현안을 반영하여 질적인 교회교육과정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외적 프레임으로서 유아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가정,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교회가 지휘할 때, 궁극적으로는 미래시대의 유아복음 전도 전략이 될 것이다.

## 2. 프로그램 활동 실제 예시

성경적 가르침을 기준으로 교회, 가정, 기관이 연계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영성, 인성, 지성을 갖춘 기독교 유아를 양성하는 전략을 예를 들어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 주제는 ‘성벽을 쌓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로서 특히, 느헤미야 2장과 3장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갔는지 다루는 본문이다.

### (1)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회학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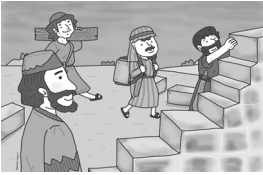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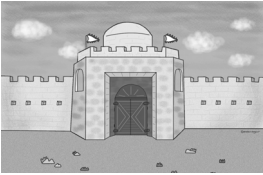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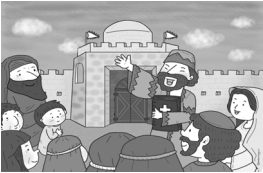
교회학교 예배 체계는 성경말씀 나눔과 이를 확장한 공과활동으로 구분된다. 기존의 교회학교 프로그램 체계를 유지하며 유아발달에 적합한 방식인 놀이중심 접근을 다음과 같이 통합할 수 있다.

#### ① 성경말씀 나눔

성경 말씀은 유아의 발달 체계에 적합하게 이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유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유아와 같은 경우,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친근한 소재를

이야기방식으로 들려줌으로서 유아의 동기를 유발하고 성경의 세계로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신동천, 2014).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 재건 사업은 다음과 같이 유아의 경험을 도입부에 소개하고, 유아에게 친숙한 이야기형태로 들려줄 수 있다 <Table 1>. 이는 유아가 성경적 세계관을 일상생활에 연결하도록 촉진한다.

Table 1 Storytelling of Bible story appropriate to child development

Orders	Scene	Contents
1		This is our cultural asset, Sungnyemun Gate. Another name is Namdaemun. Have you ever been there? What did you see and feel at that time? Sungnyemun was destroyed by enemy, and rebuilt later. Gate and its castle wall are valuable cultural assets which protected Seoul, a capital city of Korea.
2		There is a similar story in Jerusalem, a capital city of Israel. Nehemiah, a leader of Israel, and a story of people who built a city wall of Jerusalem. When an enemy invaded Jerusalem and destroyed a city wall of Jerusalem, Nehemiah shouted, "God is helping us, let's stand up and rebuild a city wall of Jerusalem!"
3		Nehemiah let people work near their homes. It was his thoughtful consideration that let people may be able to take care of his families easily and therefore to work with passion.
4		People could rebuild a city wall of Jerusalem in harmony, inspired by Nehemiah's encouragement and challenge. As a result, they could rebuild a city wall of Jerusalem within only 52 days.
5		After building a city wall of Jerusalem, Nehemiah read Bible passages on the purpose of letting the Israelites learn how to live with the Bible. The Israelites repented of their sins and promised to be obedient to God's words.

Adapted from Heo et al. (2017). Teaching Young Children through a Christian World-view. pp. 372-374. Seoul: Hakjisa.

② 공과활동

유아가 학습하는 방식인 놀이 중심 접근을 통해 흥미를 갖고 탐색하도록 한다. 유아는 놀이 속에서 놀이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상호작용기술을 배우며, 이러한 기술이 종합된 협업하는 방법을 습득해나간다. 또한 놀이 속에서 다양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는 가운데 창의적 문제해결능력도 신장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을 위해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재건 공사 중에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 쌓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한다. 이처럼, 성벽 재건 과정에서 봉착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느헤미야가 발휘하는 지혜와 기치는 유아의 협업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신장에 모본이 된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를 주관하여 성벽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유아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사고와 인성적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 이를 놀이중심의 공과구성으로 적용할 경우, 다음 <Table 2> ‘성벽 쌓기 놀이’로 구성할 수 있다.

Table 2 Activity example(I): Paly based curriculum embedding  
creativity · problem-solving · collaboration skills

Curriculum Activity: Building a castle wall		Related factors
Activity cont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Playing with defining areas, using paper cups(brick blocks or Lego blocks). (Play based)</li><li>• Cheering up children to build a castle wall in harmony, reminding of the specific Bible stories<ul style="list-style-type: none"><li>- Thinking of people’s mind who were building a castle of Jerusalem, inspired by Nehemiah. (Empathy/sympathy)</li><li>- How Nehemiah cared their people, who were building a castle of Jerusalem? (Leadership/ Interaction strategy)</li><li>- How can we make a castle wall strong? (Problem solving ability)</li><li>- How did you feel when you look at the completed castle wall? Could you think of God’s feeling? (Understanding of God/Empathy)</li></ul></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Character</li><li>○ Ability</li><li>○ Ability</li><li>○ Pious</li></ul>


<continued>



Curriculum Activity: Building a castle wall		Related factors
Guide for teach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et young children build a castle wall in harmony. (Collaboration)</li> <li>• Let older children build a castle wall, after autonomous discussion.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li> <li>• Teachers encourage young children when they build a castle wall. (Collaboration)</li> <li>• Discuss that building a castle wall was possible under God's guidance basically, the world of Bible was (God's guidance/ Christian world-view)</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aracter</li> <li>○ Ability</li> <li>○ Character</li> <li>○ Pious</li> </ul>
Activity pictures		

한편, 유아기 발달 과업인 협업하는 능력은 규칙 지키기, 놀이기술 익히기,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감정을 조절하기, 문제해결하기 등의 주요 유아기 사회정서 발달 과업과 인성요소를 종합적으로 구성한다.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쌓은 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것을 통해 유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약속과 규칙으로 정하여 실천해보도록 함으로서 경건과 인성적 가치를 연계해 볼 수 있다. 또한, 약속을 정하는 토론 과정에는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인 지성이 강조된다. 이를 놀이중심의 공과구성으로 적용할 경우, 다음 <Table 3>의 ‘약속 두루마리 책 만들기’ 활동으로 응용할 수 있다.

Table 3 Activity example(Ⅱ): Paly centered curriculum embedding creativity · problem-solving · collaboration skills

Curriculum activity: Making of a promise scroll book		Related factors
Activity cont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alk about the Bible story that the Israelites promised to be obedient to God's words after building a city wall of Jerusal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Israelites repented their sins and promised to be obedient to God's words after Nehemiah read Bible passages.</li> </ul> </li> <li>• Let young children write down their promises as God's children, seal fingerprints or sign their na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hat can you please God?</li> <li>- How can you understand what God please?</li> <li>- Let's make decision to behave according to God's words.</li> <li>- How can we keep our promises well?</li> <li>- Let's pray God to help us to be a child who may be able to please God.</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aracter</li> <li>○ Ability</li> <li>○ Character</li> <li>○ Pious</li> </ul>
Guide for teach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et young children understand in discussion that we should love Bible to know God's will.</li> <li>• Let young children understand how they can keep their promises with God in detail.</li> <li>• One possible example is as follows: After hanging a rule board on the wall, look at what you have promised; keep in mind with your fingerprint or sign your nam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aracter</li> <li>○ Ability</li> <li>○ Character</li> </ul>
Activity pictures		

### ③ 가정 연계

유아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 하며 성장·발달해나간다(Bronfenbrenner, 1992). 따라서 유아의 주요 환경인 가정과 기관에까지 배운 내용이 연계될 때 학습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유아기 신앙교육의 경우는 교회와 기관이 공통 교육과정을 사용하여 가정 양육에까지 연계시킬 때, 가장 효과적인 양육이 될 것이다. 동시에 부모

의 역량을 실제적으로 강화하여, 효과적으로 기독교적 양육을 가능하게 하여, 하나님 이 주신 부모로서의 소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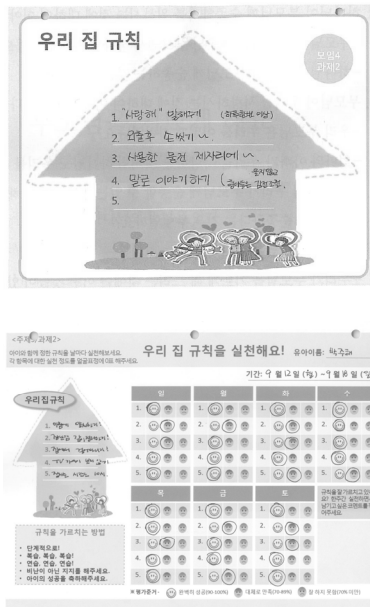
교회학교의 ‘성벽 쌓기 놀이’에서 배운 협업과 ‘약속 두루마리 책 만들기’에서 배운 약속(규칙)지키기 등의 가치는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안내할 수 있다<Table 4>. 다음 사례와 같이 ‘함께 집안일을 해요’와 같은 경우, 가족 구성원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규칙을 지키도록 함으로서, 그 가운데서 다양한 문제해결 요소와 인성적 요소를 배울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인성적 가치를 성경적 관점에서 생각해보며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해 나갈 수 있다.

Table 4 An example of Family linked activity

Make a house rule: Let's work together housekeeping		Related factors
Activity cont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lan housekeeping rule. Let's plan how the whole family can enjoy house cleaning helping together. Let's make house rule which can help us to enjoy house cleaning. Find where should be clean and identify what we can do.</li> <li>Encourage and praise each other, when you work together. ○○! our living room looks very clean when toys are put in the toy-box after play. Organizing clothes are always difficult. Do you want to fold clothes with your daddy? I think that you and your daddy can finish it really fast.</li> <li>Discuss that God will be greatly pleased when you help each other. The Israelites helped each other when they rebuilt a castle of Jerusalem. Likewise, we can finish our house cleaning happily while helping each other. God will be greatly pleased when we do. Let's help each other any tim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ility</li> <li>○ Character</li> <li>○ Pious</li> </ul>
Guide for par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aking rule process should be voluntary by all family members.</li> <li>Encourage to cooperate with others in preschool and church besides the home.</li> <li>Parents should serve as a Christian model, as helping each other is a valuable behavior in community as a Christia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aracter</li> <li>○ Pious</li> </ul>

<continued>

Activity pictures



#### Family rule board:

Make rule(s) which the whole family can follow.

This kind of rule board helps young children learn self-control and cooperation.

#### Rule checklist:

By monitoring how the rule is kept, you can make supportive environment which accommodates character competencies in your children.


### ④ 기관(기독교 유아교육기관) 연계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유아교육기관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수행한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 철학을 추구하는 유아교육기관과 같은 경우 기독교 교육활동은 유아교육과정과 통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하여 Knight(1989)는 기존의 교육과정에 성경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닌 성경이 기초가 되고 해석의 근거가 되는 성경적 통합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리에 근거하여 누리과정의 준거와 요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질적인 완성도를 갖춘 통합교육활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허계형 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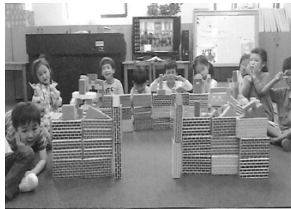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야기와 연관되는 누리과정의 생활주제로 ‘우리나라’를 들 수 있다. 현재 누리과정에서는 소주제인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에서 우리나라 문화재인 성벽과 관련된 활동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함으로써 성경적 통합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사례로 제시한 ‘성벽을 쌓아요.’ 활동은 교회학교 공과활동으로 수행한 성벽 쌓기 놀이와 동일하게 성경에 기초를 두고 수행하되 누리과정과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다<Table 5>. 유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독교 세계

관에 기초한 사고능력과 경건 습관을 형성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청하는 협업하는 인성,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등을 키워나간다.

Table 5 Christianity integrated education in children's home

Children's education facility: Let's build a castle wall(Building area)		Related factors
Integrated go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ave interests about a castle wall and understand the function of it.</li> <li>• Try to build a castle wall with friends, using various block materials.</li> <li>• Know God has protected our countr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ility</li> <li>○ Character</li> <li>○ Pious</li> </ul>
Nuri-curriculum go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ture exploration: mathematical exploration - knowing notions of space and figure</li> <li>• Social relationship: having interests about society - Having interests about our country and understanding it</li> <li>• Physical exercise/Health: physical control and basic exercis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ility</li> <li>○ Character</li> </ul>
Related Christianity charac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sponsibility: using own talents for neighbours or communities</li> <li>• Cooperation: cooperating with God's power</li> </ul>	○ Character
Activity contents	<p>&lt;Introduction&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how Bible story of Nehemiah.</li> <li>• Talk about why and how Nehemiah and his people did rebuild a wall of Jerusalem</li> </ul>  <p>&lt;Activity&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et's understand the functions of a castle wall, showing the 4 major gates' pictures in Korea.</li> <li>• Let's play building of a castle wall, after allocating his/her responsibilities.</li> <li>• Build a castle wall with friends, using various blocks and waste articl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ility</li> <li>○ Ability</li> <li>○ Character</li> </ul>

<continued>

Children's education facility: Let's build a castle wall(Building area)		Related factors
Activity contents	<Clos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hare feelings about the experiences of working together.</li> <li>• Discuss that God has protected our country by this castle wall.</li> </ul>	○ Pious
Guide for teach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et children discuss on the castle they are going to build. Encourage children to brainstorm how they can design and build stronger and more powerful castle together.</li> </ul>	○ Ability
Activity pictures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font-size: small;"> <span>[블록으로 성벽 쌓기]</span> <span>[찰흙으로 성벽 쌓기]</span> </div>	

Adapted from Heo et al. (2017). Teaching Young Children through a Christian World-view. pp. 396-399. Seoul: Hakjisa.

## V. 결론 및 제언

제4차 산업 혁명시대는 제1차-제3차까지의 산업혁명과 비교할 수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빠른 속도만큼이나 사람들의 삶에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4차 산업의 혁명적 영향중 기독교 유아교육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처할 방안을 모색하여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주체로서 필요한 기독교인 유아인재상의 적립을 시도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 많은 일들을 기계가 수행하게 된다 할지라도, 산업혁명의 주체는 여전히 인간이기에 기독교교육을 받는 유아가 가져야할 구체적인 인재상을 개념화한 것이다. 기독교 유아 인재상에 대한 개념적 기반위에 교회학교 교육이념으로 유아가 가져야 할 기독교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할 기독교 인재상 역량을 제시하기를 시도하였다. 교회교육을 통하여 성취하여야 할 기독교 유아 인재상은 경건한 유아(경건훈련, 기독교세계관적 사고훈련), 인성을 갖춘 유아(협업역량으로

언어와 습관에서 경건 배려 존중을 통한 의사소통의 기반을 형성), 지성 역량(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이 있는 유아로 성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파고 속에서도 보다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대처해나갈 기독교 유아 역량을 복음전도 전략과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둘째,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독교 유아역량 즉, 경건, 인성, 지성 역량을 축적해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경건역량은 기존 교회학교에서 강조되어 온 부분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유아기 발달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유아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유아흥미를 바탕으로 한 놀이중심의 유아 교회교육과정을 실행할 때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교회 는 균형 잡힌 기독교 인성을 교회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한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시대 요구하는 필수 인성역량을 교회와 가정, 보육시설을 연계하여 가르치고 확인하며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교회교육과정은 교회학교 프로그램과 가정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경교육과 함께 인성역량으로서 의사소통하고, 적절히 요청하고, 배려하는 다양한 협력을 위한 기술들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기독교 인재상으로서 유아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에 적절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해결방안을 창의적으로 고안하고, 분노조절을 포함한 자기조절을 연습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경건, 인성역량과 함께 지성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도 교회교육과정 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교회교육은 기독교 유아로 하여금 상황적 맥락의 변화에 민감하여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유능한 유아로 준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회학교 교육과정은 유아가 삶의 현장에서 유능한 인재가 되도록 기독교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독교 유아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한 경건, 인성, 지성 역량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적인 지원 방안으로서 교회-가정-기관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연계활동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였다. 일반적 발달과 연계되어 성장하는 유아의 신장적 발달은 주일 교회에서의 1시간 내외의 시간투여로는 실제적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 따라서 기독교 유아 인재상인 경건, 인성, 지성 역량을 교회-가정-기관의 연계교육을 통해 개별유아에게 실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유아 주변의 모든 환경이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검증된 실제로 나아갈 있도록 하는 지원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실천하는 기독교유아 양성 교회교육 토양마련을 위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혁신방안은 교회교육의 역할과 책임의 재설정에 있다. 바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교회가 갖는 것이다. 그것은 기존과 같이, 교회역할을 경건 역량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과 지성역량을 갖춘 하나님 나라의 준비된 인재 양성, 즉, 하나님 나라의 인재가 미래시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회교육을 가정과 기관에까지 연계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시대적 요구를 함의하는 기독교 인재상이라는 통합적이고 균형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교육만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세상 속에서 건강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신앙교육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회와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회학교-가정-기관으로 연계되는 통합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교회학교는 그 지원동력이 가정을 넘어 기관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이 연계 모델의 허브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가정에서의 양육이 신앙적인 토대 위에서 구축되어야지만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더욱 빠르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명확히 분별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는 것은 모든 가르치는 자의 사명일 것이다. 교회학교 중심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연계 체계와 협력 모델은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심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자원을 활용하여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과학기술부 · 보건복지부 (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교육과학기술부 · 보건복지부.
-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Guideline for NURI Curriculum for 3-5 years old*.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권미균 · 김정민 · 최형성 역 (2016). Kail, R. V. (2014). **아동과 발달**. 서울: 시그마프레스.
- [Kwon, M. K., Kim, J. M., Choi, H. S. (2016). Children and Their Development. Seoul: Sigma Press. Trans. Kail, R. V. (2014). *Children and their Development*. Pearson.]
- 김광열 (2012). 총체적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본 성화론. **조직신학연구**, 16, 30-57.
- [Kim, K.Y. (2012). A study on the Doctrine of Sanct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Holistic Gospel.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16, 30-57.]
- 김경진 (2014). 하나님 나라로서의 복음이해. 9, 7-33.
- [Kim, K. J. (2014). An understanding the Gospel of Jesus Christ in terms of the kingdom of God. *Life and Word*, 9, 7-33.]
- 김지영 (2017). 4차 산업혁명시대의 유아교육: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49-58.
- [Kim, J. Y. (2017).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What to consider? *2017 Spring Conference material of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49-58.]
- 김진하 (2017).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 **R & D. INI**, 15, 48-58.
- [Kim, J. H. (2017). Finding strategies to future society changes. *R & D. INI*, 15, 48-58.]
- 박병원 (2016).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와 제4차 산업혁명. **미래연구포커스**, 4-5.
- [Park, B. W.. (2016).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ics, big data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uture Research Focus*, 4-5.]
- 박상진 (2009). 한국교회교육 위기극복을 위한 기독교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교회, 가정, 학교의 연계를 통한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20, 53-83.
- [Park, S. J.(2009). A New Paradigm of Christian Education for Solving the Problem of the Crisis of Church Education in Korea: Connecting Church, Family, and School. *Christian Education*, 20, 53-83.]

- 신동천 (2014). 내러티브 성경교수법 연구. **신학지평**, 27, 315-342.
- [Shin, D. C. (2014). A study on the narrative bible teaching method. *Theology Horizon*, 27, 315-342.]
- 이경민 (2017). 새로운 시대 인재상의 유아교육적 함의: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혁명 담론의 비판적 분석을 통한 유아 교육적 함의. **유아교육연구**, 37(3), 137-156.
- [Lee, K. M. (2017) Discourse analysis on core competencies in the age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happiness educatio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7(4), 137-155.]
- 이신혜 (2015). 유아·유치부: 부모 알(知)통 자녀 필(feel)통: 신앙, 삶 속에서 함께 공유하는 선물. **교육교회**, 450, 168-169.
- [Lee, S. H. (2015). Church school for young children: Faith-gift to share in life. *Educational Church*, 450, 168-169.]
- 이종길 (2017).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유아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인문사회**, 21(8), 507-533.
- [Lee, J. K. (2017). Development of universal design education program for creative character educati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8), 507-533.]
- 이정관 (2017).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세우기 위한 기독교교육적 돌봄. **기독교교육논총**, 44, 177-206.
- [Lee, J. K. (2017). Christian education to strengthen healthy christian families. *Christian Education*, 44, 177-206.]
- 장명림 (2017). 4차 산업혁명시대 유아교육과정의 방향과 과제. **한국영유아교육원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61-79.
- [Jang, M. R. (2017). Direction and tasks of early childhood curriculum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17 Spring Conference material of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61-79.]
- 장화선 (2015). 우리나라 교회교육의 회복을 위한 방안: 어린이 및 청소년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75, 259-283.
- [Jang, H.S. (2015). Strategies of restoring church education in Korea focused on children and youth education. *Bible and Theology*, 75, 259-283.]
- 총회교육진흥국 (2017).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한국교회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교회교육 분석**. 예장합동총회.
- [Chong-Hoe Educational Promotion Bureau (2017). *An analysis of church education for establishing future strategy of Korean church celebrating the 500th anniversary*

*of the reformation*. Ye Jang Joint Bureau.]

한만오 (2016). 한국 교회학교 교사의 실태조사에 따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4(1), 25-31.

[Han, M. H. (2016).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 survey on the teachers in church schools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 25-31.]

허계형 · 손병덕 · 김남임 · 김소희 · 마은희 (2017). **기독교세계관으로 가르치는 유아교육과정**. 학지사.

[Heo, K. H., Sohn, B. D., Kim, N. I., Kim, S. H., & Ma, E. H. (2017). *Teaching Young Children through a Christian World-view*. Seoul: Hakjisa.]

연합신문(2017.1.22.). “스마트폰 없이 못사는 대한민국”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1/0200000000AKR20170121025600017.HTML>

[Yeon-hap Newspaper(2017.1.22.). *Korean can't live without smart phone*.]

한겨레신문(2017.4.3.). **영유아기 동영상 과다노출 뇌 균형 발달 지장**.

<http://www.hani.co.kr/arti/PRINT/789118.html>

[Hankyoreh Newspaper(2017.4.3.). Video overexposure during years has a detrimental effect on brain balance development.

<http://www.hani.co.kr/arti/PRINT/789118.html>]

Berk, L. E. (2011). *Infants and Children* (7th ed.). Boston: Allyn & Bacon.

Bronfenbrenner, U.(1992). Ecological systems theory. In R. Vasta (Ed), *Six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Revised formulations and current issues*(187-249). Philadelphia: Jessica Kingsley.

Piaget, J.(1929). *The child's conception of the worl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논문초록

##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기독교 유아양성 교회교육 실천방안 연구

허계형 (충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기독교 유아양성을 위한 교회교육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주체로서의 기독교인 유아 인재상에 대한 개념적 적립을 시도하였다. 또한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할 기독교 인재상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탐색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기독교 유아 인재상은 경건, 인성, 지적 역량을 균형적으로 갖춘 세상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 유아를 의미하였다. 둘째, 제4차 산업혁명시대 기독교 유아역량인 경건, 인성, 지성 역량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경건한 유아로서 기독교세계관으로 사고하고 행동 하는 역량, 경청, 배려, 존중, 열린 마음이 있는 소통 능력의 인성역량,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유능성을 갖춘 지성 역량을 의미하였다. 셋째, 기독교 유아 인재상 구현을 위한 교회-가정-기관 연계의 필요성과 활동실제 예를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유아전도 혁신방안에 대한 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요약하였다.

주제어 : 교회교육, 제4차 산업 혁명, 인재상, 경건역량, 인성역량, 지성역량

## 편집위원회 규정

2001년 1월 28일 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1년 8월 19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칙 제6장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은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 (1)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년 4회 발행한다.
- (2)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 (3) 『신앙과 학문』의 투고, 심사, 발행 등 편집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의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2장 편집위원 구성

제4조 편집위원회는 전공과 지역을 고려하여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을 둔다.

제5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질병이나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장은 전공과 기독교 학문에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5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 (3)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 경험이 있는 자
- (4) 최근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10편, SSCI급 국제저널에 5편 이상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 (5)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경우 (최근 10년 동안 SSCI급 국제저널에 20편 이상 논문을 게재) 1개 이상의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편집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 즉 편집위원의 위촉, 학회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혹은 해당분야에 있어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3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 (3) 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5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 (4) 1개 이하의 다른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 단,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경우 1개 이상의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3장 기능

제9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의 체제,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나 투고자와 관련된 연구윤리규정을 지켜야 하며,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정당한 이의제기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12조 위 제9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이사회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제4장 편집회의

제13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시기와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 편집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 제5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6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7조 논문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8조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                        |
|--------------------------------------|------------------------|
|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 · 적절성, |
| (3) 결과의 학문적 · 사회적 기여도,               | (4) 연구방법의 적절성,         |
|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 (6) 문장기술 · 용어 사용의 명료성, |
| (7) 각주 · 인용 · 참고문헌 · 국문 및 영문 초록의 정확성 |                        |

제19조 종합 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평가한다.

제20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 (1) 접수: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회원과 공동연구를 한 자 및 초청된 기고자도 예외 없이 정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의 접수는 수시로 하며, 게재순서는 논문투고순서 (즉, 논문번호의 순서)로 결정한다.
- (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전공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 3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심사는 투고 이후 3주 내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 (3)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그 판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린다. 특히, 수정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가. 게재가: 수정 사항이 없거나 아주 사소한 수정 후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

나. 수정 후 게재가: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의 핵심내용과는 무관하거나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논문.

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어 반드시 수정이 요구되고, 그것의 수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논문.

라.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 (4) 1차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심사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교정을 의뢰한다.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논평을 첨부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 (5) 2차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자에게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나누어 통보해준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6) 심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1<심사규정 세칙>에 따른다.

## 제6장 부칙

- 제21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200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
- 제23조 본 1차 개정된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 제24조 본 2차 개정된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 제25조 본 34차 개정된 규정은 2014년 1월 20일부터 발효한다.
- 제26조 부록 #1: 「신앙과 학문」 학술지 논문 심사규정. 끝.



## 「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회지 발간규정 제3조 및 제 19조에 의거하여 「신앙과 학문」 학술지 투고논문 심사규정세칙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심사판정기준)

(1)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 1 심사자	제 2 심사자	제 3 심사자	종합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능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능 (수정요구)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6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8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10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11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3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4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6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보류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단)**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학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5조(원고접수)** 원고의 접수는 수시로 한다.

**제6조(심사를 위한 서식)**

(1) 「신앙과 학문」 제( )권( )호 논문심사서 : 서식 가

(2) 「신앙과 학문」 제( )권( )호 논문심사로 신청서 : 서식 나

**제7조(개정된 논문심사규정)** 개정된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규정은 2012년 4월 6일부터 적용한다.

서식 가

##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의견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 부문별 평가: 다음 칸에 표기(v 또는 x)를 하세요.

평가항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 부족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 · 적절성					
3) 결과의 학문적 · 사회적 기여도					
4) 연구방법의 적절성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6) 문장기술 · 용어 사용의 명료성					
7) 각주 · 인용 · 참고문헌 · 논문초록의 정확성					
최종평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 심사의견서 (수정보완 요구서 또는 게재불가 사유서)는 다음의 별도 페이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 심사의견서:

\* 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심사의견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지시사항의 경우 논문내 구체적인 페이지와 함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게재불가의 경우는 왜 게재가 불가한지를 상세하게 서술하여 주시고, 저자로 하여금 건설적인 수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주세요.

### ◆ 논문주요내용:

### ◆ 수정지시사항 (게재불가 이유 포함):

서식 나

논문심사료 신청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신앙과 학문』에 투고된 상기 논문심사에 대한 심사료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심사위원	성 명	(인)	소 속	
	Email		휴대전화	
	심사일			
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 『신앙과 학문』 투고 규정

2003년 1월 1일 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1. 논문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2. 저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논문은 본 학술지 심사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창의성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 3) 타인의 저작물 표절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것, 즉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저술의 내용을 인용 혹은 각주 등 명백한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고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위조 혹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 즉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한다.
  - 5) 참고문헌과 각주에 대한 본 투고규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예 : 본문 인용 시 APA방식 사용 - 투고규정 7~9 참조, 각주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자료출처를 밝히는 것은 금한다.]
3.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투고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 뒤에 기재된 저자는 공저자로 간주한다. 단,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신저자를 표기한다.

- 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연구책임자,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여야 하며, 공저자는 연구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직접 기여한 자여야 한다. 연구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자가 주저자 혹은 공저자가 되는 것을 금한다.
- 3) ‘신앙과 학문’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있으며, 저자가 게재된 논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 지명의 경우 처음 표기는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명기하며, 그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6. 논문 제출 시 원칙상 영문으로 된 ‘ABSTRACT’와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을 포함해야 하며, ‘ABSTRACT’를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한다.
  - ① ‘ABSTRACT’는 논문제목과 저자명(영문) 밑에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ABSTRACT’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연구내용, Key Words를 포함해야 한다. 제목의 첫 단어와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예, The Educational Meaning of Love), ‘Key Words’는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alternative education, Christian worldview). 투고자의 이름은 유재봉(Jae-Bong Yoo)으로, 소속은 각주 내 성균관대학교 교수(Sungkyunkwan University)로 표시한다. 각주에는 소속기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첨부한다.
  - ②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500자 내외로 작성하며, 5단어 내외의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과 ABSTRACT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위임을 받아 ABSTRACT를 국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7.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편집 규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용지종류 및 여백설정: 용지설정 A4, 여백은 왼쪽 33, 오른쪽 33, 위쪽 33, 아래쪽 33, 머리말 12, 꼬리말 12
  - 2) 논문제목: 휴먼고딕, 글자크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 3) 연구자 및 소속: 신명조, 글자크기 11, 오른쪽 정렬

- 4) 요약: 제목은 휴먼고딕, 글자크기 9, 줄 간격 150, 가운데정렬  
 요약본문: 신명조, 크기 9,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 5) 본문 글꼴 설정: 신명조 10, 들여쓰기 10,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 6) 각주: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왼쪽여백 4, 내어쓰기 3, 줄 간격 150
  - 7) 긴 인용: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여백주기 오른쪽 5, 왼쪽 5
  - 8) 참고문헌: 휴먼고딕, 글자크기 12, 진하게, 가운데 정렬  
 목록내용: 신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95%, 자간-4%, 여백주기: 왼쪽 8, 내어쓰기 7, 줄 간격 130
8.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 1) 본문 소제목: 본문의 구분은 장(章), 절(節), 항(項) 순으로 배열한다.  
 장은 ‘Ⅰ, Ⅱ, Ⅲ, ...’의 순으로, 절은 ‘1, 2, 3, ...’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세분화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③, ...’, ‘i), ii), iii), ...’을 따른다.
  - 2) 논문 작성 시 참고한 내용이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 ① 본문 내 직접인용일 경우 큰따옴표(“ ”)를 사용하며, 본문의 인용은 APA 방식으로 한다.  
 예) 화이트헤드(Whitehead, 1932: 23)에 의하면,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혹은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Whitehead, 1932: 23).”
    - ② 간접인용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조하였을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출처를 밝힌다. ...(Parshall, 2003:23)
    - ③ 3줄이 넘는 긴 인용 시 인용문 앞뒤에 한 줄씩 띄워 큰따옴표 없이 왼쪽 들여쓰기로 별도의 문단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④ 두 자료 이상을 참고 하였을 때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김철수, 2007: 12; 박명순, 2009: 217)
    - ⑤ 강조문은 따옴표( ’ )를 사용한다.
    - ⑥ 성경 인용의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 1).”, 혹은 (창 1:1)
    - ⑦ 2인의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희계 · 이희계, 2009: 217-218; Kim and



Lee, 2008: 20)

- ⑧ 3인 이상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철학 외, 2010: 12; Smith et al., 2005: 50)
- ⑨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저술 인용의 경우: (이윤리, 2007a: 18; 2007b: 27)
- 3) 각주는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은 각주에 표기하지 않고 본문에 넣는다.
- 4) 그림과 표 제시: 모든 그림(사진)과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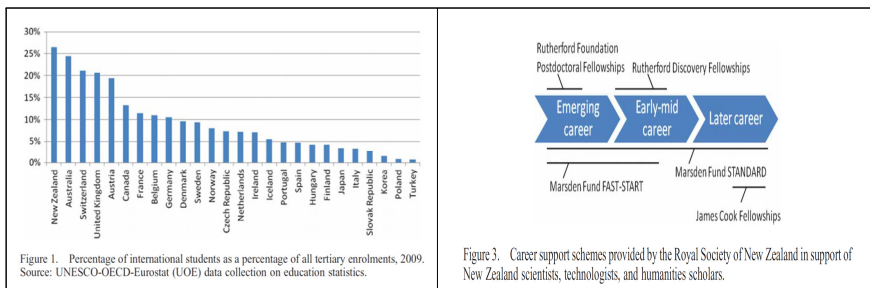
#### (1) 그림(사진) 제시 방법

- ① 그림을 일련번호를 붙이되,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Figure 1.1, Figur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제목은 하단 중간에 제시한다.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Figure 1. Percentage of international students as a percentage of all tertiary enrolments, 2009. Source: UNESCO-OECD-Eurostat (UOE) data collection on education statistics.

(예) Figure 3. Career support schemes provided by the Royal Society of New Zealand in support of New Zealand scientists, technologists, and humanities scholars.

- ② 제시한 그림의 출처가 있는 경우 그림 아래에 그 출처를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한다.
- ③ 그림(사진)을 본문에 인용할 때는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표시한다.



#### (2) 표 제시방법

- ①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표의 번호는 Table 1, Table 2 등의 일련

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Table 1.1, Tabl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표 제목은 상단 왼쪽에 제시한다. 표는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예)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 ② 표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Table 1 으로 표시한다.
- ③ Table의 크기가 한 면보다 클 경우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가급적 인쇄 후 한 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Table이 다른 쪽이나 다른 Table로 이어지는 경우는 끝에 “continued”를 표기한다.
- ④ Table 밑에 각주(footnote)를 달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아라비아 숫자 1), 2), 3)으로 나타낸다. \*, \*\*, \*\*\* 표시는 통계분석의 유의확률이  $p < 0.05$ 나  $p < 0.01$ ,  $p < 0.001$ 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며,  $p$ 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다중범위 검정에서는 a, b, c, d 등을 사용하고 표 하단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Study 1	Study 2		Statistical comparisons	
	N = 152	Intervention N = 58	Control N = 58	Study 2 Intervention-control	Study 1 – Study 2
Age range of children in months (M-SD)	48-96 (74.32-12.65)	44-94 (68.18-11.72)	40-96 (71.71-13.50)	$t(114) = 1.50, p > .01$	$t(266) = 2.82, p < .01$
Age range of mothers in years (M-SD)	24-51 (35.95-5.55)	24-45 (34.86-4.17)	27-48 (36.92-5.38)	$t(114) = 2.30, p > .01$	$t(266) = .09, p > .01$
Age range of fathers in years (M-SD)	25-57 (38.02-6.26)	27-47 (36.87-4.46)	26-53 (39.21-6.97)	$t(114) = 2.12, p > .01$	$t(266) = -.01, p > .01$
Gender (% boys)	52	32.2	40.4	$\chi^2(1) = .83, p > .01$	$\chi^2(1) = 7.15, p < .01$
Mo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57 (.72)	2.75 (.68)	2.66 (.69)	$t(114) = -.72, p > .01$	$t(266) = -1.52, p > .01$
Fa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39 (.85)	2.57 (.73)	2.36 (.82)	$t(114) = -1.46, p > .01$	$t(266) = -.79, p > .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Pre-test M (SD)	Post-test M (SD)	<i>t</i> (151)	<i>r</i>	<i>d</i>
<i>Mothers' report</i>					
Support	4.22 (.34)	4.26 (.34)	-2.05*	.69	.15
Control	2.34 (.40)	2.28 (.39)	2.91**	.82	.25
Self-efficacy	4.12 (.36)	4.10 (.38)	1.14	.78	
<i>Fathers' report</i>					
Support	3.97 (.45)	3.96 (.43)	-.35	.76	
Control	2.34 (.35)	2.29 (.37)	2.28*	.65	.17
Self-efficacy	3.99 (.41)	4.03 (.39)	-1.94*	.80	.16
<i>Children's report</i>					
Support	3.69 (.49)	3.79 (.57)	-2.58**	.63	.22
Control	2.65 (.60)	2.49 (.62)	4.45***	.74	.36

\*  $p < .05$ ; \*\*  $p < .01$

9. 참고문헌의 출처는 반드시 본문의 출처와 일치해야 하며, 참고문헌 작성은 원전, 한국 문헌, 중국문헌, 일본문헌, 서양문헌, 인터넷 등 기타문헌 순으로 하며, 가나다/ABC순으로 정렬한다. 책이나 잡지명 영어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글 제목은 진하게 표기한다.

1)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Marsden, G. E.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② 번역서:

Meargham, P. (1984). *Wit: Its Meaning*. Trans. George Playe. Boston: Smith.

③ 정기간행물:

Todd, S. and G. Haydon (2001). Guilt, suffering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4), 597-614.

④ 편저:

Bloom, B. S. (Ed.)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New York: David McKay.

Oakeshott, M. (1989). A place of learning. in Fuller, T. (Ed.) (1989).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⑤ 2판 이상의 문헌:

Weimer, D. and A. Vining (1992).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⑥ 석·박사 학위논문: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⑦ 연구보고서:

Lee, H. Y. et al.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⑧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Title", 00II-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⑨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⑩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10(1), 231-256.

2) 영문 외 참고문헌은 해당 언어와 영문을 병기한다.

① 단행본:

손봉호 (1994). **고통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Sohn, B. H. (1994). *Human in Pai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② 정기간행물:

유재봉 (2016). 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교육철학연구**, 38(3), 99-119.

[Yoo, J. B. (2016). School education for humanity: problems and directions. *The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8(3), 99-119.]

③ 편저:

박준언. (2005). 이중 언어이론과 영어 교육. 황적륜 (편저). **현대 영어 교육의 이**

**해와 전망** (pp. 270-295).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ark, J. U. (2005). Bi-Lingual Language and English Education. In Hwang, J. L., Acock, K. R. & Park, J. U. (Eds.). *Source Book of Family Theory and Research* (pp. 270-295).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④ 석·박사 학위논문:

이광희 (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⑤ 연구보고서:

이혜영 외 (2008). **미래학교 모형 탐색연구**. 한국교육개발원.

[Lee, H. Y. et al.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⑥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00일보 2010. 3. 3일자 5면. “기사제목.”

<http://www.dfes.gov.uk/achievinguccess>. (검색일 2005.11.11)

[“Title”, 00Il-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⑦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⑧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손병덕 (2012a).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손병덕 (2012b). 아동의 권리침해현황. **한국범죄학**, 6(2), 157-184.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6(2), 157-184.]

⑨ 번역서: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 학지사.

[Cho, H. S., Jung, S. W., Kim, J. S. & Kwon, J. S. (200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eoul: Hakjisa, Trans.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LA/London/New Dehl/Singapore/Washington DC: SAGE]

10. 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 : 논문 투고자는 투고 시 7만원의 심사료(영문논문 심사료 10만원)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가능’으로 통보받은 투고자는 게재료 3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는 4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의 결과는 투고 후 3주 이내에 1차 심사 결과가 게재 신청자에게 통지가 되어야 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38720101-145158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기학연)〉

11. 원고량은 위에 제시된 편집 규격에 따른 편집된 매수로 원칙상 20쪽 이내로 하되, 최종 편집된 논문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20쪽 이상의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조판비(두 쪽 당 15,000원)를 부담해야 한다.

12. 원고 제출처 :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

문의전화: 02-3272-4967 (사무실)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장 이메일: faithscholar@naver.com

주소 : 08807 서울시 관악구 과천대로 939 B107호

13.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4차례 발간하며, 투고자는 통상 발간 2개월 전까지 한글 97이상으로 작성하여 직접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를 통해 신청접수 한다.

14.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15.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항 3절과 3절은 2008년 6월 1부터 적용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1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2007년 7월 1일 제정

2016년 4월 1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항. 이 규정은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술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학회와 기독교학자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항.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들을 수행한다.

제1항.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2항.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3항.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4항. 조사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5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당연직인 위원장은 연구부회장이, 부위원장은 학술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편집위원과 해당 연구윤리 심사에 적합한 학회 내외 인사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편집위원을 포함한 학회 임원들 중에서 지명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항. 조사대상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위원으로 구성 또는 위촉될 수 없다.

#### 제5조(조사 및 회의)

제1항. 조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위원장은 조사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2항.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사와 관련한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외, 별도의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제4항. 조사와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제1항.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항.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 제3장 연구윤리 위반 조사

#### 제7조(부정행위 제보, 접수, 조사)

제1항.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으로 부정행위 의심자와 그 관련 내용과 증거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과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제2항. 논문과 함께 제출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https://check.kci.go.kr/>)에서 10% 이상 유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유사도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학회 사무국에 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거나 포괄적인 유사도검증 결과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사무국은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관련 사항을 〈부정행위 제보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에게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다.

제4항. 해당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여부는 사무국의 보고가 있는 지 15일 이내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집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반에 따라 결정한다. 편집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편집위원 과반 미만이 찬성하면 제보는 반려되고 반려 이유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보자에게 전달한다.

제5항.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 및 연구 집단을 연구부정행위 대상으로 제보한 경우, 학회는 제보자에게 회원자격 박탈, 정지, 제한 또는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제8조(용어)

제1항.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행한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7조 2항부터 8항까지를 말한다.

제2항.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항. “변조”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항.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이미 게재한 연구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자기표절).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게재한 연구를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이중게재).

제5항.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저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6항. “저자 표시 누락”이란 논문에 논문저자 자격이 있음에도 누락시킨 행위를 말한다.

제7항. “이중 투고”란 동일한 연구를 우리 학회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학회지에 투고하여 두 학회지 이상에서 게재 판정을 받고 우리 학회지에 게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항. “기타 연구부정행위”란 제8조 제2항부터 제7항 외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항. 학회 연구부정행위 규정 외에 더욱 세부적인 규정은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5. 11. 3)”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2015. 5월)”를 참조하고 따를 수 있다.

####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 자료를 압수, 보관 할 수 있다.

#### 제10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노출해서는 안 된다.

제2항.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공표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3항.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의 일체 사항은 비밀이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자들은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기피, 제척)

제1항.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에게 검증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검증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기피신청을 인정할 경우 해당 위원은 검증 과정에서 배제된다.

제2항. 위원장이 조사 과정 중에 위원 중 해당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위원의 위원 자격이 정지할 수 있다.

## 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 보장)

제1항. 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제13조(판정)

제1항. 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판정을 내린다.

제2항.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4장 후속 조치

### 제14조(제재)

제1항.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① 해당 논문에 대해서 게재를 불허한다.
- ② 기 게재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관련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공지한다.
- ③ 학회 회원 및 본 학회와 관련한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④ 경중에 따라 회원 자격을 1년에서 5년까지 정지, 영구적 박탈, 민형사상 법적 조치한다.
- ⑤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경미하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는 주의, 경고, 공개사과 조치를 취한다.

### 제15조(결과 통지)

제1항.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6조(재조사)

제1항.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명예회복)

제1항.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1항. 검증과 관련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2항. 판정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부칙]

제19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기독교학문연구회

<b>회 장</b>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b>편집위원장</b>	손병덕 (충신대학교)
<b>부 회 장</b>	문석윤 (경희대학교)	<b>편집위원</b>	김철수 (조선대학교)
	이호선 (국민대학교)		손창민 (부산대학교)
<b>감 사</b>	류현모 (서울대학교)		우종학 (서울대학교)
	임춘택 (경남대학교)		이경직 (백석대학교)
<b>총 무</b>	이상무 (평택대학교)		이상무 (평택대학교)
<b>학회이사</b>	강영안 (서강대학교)		방명애 (우석대학교)
	권태경 (충신대학교)		현은자 (성균관대학교)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현창기 (한동대학교)
	김승욱 (중앙대학교)		Paul Lim (Vanderbilt University, 미국)
	김홍섭 (인천대학교)		Sungmin Chun (VIEW, 캐나다)
	박신현 (고신대학교)		
	박영주 (은혜샘물학교)		
	서성록 (안동대학교)		
	송태현 (이화여자대학교)		
	양성만 (우석대학교)		
	윤원철 (카이스트)		
	장수영 (포항공과대학교)		
	정희영 (충신대학교)		
	조무성 (고려대학교)		
	조성표 (경북대학교)		
	황호찬 (세종대학교)		
<b>연구윤리위원장</b>	문석윤 (경희대학교)		
<b>연구윤리위원</b>	이호선 (국민대학교)		
	손병덕 (충신대학교)		



**신앙과 학문** 제22권 제4호 (통권 73권), 2017년 12월호

---

발행일/ 2017년 12월 31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편집인/ 손병덕 (총신대학교)

인쇄/ 진흥인쇄랜드

등록/ 문화 바02789

주소/ 08807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939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